

믿음에 관한 종교-사회학 논고

Essays on the Sociology of Belief

이윤모 지음 (by Yoon Mo Lee)

Chicago



한인사회연구원
Hansa Institute

믿음에 관한 종교-사회학 논고

Essays on the Sociology of belief

이윤모 지음 (by Yoon Mo Lee)

이화식 (edited by Fah S. Lee)

한인사회연구원

Hansa Institute

Essays on the Sociology of Belief

by Yoon Mo Lee (이윤모)
Editor: Fah S. Lee (이화식)

Published Date : June 6, 2020
Published by Hansa Institute, Chicago, IL, USA
Copyright © 2020 HANSA Institute, Chicago, IL, USA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rmation

Hansa Institute (한인사회연구원)
<http://hansainstitute.org>
hansainstitute@gmail.com
Chicago, IL, USA

Cover Design by Gen Y. Kim
Printed by Only1Printers

ISBN 978-1-7352877-0-6

Contents

편집자의 글	8
발행사	9
소개하는 글	11

제 1 부 믿음과 신앙 21

1장. 신념의 본질과 기능 23

1. 믿음(belief)이란 무엇인가? 23
2. 신념형성과 신앙화 27
3. 신념과 신앙을 구분할 필요성 29
4. 신앙의 측정 척도 30
- 5 한국 민족의 신앙 편향성 31

2장. 신념의 발생과 형성 기제 33

1. 신념의 발생과정 33
2. 신념들의 계층 34
3. 신념의 발생 과정별 유형 42
4. 신념들 간의 소통과 신념의 강도 45

3장. 신념의 기능적 면모들 48

1. 신념의 확증성과 강도 48
2. 신념의 안정성(stabilization)-고착성(crystalization) 49

4장. 신념의 활성화 51

1. 신념과 태도, 그리고 행위 유발 53
2. 신념의 상호 일치성과 공조 잠재성 53
3. 신념의 일치성과 비일치성 (Congruity vs. incongruity) 55
4. 공조 행위의 전제 조건으로서 신념 57
5. 신뢰와 공조 관계 57
6. 신뢰와 코드 정치 58

5장. 신앙의 본질과 성장 61

1. 신앙의 본질 61
2. 신앙 정체성의 3가지 유형 62

- 3. 이미지로서의 신앙 64
- 4. 고비용 신호인 종교적 의례 69
- 5. 종교화와 광신, 열광 76

6장 신앙화의 과정 86

- 1. 믿음의 사회학적 의미 87
- 2. 신앙화를 설명하기 위해 가능한 가설 89
- 3. 신념행위의 세 가지 변수 90
- 4. 신념의 조건 92
- 5. 심리적 총체로서의 신념 93
- 6. 신념의 근원 94
- 7. 신념에 대한 판단 97
- 8. 신념 표현의 유동성 97
- 9. 신념과 가치 98
- 10. 신념과 도박 113
- 11. 의례행위와 신앙의 사회학적 유대 114

7 장 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118

- 1. 정돈의식과 하나님 118
- 2. 영혼에 관한 놀라운 가설 123
- 3. 영혼의 탐색과 과학과의 대화 129
- 4. 영성으로의 초대 142

제 2 부 신념의 여러 단면들 153

1장 신념의 정의와 분류 155

- 1. 신념(Belief)이란 무엇인가? 155
- 2. 신념의 형성과 유형 156
- 3. 신념의 형태적 특질들 158
- 4. 신념의 변환 160
- 5. 추론 오류와 허구신념 162

2장 태도, 의견, 신념의 개념 167

- 1. 이념 대립의 원인 167
- 2. 의견, 태도, 신념의 안정성과 변환 174

3장 신념의 구조	178
1. 핵심 신념의 형성	180
2. 핵심 신념의 보전	180
4장 신념의 형성과 갈등	181
1. 신념의 발생과 변화	181
2. 유기체는 신념을 필요로 한다.	185
3. 인간의 요구계층과 이념 갈등 유형	187
5장 신념의 체계	191
1. 신념의 기능	191
2. 신념의 다이나믹	195
3. 역할 기대와 신념	204
6장 립튼의 신념 생리학	208
1. 신념의 생리학	208
2. 잠재의식/의식적 마음과 신념의 차이	212
3. 뇌파의 조율과 공진	213
7장 신념의 가치	216
1. 요구-가치와 신념	216
2. 가치와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사이의 다이나믹	220
3. 가치의 형성과 발전	229
4. 가치와 신념의 연합	233
5. 올바른 사회를 향해:	239
8장 신념과 태도의 정서적 기반	243
1. 조건반사의 보편화	243
2. 의미에 대한 조건 반사	244
3. 정서 조건 반응의 배제: 소멸	245
4. 인지의 불일치성	247
5. 자기 인식에 의한 피암시적 측면	250
6. 허위 자백 속에 신념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	250
9장 신념과 의례적 행위	252
1. 신념과 의례적 행위	252
2. 미신적 의례 행위	254
3. 도박과 미신적 신념	256

4. 도박성 행위에 개제되는 미신적 신념 기능들	257
5. 종교-정치 행위의 도박성	258
10장 착오신념의 긍정적 기능	261
1. 착오신념에 대한 논평	261
2. 신념은 혜택을 위한 상상에서 진화됐다	264
3. 인지와 추론의 오류도 신념의 근원이 된다.	266
4. 기억을 왜곡한 착오신념	267
5. 기억 환상이나 기억 왜곡에 관한 연구들	268
6. 협동 책임을 약속하는 장치로서의 신념	272
7. 책무장치로서의 이념	274
8. 증거 없는 신념도 사실일 수 있다	275
9. 경제정책 영역에서의 혼란은 긍정적 환상	278
10.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착오신념	279
11장. 착오신념의 부정적 결과	283
1. 긍정적 착오신념의 부정적 결과	283
2. 대인관계에서의 신뢰의 지표	288
3. 혜택과 대가의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착오신념	292
4. 착오신념이 허구적 환상은 아니다	298
12장. 사람의 환상은 어떻게 발생하나?	299
1. 환상발생은 인지의 착오와 왜곡으로	299
2. 환상은 심리적 비용절감을 위해 발생	300
13장. 인지 편향성이 발생하는 원인	302
1. 확인 편향성의 문제	302
2. 동기가 사고를 편향시키는 문제	305
3. 목적 지향 동기 외의 확인 편향 요인	310
4. 기억의 확인 편향성의 특징	315
5. 교육 경쟁은 반사적 편향의 결과인가	316
14장. 원인과 유형의 다양성	318
1. 정상적 기능에서도 발생하는 착오신념	318
2. 학습 기제 장애로 발생하는 착오신념	319
3. 보상이 없는 착오신념도 있다	320
15장. 신념에 대한 사회학적 결론	322

1. 신념은 소통을 통해 습득	322
2. 환상, 기억, 신념의 순환고리	324
3. 신념에 대한 다른 주장들	327
4. 문화에 의한 자기해석:	333

제 3 부 믿음, 신념의 본질 335

1. 정보와 수단으로써의 믿음	337
2. 핵심적인 신념과 연계된 신념들	340
3. 신념의 위계적 순위	342
4. 신념의 구조와 강도	343
5. 신념의 질적 측면	344
6. 신념의 상호 일치성	344
7. 신념의 유사성	345
8. 신념과 신뢰의 과정	346
9. 신념의 활성화	347
10. 신념의 인지구조	348
11. 신념과 행위 유발	349
12. 신념의 태도와 변화	351
13. 신념의 내용형성	351
14. 새 정보 새로운 관행의 수용	353

제 4 부 종교칼럼 357

1. 한인 이민교회의 중간평가와 진로 모색	359
2. 미신적신념	368
3. 잘못된 종교와 집단 지향 윤리	384
4. 평신도 의식 활력화	389

이윤모 박사 학력 및 약력 392

편집자의 글

2020년 6월 6일은 나의 남편이며 두 딸의 아버지가 되는 고 이윤모 박사가 소천한지 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고 이윤모 박사 기념집을 내 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가 1990년 중반부터 쓰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쓴 글들로 그의 전공인 사회학 여러 분야에 대하여 써 놓았던 글들 중 사회학과 종교에 관련된, 믿음과 신념, 그리고 영혼에 관한, 그리고 그가 써 놓았던 종교칼럼들을 간추려 편집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편집된 글들은 그의 컴퓨터 속에 오랫동안 사장되어 있었던 글들인데, 어떤 글들은 집필이 완성되었고, 어떤 글들은 채 끝내지 못한 글들도 있었지만 그대로 모아 편집하였습니다. 이 글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그는 자기가 배운 지식들을 자기가 속해 있는 한인커뮤니티에 전달하고 싶다는,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쓴 글들이지 않나?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윤모 박사는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글을 쓰면서 살았고, 그 속에서 삶의 행복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의 숨결같은 이 글의 편집을 통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그의 글들을 정독하면서 사회학의 여러 분야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책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삶과 일터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바램일 것입니다.

이 많은 글들을 컴퓨터에서 찾아주신 이금성 장로께 가장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글의 정리와 편집을 도와 주신 김요한 목사, 김준일 전도사, 그리고 이 책을 내는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지지해주신 김상신 목사와 조건상 목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찾지 못한 파일을 타이핑까지 해서 만들어 주신 안애란 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 외에 이 책 출간을 위해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 발행을 허락해 주신 한인사회연구원 이진만 회장과 이 글들을 책으로 제작해 주신 Only1Printers 김근영 대표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족대표 이화식

발행사

2005년 고 이윤모 박사와 각계를 대표하는 6명의 이사로 설립된 한인 사회연구원(한사원)의 초대회장 이윤모 박사는 6년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한인사회와 함께하며 새로운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인사회가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다. 이후 이 박사는 한사원 이사장으로서 소천하시는 날까지 한인사회의 사회, 경제, 교육, 보건, 및 종교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많은 강의와 신문 및 방송을 통해 논설을 발표하셨다. 특히 그는 사회학자와 종교인으로서 종교사회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문을 준비해 오셨으나 짧은 그의 삶으로 인해 세상에 발표되기 전에 소천하시고, 가족과 동료 연구자들을 통해 그동안 심혈을 기울이셨던 논문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마지막까지 연구하신 논문을 취합하여 본 논문집을 발표한다.

이 박사의 종교사회학은 이민해 사는 한인과 종교의 밀접성을 이해하고 교회가 중심이 아닌 믿음을 통한 성도 중심의 서비스로의 교회에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갈등과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태와 권위주의에 물들고 있는 교회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실용주의에 기초한 신앙을 그 기본으로 하였다. 한인사회연구원에서 2007년 이 박사 주도하에 시카고 지역의 교인과 차세대대의 한인교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한인 교인 특히 2세들의 한인교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시카고에는 새로운 이민자가 줄고 그에 따라 교회를 구성하는 신도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2세들의 한인교회에 대한 의견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였다.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 그 연구는 매우 가치 있고 앞으로 전개될 한인교회의 미래를 예측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사회학의 방법론을 적용한 경험적 조사연구를 종교에 접목하는 형태로 종교사회학의 연구에 매우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다수의 종교사회학자는 사회학 쪽으로 접근하면서 사회학적인 면에서는 매우 풍부한 데이터나 자료를 인용하지만 반면에 종교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고, 반면 신학을 중심으로한 행동 신학 또는 민중 신학자의 종교사회적 연구들은 사회학적 시각이 없이 신학 논문과 거

의 구별이 안 되는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학에서 접근하는 종교학이나 종교학에서 접근하는 사회학의 한계는 서로에 대한 완벽한 이해의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이 박사는 지적하고 있다. 그는 사회학 학자로서 종교인으로서 사회와 종교의 깊은 이해로 서로를 연결하고 있다. 그는 사회학적 개념의 신념과 종교학적 개념의 신앙이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평행선으로 연결된 가치로 보고 있다. 그의 종교사회 학자로서의 관점은 신념과 신앙을 평행한 관계로 보고, “신념은 음악의 악보이며 신앙은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신념의 객관성과 믿음의 정서성“ 라고 인용하고 있다. 그는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배타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사회문제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미신적이고 신앙 권위주의적인 교회 문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회문제와 교회 분쟁문제로 돌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사회문제와 교회 분쟁으로 연결되고 있는 현대사회를 분석하고 있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기본 이론인 실용주의적인 종교사회학 이론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고 이윤모 박사의 평생 연구를 통해 전해지는 종교사회학의 이론은 앞으로 이 분야를 연구할 후세에 기본 이론의 틀과 논쟁의 중심을 제공하리라 확신한다. 이 논문집은 가족들의 뜻에 따라 한인사회연구원이 발행하게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쓰인 논문들을 미망인 이화식 님과 가족들이 고인이 남겨주신 컴퓨터의 자료를 정리, 발췌하시고, 매우 중요한 연구논문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이를 조건상 목사께서 훌륭한 서문으로 소개해 주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에도 희생의 정신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한인사회연구원의 이름으로 감사의 글을 올린다.

이진만

한인사회연구원 회장
드폴대 경제학 교수

소개하는 글

책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저자가 책을 쓰게 된 동기나 목적 그리고 저술하는 방법과 간단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독자의 한 사람으로, 평소에 존경하던 고인되신 이윤모 박사를 대신하여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먼저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본인은 종교인으로써 독자들에게 책의 중심 내용과 저자 이윤모 박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글을 쓴다. 이 책의 저자 이윤모 박사는 사회학자로서 그리고 한 때 신학을 탐구하였던 신앙인으로써, ‘종교사회학’과 ‘사회심리학’이란 두 안목을 가지고 이 책을 기술하였다.

이 책은 2020년을 살고있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또는 어떤 신념이 필요한지를 되살펴 보기에 좋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 코로나19 재앙의 해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암담한 상황이 지속될 때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며 신앙에 회의를 갖게 된다.

코로나19의 사태로 신천지교회가 메스컴에 빅 뉴스가 되었다.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왜 신천지교회같은 사이비종교와 이만희교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가? 그 사람은 과대망상환자가 아닌가? 참신앙과 과대망상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생각해 보게 된다.

신천지교회가 한국메스컴에 빅뉴스가 되었다. 신천지교회는 22만명의 종교집단이다. 이 큰 집단 속에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에 코로나19 재난을 불러왔다. 질병적으론 말 할 것도 없고,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이윤모 박사가 인용한 사회심리학자 밀턴 로키치 박사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 되었다.

〈미시간 주의 한 정신과 치료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그 치료실엔 세 명의 과대망상이라는 정신장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셋의 공통적 증상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믿고 있는 정신장애다. 소위 말하는 메시아 콤플렉스〉

플렉스다. 치료자 로키치 박사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노력하던 중, 세 사람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했다. 혹시 함께 살다보면 현실로 돌아오는데 도움이되지 않을까 생각해서다. 그런데 하루는 매우 흥미로운 대화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환자 A: “나는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았어!” 로키치 박사가 환자 A에게 “그걸 어떻게 알았지요?”하고 물었다. 그러자 A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았죠!” 이 말을 듣고있던 환자 B가 끼어들었다. 환자 B: “나는 너한테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는데,” 환자 B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증 환자다. 그래서 환자 A와 B가 서로 옥신각신 하고 싸우게 되자, 이 모습을 본 환자 C가 끼어들면서 대화가 혼돈에 빠져들었다. C는 버럭 화를 내면서, 두 사람을 향해, 환자 C: “너희들은 다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병원에 입원 해 있는 거야! 나는 너희 정신병환자들을 고쳐주려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C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 외쳤다 한다.

로키치 박사는 이들 세 명의 과대망상 환자에게 나사를 구멍에 끼워보는 일을 시켜보았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는 깡깡거리고 나사를 구멍에 끼우려고 애썼지만, 끼우지 못하게 되자 웬지 모를 압박감을 나타내면서, “이 나사는 꺼꾸로 된 나사야”라고 고집을 피웠다. 그런데 실은 그 사나가 꺼꾸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사를 꺼꾸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과대망상증 증상은 “자기는 하나님 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꿈과 계시로 직접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종교적 망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만희교주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 개신교회의 대교회 목사들 가운데도 과대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칼 마르크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 말했다.

저자 이윤모 박사는 이 책의 내용 속에서 특별히 눈에 띈 두 사람의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사회심리학자 밀턴 로키치(Milton Rockeach)가 쓴 “Belief, Attitudes and Values”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계 정신과의사로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디폭 초프라(Deepok Chopra)가 쓴 “How to know God: The Soul’s Journey into the Mystery of Mysteries” 이다.

1.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본 신앙과 신념의 문제

저자인 이윤모 박사는, 종교심리학, 종교사회학에서 믿음/신념이란, 믿음-가치-삶의 태도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신앙의 목적은 신앙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고 그 가치에 삶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삶의 이미지를 추구해 나가는 삶의 형태는 같다. 단지 다르다면 신앙인은 삶의 가치를 찾아 나아가는 동력을 신에 의존하는 것인데 비해 비신앙인은 그 가치를 사회가 바라는 목적에 맞춰 찾고 그 보상을 사회에서 찾은 것이다. 궁극적 가치가 신-중심적이나 사회-중심적이냐의 차이이다. 전자의 추구하는 가치에서 벗어날 때 죄의식(guilty)을 갖지만, 후자의 경우는 사회로부터 오는 수치심(shame)을 갖게된다.

“신앙과 믿음 또는 신념은 무엇인가?”를 찾아 규명해 본 책이 바로 이윤모박사의 저술한 이 책이다. 이 책의 문체는 결코 쉽고 평이하지는 않다. 마치 삶이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이박사의 글은 복잡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마치 광부가 갱 속에 들어가 팽이로 광맥을 찾아 바위속의 광물을 캐내듯이, 어떤 부분은 채 다듬지 않은 바위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글이 있다. 이 책에서 이박사의 여러가지 보물을 찾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박사는 두 책을 연구자료로 삼았다.

이윤모 박사는 믿음과 신념의 본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논하였는데, 신앙인에게는 믿음으로 비신앙인에게는 신념이란 양상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믿음이나 신념은 추구하려는 의도에서는 같다고 보았다. 그 의도는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신앙인에게는 신앙의 대상을 신에서 찾아 믿음을 갖는 것이고, 비신앙인에게는 신념의 대상을 집행자가 지닌 힘에 신념을 두는 차이이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믿음에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구분하기 전에 우선 믿음의 현상을 감성에 따르는 “신앙”과 이성에 따르는 “믿음”, 둘로 구분하여 구별해 보자. 이박사는 믿음을 ‘감정이 동반하는 신앙’과 ‘정보에 의존 된 확신’으로 구분한다.

앞에서 밝혔듯이, 사회심리학자인 밀턴 로키치(Milton Rockeach)는 그의 책 “Belief, Attitudes and Values”에서 강조하기를, ‘신념 태도, 삶의

가치’가 서로 연관관계에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고 하였다. 신념에는 다섯가지 순차적인 계급이 있는데 중요한 것부터 말해서, A급: 실존적인 즉, 생존과 관계된 신념, 예를 들면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와 같은 것이다. B급: 자긍심(Self-esteem)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받는다. C급: 권위로 부터 오는 신념, 예를 들면 성경이나 경전, 또는 대통령의 년두교서 등과 같은 정보이다. D급: 권위로 부여 부여받은 크레딧과 같은 것을 근거한 것. 예를 들면 사이비종교인들이 말하는 “나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신념과 같은 것이다. E급: 광고와 같은 대수롭지 않은, 예를 들면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정보와 같은 것이다. E급은 D나 C나 B나 A보다 덜 영향을 받고, D는 C나 B나 A보다 덜 중요하고, C는 B나 A보다 덜 중심적이고, B는 A보다 덜 중심적이다. 결국 신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A, 즉 실존적인, 생존에 관계된 신념이다.

신념론에서 흥미로운 것은 자신이 지닌 신념에 따라 남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신념체계와 다른 사람의 신념을 비교하여 어느정도 일치하느냐에 따라 남의 신념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남이 이야기 할 때 자기가 듣고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고 동의한다는 것이 그 예이다. 남이 뭐라해도 자신을 가둔 프레임을 중심으로 남을 평가한다. 예를 들면, 외신들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바이러스 정책을 성공적이라고 칭찬하고 평가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은 실패한 것이다. 본래부터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차단했어야 한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 부터가 실패다.”고 말한다. 이 사람은 자기 프레임(신념)에 갇힌 사람이다. 사회인으로써 우리는 상호신뢰성이 중요하다. 상호신뢰성이 낮으면 남으로부터 소외되기 쉽다. 그리고 남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관계가 지속되기 힘들다.

신념을 가짐에서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념의 생활화이다. 이것이 신념이 가치를 동반하여 삶의 변화에로 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신념의 목적이고, 신념의 실현화가 인간의 삶의 의미 중 하나이다.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회심리학에서 보는 인간의 종교성이다.

2. 인간의 의식(Consciousness)에서 나타난 신-존재 인식

다른 하나는, 인도계 정신과의사로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디폭 초프라(Deepok Chopra)가 쓴 “How to know God: The Soul’s Journey into the Mystery of Mysteries” 이다. 그는 한 마디로 인간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 철학적으로 신과 인간존재의 관계를 이렇게 말한다. “신은 인간 존재의 근거이고 인간은 신을 인식 할 수 있는 근거이다.” 다시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스스로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 속에는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디폭 초프라는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앎으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몸을 통해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7가지의 원리가 있다. 첫번째, 의식(consciousness)을 통해서다. 의식은 모든 이해의 원천이 된다. 두번째, 감정(emotion)을 통해서다. 세번째, 사고력(thinking)을 통해서다. 네번째, 심리적 지각(perception)을 통해다. 다섯번째, 실재성(Reality)에 비추어 봄에서다. 여섯번째, 정체성(identity)을 통해서다. 마지막으로 신의 영감(inspiration of God)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이 생물학적인 인간의 몸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아는 방법이다,

그러나 디폭 초프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무의식(Unconsciousness)의 세계가 있는데 무의식의 세계는 인간의 사고보다 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한다. 이 내면의 세계는 우주와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인간은 마치 밤에 전등을 켜다가 잠 잘 때 전등을 끄듯이 잠들 때는 의식도 함께 꺼졌다가 잠에서 다시 의식의 전등이 켜지듯, 켜다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운동이 반복됨으로 삶의 연속성이 이어가듯, 인간의 존재는 우주의 질서처럼 지속하는 존재라 말한다. 즉 죽음이후에도 인간의 존재가 이어 간다는 뜻이다. 디폭 초프라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a map of Spirit)인, 우리 자신의 심층적인 자아의 지도(a map of our own deepest Self)를 보여 주고 있다.

디폭 초프라가 말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깨닫는 법은 흔히 요즈음 말하는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 말하는 명상의 세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비슷하

다. 물론 종교의 세계는 개인적인 세계이지만, 그러나 사회성을 떠난 종교는 참 종교라 말할 수 없다.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점성술이나 마술을 통하여 치유라든가 기적적 경험을 만들어 내는 종교운동인데, 이 운동이 일어났다가 실패로 끝나게 된 경우는 대체로, 주창자들의 섹스 스캔들이나, 기적을 조작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는 예언, 흔히 메시야가 나타났다는가 하는 소문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등이다. 이런 면에서 모두 반 사회적 운동으로 규탄받는다.

그러나 기본적인 새로운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시작이, 인종차별, 빈곤, 질병, 굶주림 그리고 전쟁 을 종식시키자는 사회변화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내적인 성장을 통해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켜 보자는 취지에서 한 운동이라면 마다할 필요는 없다.

3.과학으로 보는 영혼에 대한 새로운 가설 환원주의

이윤모 박사는 사회과학자로서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박사는 영혼의 문제를 두뇌과학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란 가설을 제기하였다. 종교적 신앙의 세계도 자연과학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그 근거를 Francis Crick의 이론”The Astonishing Hypothesis: The Scientific Search for Soul”을 들어 설명한다. 인간의 영혼을, 정신의학적으로 잠재의식과 관계를 넘어, 두뇌 신경세포 속의 생화학적 작용이론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종교인으로써 필자는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의 한계능력을 벗어난 문제라고 고백한다. 과학의 세계는 점차로 환원주의(Reductionism)물체는 원자들의 집합이고, 사상은 감각 인상들의 결합이라는 관념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학을 응용 심리학으로, 심리학은 응용생물학으로, 생물학은 응용화학으로, 신경과학은 뇌과학으로 설명하는 논리이다. 이윤모 박사는 환원주의를 주시하면서 영혼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로 보았지만 환원주의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종교가 반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원인 가운데 근대 이후에 특히 부각된 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와 다르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종교적 진리는 미신 또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말인

데,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이다. 그러나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의 차이는 그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삶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에 대한 진술이다. 독일의 철학자 미카엘 란트만은 두 진리의 차이는 마치 ‘거울’과 ‘반석’으로 비유했다. 과학적 진리는 마치 거울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듯,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에 종교적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반석과 같다는 것이다.

4.종교사회학적으로 보는 신앙과 믿음의 차이

앞에서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말하면서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 신앙인에게는 믿음으로 비신앙인에게는 신념이란 양상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믿음이나 신념은 추구하려는 의도에서는 같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종교사회학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믿음에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믿음(Belief)또는 신앙(faith)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르다. 감성에 따르는 “신앙”과 이성에 따르는 “믿음”, 둘로 구분된다. 이박사는 믿음을 ‘감정이 동반하는 신앙’과 ‘정보에 의존된 확신’으로 구분한다.

기독교 초기인 초대교회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신학이나 교리, 복잡한 의례나 교회의 조직이나 구조가 없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함께 성령을 체험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방식으로 서로 소유를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으로, 자신의 확신과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의 신앙은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표현하는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정신으로 충만하였다. 이것을 영성이라 흔히 부른다. 그들의 종교는 가슴의 종교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의 종교는 조금씩 별질되기 시작하였는데,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4세기부터였다. 무엇이 가슴의 종교를 변화시켰는가? 기독교가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게 된 후 부터이다. 가난한 자의 종교가 부와 권력의 종교로 바뀌게 되자 부요하

고 힘이 있고 유식한 자들의 종교로 바뀌게 되었다. 신학자 하비 콕스는 이 변화를 ‘신앙(Faith)의 종교’에서 ‘믿음(Belief)의 종교’로의 바뀜이라 말했다. 신앙의 시대 특징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희망을 품고, 그가 시작한 운동을 활기차게 추진하는 것이었다면, 믿음의 시대는 ‘예수에 거는 신앙(Faith in Jesus)을 예수에 관한 신조들(Tenets about Jesus)로 대체하여 한 믿음의 필수적인 믿음의 조들(교리)들에 집착하는 교권주의 시대로 바뀐 것이다. 이 시대에서 믿음(Belief)이란 단지 교리나 신조를 참이라 승인하는 머리 속의 지적인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신조를 암기하는 식의 믿음은, 그 암기를 확신이라는 자기암시로 반복해야 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신약성서에는 나다나엘이란 메시아를 대망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빌립이란 친구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 갈릴리 사람인데 훌륭한다는 말에 회의를 가졌지만 강권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서 “나다나엘아!”하고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불렀을까 하고 깜짝 놀란 나다나엘은, “선생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이 곳으로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 말하자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주저함 없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다. 신비한 경험 한번만 경험하면 나머지는 다 믿게 된다. 이것이 신앙이다.

빠스칼은 말하기를 믿음은 도박과 같다. 마치 도박사가 자기가 확신하는 것에 만큼 돈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앙인은 신에게 삶을 투자하는 것이고, 비신앙인은 자기가 가진 패를 보고 어떤 가치에 생을 투자하는 것이다. 자기가 가진 패란 자기가 원하던 정보에 확신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것에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는 것에는 투자 할 필요가 없다. 그 가치란 즉 보상이다. 신앙인에게 내세의 보상을 말 할 수 있다면, 비신앙인의 신념에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려져 있다.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안전보장과 같은 것들이다.

5.신앙인 이윤모 박사

필자가 본 이윤모박사는 신실하고 진지한 사회학자 일 뿐만 아니라 믿

음에 있어서도 진지하고 진실한 신앙인이다. 바로 이 책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의 관심과 열정과 사명감은 바로 크리스찬 됨에 의미가 있다. 이윤모 박사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에 학사편입하여 신학을 마쳤다. 목회자를 생각하고 신학을 공부하였지만,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 목회자 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유학한후 신학에서 사회학으로 관심을 바꾸어 사회학을 전공하여 사회학 박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고, 교회와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하여 서울감리교 신학대학 동문회에는 늘 참석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차례 미 중북부지역 서울감리교신학대학 동문회 회장직을 맡아 줄 것을 요청 받았지만, 자신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늘 거절하였다. 5년전 연말 동문회 모임에서 이다. 성찬예식으로 모임을 마치게 되었는데, 필자가 이박사께, 이 모임은 동문회 모임이니 선배로써 성찬예식에 한 순서를 맡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선배로써 후배들에게 진심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순서를 맡아달라고 간청하였다. 성찬잔을 들고 성찬을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성찬을 받도록 하는 순서다. 그는 믿음의 선배로써 성찬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오는 후배와 가족들에게, “이 잔은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 초대의 인사를 반복할 적마다 그의 음성은 떨렸고, 진지한 그의 얼굴의 표정과 눈에 고인 눈물을 손으로 훔쳐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고백했다. 그가 최근에 경험하였던 거룩한 종교경험이었다고. 신앙은 거룩한 경험이다.

조건상 목사(목회학 박사)

in memory of Dr. Yoon Mo Lee



제 1 부 믿음과 신앙

- 1장. 신념의 본질과 기능
- 2장. 신념의 발생과 형성 기제
- 3장. 신념의 기능적 면모들
- 4장. 신념의 활성화
- 5장. 신앙의 본질과 성장
- 6장 신앙화의 과정
- 7장 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경

1장. 신념의 본질과 기능

1. 믿음(belief)이란 무엇인가?

한국 민족은 단군을 조상으로 믿고 그에 관한 신화를 역사에 서술한다.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구약 신화에 서술한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삶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정보의 단서를 (신의 계시를 통해) 인지하고 새 땅에서 더 잘 살수 있다는 기대의 정서가 부착된 신념을 지녔다. 그 다음 자신의 운명을 변환시키려는 이주를 할 태도가 형성되고 신의 약속대로 결과가 온다는 개연성에 대한 정서인 신뢰를 지니고 친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된다.

믿음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 확신, 의존 등의 정서로 구성된 습성화 된 마음의 상태이다. 믿음(faith)이라는 단어에는 기대, 신념, 신뢰, 신앙 등이 포괄된다. 믿음의 내용(contents)인 신념은 사람이 우주의 현실, 사회적 현실에 대해 경험한 정보 및 그로부터 유추한 새 정보인 지식(knowledge)과 그 지식에 근거하여 장차 다가올 어떤 상태를 기대하는 정서(emotion) 측면으로 구성된다. 믿음은 가시적인 아닌 것에 대한 이미지(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상)를 형성케 한다. 신념은 그 내용이 사실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을 확신케 하는 근거 정보(바라는 것들의 이미지)이다. 신조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대상을 이해하는 신념을 선언(statement)하는 서술(narrative)이다. 신앙은 신념의 내용인 지식정보와 기대 정서 외에 그 신념으로 행동을 지향하는 태도를 포괄한다. 신뢰는 대상(초월적 존재, 사람, 물질 등)의 기능에 관한 지식, 정보로부터 기대하는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에 근거하여 그 대상의 기능에 의존하며 결과를 수용하려는 정서이다. 특정한 신념의 내용인 지식, 정보가 사실이라고 신뢰하는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데는 신앙의 정서가 작용한다. 즉, 지식, 정보에 근거하여 행동화 할 태도를 추가하는 결정이 포함돼야 한다.

2010년 5월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하여 과학적 증거를 한국 정부

가 발표했다. ‘천안함’ 침몰 초기에 군 당국과 국민들은 그 원인을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시나리오로 추측했지만 객관적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 지식 내용을 접수한 후 다수 국민들은 그 발표된 원인으로 북한의 소행으로 사건이 사실 발생했고 확신하게 됐다. 상식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지식, 정보에 대해 진보주의자들이 믿기를 거부한 이유는 정부 불신과 친 북한 정서 때문이다. 정치적 이념 뿐 아니라 종교적 신앙관을 둘러싼 대립에서도 특정 지식 내용에 대해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는 결단은 정서를 조화하여 발생한다. 구세주가 재림한다는 신조(선언된 지식 내용)를 가진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예수의 재림을 믿는 결단(신앙)은 정서에 달려 있다. 그 정서를 조작하는데 흔히 영성과 혼동시켜서 성령을 앞세워 사실화될 기대를 확신하기 어려운 지식. 정보 내용을 수궁하도록 정서적 편견을 강조하기도 한다.

믿음의 지식 내용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는 결단의 정서는 그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 정서와 확신 정서 간에 상호 보강 관계에 있다. 즉, 어떤 믿음은 지식 내용을 수용키로 하면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화된다. 또한 어떤 믿음의 지식 내용이 현실화될 것을 기대하는 정서가 강하면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는 정서도 강하게 된다.

1) 믿음의 단서는 이미지로부터

모든 생물은 여러 가지 불확정적인 여건에 대응하며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현실로 이뤄질 개연성이 높은 정보들을 찾으려 한다. 사람은 자기의 신체, 자연환경 여건,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물질적 또는 추상적 소유 대상 등 생존에 필요한 것 등에 대해 설명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지식들을 필요로 한다. 주변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거쳐서 사건이 현실화된다고 알고 간직하는 지식. 정보가 신념의 내용이다. 그리고 그 지식, 정보 체계가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바라는 정서가 신념의 내용에 부착된다. 그 바람의 정서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정서이다.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확률)에 관해 최소한의 계산

의식이 등장할 때 희망의 정서는 기대의 감정으로 변한다. 그 기대 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가 추가될 때 신념이 완성된다.

믿음의 지식 내용 및 정서인 정보의 원형은 체계화되지 않은 이미지(image)의 단서(clue)를 인지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믿음이 발생하여 정착하는 과정은 단서 상태의 이미지(지식적 정보)를 인지한 다음 기대의 정서가 출현하며, 신뢰의 감정으로 정합 된다. 그 다음 믿음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데 따라 믿음이 증대되거나 쇠퇴하며 그 정보를 체계화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그 믿음은 다시 믿음의 싸이클, 또는 불신의 싸이클이 진행되는 정보의 단서로 기능한다. 믿음의 싸이클에서 지식, 정보 내용은 기대정서를 자극하여 결단 행위를 촉발하며, 그 결과 믿음의 정착(anchor)이 가능케 된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전성기를 넘어 반기독교 운동에 직면한 이유는 그 신앙의 지식 체계가 많은 기대를 촉발했지만 신자들의 행위로 현실화되지 않은 때문이다.

2) 사람은 왜 신념을 추구하나

사람의 신념은 기대, 가설, 주관적인 개연성에 관한 서술(narratives)의 구조를 갖는다. 신념 속에 주장되는 명제는 무엇이 가능한가, 무엇이 존재하는가, 무엇이 발생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에 관한 서술이다. 단순한 신념은 주어(subjective)와 자동사(intransitive verb)로 이뤄져 대상이나 과정에 관한 서술이 생략된 구조를 갖는다. “신은 존재한다”든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단순한 믿음의 서술이 성립한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현실화하는가에 관한 시나리오를 불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신념은 이미 발생한 사실에 관한 해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대되는 사실에 관한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신념은 기정사실과 가상적 현실을 연결하는 인지 구도(mapping)의 형태로도 표현된다. 종교적 신념들을 따르는 수행은 실제 삶의 정황으로부터 구원과 미래의 삶이라는 가상적 현실에 이르는 멘탈 매핑(mental mapping) 과정이다.

3) 본능적 정보로서의 믿음

일반 동물들의 수준에서도 믿음을 지닌다. 철새들이 먼 거리 하늘을 날아 서식지를 옮기는 행위의 저변에는 이동하는 목적지의 생태 조건이 적응에 더 적합하다는 믿음(지식 정보와 기대 정서)이 있다. 개가 길을 가면서 오줌을 누고 그 냄새를 맡는 행위는 그 ‘이정표’(marker)들을 점검하고 기억하면서 돌아올 수 있다 동물적인 믿음의 소행이다. 이런 동물적 믿음의 행위를 단지 본능적으로 기억된 유전자의 작위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한 본능의 발현은 믿음의 원초적 형태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갓난 아기가 울음으로써 부모의 보살핌을 요청하는 행위는 경험으로 학습한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능에 기억된 선형적 정보에 의한 것이다. 사람의 믿음(신념)은 본능에 축적된 정보를 인출한 것들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학습한 내용들이 더 많게 된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circumstance)이나 대상의 행태(pattern)를 관찰하면 그에 대한 새 정보를 기억(학습)하거나 또는 잊어버리게 된다. 일단 기억된 정보 그 내용에 대해 그와 관련된 사건이 재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 감정을 부착하는 경우 믿음이 된다. 믿음이 형성되는데 반드시 논리적인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각자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정서로 형성되는 것이다. 단편적인 믿음(들)은 각 사람의 체계화된 신념의 한 부분으로 속하게 된다.

4) 종교적 믿음

종교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교리 내용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수용(receptivity) 정도와 신뢰 정서의 강도로 측정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교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경우의 믿음이란 사실적인 정보는 수궁하지만 비현실적인 정보는 수용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통주의 기독교 신앙관은 그 핵심이 예수의 처형 후의 부활이므로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배제한다.

반면에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같은 비현실적 서술을 신념으로 수용하

지 않고도 예수에 관해 사실성 있는 원리만을 수용하며 신뢰하는 기독교 신앙도 가능하다. 성경의 기적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예수가 말한 신의 질서(하느님의 나라)란 철저한 이타주의로 인류가 협동하며 평화 공존할 수 있다는 원리라고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2. 신념형성과 신앙화

1) 신념과 신앙

신념(信念, belief)은 믿음의 체계에서 근간이 되는 정보 내용이다. 신념으로서의 믿음은 지식 내용(contents)에 기대의 정서가 부착된 것이다. 신념은 특정한 현상이나 대상에 관한 정보를 내용으로 출발하여 그 내용이 시간 위에서 사실로 실재했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서가 부착된 것이다. 신념은 기대와 판단의 정적인 준거(靜的 準據, static reference)가 된다. 종교의 신념은 운명에 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해 방편적인 답변을 준다. 종교에서 신념은 교조적 경전화(canonize) 되며, 예배 의례와 신앙 행위의 처방을 제공하게 된다. 비종교적인 일상생활에서 신념은 행동 지향성, 행위 내용과 방법에 관한 처방, 결과에 대한 평가의 도구가 된다.

신앙(信仰, faith)은 존재의 근원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강한 경외와 열망과 자기 헌신의 정서가 부착된 활성화 신념(activated belief)이다. 신앙으로서의 믿음은 신념의 대상(통상 초자연 실재)을 신뢰하고, 그 대상에 관한 정보의 사실성과 그 역량을 신뢰하며, 그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에 동참하려는 강한 정서이다. 신앙은 초자연적 실재에 대한 기대, 신념, 신뢰를 포괄하며 그 초자연적 과정에 사람 스스로 참여하거나 수혜자가 되려는 동기 발생을 수반한다.

신념과 신앙은 이성적인 인지 능력과 감성적 인지 능력의 연속선상에 있다. 평면상 일직선 위에 계측의 척도로 말한다면 신념은 연속선상에서 좌측에 있고 신앙은 우측에 있다. 신념은 합리적 확인의 밀도가 신앙보다 더 높다.

- 신념은 유추(추리, 생각, 계획, 분석, 평가 등을)하는 준거로서 기능한다. 신념보다 신앙은 정서적 함량이 더 높다. 그래서 신앙은 분석, 판단, 계획 등 지적인 유추보다도 감성적으로 행동화로 옮기는 연료로 기능한다. 신앙은 발화될 준비가 된 휘발성 연료와 같다. 반면에 신념은 그 자체로 바로 행동화되기 쉽지 않고 활성화되어야 불붙을 수 있다. 신념은 음악의 악보이며 신앙은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악기의 소리가 악보로 기록될 수 있듯이 신앙에서 신념 내용이 추출되기도 한다.

- 신념은 특정한 원인이 과정을 통해 결과에 연결되는 일정한 규칙을 파악한 내용으로서 그것이 실현되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감정이 동반한 것이다. 신념은 여러 현실 관측에서 공통적인 사실들을 추출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견한데 근거를 둔다. 사람이 신념을 선택하거나 지니는데 그 신념을 자기가 확실히 이해했거나 그 결과에 대해 자기가 확고한 기대를 걸 수 있는 정보 내용에 더 비중을 둔다.

- 이에 비해 신앙은 믿음의 정보 내용을 자기가 확실히 이해하는 것에 상관하기 보다는 그 결과 발생에 더 비중을 두며 그 개연성에 확고한 기대를 걸려고 한다. 사람이 신념을 평가하거나 선택하는 데는 그 정보 내용의 지식 측면(know how와 process) 자체가 더 중요하며 그 신념을 근원이나 집행자(executor)에게는 덜 비중을 둔다. 신앙을 지니는데 신앙의 내용보다도 그 근원이나 신앙의 결과를 현실화해 줄 집행자(executor)에게 더 비중을 둔다.

- 신념에 비해 신앙이라는 범주의 믿음은 원인이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보다는 결과에 도달하는 데만 관심을 둔다. 그리고 신앙은 사실성에 대한 지적 평가 보다는 정서적 요구에 따라 채색된 해석에 더 비중을 둔다. 그래서 우리말과 심성에서는 믿는 내용(신념)의 사실성보다도 “기대한다” “신뢰한다”는 정서 부분이 매우 강하다.” 무조건 예수만 믿는다”라는 식의 믿음에서는 정보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고도 누구에게 의지하려는 정서가 더 비중을 갖는다.”어쨌든 당신만 믿고 맡깁니다”라는 식의 믿음은 자기가 지닌 정보와 수단보다도 상대방의 능력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절박한 신앙의 형태이다.

정치 과정이나 교회의 제도적 운영에서 갈등의 축은 신념의 과정이나 신앙적 결과나 선택의 축, 또는 수단이나 목적이냐의 선택에서 어느 위치에 멘탈 매핑의 닻을 내리느냐에 따라 갈등의 거리와 긴장 정도가 좌우된다.

2) 기대로서의 믿음

기대(期待, expectation)로서의 믿음은 사람이 지닌 어떤 요구 충족이 다가올 시간에 발생할 사건에 대한 예상(미리 갖는 이미지) 및 그 예상에 수반하는 정서이다. 배고픈 사람의 경우, 그 요구가 충족될 시한이나 요구 충족 수단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이 음식에 대한 요구만 있는 막연한 정서(기대로서의 믿음)가 먼저 발단한다. 그 후에 특정 요구 충족을 실현할 ‘수단적인 정보’(발생 방법에 대한 지식)를 수반하거나 실현의 ‘시한에 관한 정보’가 추가될 수 있다.

3) 신뢰로서의 믿음

신뢰(信賴, trust)로서의 믿음은 타인이나 비인간적 실재 또는 정보에 의해 어떤 행위나 사건이 개연성 높게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어떤 사람의 행위로 혹은 방법과 과정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 때문에 그 대상 인물, 방법, 과정에 대해 지니는 신념이 신뢰이다. 직장의 상 하급 직원간이나 친구 사이에 그런 신뢰가 존재한다. 국가의 헌법이나 금융투자 기관의 투자 상품이 그런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기의 문제에 신이 개입할 것이며 기도가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믿음은 신적 존재와 기도라는 방법에 대한 신뢰이다. 10년 이상 사용한 자기의 자동차가 기후에 관계없이 시동되고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 정서도 신뢰이다.

3. 신념과 신앙을 구분할 필요성

우리 한국인들이 종교성(신념 요구와 신앙 정서)이 진한 민족이라는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신앙(faith)의 정서가 강하다는 것은 신앙의 콘텐츠인 신념(belief)의 지식 범주가 넓거나 깊다는 것과는 다르다. 신앙이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의 속성에 대한 정보에 개인이나 집단이 통합적인 정서를 부착한 정신 상태이다. 신념에 정서적 에너지가 투입되고 그 신념을 행동화 하려는 단계에 이르면 신앙이 된다. 강렬하게 신앙화 된 신념은 사람이 존재하고 노력할 의미를 창출하는 정신적

에너지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질식하여 고사당하게 하는 사슬이나 장벽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민족, 공조하는 민족으로 의식을 변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념 형성 과정과 그 본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분석 위에서 냉철히 논리적으로 신념들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분석 없으면 남의 신념을 모방하여 자기의 신념화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 또한 논리에 어긋나는 신념들을 주입하여 남을 동원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의해 창의를 저해되고 공조와 협동행위를 악용하거나 파괴하는 행위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원시적 무교(巫敎)를 비롯한 다양한 유사종교들과 불교, 유교, 기독교 등의 제도 종교들을 혼합해 수용한 신념체계들과 신앙 전통이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신념의 복합성, 신앙관의 복합성 때문에 개인들의 자기 정체성 구상(mapping)이나 사회관계의 규율도 혼탁하게 되기 쉽다. 다원화 문화, 다원 신앙관을 수용하여 신념의 다양성(diversity)을 추구하느냐 단일성(unity)을 추구하느냐는 선택을 어떤 기준에서 진행해야 될 것인지 중대한 질문이다. 그 기준의 하나로, 나는 공조(共調, synchronization)로부터 협동(cooperation)에 이르는 사회과정(social process)의 증진이라는 실용주의적 목적성(objective)을 제기한다.

4. 신앙의 측정 척도

신앙은 생물학적으로는 자기의 요구 충족 목적에서 발단하며, 신학적으로는 창조주의 접근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다. 신앙의 대상은 초자연적 신이나 사람 같은 인격, 햇빛과 강물 같은 자연 현상, 화폐 같은 사물, 추상적 정보인 아이디어 등 여러 부류의 특정한 대상의 하나일 수 있고 복합적인 대상일 수도 있다. 그 대상에 투입되는 정서는 자기의 요구 충족에 관계되는 효용 가치성(utility value)에서 일차적으로 발단한다. 그 대상의 속성의 사실성(factuality)그리고 그 속성이 타당하다고 증거가 확인되는 근거의 진실성(truthfulness), 신앙의 대상으로 인해 사건이 출현하는 빈도(frequency)로서 입증되는 신뢰성 (reliability) 등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부착하는 통합적인 정서로 신앙은 보장된다. 그런 신앙을 형성하는 내용으로서의 신념은 물리적 혹은 논리적 증거에 근거를 두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여러 신념들이 체계화된 것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신앙하는 대상을 향해 가진 신념체계에 관련되거나 거기서 유래된 처방에 준봉하는 행위를 하며, 그 행위에 따르는 그 결과를 기대하며, 그 성취되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신념은 보장된다.

5. 한국 민족의 신앙 편향성

1) 신념의 객관성과 주관성

사람들이 보통 자기는 냉철하게 객관적 사실을 추구한다고 공언한다. 그렇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이나 그 대상을 관망하는 사람들 모두의 인지 구조가 부정확하다. 한국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성향의 이념(ideology), 즉 신념들의 체계를 둘러싼 사회적 힘(social forces)의 대결이 첨예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 자금 관련 의혹이나 탈세 의혹을 둘러싼 한국 검찰 수사에서 엄밀한 중립적 관점이나 객관적 주장이 혼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주장되는 사실들은 모두 어떤 개인(공직자이건, 언론이건, 서민 독자이건 간에)의 입장에서 어떤 객관적 측정치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인지 내용과 비교해 내놓는 주장일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사실을 추구하기 보다는 믿기를 추구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성이 강한 한민족의 경우 사실 추구보다 믿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 타당하다. 믿기를 추구하는 장치에서 신념이 형성되는 과정에 의한 신념의 유형을 주관성-객관성의 축에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¹

첫째는 실존적 혹은 묘사적인 신념들이 있다. “태양이 동쪽에서 돋는 것을 나는 믿는다”처럼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 혹은 그 사실을 표현하려는 것들이다. 정확한 사실성 신념에는 주관성-객관성 시비가 있을 수 없다.

둘째는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적 신념이 있다. “동대문 시장의 상품 보

1. Milton Rockeach (1969). *Belief, Attitudes and Values: A Theory of Organization and Change*, San Francisco: Jossey Brown. p. 135.

다 수입된 브랜드 상품이 더 좋다[고 믿는다]”처럼 이 경우 믿는다는 말 대신 좋아한다는 정언적 선언을 하지만 자신의 선호 여부 또는 기호성 정도를 정하는 것이다. 보수-진보의 이념적 대립(기호성)에서 예를 들면 경제성장 대 공평한 분배에 관해 신념 내용의 사실성, 그에 대한 평가성, 신념을 견지하는 강경성 등의 수준 차이가 얹혀 어떤 입지들을 각각 고집한다.

셋째는 처방 또는 강권적 신념이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나는 믿는다”처럼 사실성 혹은 기호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명제를 당연한 절차 또는 행위라고 믿거나 이런 것을 남에게 의무화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십일조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든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당신도 부활하여 천당에 살 것이다” 등의 신념들은 실존적 신념이기 보다 강권적 신념들이다.

2) 믿음의 정서적 편향성

한국 민족은 신념과 신앙의 연속선상에서 인화성이 강한 쪽으로 편향돼 있다. 이치적이기 보다 더 정서적이며 유추하기보다 즉각 행위로 옮길 태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편향성이 종교 행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인간관계는 물론 특히 정치 행위에서 드러난다. 정치 집단들이 ‘노우 하우’와 과정에 관해 일반화할 수 있는 규칙으로서의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원인은 지도자들이나 시민들이 신념 보다 신앙을 선호하는 사고 행태와도 관계있다. 규칙과 질서보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집행자(executor)나 그 힘(power)에 대해 더 관심을 두는 신앙 지향 때문이다. 신념은 자기의 효능감(efficacy)을 배출하여 자발적 행위를 유발하지만 신앙은 타자의 집행 능력에 의해 배급되는 결과에 의존감(dependency)의 강도를 높인다. 그런 신앙이 신념으로 변환하여 사람의 자발적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으나 자발적 행위를 포기한 완전 의존 상태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그 가장 중요한 특색은 객관적인 신념 체계나 규칙보다도 개인 인물 중심으로 정서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비합리적 기대가 고조되어 우발적 대통령 당선 (accidental presidency)이

가능하다. 신념이 위주로 기능하는 민주주의에서는 지방색이나 인맥에 관계없이 정책 기반에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정석이다.

한국의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선출한 지난 두 선거에서 연령층이나 이념 그룹이 특정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그런 신앙의 기제였다. 그리고 기대한 결과를 대통령과 여당이 ‘기적적으로’ 신속히 주지 못했다고 해서 두 달 사이에 지지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현상도 그런 ‘낭패를 당한 신앙’의 기제로 설명된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국토 종단 대운하 개설 같은 제안은 그 방법론, 실현 가능성, 효용성을 세심히 검토하지 않고 선거에 앞서 국민에게서 일시적 믿음(기대와 신앙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공약은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으로서 목적(purpose)이 종결될 수 있으며 실제 계획의 실현을 목표(goal)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인들이나 정부는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에 도달할 절차와 과정에 관한 신념을 갖도록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닌 자그마한 신념조차도 덮어두고 일시적인 신앙으로 표 몰이를 하는 작태를 반복한다.

2장. 신념의 발생과 형성 기제

1. 신념의 발생과정

신념이란 첫째, 어떤 상황(조건)이나 대상이 실재하느냐 혹은 실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 대상이나 상황을 존재(사실) 또는 비존재(비사실)로 분류하는 두뇌 기능에서 초보적 신념이 발생한다. 즉 자신의 존재가 진실이냐 허구냐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아침마다 정장에 집에서 출발하면 통근열차를 타고 직장에 출근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이 그런 신념의 기초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런 인

지된 범주들(그 것이냐 그 것 아니냐,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사이에 관계를 지어보는 두뇌 작업이 계속 진행되며 신념이 정리된다. 자신의 안녕과 이익이라는 범주와 신의 존재와 영향력에 관한 범주를 연관 지을 때 기독교 구약 성경이 말하는 십일조 헌금을 하면 신이 물질적 축복을 주는 투자에 관한 신념이 대두한다.

2. 신념들의 계층

사람들이 지니는 신념들은 핵심적인 신념으로부터 피상적인 신념에 이르기까지 계층이 있으며 그 깊이가 각각 다르다. 신념은 사람들의 요구(need)에 관계되어 형성되며 요구 충족을 위한 행위에 영향을 준다. 핵심적 신념들은 다양한 관심사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서 발생한다.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신념은 각자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신념이다. “나의 존재 여건은 안전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념에서부터 “나는 지성과 종교 신앙을 자부하는 공인 아무개이다”에 이르는 것들이 자기 존재의 정체성에 관한 핵심적 신념이다. 핵심적인 신념 즉 자기 존재에 신념은 그 다음 단계의 신념을 조정하며 영향을 끼친다. 즉 사람은 정체성에 부수하여 “나는 완전주의자여야 한다”는 가치 규범적 신념, 또는 “나는 이기적 기회주의자여야 되겠다”는 유용성 관한 부수적 신념을 설정하게 된다. 그 부수적 신념 근처에서 어떻게 행위를 할 것인가를 찾는다. 똑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 목사, 불량배 중 어느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믿느냐는 핵심적 신념에 따라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라는 규칙에 관한 자기의 소신(부수적 신념)이 다르게 된다. 핵심적 신념에 부수하는 관심사들에는 자기의 가치, 안전, 수행, 통제, 사랑, 자율, 정의, 소속, 신뢰, 성취의 표준 등 10가지가 있다고 맥케이는 열거한다.²

1) 핵심 신념의 형성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할 때 그것이 자기 존재에 대해 위협적인가 안전

2. McKay, pp. 21-32.

한가, 그리고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재빠르게 판단하고 개념화한다. 그러는 중에 그 다가올 결과에 관한 예측을 한다. 신념들이 지닌 그런 판단과 예측 기능에 의해 사람은 경험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하며 범주를 정한다. 이 범주화 된 신념의 부류들은 각자의 결정을 돕기 때문에 신념은 적응 수단이 된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자기의 경험에 학습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마음 속에 목록(catalogue)화 함으로써 핵심 신념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 자기가 당면했던 어떤 상황과 그에 대응했던 행위가 초래한 결과를 분석한다.
- 그 인과관계(causality)가 어떻게 구성됐으며 성과를 초래한 전략이 어떤 것이었나 특성을 비슷한 것들을 목록화 한다.
-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이 사건들의 목록에 있는 표본에 조회하여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가를 살핀다.
- 남들의 비판이나 평가를 들으면 그것을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반영한다. 그리고 새 경험이나 타인의 언급이 자기 자신에 관한, 그리고 자기가 활용할 규칙에 추가된다.
- 그 새로운 목록의 일부는 자기의 기존하는 신념들에 추가되며 특히 정체성에 관한 신념 즉 핵심 신념에 보완된다.

사람은 의식이 깨어 있는 동안 여러 신념들과의 조회 –특히 자기의 핵심적 신념과의 조회– 즉,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쉬 없이 계속한다.³ 자아 정체성에 관한 핵심적 신념은 부차적 신념 수준에서 사람 각자 혼자의 대화가 진행되는 진폭을 조정한다. 핵심 신념이란 자신의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수정 공(crystal ball)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한 신념들은 새로운 상황과 적응 기제에서 나올 결과 – “나의 실력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 시험 관문을 통과할 것이냐” “조기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것이 더 좋겠냐” –를 예측하게 한다. 그러한 독백(monologue)으로써 사람들은 세상 만사를 해석하고 특정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결단하며 그 결

3. McKay, pp. 11-39.

과까지도 평가한다.

그리고 매 상황에서 진행되는 스스로의 독백에 뒤따라 정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핵심 신념은 결과적으로 정서에 영향을 끼친다. 그 독백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행동이 마비되어 모험을 두려워하고 이미 남들이 다 실험해서 안전한 방식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안전책은 역시 무엇인가에 정체되고 희망이 없다는 느낌을 계속 갖게 한다. 핵심 신념에서 나오는 독백은 직업 수행과 건강, 삶을 즐기는데 영향을 준다. 특히 주요한 핵심적인 신념을 터치하는 독백을 할 때에는 많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수준을 높인다. 고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신념들을 조회하는 독백 과정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 사람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게 된다. 너무 높은 자기 표준을 지닌 사람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핵심 신념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유유부단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부모에게서 핵심적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배운 자녀들이 성장 후에 혼란을 느끼고 주저하게 되는 것도 핵심적 신념이 정서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2) 핵심 신념의 보전과 변환

사람의 핵심 신념은 어떻게 변형되거나 보전되는가?

첫째, 신념의 보전-변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신념에는 이미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견해에 맞는 정보만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동물은 정보를 분류해서 기억하는 경향을 지녔기 때문에 기존 신념에 조화되지 않는 정보는 잘 수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기억에 수록되지 않는다. 즉, 신념의 준봉 편향성(compliance-bias)이다. 부정적인 핵심 신념 구조를 지녔다면 긍정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신념이 맞아 들기 어렵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경험을 분류하고 기억할 핵심 신념구조가 결핍되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⁴ 다음과 같은 4각형의 (긍정적) 신념 구도를 가진 경우 자그마한 4각형의 새 신념 조각이 쉽게 수용된다. 그

4. McKay, pp. 16-17.

러나 3각형의 구도는 들어맞기 어렵다.

둘째는 신념의 상습성이다.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재빨리 조회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익숙한 내용을 우선 찾아내게 된다. 그런 신념은 어떻게 대처할지를 일러주는 정보이거나 어떤 전제(前提) 같은 것이다. 종교는 사람이 다급할 때 “아이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찾아가는 기억의 궤도 중 하나이다. 그런 기억을 따라 직행해서 찾아내는 신념의 내용은 마치 자주 돌리는 레코드판(구형 비닐 유성기 판)에 홈(grooving)이 파이듯이 정신적으로 자주 빠지게 되는 구렁텅이를 형성한다. 매사에 “할렐루야”를 부르는 신앙 표현에 상습화된 사람들은 그러한 정신적 계곡의 낡은 정보의 궤도들로 매번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3) 2차적 신념: 행위와 과정에 관한 신념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핵심적 신념을 근거로 그 다음 2차적으로 행위의 바탕이 되는 신념을 선택한다. 2차적 신념들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는 규칙에 관한 신념 즉 적응성 신념들이다. “호랑이를 보면 도망쳐야 산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규칙에 관한 신념이다. “나는 정직하고 남에게 공정하게 행동하며...”같은 것은 사회에서 공존하는 규칙에 관한 2차적 신념의 예이다. 그 다음 자아에 관한 핵심 신념들과 특정 상황에 적용할 규칙성 신념들을 조회하여 행위 과정(방법론과 선택)에 관한 수준의 신념이 발생한다. 즉 “뇌물을 받고 탈세를 눈 감아 줄 것이냐”는 고민은 그런 행위가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1차적 핵심 신념들에 위배되며 규칙에 관한 2차적 신념에도 저촉되는데 어떻게 그 차질을 정당화하느냐는 조회(照會)로 진행된다.

4) 3차적 신념: 대상 및 행위 결과에 관한 신념

자기의 핵심적 신념과 행위 과정에 관한 2차적 신념과의 조회를 거쳐 규칙위반(뇌물)을 거절하는 3차적 신념이 출현한다. 그러나 자신의 핵심

적 신념을 침묵시키고, 과정에 관한 2차적 신념도 압도한 결과로 위법적 (뇌물 받는)행위 선택을 하면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독백, 즉 뇌물을 받는 데 대한 3차적 신념이 출현한다. 자기 정체성에 관한 신념과 과정(일반 규범)에 관한 신념에 위배되는 것을 무릅쓰고 선택한 3차적 신념은 마치 군대가 도하 작전을 하기 위해 설치한 부교(浮橋) 같은 임시 수단으로 출현한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배운 도둑질’(부도덕한 생업 수단)이 자기의 직업이라고 믿게 되는 3차적 신념은 “나의 행위는 사회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정당화하는 2차적 신념을 형성한다. 즉 목적 달성이 수단(규칙)에 관한 2차적 신념의 위치를 대체하여 3차적 신념이 2차적 신념의 지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단에 관한 2차적 신념이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1차적 신념, 즉 핵심적 신념이 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이 정당을 창당할 때 지녔던 1, 2차적인 신념을 버리고 탈당하여 새 정당을 다시 창당하거나 합세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데는 3차적 신념이 작용한다. 신념을 조화하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자기 정체성과 객관적 규칙을 위반하고 돌출하는 시나리오를 최종적 신념이라고 선택하는 데서 정치인들의 ‘해쳐 모이기’가 일상적인 과정으로 지속된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정치인들이 자기 정체성에 관한 1차적 핵심 신념과 객관적인 상황에서 처신하는 규칙에 관한 2차적 신념을 지키기보다는 근시안적인 이권에 현혹된 3차적인 자기 독백이 압도하는데 있다.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인이나 종교인들 또한 신념의 독백에서 정체성에 관한 핵심적 신념이나 규칙에 관한 2차적 신념이 빈약하며 근시안적 이권의 신념을 선택하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3류에서 체 바퀴를 돌고 반기독교 운동이 일고 있다. 자기 정체성에 관한 신념이 정직한 종교인, 언론인, 정치인으로서 선명한 핵심적 신념들을 지녔지 못하다면 그 다음 2차적으로 행위 규칙에 관한 신념이나 3차적으로 상황마다 스스로 진행해야 되는 독백이 빚나가는 것이 십상이다. 교회 공금을 유용을 수사하는 검찰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공박하는 목사나 그 추종 교인들의 경우는 핵심적 신념과 2차적 신념

이 3차적 신념에 의해 대치되거나 억압당한 상태이다.

5) 발생 순위로 본 신념의 유형

가.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신념

원초적 신념

원초적 신념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직접 체험에서 발단한다. 어린 아기는 부모라는 존재가 온 세상 전부를 대표한다고 믿는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대상과의 처음으로 직접 만남에서 배운 신념이 원초적(primitive) 신념이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키 크고 힘센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을 좀 더 알면서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또 남들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신념이 바뀐다. 즉, 개인의 모든 신념은 이런 원초적 신념에서 시작하지만 대상 자체의 속성과 자기의 신념 내용이 합치하는가(자기 아버지가 사실 세상에서 가장 키 크고 강한 사람인가)를 비교하면서 그 신념은 수정된다. 또한 어떤 대상에 대한 타인들의 신념과 자신의 신념이 충분히 합치하는가(남들도 나의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키 크고 강한 사람이라고 믿는가)를 비교하면서 원초적 신념은 변질한다.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지녔던 원초적 신념에 사소한 도전이나 흔들림이 있을 때 의문을 하게 된다. 자신의 존재,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 세계의 움직이는 원리 등에 대해 처음에 지녔던 신념들이 타당한가를 질문하게 된다. 심지어는 자신의 정신이 온전한가라는 질문도 하게 된다.

고립된 원초적 신념

개인이 지녔던 원초적 신념 중에 어떤 것은 험난한 도전을 겪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도전하거나 바꿀 수 없이 확고부동한 자기만의 신념으로 고착될 수 있다. 그런 신념은 누구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남들의 권고나 논쟁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용이다. 어린아이가 유아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

거나 학대를 당하면 자기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신념을 갖게 되고, 공포증을 지니거나 환상에 빠지거나 환각을 추구하게 된다. 자아를 비하하여 누르는 것이 습성화되어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기 자아를 확장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환각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요즘 인터넷에 자살 정보 사이트가 횡행하고 동반자살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어렸을 때 형성된 자기 비하의 신념을 성장하면서도 바꾸지 못한 것이 기능적 동기가 됐을 수 있다. 또한 연예인들 청소년들이 대마초나 환각성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지 않은 것과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자살 테러범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원초적 신념에 의한 순교행위로 미화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극도에 달한 상태에서 타인들을 폭살함으로써 자기의 힘이 입증된다는 신념으로 연계되어 자아 확충의 기회를 구현하는 행위라고 보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위대한 신 (혹은 집단의 두목)을 믿으며 신은 나의 편에 있다”는 신념은 성직자들의 각종 사기와 불륜 행위를 정당화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신념이 때로는 테러나 쿠데타를 부르기도 한다. “나의 어머니 (혹은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불쌍한 존재이다”라는 것에서 “나는 철저한 천치 멧덩구리이며 무용지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야 한다... [혹은] 내 아내를 죽여야 한다”고 결론짓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고립화된 우범성 원초적 신념들이 마지막 행위에 옮겨진 후에 법적 문제를 삼는 것 보다는 그런 유형의 신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년기 교육환경에서부터 대처해야 할 것이다.

나. 타의적으로 발생한 신념

유도된 신념

사람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데 근거한 신념이 아니면서도 남의 신념에서 유도된(derived) 신념을 지닐 수 있다. 권위 있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하거나 신념의 근원인 사람(부모나 부부)을 신뢰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직접 체험하지 않은 신념을 자기의 것으로 지니게 된다. 그런 경우 종교적 신앙 내용이나 정치적 이념 같은 신념의 내용들 자체보다도 그 신념을 갖게 한 권위적 대상이나 친밀한 인물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다. 카톨릭 교인들은 낙태나 이혼 문제에 대해 제도화된 신념의 합리성을 따지기 보다는 그런 명령의 근원자인 교황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유도된 신념은 제도적 이념(이데올로기)으로 되며 그런 신념을 소유하는 집단과 자기를 동일시하여 집단 정체성을 갖게 한다. 특히 한국인 사회(재미 한인 사회에서 교회가 성행하는 현상)에서 종교 집단이나 정치 집단에 대한 신뢰와 추종 때문에 대립과 분열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그 만큼 유도된 신념에 익숙해져 있다는 지표라고 하겠다. 한국의 보수-진보의 이념적 대결에도 자기 자신의 핵심적 신념보다는 유도된 신념들이 작용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권위에 대한 신념 (Belief toward the authority)

사람들이 흔히 “내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은 것은 못 믿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특정 대상이나 현실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형성되는 원초적 신념 외의 신념들도 강하게 지니기도 한다. 그리고 본래 신념을 발생시킨 객체나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도 그에 관련된 신념은 현실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절되기도 한다. 그런 부차적 신념은 어떤 신뢰할 만한 권위자(authority)나 영향력 있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형성된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신념이 형성된다. 어린이가 처음에는 부모만을 신뢰하는데서 발생하는 신념을 갖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친구 집단, 학교의 교사, 그리고 성년기에는 직장의 동료나 상사 등을 신뢰의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념을 갖게 된다. 그 대상 인물들에게 대해 갖는 긍정적인 신뢰의 정서는 그들이 가르친 교훈이나 행동의 시범을 자신의 신념 내용으로 내면화하도록 영향을 준다. 그런 점에서 권위자는 신념 형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권위(자) 자체가 신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임의적 신념

특별히 설명할 만한 연유 없이도 발생하는 신념들이 있다. 이런 신념들은 원초적 신념처럼 변할 수 있거나 변하지 않기도 하는 임의적인(in-consequential) 신념들이다. 임의적 신념은 타인이 인정할 필요가 없는 신념들로서 다른 신념들과 연관 없이 유지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젊은 이들이 어떤 이성을 우연히 “눈이 맞거나” 대화할 기회를 가진 다음, 혹은 연애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지니는 연모라는 심리적 현상은 상대방에 대한 강한 정서와 함께 여러 가지 긍정적 신념들을 수반한다. “그의 눈이 그의 순수한 마음을 드러낸다”든가 “충명스럽고 친절한 사람”이라든가 “양귀비 같이 아름답다”는 등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신념을 제3자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임의적인 신념(“제 눈에 안경”이라듯이)으로 지니며 때로는 변하지만 일평생 변하지 않고 지니게 되기도 한다.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신념을 지닐 수 있다. 임의적 신념은 반대로 “그 후보(혹은 목사)는 아무리 보아도 신뢰할 수 없다”는 부정적 신념으로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

3. 신념의 발생 과정별 유형

권위주의적 신념의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적 지평에서 창의적이며 진정한 공조를 가능케 신념들을 새롭게 구성하며 정리하는 데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 신념의 근원과 형성 과정을 인지 심리학을 빌어 설명해 본다.⁵

1) 경험과 추리에서 발생하는 신념

신념은 사람의 추리나 실제 경험한 일부 사실(들)을 근거로 발생한다.

5. Sarlin, T. R., Tabt, R. & Bailey, D.E. (1960). *Clinical inference and cognitive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빨간 사과를 먹었는데 달았지만 시퍼런 사과는 달지 않았다는 먹어 본 경험에서 사과의 빛깔과 맛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신념이 생긴다. 한 가지 경험이나 추리의 단서를 근거로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에 일반적으로 적용(generalize)하려는 연역적(演繹的, induction) 추리에 의해 우선 신념이 형성된다. 푸른 색깔의 사과를 맛본 사람이 “푸른 사과는 맛이 없다”라는 신념을 갖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3천5백년 전에 홍해 바다(사실은 갈대 늪)를 갈라서 건넜다는 기록을 믿고 그 유사한 기적이 다시 발생할 개연성을 믿는 것은 연역적 추론의 비약이다. 반면에 여러 실험과 임상 치료에서 효과를 입증한 많은 사례에 근거한 확률의 일부로 자기도 치유했다는 신념을 갖는다면 귀납적(歸納的, deductive)인 추리에 근거한 신념이 된다. 모세의 기적이 신화 그대로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양보하더라도 귀납적 추리에 의하면 그와 유사한 사건은 3천5백년간 다시 발생한 기록이 없으므로 실현 개연성이 없는 신념이다. 생물의 진화론을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동물원의 원숭이가 언제 사람이 되겠느냐”고 의기양양하게 반박한다. 그 개연성이 희박하므로 구약 경전의 창조론을 믿으면 “집 뒤뜰의 진흙은 언제 사람으로 빚어지겠는가”라는 반론에 속수무책인 신념을 지니게 된다.

어떤 개인의 요구가 과대해서 논리적 근거가 없는 상상으로 요구충족을 추구하면 그 상상의 시나리오가 신념으로 고착화될 수도 있다. 종교적인 여러 신념들이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현실화시키려는 요구에서 고착화한 것들이다. 어떤 사람이 위암을 약으로 치료하면서 (혹은 수술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암이 쾌유되었다. 그 사람은 일차적으로 의료에 의해 암이 나았다고 믿으면 귀납적 추리에 의한 신념이 형성된다. 의료보다는 자신 혹은 친지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암이 쾌유됐다고 믿으면 연역적 신념이 형성된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귀납법적 추리에 의한 결론은 과학적이라고 하여 경계하면서 오히려 희소한 사건을 보편화하는 연역적 추리에 근거한 신념을 신묘한 것이라 하여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오랜 역사 동안 산악으

로 폐쇄된 환경 속에 짧은 시야를 갖고 살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데서 발달한 직관적 추론 습성이 유전된 탓이기도 하다. “미국에 안 가 본 것을 자랑으로 안다”던 어떤 대통령이 미국에 와본 후에는 “배울 것이 많은 나라”라고 말한 것은 연역적 추론의 논리에 살던 사람들이 귀납적 추론의 논리로의 전이를 경험한 예이다. 반면에 미국인들이 그 대통령 한 사람의 말을 근거로 “한국인은 모두 그렇다”는 식으로 보편화한다면 그런 주장도 연역적 논리에서 나온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연역적 논리로 배타주의에 빠지는 사회는 논리의 후진국으로 남게 된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이 심화되는 이유도 각자의 국지적 관점을 보편적인 것이라고 비약하여 상대방의 이념을 통째로 이질적 색깔로 보는 연역적 논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2) 가설을 사실로 채택한 신념

어떤 관계에 대해 이론 또는 가설을 채택하는 데서 신념이 발생한다. 그 경우 연역적 유추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약 경전의 계시록에 서술된 지구 최후의 드라마가 실제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념을 예로 들어보자. 그러한 지구의 파국 시나리오에는 연역적 유추에 근거했기 보다는 문학적으로 묘사한 환상이다. 666이라는 숫자를 펼쳐서 세계사적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그런 유형의 신념 조작 행위이다. 1990년대에 북한의 홍수와 가뭄이 엇갈려 기근을 초래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의 저주 현상이라는 식의 신념도 그런 것이다. 최근에 지진, 홍수와 폭설로 인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현상은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지구 기후에 큰 변화가 오며 장차 여러 도시가 물속에 잠길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단서가 된다. 그러나 양극 지대의 빙산이 완전히 녹는 때가 “2030년으로 다가온다”는 예고는 부정확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여하튼 현실과 전혀 관련 없는 상상의 시나리오들을 관련지어 신념화하는 경우 비현실적 예고를 하게 된다.

3) 유비(analogy)로 형성되는 신념

관찰한 사물들 사이의 유사성, 혹은 사건들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어떤 신념이 형성된다. 오렌지와 귤은 모양이 비슷하니까 맛도 같을 것이라는 신념이 그런 것이다. 한국에서 출신 지방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거나 학연 등의 유대를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완강하게 적용하는 것은 이런 신념에 근거한다. 유비로 신념을 형성하면 여러 가지 사물이나 환경 조건에서 다양성을 보지 못하고 비슷한 특수성에만 집착하여 선택하는 편향에 빠지게 된다. 특수한 조건만을 선호하는 그 패턴이 소집단 이기주의의 바탕이 된다. 그것은 또한 한국인들이 유명 브랜드의 상품들만 선호하는 성향과 나아가서 사치성 과소비를 지향하는 성향과도 관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반복하면 일류병과 그 병을 뒷받침하려고 금전을 조달하기 위한 부도덕과 탈법 (개인적 사기 범죄나 공직자의 부도덕 행위까지)으로 연장된다.

4) 권위에 근거한 신념 (Belief based on the authority)

권위를 지녔다고 자기가 인정 혹은 존경하는 어떤 사람 혹은 정보의 근원에서 나온 내용이므로 그 내용 자체보다는 발원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관계된 내용을 믿는 것이다. “북한은 메가톤급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어떤 한국인 기자가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잘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말했다든지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신빙할 것이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일평생 동정녀였으며 기적 능력을 가졌다는 개톨릭 교회의 신조와 신념들은 교황청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념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신조의 형성과정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서 마리아란 약혼자 결혼 전에 임신하여 예수를 낳은 다음 결혼하고 예수와 그의 형제자매들을 양육하고 그 맏아들의 처형을 애절한 한 어머니였을 뿐이다.

4. 신념들 간의 소통과 신념의 강도

각 사람은 여러 신념들을 지니며 신념들이 상호 연결되어 그 사람의 신념 체계로 진전한다. 그 중에도 핵심적인 신념은 여러 신념들 간에 기능적으로 연결된 내용들이 많고 신념들 간에 내용 소통(커뮤니케이션)되는 양이 크다. 생존을 위한 여러 신념들을 포기하고 종교적 지침에 따라 생명을 바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여러 신념 중에서도 내세의 보상에 대한 신념이 더 핵심적이라는 단서이다. “돈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신념이 위법 또는 부도덕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신념보다 더 핵심적일 경우 범죄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사취 행위로 남에게서 이득을 취해 교회에 바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 사취 행위에 관련된 신념들은 종교적 신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핵심 신념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혹은 권력이나 명예가 삶의 최종 가치라는 핵심 신념은 정당 분열과 가짜 학위 취득 등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기능적 신념들에 연결되어 부도덕 행위들을 낳는다. 그러면 신념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가?

로키치는 핵심적 신념과 부수적 신념이 연결되며 형성되는 4개 조건을 말하는데⁶ 나는 그의 첫 조건을 둘로 나누어 모두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생존 기본 요건에 관한 신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핵심적이며 다양한 신념들을 압도하며 연관 관계를 갖는다. 즉 자기 (또는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의식주와 신변 안위에 관련된 신념들이 여기에 속한다. 종교적으로 신에게 기구하여 생존과 안위의 결과를 기대하는 신념들은 이 수준에 속한다. 사람들은 음식을 위해 기도하며 직업을 위해 기도하고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기도한다. 그 기도에 관련된 믿음들이 가장 핵심적인 믿음들이다.

둘째는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이 생존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정체성을 지켜 가는데 관련된 신념들이 많은 기능적 연결을 갖는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구성하는 정체성에 관한 신념을 지닌다. 이것은 아기 때부터

6. Milton Rockeach (1969),. Op. cit.

가족들 가운데 자기는 무엇이며 어떤 위치를 갖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구성된 믿음 체계이다. 만약 자기가 친 부모라고 믿어 온 사람들의 자식이 아니라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자식”이라면 그 가족 중에서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대한 신념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미국에서 성장한 한국계 입양아들이 자기를 버린 부모와 혈족을 찾아나서는 이유는 정체성에 대한 핵심적 신념을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확립하려는 것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본 믿음이 무너지면 자기의 인격의 통합성이 무너지며 소속할 위치가 모호해진다. 이런 믿음은 성장하면서 친구 집단에서의 자기 정체성, 신앙 단체에서의 자기 정체성 혹은 그 외의 소속 집단(군대, 직장, 정당, 사회운동체 등)에서의 자기 정체성으로 연결되며 확대된다. 그 정체성의 어느 특정한 것은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 자살한다든가 순교하는 것은 정체성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다. 이상 두 가지, 즉 개인의 존립과 정체성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은 신념들의 기능적 연결에서 덜 중요하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내용의 신념이 더 많은 기능적 연결을 가지며 결과도 다양하다. 이런 신념의 공유성은 정체성에 관한 신념과 합치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막대한 신념의 질량이 발생한다. ‘애국심’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믿음의 발현이 이런 것이다. 수년 전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 때 보여준 ‘붉은 악마’ 응원, 그리고 이슈를 내 걸은 촛불 시위 참여 등은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신념이 집단과 공유하는 신념에 연결되어 확대된 때문이다.

넷째로 직접성 신념이 간접성 신념보다 더 강하다. 영향력 있는 타인에게서 배운 신념보다도 자기가 직접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조우하여 경험한 데서 얻은 신념이 더 많은 신념 체계의 연결을 지니며 더 다양한 결과를 갖는다. 특히 종교적 신앙은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보다 직접 경험한 사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더 강하다.

다섯째로 개인의 취향성과 관련이 있는 신념이 취향성이 없는 대상에

관한 신념 보다 더 많은 신념들의 체계적 연결을 갖는다. 즉 자신이 관심을 갖고 탐구한 결과의 신념은 강하지만 우연히 획득한 신념은 별로 결과를 지니지 못한다. 자기가 체험해서 갖게 되는 신념은 설교로 듣기만 해서 형성되는 신념보다 더 기능적으로 다양한 연결을 갖는 확고한 신념이 된다.

3장. 신념의 기능적 면모들

1. 신념의 확증성과 강도

1) 신념의 구조상 위치와 강도

신념이 핵심적이냐 피상적이냐는 신념 구조상의 위치와 신념의 강도 사이에는 상호 관계가 있다. 핵심적인 신념은 피상적 신념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관계가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다. 가령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연애 대상에 대한 신념은 구조상 핵심적이기 보다 피상적인 신념이지만 자살을 초래할 수도 있을 만큼 자아에 관한 핵심적 신념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우연한 기회에 돈이나 권력이 없어서 서러움과 수모를 당한 경험으로 “돈을 가져야겠다”거나 “권력을 가져야겠다”라고 형성된 피상적 신념이 어떤 사람의 한평생 지냈던 청렴에 대한 핵심적 신념을 무너뜨려 과오를 저지르게 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전직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한 비리 수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원인으로 이런 것과 관계 있다. 그런데 그런 청문회나 ‘칼날 수사’를 해도 단지 그 사람들이 저지른 비행과 불법 행위의 표면을 열거하여 사실 여부를 판정하며 연루자들의 고리를 찾아 처벌하거나 정치적으로 타결을 한다. 이런 문제는 특별 검찰의 수준에서 비행의 사실들을 열거하고 그 불법성을 소추할 증거를 확보하는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행위의 결과를 판정하고 제재하기 보다도 행위의 원인들을 규명하여 비행이 반복 또는 모방으로 증식되

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엘리트들의 핵심적 신념이 어떤 부차적 신념들에 의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이 더 있어야 한다.

2) 신념의 근거와 신념의 강도

신념의 질적 측면에는 그 신념 내용을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느냐는 근거 확인 가능성과 신념이 얼마만큼 도전에 저항하느냐는 강도의 두 측면이 있다. 즉 사람에게서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정체성 (특히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신념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강하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신념은 도전에도 가장 강하다. 그 다음으로 권위자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남에게서 들어서 믿는 유도된 신념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약하다. 부모가 어린아이에 대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어다 키운 아이”라는 식으로 정체성을 위협하며 놀리는 말에 어린아이는 가장 불안한 반응을 보인다. 자기의 이름이 거론될 때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원인은 아마도 먹을 것이 없던 빙하시대에 음식을 나누는 데서 탈락될 것을 두려워하던 집단 무의식의 잔재가 아직도 작용하는 것 같다. 기독교인들 중에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유난히 되풀이해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 때에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확고히 표현 받지 못하고 여러 형제들 속에서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심어 받지 못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심념을 지키려고 저항하는 잠재적 조건반사라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권위자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남에게서 들어서 믿는 유도된 신념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약하다.

2. 신념의 안정성(stabilization)-고착성(crystalization)

각 사람은 여러 신념들이 집합하여 체계화된 양파의 썬과 같은 신념의 구조를 지닌다. 여러 유형과 계층의 신념들의 구조에서 가장 핵심에 자리 잡느냐 중간 혹은 표면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 각 신념이 지니는 계층과 급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각개 신념이 차지한 상대적 위치에 따라 그 안정성과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로키치는 어떤 특정 신념이 사람의 신

념 체계에서 자리 매김 하는데 120개의 다른 위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신념들의 위치가 결정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수준이 있다.

첫째, 무작위로 유도된 신념들, 즉 자기의 체험에 근거한 신념이 아니면서도 종교적 신앙 내용이나 정치적 이념 같은 남의 신념에서 유도된 신념들은 다른 신념들과 연관되는 경우가 적고 그 때문에 핵심적인 신념으로 될 가능성이 적다. 친구나 이성에 이끌려 교회에 참여한 사람의 신앙이 핵심적 신념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이해관계로 정당을 옮기는 정치인들의 신념이 없는 것은 이런 이치이다.

둘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권위자로부터 유도된 신념들은 그 권위자 자체에 대한 신념들보다는 핵심적이 아니다. 즉 아버지가 말한 내용이 핵심적 신념이기 보다는 그 말을 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더 핵심적이다. 마찬가지로 바IBLE의 어떤 내용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기 보다는 바IBLE의 권위(신의 말씀이라는) 또는 가르치는 목사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을 믿는다.

셋째, 권위자에 대한 신념은 사람 각자의 원초적 신념보다 핵심적이 아니다. 즉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권위자에 대한 신념보다는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거나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고립된 원초적 신념은 권위자에 대한 신념보다는 덜 핵심적이다.

넷째, 다른 신념들과 연계되지 않고 고립된 원초적 신념은 다른 신념들과 합치된 원초적 신념보다 덜 핵심적이다. 즉 자기 스스로 갖게 된 원초적 신념이더라도 “나 혼자만이” 지니는 고립된 것 보다는 사회의 참조 인물들이나 집단에서 공인하는 것과 합치된 원초적 신념이 더 확고하며 안정적이다. “온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은 이것을 믿는다는 신념은 안정성이 없다. 북한의 주체사상 같은 신념은 그 사람들의 씨클 안에서 공유되므로 그들에게는 안정된 핵심 신념이다. 남한의 어떤 계층이 주체사상에 유사한 쇄국적 이념을 공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정된 핵심 신념처럼 보인다. 그러한 신념은 글로벌 시대에 일부 사람들에게만 핵심적일 뿐 보편적

으로 공유되거나 안정성을 지닐 수 없는 신념이다.

4장. 신념의 활성화

사람이 어떤 자극을 받을 때 그의 신념체계 속에 있는 신념들이 활성화된다. 즉 언어로 표현된 개념에 접하거나 정언적 명령을 듣거나, 법규칙을 읽거나 또는 어떤 사건에 직면할 때 신념들이 활성화된다. 그러나 신념체계 전부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 또는 상황에 부응한다고 인지되는 신념 부분만이 활성화된다. 사람이 체계화시켜 지닌 신념들 중의 어느 내용이 어느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언행으로 표출되느냐는 데는 변이가 있다. 신념이 활성화되지 않고 의견이나 태도로 표현되지도 않거나 더욱이 행동화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종교 집단이나 정치 그룹에서 신념을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비협조적인 멤버로 소외될 수도 있다.

신념의 활성화 과정은 소위 인지적 상호작용(cognitive interaction)을 거치게 된다. 인지의 상호작용이란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두 가지 이상의 자극들(기존 신념의 정보와 새로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극)을 혼합하여 하나의 평가성 의미가 출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외진 밤거리를 거리를 걷다가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가온다면 “이 사람이 복면강도인가, 아니면 전염성 독감 바이러스 감염자인가?”라는 정보 처리를 두뇌 속에서 급속히 진행하게 된다. 물론 이 두 가지 단서 외에도 그 사람의 속성에 관한 자극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관찰자의 두뇌에 입력된다. 이런 인지과정은 대상(사람이든 물건이든 혹은 사건이나 정보의 조각이든)에 관해 무엇이라고 개념 규정(conceptualize)을 하면서 또 그 대상이 무엇의 부류에 속한다는 범주화(categorize)를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로키치는 이런 인지의 상호작용에서 연유하는 결과에 4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한다.⁷ 앞에 예를 들

7. Rockeach, Op. Cit., pp. 84-85.

은 밤 거리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 판단으로 특정 신념의 활성화가 발생할 수 있다.

- 단순한 언어에 의한 성격 규명: “밤 늦게 귀가하는 사람” 혹은 그저 외롭게 보이는 사람이라는 단정.
- 단순한 인식상의 인접성 확인: “저 사람의 검정 코트는 영화 ‘와이어 어프’에 나온 배우 케빈 코스트너의 차림과 비슷하네”라고 비교하는 판단.
- 부류적인 규명: “저 사람은 술주정뱅이이다.” 혹은 “그는 강도는 아니다”라는 분류로써 안도하는 판단.
- 근원 대상에 대한 주장: “나는 과음과 낭비를 반대한다”며 대상의 행위를 자신의 핵심 신념과 결부지어 대상과 자기 신념을 각각 재확인하는 두뇌 작업.

이러한 신념들의 인지적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데는 주제와 그 서술한 특성이 서로 타당성을 갖느냐, 주제와 서술한 특성이 상대적으로 주요성을 갖느냐는 조건들이 개입된다.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을 보고 “나처럼 저 사람도 늦게 일을 했나보다”라고 자신의 상황에 연결하는 명제는 어느 정도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주제)에게서 옷차림(서술적 특성)을 연상하는 인지 상호 작용에는 주제와 특성 사이에 별로 유의미한 중요성은 없다. 노무현 정권 때 보수 야당 사람들이 “국가의 정체성이 의문스럽다”고 항의한 데는 주제와 특성 사이에 타당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정체성을 질문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의 부모의 과거 행적에 초점을 맞추는 반응은 본래 질문과의 타당성이 없다.

분주한 길목에서 어떤 전도자가 “예수, 천당”이라고 단순하게 외칠 때 ‘예수’에 관한 신념과 ‘천당’에 관한 신념이 서로 타당성을 갖느냐 또 상호 간 중요한 관계(인과 관계 같은)를 지니느냐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외쳐서 기독교 개종자가 연속으로 발생할 것이냐는 것은 실용적인 문제이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던 어떤 흉악범이 “예수, 천당”이라는 거리의 외침을 듣고 갑자기 회개하고 자수하여 양심의 휴식을 찾을 수도 있다. 그것은 우발적인 사건일 것이다. 그러나 우발성이 일관된 타당성은 아니

고 반복되는 인과관계의 규칙을 뒷받침할 중요성을 갖지도 않는다. 그러한 흉악범의 우발적 회개 사례 하나가 그 “예수, 천당” 전도자 자신의 경우 그 신념을 강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우발적 사례 외에 계속 일관성 있게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보편적으로 성취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즉, 그런 구호가 일반적 전도나 상업 선전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1. 신념과 태도, 그리고 행위 유발

신념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행위를 순간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접할 때 비교적 지속되는 신념의 체계 중에서 일부가 활성화되어 특정한 방식을 선호해 반응하도록 영향을 준다. 특정한 행동 지향성을 지닌 심리적 상태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태도를 사람들마다 신념 체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지닐 수 있다. 개인 혹은 집단의 어떤 태도를 구성토록 영향 주는 체계화된 신념들은 각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인지 요소 측면이다. 무엇이 사실인가 허위인가, 좋은가 나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인가 원치 않는 것인가 등에 대해 개인이 알고 있는 내용 곧 지식의 요소이다.

둘째는 감성적인 측면이다. 모든 신념은 그 믿는 대상에 대해 여러 수준의 강도로 감정을 일으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 감정은 강도가 다양하며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는 입장을 갖게 한다. 신념의 타당성이 심각하게 의문시될 때는 논쟁점이 된다.

셋째는 행위적 요소이다. 신념은 여러 단계의 반응을 일으키는 잠재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히 활성화될 때는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어떤 행위를 유발하느냐는 것은 그 신념의 내용에 의해 좌우된다. 즉 자살을 순교자의 승리로 미화하는 모슬렘의 신념은 테러를 조장하지만 자살자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개톨릭의 신념은 자살을 방지한다.

2. 신념의 상호 일치성과 공조 잠재성

사람들은 남의 신념을 자기 자신의 신념 체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 평가한다. 그리고 남이 지닌 신념과 자기의 신념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인성을 평가하고 피차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신념의 유사성 혹은 일치는 공조 행위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는 하다. 그러나 신념이 유사하다고 협동이 발생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같은 부모나 스승에게서 도덕적 신념을 함께 교육받았더라도 형제나 학우 사이에 행동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 심지어 같은 교회나 정당 안에서도 신념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협동보다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에 신념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별개의(돈이나 파워 같은) 가치를 공유할 때 제한적 공조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별개의 가치는 자신의 신념을 배반하는 배신행위를 매매하는 데 유효하다. 신념의 일치를 측정하려면 특정 신념이 또 다른 신념과 얼마나 유사한가, 그리고 각자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가로 가늠할 수 있다. 사람들 간의 신념의 일치성 정도(스코어 1부터 4까지)는 다음 도표처럼 산출해 볼 수 있다.

		신념이 자기에게 지니는 중요성	
		핵심적 (매우중요하다)	주변적 (별로 중요하지 않다)
피차간 신념의 유사성	매우 유사하다	4	3
	별로 유사하지않다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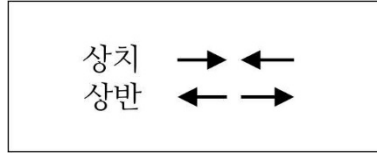
위 도표에서 산출한 신념의 유사성 스코어가 높을수록 사람들 간에 신념의 상호일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스코어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공조냐를 조건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에서 신념에 바탕을 둔 정강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한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간에, 그리고 개체d 교회 안의 다툼이 신념의 대립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정강 정책은 국가 조직 운영과 국민 복리를 위한 신념의

체계이며 그 신념들에는 핵심적인 것 피상적인 등, 위에 열거한 신념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적용된다. 한국 정치에서 곤란한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소위 정계 개편이란 행위는 신념의 수준에서 정강 정책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같은 인물들이 지닌 신념 체계의 변환 없이도 입지를 바꾸면 새로운 행위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개편이 단행된다. 입지를 바꾸어 신념을 매핑하는 관점이 바뀐다면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요 인물들이 지닌 신념들을 변환하고 그 지향하는 방향량에 따라 인재들을 재구성하지 않는 한 정치 질서를 확립하기 어렵다.

3. 신념의 일치성과 비일치성 (Congruity vs. incongruity)

그러면 신념들의 인지적 상호작용으로 개인 혹은 집단의 특정한 신념이 어떻게 더 강화되고 또는 약화되거나 산만해지는가? 그 것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다. 첫째, 두 개 신념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자극이 지닌 방향이 긍정적이면 (일관성을 지니면) 그 신념들의 힘이 가세되는 인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교의 효도와 기독교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훈은 부모나 조상에 대한 신념의 방향이 같다. 그러나 유교의 조상을 위한 제사와 기독교의 우상숭배 거부 두 개의 신념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자극은 반대 방향이어서 그 신념들의 힘이 감퇴되는 인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한국에서 치열하게 보수-진보의 이념의 대결과 공방이 전개되는 이유는 신념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자극들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다.

신념들이 단지 일직선 상에서 정반대의 두 개의 힘으로 대결하거나 이반하지만은 않는다. 어느 신념도 원초적 위치보다 다른 각도의 지향을 할 수 있고 굴절할 수도 있다. 그 중 몇 가지 구도를 다음과 같이 도식으로 예시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념들이 중립적인 위치로부터 어느 정도 보수적 혹은 진취적으로 기울느냐는 각도를 알면 그 신념들의 힘이 가세되거나 감퇴되는 인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소위 이념의 색깔론은 중립적인 이념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각도가 기울었느냐는 시비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두 개의 신념 내용 자체에 대한 논쟁 보다 신념들에 연관된 각개의 중추적 인지의 자극들(최소한 대립적인 두 가지의 자극)을 하나의 형태로 묶어 신념들을 비교하며 상관성을 추출해내는 인지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다.⁸

1) 배타적 신념

그러나 자기들과 이질적인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적대 집단의 사람들을 괴물처럼 혐오하고 불신하게 만들면 착오된 배타적 신념이 형성되어 그 사회를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로 만든다. 지금 한국이 불신이 팽배한 사회가 된 데는 신념 형성과 권위와의 관계성이 작용하고 있다. 기성 신념 체계들과의 연계를 해체하는 행위 즉, 불신을 생존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는 방향량(方向量, vector)이 한국에서 강력히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한민족 역사를 통해 현재까지 내려온 파쟁과 타인 배척 신념이 쌓아온 결과이다. 젊은 세대가 과거 군사문화의 억압과 정경유착으로 기득권층이 된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척하려는 심리적 기제는 권위와 신념 형성의 관계로서 이해할 만하다. 그 방향성이 기성체계에 반대 방향을 지향하고 막강한 다이내믹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성체계에 대해 조건을 분별하지

8. Rokeach, Op. Cit., p.89.

않는 배척, 그 반동 다이내믹에 북한의 체제와 동일 방향을 지향하는 선택에는 문제가 있다. 한국에는 기성 보수층에 대응할 방향 지식이 부족하고 그 공백을 북한의 프로파간다로 메워지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통제경제의 이상론의 비중과 자본주의 자유 경쟁의 악덕성 사이의 장단점을 분별하는 논쟁을 정리하여 신념체계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치 경제사범이나 정치적 스캔들이 있었고 9.11 테러 사건도 있었지만 아직도 남을 의심하기 보다는 신뢰한다는 대인관계의 기본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 바탕에는 정의롭고 공평한 기독교 신의 권위에 대한 공통적인 신념과 잠재의식 속의 두려움이 깔려 있다.

4. 공조 행위의 전제 조건으로서 신념

신념은 사람들의 요구 충족(need gratification) 행위에 관계된다.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신념, 그리고 그 결과를 달성할 것이라는 신념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에 도달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즉 요구충족의 지연(delayed gratification)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수단 및 결과 달성에 대한 신념의 강도와 정비례한다. 토지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6년 이후부터 열매를 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나무를 심어도 6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은 사과나무를 자르고 3개월 안에 수확할 채소를 심을 것이다. 사람들은 요구 충족을 즉시적 요구 충족(immediate gratification)과 장기적 요구 충족 (long term gratification), 그리고 여러 길이의 중간기적 충족(midterm gratification)을 구분해서 배려한다. 당장 허기를 채우기 위해 눈앞의 음식을 먹어야 하든가 빚을 갚기 위해 고리채를 쓰는 것이 즉시적 요구충족이다. 자식을 잘 교육시켜 장차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것은 장기적 요구 충족의 예이다. 자식이 고등학교, 대학 교육(요즘 한국에서는 해외 유학)을 착실히 받으면서 좋은 성적을 내며 졸업하는 것이 중간기적 요구 충족의 예이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 평생 동안 기대를 새롭게 가지며 당초 기대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기다린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요구 충족을 그렇게 오래 지연하지 않는다.

5. 신뢰와 공조 관계

신뢰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요구충족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한과 정비례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는 결과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죽을 때까지 서로 포기하지 않는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신뢰는 약속이 이뤄지지 않는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 있게 한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결혼은 모든 유형적 약속 조건이 이뤄졌어도 이혼으로 끝날 수도 있다. 신뢰와 요구충족 지연의 관계는 반비례한다. 즉 상호 신뢰성이 낮을수록 그 관계에서의 요구충족 지연가능 시한은 짧다. 요구충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은 신뢰를 경험한데서 나온다. 지금 한국의 가정문제, 사회폭력, 경제성 범죄, 정치의 지향성 부재와 유사 이념적 갈등이 모두 신뢰의 결여와 관계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3개월도 못되어 화물연대 파업이나 쇠고기 파동으로 민중의 시위를 당한 것은 과거의 신뢰 경험이 빈약했던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전에 다수표로 선출한 새 정부의 집행 과정과 결과를 보지도 않고 새 정부의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국민의 인내심이 너무 짧다는 지표이다. 물론 새 정부가 출범부터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든가 과거 불신 대상이었던 정책을 지속한다면 성급히 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6. 신뢰와 코드 정치

전통사회에서 신뢰의 기준이 사람에 대한 신뢰에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객관적인 규범에 신뢰의 기준이 있다고 사회학자 파슨스는 구분한다. 그러나 규범에 대한 신뢰가 앞서야 되는 현대에서도 규범을 집행하는 인물의 변수는 감퇴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와 그가 주장하는 신념 내용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불일치할 때 공조하려는 사람은 갈등

을 느끼게 된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인간관계의 밀접도와 정비례하여 강화되며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가 본질적인 신념의 차이를 극복한다.

첫째, 연고에 의한 척수가 가까울수록 더 신뢰한다. 형제자매 간에 우선 가장 신뢰하며 동향인이나 학교 동창을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더 신뢰한다. 둘째, 일상적인 상호관계의 빈도수가 잦을 때 사람들의 상호 신뢰는 상승한다. 어떤 신념의 내용이 인간관계에서 신뢰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 이기는 하지만 가까운 척수 관계나 접촉의 빈도에 따라 신념 내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신념의 속성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의 연대와 즉흥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결단이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이 관저에 사람들을 불러 칼국수를 나눠 먹거나 거리에서 시민들과 담소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인간관계 밀접성의 연장선에 정치인들의 종횡연합 해체 모임기가 세 포의 분열과 증식처럼 연속된다. 신념의 내용 보다 인간관계의 밀접도에 의한 신뢰가 우선하는 행위 선택이 빈발하면 소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적이다. 연고자들의 소집단에 의한 독점이 성행하면 국가사회라고 표방하더라도 실제로는 봉건 토후들이 자원과 권력을 통제하는 전통사회의 속성을 더 지닌다. 정치인 집단과 산업재벌, 언론 재벌이 ‘정략결혼’으로 유착하며 상호 견제하는 봉건사회의 속성을 유지하려는 음모가 계속된다. 그러한 ‘친고자 편중’ 독점(nepotism)이 한국의 보수주의 신념의 프레임이다. 그러한 전통사회의 속성이 유지되는 한, 신념보다는 인물에 의해 정책이 수시로 뒤바뀌며 동조하지 않는 인물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책임을 추궁하는 막료의 경질과 처벌성 시행착오가 반복된다.

한편 진보주의를 표방하던 모 정권의 실책은 일반화된 진보적 신념 체계에 확고하게 서서 견지하지 않고 대통령의 협소한 신념체계에 동조하는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것이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념, 원칙, 방법론, 합리성의 등의 보편적 가치에 비중을 두기보다 단지 공조되는 ‘코드’의 주파수만 맞추어 인간관계의 밀접도 (연고, 척수, 접

축 빈도)의 방향량(方向量, vector)만이 중요한 변수로 남게 됐다. 그리고 진보주의 방향량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보수정권의 정책을 집행할 기회를 거부하고 있다. 신념 체계의 차이가 국회 결성까지 사보타지 하는 너무 적나라한 공조 거부로 나타난다. 보편타당성 있는 신념이 인간관계의 밀접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보편타당한 신념과 정책이 보호되는 한계선이 있어야 과정(법 절차, 정책, 방법론 등)이 합리적으로 수행된다. 또한 인간적인 밀접도가 없는 타인들(및 집단)과도 공조를 가능케 할 만한 객관적인 절차에 관한 신념이 보편화되어야 사회의 모든 관계들이 안정성을 갖고 지속된다.

한국이 지금 이처럼 혼란스런 이유는 인간관계로부터 중립적인 보편성 있는 신념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의 코에 걸면 코걸이, 을의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된다. 보수와 진보 신념들의 실질적 내용을 터취하지 못한 채 피상적 신념에 고질적으로 집착되어 감정 투입을 높임으로써 상대방이 위치를 포기할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들도 자기 두뇌에 내면화한 신념의 폭이 넓지 못하고 폭 넓은 신념의 인물들을 주변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념적인 운신의 폭이 제약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정황에 상응하지 못하고 정황에 따라 이 말 저 말 한다. 정당과 언론이 함께 춤을 추거나 대안 없는 시비를 거는 것 외에 보편적인 신념들이 결여되어 나라가 어지럽다. 정당 산하의 정치인들이 합의된 신념이 없이 투표 구역 소단위 주민들에게 임기응변적으로 편리한 말을 하니깐 일관된 신념이 정치인들에게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신뢰가 정착할 수 없다. 그 극단적인 예는 ‘세종시’ 구상을 둘러싼 대립 각축에서도 나타난다. 그 배경에는 한국 두뇌 자원 전반에 걸쳐 국가 전체의 최대 이익에 관한 신념들의 합의된 체계나 적어도 대등하게 경쟁하는 합리적인 신념 체계들이 부재한 것이 더 근원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경쟁에서도 상승(相勝, win-win)의 결과가 있다고 보기 보다는 독점(zero-sum)의 결과만을 목표로 하는 행위 패턴의 결과이다. ‘제로섬’게임이란 목표(자원, 파워 등)를 공유할 기회와 여지가 없을 만큼 빈곤하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두뇌 자원들이 목표를 공유할 기회의 여지를 넓게 파악하려는 시야를 갖고 보편적 신념들을 창출하기 보다는 정권이나 재벌의 이권에 야합하여 특정 이익집단의 좁은 시야에 한계를 두고 그 방향력에 동조하는 신념들을 조작해 내는 것이 문제이다. 지성의 ‘매판’자본화는 자본주의 폐악의 하나이다. 더욱이 글로벌 시대에는 국가 간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한 국가 사회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편적 신념체계란 시대착오처럼 평가하게 됐다. 그래도 국가의 이익을 표방하는 보편적 신념 체계가 필요하며 그 과업은 정권이나 재벌과의 연계를 넘보는 교수들이나 언론인들이 아닌 ‘소수자의 행로’를 선택하는 지식인들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5장. 신앙의 본질과 성장

1. 신앙의 본질

“나는 믿는다”(I believe)라는 말은 개인의 주체적 신앙행위를 지칭하는 동사로 쓰인다. 그러나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경우에 신념(belief)은 중립적인 정보 내용이다. 신념의 경우 “나는 신을 믿는다”는 경우는 자기의 책무수임이 개입되지만 “지구는 회전한다”는 정보내용에 대한 신념은 자기의 책무위임이 없는 제3자적 개념이다. 한편 신뢰(trust)로서의 믿음은 대상의 특질이나 행위에 대한 정서이며 그 대상의 책무수임을 기대한다. 신뢰의 대상이 물체인 경우 그 성능을 기대하며 신뢰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그의 책무 행위를 기대한다. 믿음의 내용이 항상 진실이기를 기대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착오이거나 허위일수도 있는 중립화되고 책무수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릴 수도 있다.

착오신념이나 허구신념이 실재한다는 것을 수용하는 이유는 종교의 세속화, 현대화 문화의 변화 결과로 더 종래의 신념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의식이 대두하는 때문이다. 새 의식은 “경험에 의해 실증될 수 있는” 지식을 신뢰하며, 윤리와 미를 실효성과 가용성으로 대치하고, 친밀성을 섹스 충동으로 대치하여 성도착증으로 인플레 하게 된 것이다.

신앙을 [신뢰와 충성심을 생략한] 단지 신념 또는 신념체계로 보게 되고 모든 신념들의 진실성이나 적절성에 대해 상대적이라는 교리적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⁹

파울러의 요약¹⁰

- 신앙은 신념이나 종교와는 달리 초월자에 대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의 범주에 속한다. 신앙은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 종교적 행위와 신조, 형태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본래적인 삶의 모습이다.

- 여러 종교 전통들이 모두 같은 현상을 가시화 한다. 모든 신앙은 자기의 궁극적 관심사를 향해 초월적 가치와 파워를 향한 비전에 일치하게 심장에서 나오는 의지를 맞추는 것을 포함한다.

- 신앙이란 삶에서 어떤 별정 측면이 아니다. 신앙은 인간의 자기 전체의 지향으로서 자기의 희망과 노력, 생각과 행위에 목적과 목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 여러 종교의 다양한 신념과 형태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공동체에 따라 다르다는 상대주의의 한계를 넘어 신앙은 진실을 추구한다는 단합성을 갖는다.

사람의 자아는 어렸을 때 자아와 타인(가족) 사이의 사랑과 상호신뢰, 충성에 의해 형성된다. 이 관계에서 가족이 공유하는 가치와 파워의 공동 센터가 형성되는데 이 센터를 향해 자기와 가족들이 신뢰와 충성을 투입한다. 이 신뢰와 충성이 신앙 형성의 원소재이다. 이 관계에 우리는 가치를 투입하고 신뢰와 충성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 자기 정체성은 신앙과 상호관계를 한다. 자기의 소속, 가치, 역할이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지

9. James Folwer,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New York: HarperCollins, 1981. p.13.

10. Fowler, p. 14-15.

정된다.¹¹

2. 신앙 정체성의 3가지 유형

다신 신앙(polytheism):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처럼 여러 가지의 가치와 파워 센터에 흥미를 갖는 사람. 자기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데 충분한 초월적인 가치와 파워의 초점을 갖지 못한 사람의 신앙과 정체성이다. 그의 자아조차도-자신의 신화, 운명, 가치-자기의 희망과 노력을 통합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단일신 신앙(henotheism): 신앙과 정체성을 찾는데 하나의 초월적 가치와 파워에 초점을 맞추어 인성과 세계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 핵심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며, 허위이며 부적절하다. 그래서 마침내 섹스와 돈이 우상이 된다. 성공, 파워, 부, 지위와 명성, 명예, 커리어리즘, 워홀릭 이런 것들이 단일신이지다. 그런 야망은 자아의 확장일 뿐 그 자체가 궁극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초월적인 무한한 명분을 섬기는 길이다.

전격적 유일신 신앙(radical monotheism): 여기서 유태교적 전통에서 전격적 유일신이란 단일신이 아닌 여러 신들 가운데 가치와 파워에서 가장 우월한 신이다. 보편성이 적거나 가치와 파워면의 초월성이 열등한 실재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격들을 상대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전격적 유일신관에서 사람들은 포괄적인 가치와 파워에 신뢰로 연결되어 충성으로 매이며 타인들과도 신뢰와 충성으로 유대를 갖는다. 그 신관에서 자기 족벌의 신들이 유한한 신들임을 보게 된다. 전격적 유일신 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적인 보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으로 부른다. 물론 이 정체성이 개인의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사연과 가치관에 소속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각자의 제한된 지엽적인 공동체가 궁극적 가치를 가진 것처럼 존중되거나 순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11. Fowler, p. 16.

전제를 시인하면 각자가 지닌 단일신적 가치와 파워의 센터들은 적절한 규모로 존중과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격적 유일신 신앙은 개인들이나 공동체에서 일관성 있게 오래 지속되며 구현되는 일이 드물다. 사람들은 현실 자체를 너무 쉽게 초월적인 가치와 파워의 핵심이라고 혼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 단일신이나 다신주의 신앙으로 계속 끌린다. 그러나 지엽적인 것을 우상화하는 신앙에 빠지지 않게 규제하는 결정적인 이상으로서 전격적인 유일신앙은 막대한 중요성을 갖는다.

인류의 장래는 지구 공동체 안에서 포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전격적 유일신앙은 보편적으로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그런 이해 아래 우리들의 지엽적인 신앙 지향을 극복하며 변화시키는 파워를 행사하도록 신앙관을 구성하고 상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¹²

3. 이미지로서의 신앙

신앙은 우리 존재에 관해 느끼는 이미지들에 의해 구성된다.

신앙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제도적 기구, [문화의 표현들], 우리 생명의 바탕인 우주 환경과 초월적 실재에 대한 경험하며 [상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나믹한 이미지이다. 상상하는 과정으로서 신앙은 우리가 배우며 성장하는 언어와 공동생활 가운데서 상호관계, 이미지들, 상징들, 의례들, 개념적 표상들에 의해 일깨워지고 형상화되며 확신과 함께 제안된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우리 삶의 조건 전체를 느끼는 감각과 이미지를 알며 구성하는 활성적 방식이다. 그리하여 신앙은 우리 삶을 이끄는 역장들(force fields)을 통합한다.

이미지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미지로 시작하여 이미지로 저장된다.

12. 특히 유일신관에 관해서는 Fowler, James (1981) *Stages of Faith*. 22-23면을 요약함

- 경험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우리의 얇은 이미지로 수록된다. 그래서 경험에서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이미지로서의 얇들이 자기 각성 암시나 최면을 통해 되살아나온다.

- 얇은 우리가 의식적 감지하거나 주의 집중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보다 더 폭 넓고 포괄적으로 발생한다. 의식 저변의 얇은 우리 경험의 영향과 의미를 서술하거나 검토함이 없이 기억에 수록한다. 그런 영향들이나 의미들이 우리의 앞선 경험과 대조하고 연장하여 조합하여 잠재적 상상 자원의 역동적인 저장고가 된다.

- 우리가 남과의 의사소통이나 사건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배우는 것을 의식적으로 서술하더라도 우리가 앞서 형성한 이미지와 링크되기 전에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 진정한 배움이란 앞서 지녔던 이미지와 공명하며 그것을 연장하며 감정으로써 재평가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미지란 어떤 일의 상태에 대해 사람이 알아차리는 내면의 모호한 대리 표상과 그에 대한 느낌으로 시작된다. 이미지는 의식과정의 출현을 기다리지 않고 의식에 의존하지도 않으면서 발생한다. 이미지는 정보와 연합하며, 지향성과 정감적 유의미성(affectual significance)을 함께 보유한다. 그러한 이미지는 개념보다 앞서며 더 깊은 것이다.

우리가 어느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이미지를 불러일으켜 그 대상을 스캔하는 심문을 하고 질문하는 동작상태에 들어간다. 그 다음 이미지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지가 알아낸 것을 서술하게 된다. 그 서술은 이야기 형태일 수도 있고 시나 상징적 형태로 내면의 묘한 이미지들을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정묘한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추상화된 개념으로 구성된 제안 주장의 형태를 지닐 수도 있다.

“단지 우리의 앞선 이미지의 죽음으로써만 새롭고 더 적합한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본질적 의심은 신앙의 생명의 한 부분이다.”

“신앙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다. 신앙의 반대는 허무주의며 초월적 환경을 상상하지 못하는 불능증이다. 심지어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절망조차 할 수 없는 불능증, 그것이 신앙의 반대이다.

신앙의 상상은 현실을 궁극적 환경에 대비하며 상상하는 방법의 역동적이며 끊임없는 변화(진화와 발전)를 이끈다. 신앙은 궁극적 가치와 파워의 핵심을 지향하며 포착하는 양태에서 혁명적 변화(개종)를 일으킨다.

1)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으려고 한다.

신념, 신앙, 신뢰의 그 믿으려는 내용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의 이미지이다. 3-4세의 아이는 자기가 눈을 감은 채 갖고 싶은 인형의 이미지를 상상한 다음에 그것을 손으로 잡고 눈을 뜨면 인형이 손 안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성장한 사람도 두뇌 속에서 발생하거나 기억된 이미지와 두뇌 밖에서 발생한 현실의 이미지를 구분하기 어렵고 양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람의 두뇌가 원시적 상태에서 진화하면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과도기를 거쳤던 두뇌의 흔적 때문이다. 뜨거운 사막에서 혹은 겨울에 추운 동굴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절박할 때 눈을 감고 사냥할 짐승이나 열매를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그 것이 손에 잡히기를 기대하던 때에 개설(wiring)된 두뇌 ‘회로’의 원시적 기제가 있다. 그것이 유전되어 아직도 의도하지 않은 채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요구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꿈을 가지라”고 격려하면서 비현실적인 요구와 기대에 대해서는 “꿈을 깨라”고 다그친다. 두뇌의 기제에서는 비전(vision)과 환영(illusion) 두 종류 이미지들 사이의 차이는 없으며 단지 그 이미지들이 현실과 상응하느냐는 차이 뿐이다.

그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으려고 한다. 반대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즉 요구에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으려고 한다. 그것은 요구와 반대되기 때문에 믿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실언이나 행동의 실수를 하고나서 혹은 경쟁에 실패를 당하고 나서 자기에게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부정하거나 남에게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기제는 단지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자기의 요구와 반대되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즉 현실화된 사건의 이미지를 두뇌에서 배제하려고 한다. 가정

으로부터, 친구, 교회, 정치, 등 인간의 여러 수준의 상호 관계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언행에 대해 ‘믿는 것’과 ‘믿지 않으려는 것’들의 착오와 충돌이 발생한다. 가정 파탄으로부터 종교계나 정치계의 갈등과 투쟁-즉 협동의 저해가 ‘믿음’의 차질에서 발생한다.

2) 신념, 신앙, 신뢰는 이미지의 현실성 여부와 엇갈린다

신념의 이미지는 객관적 현실성의 수준에 따라서 망상, 스키마 형태의 환상, 목표 서술을 지닌 비전, 목표에 목적 서술을 부착하고 그 달성 방법론 서술을 갖춘 이념(ideology, 신념들의 체계)으로 진화한다. 신앙의 이미지는 객관적 현실성의 수준에 따라서 스키마 형태의 미신, 목표 서술만 있으나 방법론의 합리성이 없는 맹신, 목표에 목적 서술을 부착하고 그 달성 방법론 서술을 갖춘 신학(theology)으로 진화한다. 신뢰는 신앙을 배반할 수 있다. 그 증거는 종교-정치 지도자들이 추종자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죽음에 몰아넣는 현상에서 볼 수 있다. 신앙은 신념을 묵살하거나 배반할 수 있다. 그 예는 창세기 설화에 대한 신앙이 우주 형성과 생명의 진화에 관한 과학의 증거와 신념을 배척하고 단죄하는 데서 드러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기를 (신앙하고 신뢰하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 만큼 신앙-신뢰를 통해 달성하려는 강력한 요구를 지니는 때문이다. 그런 요구가 절실하지 않다면 사람은 정서가 부착된 신앙이나 신뢰를 갖지 않을 것이다. 단지 과정과 수단에 관한 신념만을 가질 것이다. 신앙은 아직 성취하지 못한 요구,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데 정서를 투입하여 해결하려는 적응 방법의 원시적인 잔재이다. 그러나 바로 이 원시적-원초적 적응 방법의 유형이 21세기까지 문화적으로 유전된 현실은 이제 우주 탐험시대까지 축적한 과학 지식의 범주를 넘어 우주의 근원에 인간이 새로이 접촉하여 새로운 진화를 할 필요성을 각성시킨다. 즉, 궁극적 실재, 초월적 존재, 신, 인텔리전트 디자인(Intelligent Design), 소스 에너지, 성령 등 여러 가지로 추정하고 명명하는 근원적 실재와 에너지와 질서에 대한 새로운 접촉이란 인간의 생물학적 실

재(bio-physical chemistry)에 갇혀 있는 인지 역량(cognitive capacity, 지성과 감성)을 넘어 영성(spirituality)과 그 통로에 관한 추구로 진화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요구, 가치, 신념, 신앙, 신뢰의 피안

행동의 동기(motivation)는 요구(needs)에 의해 발생한다. 요구에는 생물학적(물리화학적) 요구와 사회적(문화와 사회 구조적) 요구가 구분되거나 합쳐서 동기로 작용한다. 성적 충동은 생물학적 요구로 발생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문화적 요구로 발생하며 가정은 사회구조적 요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요구는 가치(value)의 원초적 형태이다. 각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여건을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그 대상이나 여건의 가치가 형성된다. 가치도 생물학적 요구에 따른 가치와 문화-사회적 요구에 따른 가치가 있다. 생물학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빈 껌질의 조개는 가치가 없고 살이 들은 조개는 가치를 갖는다. 문화적으로 장식물 수집가에게는 조개 살은 가치가 없고 조개 껍질의 모양이 가치를 갖는다.

신념(belief)은 개인이 요구하는 대상, 즉 가치를 취득하는 과정과 수단에 관한 합리적 정보이다. 신념은 수단적 유용성을(instrumental utility) 지닌 정보이다. 신념은 서술(narrative) 형태로 언어들이 구조화된 것이며 그 최소 단위는 스키마(schema, 이야기 토막)이다. 신념은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과 수단에 관해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이며 방법에 관한 서술을 내용으로 한다. 포착할 수 없거나 현실화할 수 없는 요구에 관한 이미지나 가상의 정보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다.

신앙(faith)은 요구하는 대상 그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정서적 정보(emotional information)이다. 신앙의 콘텐츠는 그 목적 대상에 대한 서술일수 있지만 그 최소 단위는 언어로 구조화되지 않은 이미지일 수도 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요구의 이미지, 보지 못한 것들을 기대하는 이미지가 신앙의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신앙은 목적 유용성(end utility)

을 지닌다.

이미 가시적이며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에 관한 신념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신념 너머에 있는 이미지, 즉 수단적 서술 정보로서 가능한 스키마 밖에 있는 이미지를 내용으로 한다. 신앙은 요구의 초현실적 최종 형태이므로 그 달성 과정과 수단에 관한 합리적 서술을 필수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신앙은 목적 유용성(goal-utility)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달성 수단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된 여백을 강도 높은 경이(awe, 驚異)와 기대의 정서로써 보완한다. 그러므로 신앙은 그 요구 대상에 대해 일관된 정서적 집착 및 그 정서를 강화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여 형성되고 유지된다.

신뢰(trust)란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의 발원(신적 존재, 우주질서, 타인, 과학적 방법, 사회적 과정 등)에 대한 신앙이다. 신뢰는 대상을 향해 호의적으로 기대하는 정서이며 현실적 증거 없이도 막연한 신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의 모든 요구가 충족된 사람에게는 그가 누리는 여건 이상의 자원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현상을 유지할 신념은 가치이지만 그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야 될 신앙은 가치가 안 된다. 그러한 사람에게 최소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요구 충족을 과거에 발생시켰고 현재 발생시키고 있는 가치의 자원과 그 충족 질서가 지속되는 속성을 지녔을 것이라는 신뢰이다. 요구 충족의 지속 가능성 또는 그 요구 충족을 확장할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신앙(목적 이미지에 대한 정서적 투자)에 바탕을 두지만 합리적 수단에 관한 신념을 필수로 동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신앙과 신뢰는 신념의 요건인 합리적 유용성의 테두리로부터 상투적으로 이탈한다.

4. 고비용 신호인 종교적 의례

종교의 연구는 신화, 의례, 금기, 상징주의, 도덕성, 초현실적 의식, 비가시적 실재에 대한 신념 등 광범한 영역의 현상들과 행위들을 탐구하며

서술한다. 종교의 발달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탐구하려면 사람들의 종교적 의미를 지닌 행위들이 시공을 통틀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사람이 종교 행위를 하는데 드러난 혜택보다도 훨씬 큰 현저한 비용이 소요된다. 종교 행위의 비용으로는 시간, 에너지, 물질, 심신의 고통 등과 그에 유사한 비용을 들 수 있다. 그 비용을 초과하는 현실화된 혜택으로 건강, 생존, 경제적 기회, 공동체 소속 의식, 심리적 안녕, 위기 때의 도움, 결혼 기회와 출산 등이 있다. 그러므로 최적의 합리적 계산을 추구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종교란 힘든 도전이다.

이런 혜택 외에도 사람이 내재적으로 지닌 소통의 문제를 종교가 해결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동이 가능하게 된다. 종교에 의해 실제 발생하는 이런 혜택들과 그 비용의 평형은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연구나 그 증거는 거의 없다. 그런 증거와는 상관없이 종교는 개인들이나 집단의 진화론적 적응에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 집단 결속의 매체로서 종교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는 허다한 것이 있으나 초자연적(비물리적) 실체에 대한 신념에 핵심이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종교관 중에서 고전 사회학자 뒤르켐 신성한 대상에 대한 신념과 실천으로 도덕적인 집단을 단합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종교라고 보았다. 모든 사회가 그 구성원들을 단합시키는 선별된 개념이나 대상물을 갖고 있다. 한민족에게는 백두산이 그런 개념-대상물의 대표적인 것이며 최근에는 독도가 그런 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인들에게는 단연히 성조기가 그런 것이며 중동 사람들에게는 알라 신이 그런 것이다. 그 개념과 대상에 대한 충성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자발적인 공통의 반응을 일으키며 논리와 시공을 초월한 정서적 흥분을 일으킨다. 그 신성한 대상은 유럽에서처럼 세속적인 것으로 대체되기도 하며 구성원들을 단합시키는 기능을 상실하게도 된다.

그 신성한 대상에 대한 이해는 흔히 직관에 역행하기도 한다. 신성한 대상에 대해 그 자체의 속성보다도 사람 자신의 정서로 규명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타당성을 지니려면 정서가 부하된 상징을 창조하고 그 것으로 정서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마실 수 없는 성수, 먹을 수 없는 우상적 동물, 눈물을 흘리는 목각 우상, 피를 흘리는 초상화,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등이 그런 것이다.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지만 개인들을 공동체로 묶어 나가는 데는 나름대로 성스러운 상징과 그에 의해 정서가 야기되는 의례(ritual) 기제가 있다. 모든 문명국에서 세속적인 것이지만 국가 연주와 국기배례를 하는데 그 것은 상징을 이용하여 공동체 단합 정서를 촉발하려는 의례로서 집행한다. 종교가 상징과 의례 집행을 통해 집단의 단합을 증진한다는 인류학의 관찰과 사회과학의 설명에 뇌신경과학과 신체생리학의 면에서도 타당한 설명이 가능하다.

2) 의례란 무엇인가?

의례는 과장된 형식, 행동들의 나열, 반복성 행위, 변이 없는 단순성으로 의사소통을 조성하여 정서를 야기하고, 주의 집중할 방향을 제시하며, 기억을 상기시키고 회동(함께 모임)을 증진한다. 의례에서 신성한 대상은 그 자체의 속성보다도 그것이 야기하는 정서적 부하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공동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상징에 의존하게 된다. 인류학자들과 동물생태학자들은 사람의 의례행위 근원을 포유동물들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몇 가지 행동에서 추적한다.

이런 상징들을 현실화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성스러운가를 규정하는 것은 지속성을 갖는 종교적 의례의 프레임웍(형식적 구조)이다. 그런 상징들을 담아 서술한 것이 신념과 의례문(liturgy)이다. 어떤 특정한 신념과 의례문은 작은 집단에게만 타당성을 가지면 어떤 것들은 문화를 초월하여 타당성을 갖기도 한다. 의례를 통해 소통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의미를 해석하며 신념으로 보존하는 것은 각 개인이 결정한다. 그러나 의례로 표현되는 신호들은 본질적으로 상호간에 정서와 동기 상태에 관해 정직한 정보를 소통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의례의 신호는 의사소통을 하려는 의도에서 구성되어 서로의 행위를 조정하여 값비싼 적대적 관계를

감소시킴으로써 안정된 사회적 그룹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¹³

3) 사회적 유대 이론

종교의 우선적 기능이 집단의 단합을 유지하는데 있다는 이론을 좀 더 확장해본다. 집단의 의례는 공동의 신념, 규범, 가치 등을 표현하고 재확인하여 집단의 조화를 증진한다. 의례집행 상태에서는 개인 간의 구별을 최소화하여 집단의 단합을 강조하게 된다. 종교 입교 예식 같은 것은 그 입교 대상자에게 책무감을 주고 참석자들에게도 종교집단에 대한 유대감을 증진한다. 결혼 의례는 결혼 당사자들의 상호 책무감을 확인하고 참석자들에게도 결혼에 대한 가치를 증진한다.

종교적 의례에서 엑스타시 경험은 신성이나 영성에 대한 초월적 개념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그러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지가 친 사회적 희생으로 희소한 자원을 절약하여 공동체의 지속에 필요한 자원을 보호한다. 위기에 처한 사회에서 종교 또는 세속적 우상을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희생과 단합을 유발하려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씨 일가 지도자가 우상으로, 미국과 남한을 증오하는 정서가 인민 단합의 수단으로써, 제약된 자원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종교적 표상과 상징은 개인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자원을 공동으로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타 집단과의 경쟁에서 더 우세하게 자원과 파워를 집결 자체 집단의 존속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4) 의례의 기만성

진화과정에서 생물이 존속하기 위해 협동자 및 경쟁자에게 신호를 보낸다. 우호관계에서는 진정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상호 협동하며 신뢰를 증진한다. 잡아먹느냐 먹히느냐는 경쟁 관계에서는 진정한 신호를 가장하여

13. Richard Sosis and Candace Alcorta, Signaling, Solidarity, and the Sacred: The Evolution of Religious Behavior, *Evolutionary Anthropology* 12:264–274 (2003). 종교적 의례의 고비용 신호이론에 관해서는 소시스의 논문 참조.

상대를 기만함으로써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인간사회 특히 정치계나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신호와 기만의 신호로 그러한 협동과 경쟁이 발생한다. 정치인의 선거공약과 인상관리에 진정한 신호와 기만성 신호가 섞여있다. 목사의 말과 바디 랭귀지에도 진정한 신호와 기만성 신호가 섞여있다. 생물의 진화과정에서 진정한 신호 때문에 생명을 잃은 개체들의 유전자들은 후대에 전달될 수 없었다. 그러나 기만적인 신호만 보내는 개체들은 공동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존속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생물계의 정황에서 개체들은 상대방의 진정한 신호와 기만적인 신호를 선별하여 조절함으로써 개체적으로 존속하고 큰 집단을 이루게 됐다. 자연도태 과정은 생물들 사이의 신호교환에서 진정한 신호와 기만적 신호를 발신하는 자로서, 상대방의 신호에서 진정성과 기만성을 식별해내는 해석자로서 기술을 배우게 했다. 그리하여 상호관계에서 상대방의 의례적 행위(신호) 속에 의도를 해석하는 전략경쟁이 발달했다. 공약 연설 같은 정치적 의례나 경전 낭송과 찬송과 설교 같은 종교적 의례는 그 속의 기만성 신호를 식별하여 진정한 신호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왔다. 그래서 도덕적인 듯한 메시지이더라도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손실하도록 조작되고 있다. 그래서 스완슨은 평등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도덕성을 지니며 징별하는 신을 믿는 사회라는 현상을 다문화 비교연구에서 확인했다. 협동적인 신호는 단순하지만 기만적인 신호는 매우 정교하게 조작되며 더욱 반복된다. 도우킨스 정복, 통제, 개종에 관심 갖는 종교공동체들이 외부인을 설득하는데 무관심한 공동체보다 더욱 정교하게 반복적인 의례를 전시한다고 예기한다.

원시시대의 사냥으로부터 인터넷 시대의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협동은 공동체의 단합을 유지하고 존속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런 협동에서 기피하는 사람은 값 비싼 허위 신호를 보내야 된다. 병역 기피자를 하려고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심신허약자로 위장하고 발각되면 사회의 지탄을 받는 비싼 비용을 감당한다. 만약 책무수임을 기피하려는 허위신호의 비용이 비싸지 않다면 협동을 기피하려는 사람들

이 허위신호를 보내는 것을 쉽게 모방할 것이다. 종교집단에서 비용(참여, 희생, 절제, 금전적 기여 등)이 비싸기 때문에 협동이 지속된다. 따라서 종교행위의 고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식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협동이 증진된다. 어떤 종교집단에서는 입교자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신체적 단련과 생명의 위협을 거치며 인내를 검증받는다. 쉽게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속성전도가 교인들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비용 신호를 요구하지 않고 “믿는다”고 선언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고비용의 행위를 수행하여 통과한 자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책무수임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공짜 교인들을 피하는 방법이다.

아프리카에서 회교가 번창한 이유는 그 종교가 부정직성에 따르는 신의 엄한 징벌을 관련시킴으로써 아프리카의 상인들이 계약을 스스로 지키며 정직한 거래를 하게 된 데 있었다고 한다. 지옥과 같은 초월자의 영원한 징벌을 믿는 것이 상거래에서 계약을 회피하는 대가보다 크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회교 신도들을 믿을 수 있는 거래 대상이라고 신뢰하게 되어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의 무역이 성행하면서 회교 자체도 전파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회교의 성지인 메카는 무역상인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평판을 얻었다. 기독교는 공짜(구원)를 강조하다가 실패하게 돼 있었다. 개종자를 얻는데 급급하여 개종자를 얻는 데에 전도의 목적을 두다가 보니 진정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지 못했다.

고비용 신호 이론은 여러 지정학적 환경의 문화마다 고비용 의례가 번지어 있는 것을 설명해 준다. 특히 이동이 심하고 유전적 공통성이 적은 공동체에 소속하는데 잠재적 이득이 크다면 그에 소속되기 위한 요건도 까다로울 것이라고 예기할 수 있다. 일류대학의 입학이 힘들고 학비도 비싼 배후에는 그러한 고비용 의례의 기제가 작용한다. 군대 입영시의 강한 훈련이 부대 공동체에 대한 책무감을 높인다. 대학의 프래터니티(fraternity) 같은 특수 동아리에 가담하는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그 그룹에 대한 책무감이 높다. 좋은 동네에 입주하는데도 까다롭고 비싼 비용이 필요하다. 집단

을 이탈하기 쉬운 여건에서 협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단지 왕따를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고비용의 종교적 의례를 요구하는 것이 내부협동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례가 고비용의 신호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검증하려고 소시스 팀은 여러 종교 공동체와 비종교적인 공동 집단을 연구해왔다. 공동체가 존속하려면 경제적 성공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 노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의 관찰 결과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큰 희생을 요구할수록 공동체에 대한 책무수임이 강해진다. 그러나 비종교적 공동체에서 희생을 요구하는 비싼 신호는 공동체의 장기간 지속에는 효과가 없다. 북한에서 국가 집단을 위한 인민의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체제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풀이할 수 있다.

동물들도 피차 신뢰와 협동을 증진하는 비종교적인 의례를 한다. 개들은 만나면 서로 꼬리를 치며 호의를 지녔다는 신호를 나눈다. 유인원의 배분 수컷들도 서로 인사 몸짓을 하는데 그런 의례는 이전의 경쟁자였던 상대와도 신뢰를 하며 협조하겠다는 신호라고 한다. 예수의 희생은 비싼 신호의 샘플이다. 생명을 내거는 비용으로 공동체의 단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범이다. 공동체를 위해 생명 위협을 모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그 혜택은 무엇인가? 천당, 건강, 물질축복 등의 모호한 지연된 달성 약속이 전부인가? 교회를 하여 물질을 축적하고 욕심에 집착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목사들에게는 최후 징벌의 신념이 효용성 없는 것이다. 그런 목사들은 자신의 신념의 리스트에서는 신의 처벌 개념을 삭제하고 남에게만 가르치는 허구 신호의 연출해 온 것이다. 그런 목사들이 최후심판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면 어째서 행위로 신호하지 않고 말(음성과 문장)로만 소통하는가? 행위 신호와 언어 신호의 괴리가 있어 신뢰를 조성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차이를 모르는 자들은 맹종한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고비용 신호인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가? 비종교적인 고비용의 신호로써 달성되는 신뢰감과 강한 유대가 종교적 고비용 신호의 경우만큼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종교적 의례는 검증

할 수 없는 안정된 준거를 제시하고 이를 성스럽게 승격시키는데 비해 세속적 의례는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의례행위는 의례 자체의 필요성이나 구조에 대해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우주적 정당성을 주장한다. 종교적 신념과 행위는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정서와 체험으로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믿기로 작성하고 믿음을 소통함으로써 타당성이 더욱 강화된다. 정서는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로 통제하는 능력을 벗어난다. 정서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의 신체적 및 동기상태에 대해 정직한 신호를 제공하게 된다. 정서는 신체에서 얼굴 표정, 근육의 긴장, 음성, 자율신경 활동, 내분비 기제 등에 영향을 주므로 정서는 표정이나 바디 랭귀지 등을 통해 가시적이며 신뢰할 만한 신호를 보낸다.

5. 종교화와 광신, 열광

모든 생물은 포착되는 현실 외에 포착되지 않는 본연적인 것이 있다는 정보(유전자)의 회로를 따라 현실 밖의 다음 단계의 생명 상태를 추구한다. 씨앗 속에 갇힌 식물의 씨눈이나 알 속에 갇힌 유전자가 싹을 틔우고 부화하는 것은 그 메카니즘이다.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것들에서부터 그 다음의 본연적인 삶의 상태가 있다고 추리하며 추구한다. 아침에 커피 한잔으로 깨운 사람이 점심식사를 제대로 잘 먹겠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충동으로부터 암으로 생사선상을 헤매는 사람이 신의 기적을 갈구하는 데까지 본연적인 추구는 다양하다. 사람들이 현실로부터 초월적인 영역의 모든 존재의 근원을 추리하며 현재 다음의 자신의 존재 상태(따뜻한 점심 한끼이든 암의 완치이든, 혹은 천당 행이든)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창조했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 밖의 어떤 존재의 근원, 근원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 초월적인 실재를 연결하려는 행위는 생물 본연의 종교적 행위이다. 식물이나 동물이 종교를 가졌다는 말은 이상스러운 것이 없다. 모든 생물이 본연적인 정보의 회로(의미)를 따라 가는 것이 종교성(religioning)

이다. 종교는 현실적 사실과 현실 아닌 진실의 근원을 연결하려는 노력이다. 그런데 일상 현실적인 것을 초월적, 본연적, 거룩한 것이라고 속이려 하는 것은 ‘종교화’(religionification)이다. 부흥 목사가 자신의 신 목소리를 거룩함의 표현이라는 인상을 조작한다든가 헛소리를 하면서 “믿으면 아멘 하시오”라고 조작하는 것이 종교화이다. 포착되는 현실을 가지고서 포착되지 않는 것에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상화(idolization)이다.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면...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는 그런 우상화의 하나이다. 평균 수치로 표현되는 국민 소득 2만불은 오늘이나 내일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된다는 것과 별로 상관없다. 그런 우상화 된 상태를 취득 하더라도 그 취득이 허구인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것을 연장하려는 욕망에는 끝이 없다. 즉 국민 소득액을 증대하거나 재산, 권력, 명예를 더 가지려는 욕구에는 끝이 없다. 그것이 또한 사치와 허례 허식으로 연장된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증량하고 연장해도 우주의 본연적인 실재, 의미, 질서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우상화에 그친다.

모든 생명은 자체 실재 밖에서 자신의 존립, 생명 상태를 형성하며 통재하는 힘들과 질서에 관해 의식하고 있다. 자연의 생물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번식 행위를 하며 질병과 같은 도전에 죽어간다. 그러나 사람은 주택을 마련하여 계절 변화에 순응하기를 거부했고 그것은 번식 활동의 주기를 무너뜨렸다. 섹스 싸이클의 붕괴는 인간 상호간의 무한 경쟁을 가속화시켰고 현실 밖의 본연적 질서를 망각하는 것을 촉구했다.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성인 남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는 정서에만 의존한다는 단일 가치관에 몰입하며 그 외의 어떤 질서와 의미도 배제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신약성경은 사랑을 제일의 가치로 꼽지만 그 것은 여러 가치의 으뜸이란 권장이지 사랑이 모든 것을 배제하는 단일 가치라는 말은 아니다. 세속화된 기독교는 사랑을 우상화하고 있다. 사랑은 초월적 본연의 질서들 중에서 오는 작은 질서의 하나에 불과하다. 소위 ‘국민정서’라는 한국사회의 절대적 가치는 순간적인 총동의 총량을 단일의 절대가치로 기준을 삼는 종교화(우상화) 행위이다. 더군다나 자기들의 증오감, 열등감, 좌절감, 무지

한 공포심 등을 집결하여 대외적인 반대 정서는 이상화의 결실이다. 특히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구출했고 현재 보호하는 반세기 우방에 대한 기억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북한의 적대성을 미국에 투사하는 반미감정은 그런 이상화의 산물이다.

사람은 우리 존재에 영향을 주며 형성하는 자아 밖의 힘에 대해 추구하는 경향을 지닌다. 자기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 비교적 성공적인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비교적 실패한 사람은 자기 밖의 타인 또는 더 큰 영향력의 결과라고 변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능력만이 모든 것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확신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밖의 힘에 대해 두려움을 지닌다. 자기 밖의 힘이 자기를 도울 것이라고 믿을 때 사람은 변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변화에 저항한다. 그래도 밖의 힘이 너무 강하면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Eric Hoffer, *The True Believer: Thoughts on Nature of Mass Movements*. New York: Harper & Row, 1951.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최종적인 요소는 압력이 아니라 희망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나 과거에 집착하게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변화를 수용하게 한다.

대중운동은 자아 포기, 즉 원치 않는 자아의 모습을 버리려는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삶의 가치 있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운명은 파괴됐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대중운동은 소속할 수 있는 더 큰 목적과 집단을 제공한다. 그런 사람들의 깊은 소원은 새로운 삶(재생, 부활)을 얻는 것이다. 자신감, 긍지, 희망, 목적의식 등의 요소를 획득할 수 있는, 그리고 신성한 명분에 자기를 동일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대중운동 참여는 이 요소들과 자아 정체성을 준다. 대중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긴밀한 유대를 가진 몸체 속에 재생하는 것이다. [예수가 빵을 나누며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며 몸을 준다고 했을 때 그의 육체

를 의미한 것일까? 그 보다는 조직으로서의 몸을 말한 것일까? 교회라는 회중은 예수의 육체가 아니라 신도들의 조직이다. 몸은 죽으나 영은 영원히 산다는 말은 또한 무엇인가? 인간의 몸이나 조직은 사멸할 수 있지만 그 정신, 이상, 정보는 영원히 존속한다는 말이다. 솔로몬이 지었다는 호화 궁전과 성전은 흔적 없이 무너졌지만 그의 지혜 어록은 남아 있다. 알프레드 노벨이 가졌던 현찰과 부동산은 없어졌거나 남의 소유가 되어버렸지만 그의 기업 정신과 이상은 남아 인류사회 여러 부문에 공헌하는 사람들의 지표가 되고 있다. 은행 구좌에 액수를 늘이고 부동산을 늘여도 그것들은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부터 나의 이름에 연계되어 남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공표한 이상, 내가 탐구하여 기여한 지식은 영원히 남는다. 구약성경이 살아 있는 이유는 그 텍스트나 금박이 가죽 매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과 정보가 유용한데 있다. 그 구약 책의 이상 중에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인류 공존 이상에 어긋나는 것은 죽은 것이다.

대중운동은 개인으로서는 자기의 자원에서 끌어올릴 수 없는 온전한 것 같은 자아를 갖게 하며 자기 스스로는 견디기 어려운 삶을 견디게 하는 대응적 활력소를 제공한다. “신성한 명분에 대한 신앙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잃어버린 신뢰감을 대치해주는 것이다.” 개인 자질만으로는 자기의 우수함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국가, 종교, 인종, 신성한 명분을 들어 그 우월성을 더욱 주장한다. 자기 일에 충실할 만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남의 일에 상관하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부적절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다. 남을 위한 성스러운 명분에 불타는 사람들은 물에 가라앉으려는 자신을 지나가는 뗏목에 매는 것 같다“고 호퍼(Eric Hoffer)는 말한다. 그러나 이기심 없는 삶이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점은 사실이라고 그는 시인한다.

대중운동 한 가지에 쏠리는 사람은 다른 대중운동에도 쉽게 휩쓸린다. 독일 공산당원이 나치당원으로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하나의 대중운동은 종교성과 민족주의 등의 요소를 동시에 지닐 수 있다. 모든 대중운동은 일종의 인구 이동이다. 현실에 대한 불만이 대중운동 발생의 첫 요건

이므로 대중운동은 현실보다 더 나은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표방된 ‘약속의 땅’ 즉 목표가 현실로부터 너무 멀리 동떨어진 경우 현실과 목표 사이의 차이에 대한 긴장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동원되기 어렵다. 그러나 목표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 긴장이 가장 높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도로 동원 준비상태에 놓인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북한의 인민들처럼 절망이 심할 때는 동원되기 어렵다. 그러나 상당히 가졌는데도 더 갖기를 원할 때 사람들은 좌절감을 더 느낀다. 그래서 남한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집단운동에 동원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이나믹이 위험스럽다. 아득하게 먼 희망은 단념을 종용하거나 인내심을 주입하지만 눈앞에 가까운 희망은 폭발력으로 작용한다. “가난을 면하자”고 했을 시기에 한국인들은 인내심을 가졌지만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다가온다”고 단기적인 희망을 줌으로써 근로자들은 더욱 인내심을 잃고 들뜨게 된다. 한국에서 삶의 질(심리적 조화와 평온과 미학적이며 윤리적인 삶)에 대한 장기적 희망을 고취하기 보다 소비 능력을 지표로 하는 단기적 목표를 희망으로 삼는 것이 국민의 불만과 노조파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할 만하다.

사람들이 대중운동에 가담하는 근본 심리는 자기의 부적절감, 자기의 죄의식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호퍼³⁾는 주장했다. “피해자나 가해자, 죄 지은 자나 그의 피해자들이 마찬가지로 흠집 난 자신의 삶으로부터 도피구를 사회운동에서 찾는다...후회나 원망이 사람을 어떤 동일한 방향으로 몰아 부쳐 영혼의 카타르시스(정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공한다.”(호퍼, p. 53) [종교에 귀의하여 성직자가 되거나 충실한 사도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심리 기제가 작용한다. 한국인이 종교성향이 높은 이유는 성장과정에서 독립된 자아를 성숙시키지 못하고 부모에 의존하는 자아, 그리고 항상 부모의 기준에 의해 자아의 적절성을 가름하는 불확실한 자아를 지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유교의 권위주의적 가족관계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종교 집단에서 제공하는 자아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해서 자아에

대한 확신과 안정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대중운동은 죄의 개념, 즉 부적절감을 이용한다. 독립되고 자율성이 있는 사람들을 영혼이 매마르고 사악하다고 정죄함으로써 죄의식을 갖게 하여 종교집단이나 대중운동에 굴복하게 한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개인의 독특성과 독립성을 버리는 것이며 성스러운 하나의 회중에 소속함으로써 구원에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한다. 대중운동이 일어나면 각종 범죄가 감소한다. 대중운동은 범죄 행위 잠재자들을 흡수한다. 범죄와 사회운동은 상호 대치할 수 있다고 호퍼는 주장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통치 아래 각종 사회운동이 범죄를 흡수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 각종 파렴치범죄들이 다시 머리를 드는 현상은 사회운동들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인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기실 한국에서 있어야 될 기획된 사회운동들이 가진 사람들의 무작위적 소비운동의 그늘에 가리거나 그 소비 행위에 상관되어 번지기 때문에 안 가진 사람들의 적대행위 표적이 된다. 안 가진 사람들, 우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진 사람들의 연민과 우월감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정교한 사회운동들이 필요하다. 디자인된 사회 운동들을 식목함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키는 정책적 엔지니어링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소셜 엔지니어링은 “국민 소득 2만불 달성”보다 더 중요하고 또한 어떤 형태의 한민족 통일 보다도 선행돼야 할 문제이다.

생명이나 윤리나 명예를 도박하더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노력도 일종의 자기 부적절감 (어느 때인가 돈에 한이 맺혀) 그것을 해소하려는 자기 구원의 노력이다. 자기를 온전하고 남과 대등하거가 보통 사람들 보다 더 우월한 어느 집단에 (돈에 한 맺힌 경우에는 부유층에) 소속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짐으로써, 재별이 됨으로써 그 자아는 그 온전하고 ‘신성한 전체’에 소속됐다는 구원감을 느낄 수 있는가? 그 답변은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 자신들이 지냈을 것이다. 마이다스 왕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돈에 연관되고 기도와 꿈에서도 돈만 되뇌이며 물질적으로는 안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에게 타인이란 돈벌이에 이

용할 대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가 협조를 하는 경우는 단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될 때 뿐이다. 그의 인품을 아무도 존경하지 않으며 그가 이타심을 지녔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 사람과는 아무도 돈 이야기 외에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가족관계도 순탄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돈으로써 자기의 부적절감에서 구원받았을까?

1) 자기 희생을 하는 요인

자아 보다 더 큰 조직체에 소속하려는 요구, 큰 집단체에 소속함으로써 그 조직이 살아 있는 동안 자아도 의미를 갖고 살아간다. 개인으로는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더라도 집단 안에서 영원히 산다.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외칠 때 개인의 자아는 망각되고 더 큰 자아에 소속된다. 그 경우 집단은 개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외부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차단하려 한다. 북한은 인민을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함으로써 그 집단만에 대한 충성을 확보한다. 종교집단들도 일상적인 요구를 극소 평가하고 세상의 성취를 비하하면서 교회에 소속하는 것 만을 최상의 가치라고 주장하여 교인들을 일상 세계에 몰입하는 데서 차단한다. 일반 사회에서 사장, 박사, 교수 같은 신분 지위를 교회에서는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과 대등한 평신도 형제라고 하든가 집사, 장로라는 타이틀을 주어 새로운 신분 시스템 아래 자아의 지위와 역할을 재분배한다. 사회에서 주장할 것이 없거나 자아 안정감이 부적절한 사람일수록 교회나 사회운동 단체에서 주는 새 타이틀과 역할에 만족하며 순봉하는 것이 그런 이유이다.

의례(ritual)가 희생을 유도하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의례는 현실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조작하는 행위이다. 대학 입학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이 열심히 책을 뒤지며 암기하는 것은 성취를 위한 수단 행위이지만 건성으로 학관에 드나들거나 공부방에 앉아서도 책장을 넘기기만 하면서 다른 궁리를 하면 의례 행위이다. 취직을 원하는 사람이 이력서를 써 들고 고용주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성취

를 위한 수단 행위이지만 취직을 위해 불공을 드리거나 교회에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은 의례 행위이다.

히틀러가 8백만 명에게 각종 제복을 입혀 아리안 민족의 일원으로 세계를 지배할 집단의 일원이라는 자아망상을 이용하여 갖은 만행에 동참케 했다. 북한에서 ‘위대한 수령’ 영도 하에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미제를 쳐부순다”는 망상도 그런 의례 행위이다. ‘붉은 악마’ 응원단에 동참하여 한국을 세계 축구 강국으로 밀어 간다는 것도 의례행위이다. 특히 개인주의적이며 다양성 있게 분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위해 희생토록 요구하는데 극적인 조작과 축제 분위기의 의례를 이용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호퍼는 갈파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에서 교회가 변성하는 이유는 그 만큼 극적 의례 연출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에 감응하기 때문이다.

‘영광’이라는 개념도 주로 극적 연출의 개념이라고 호퍼는 말한다. 군대의 유니폼, 의장대, 사열의식이나 훈장 수여 같은 의례는 병사 개인들의 자아를 분리하여 더 큰 집단에 소속감을 갖게 함으로써 전쟁에서의 죽으면 영웅이 된다는 가상의 자아 개념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웅은 그를 보아주는 관중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관중이 있을 때 개인은 자기의 진정한 자아(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도 못한 채), 하잘것 없는 일시적인 자아라고 생각하며 영원한 자아가 안길 곳으로 상상되는 집단 속으로 자신을 희생한다. 그 행위는 자기 의견에서 그리고 관중의 상상 속에서 영웅적인 행위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희생한다.(Eric Hoffer, p.67-68)

소속의 요구와 의례를 통한 인정감의 취득 이것들은 영광적인 대중운동에 이용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변화시키는데 개인들의 협조와 희생을 유발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기제이기도 하다. 왜 도덕이 무너지고 협동이 되지 않는가? 한국에서 작은 집단(가족이나 동창회 같은)에 대한 도덕과 충성은 어느 문화에서 보다도 강하다. 가족, 교회, 동창회 혹은 조직범죄 등의 소집단에 대한 의리는 그 자체 규범을 어김없

이 유지케 한다. 단지 그런 경우에 발휘되는 희생정신이 더 큰 사회 범주에서 발휘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의리와 협조를 더 큰 사회로 확대하려는 데는 사회운동-대중운동의 가교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Hoffer, p. 70)

대중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에 도달하려는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들의 단점을 위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에서 실패가 흔히 극단의 대담성을 기르기도 한다. 좌절감에 젖은 사람은 대중운동의 목표에서 뿐만 아니라 그 감정적 수단에서도 만족을 얻는다. 가진 것을 지키기보다 못 가진 것을 지키려는 갈망이 더 강해진다.(Hoffer, p. 80-82)

교리(doctrine)에 대한 신앙은 그 모호성에 대해 미래에 실현될 것이라는 감정적(이지적이 아닌) 확고한 집착에서 온다.

교리는 이해하기 불가능하거나 모호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것이라야 열정적 신앙을 자아낸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단순한 심볼이 절대 진리이며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고, 예수가 모든 것의 답이라고 주장한다.

교리는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확신을 준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뿐 아니라 매일 필요한 허상을 위해 간구하라는 조소가 나올 수 있다.

거짓말과 믿음이 연관된 것은 어린아이들의 특징만이 아니다. 어린이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며 자기 집이 잘 사는 집안이라고 믿기를 원하며 그렇게 스스로 속인다.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상태가 미숙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주장한다.

2) 열광주의자들

자기 자아와의 조화가 깨진 사람들은 불안정한 화확약품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무엇에든지 합치려는 갈망을 지니고 있다. 단독으로 서서, 자세를 가다듬고, 스스로 충조감을 느끼며 살수 없으며 어느 것에 인가 전심으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 그 대상을 향해 열정이 발생한다.

즉 자기 밖의 대상에서 구원을 추구한다. 그 열정적으로 애착을 두는 대상에게서 모든 덕망과 능력의 근원을 보며 헌신한다. 다만 자기 자아와 조화를 이룬 사람만이 세계에 대해 열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Hoffer, p. 83)

열광주의자는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하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대상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한다. 그 대상은 유일하며 영원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명분이나 대상 자체보다도 열정적으로 집착한다는 심리상태에 그 안정감의 근원이 있는 것이다.(Hoffer, p. 85)

열광주의자는 이성적 설득이나 도덕적 차원의 명분으로 대응해서 그 집착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의 성스러운 명분에서 또 다른 명분으로 집착 대상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은 쉽다. 즉 열광주의자는 설득되지 않지만 개종될 수 있다.

어떤 이념을 포기한 열광주의자는 스스로 존재하기 어렵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신을 무능력하고 쓸데없는 죄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어느 것이든지 영원한 듯 보이는 명분에 편승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총체적인 굴복을 하려는 갈망에 빠져 있다. 그 어떤 내용보다도 회중 집단에 소속하고 충성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자아의 안정에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성스러운 명분에 합세할 준비 태세에 있다. 신약 성경의 이론을 세운 사도 바울이 사울로부터 갑자기 개종한 것은 그런 인간성을 말해준다. 예수가 가난한 백성들, 밑바닥 인생들을 모아 사회운동을 시도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도 그런 심리 때문이다.

6장 신앙화의 과정

모든 생물은 생존하기 위해 자체와 환경에 관한 현실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과일 나무는 자체의 각종 영양분 상태와 환경의 기온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여 꽃을 피우고 과일을 맺는다. 새들은 기온의 변화와 먹이 소재를 따라 이동한다. 사람도 자신에게 안전한 상황, 식량이 풍부한 여건, 그리고 배우자 선택과 자녀양육의 조건,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과 소집단의 지위가 신장되는 여건들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정보들의 모듬이 지식이다. 야생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은 매년 계절적으로 큰 변이 없이 자연에서 반복 실현된다. 그러므로 동식물의 지식은 그들의 유전인자에 기억되고 그 유전인자의 지식에 따라 반응하는 것으로 지식이 지향하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지식들은 매우 복잡적이어서 때로 정확하게 현실과 맞기도 하지만 현실에 어긋나기도 한다. 어떤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보호받고 먹이를 얻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현장에 갔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신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처치를 하면 조건이 나아진다는 지식을 남에게서 흡수하여 실행했는데도 건강회복에 실패할 수 있다. 자기 부락을 이웃 부족 사람들이 약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침략당하여 부락이 멸살 당할 수 있다. 금년에는 비가 잘 와서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누군가 말을 퍼뜨렸지만 비가 너무 내려서 홍수에 모든 것이 다 쓰러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자연,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등에서 여러가지 불확정적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실로 이뤄질 개연성이 높은 지식 체계를 찾으려 하며 그 찾은 지식체계를 신뢰하고 집착하려 한다. 사람이 자기 신체, 자연환경 여건,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물질적 또는 추상적 소유 대상 등 생존에 필요한 것 등에 대해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체계, 그리고 그 지식의 대본대로 현실화된다고 이해하는 그 지식의 체계가 신념(믿음)이다.

1. 믿음의 사회학적 의미

어느 사회에서든지 기존하는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대립할 수 있다. 한국에서 보수와 혁신에 대립, 남남 갈등 현상은 같은 사실에 관해 자기들이 파악하고 이해한 것만이 사실의 전부이라는 신념들이 맞부딪치는 갈등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두고 환경보호 관점과 경제적 이득 관점 두 가지에서 연원하는 주장(신념들의 표출)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교육 정보 전산화 시스템을 둘러싼 교육계와 관료들의 갈등이나 노동자들의 권익을 둘러싼 노.사.정 간의 삼각 갈등도 신념들의 차이에 뿌리를 둔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을 양측 손바닥이 똑같이 50 대 50의 힘으로 부딪쳤기 때문에 100의 충격이 발생했다는 것은 속단이다 좌측 손바닥이 0의 상태에 정체해 있을 때 우측 손바닥이 100의 힘으로 와서 쳐도 100의 충격이 발생한다. 논리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 가지 신념을 둘러싼 주장들이 대립할 때 그 상반되는 것들에 동등하게 무게를 두고 저울질한다. 그런 사고의 착오 때문에 사실상 무엇이 더 가치 있고 긴급한가를 판별하지 못하므로 갈등은 더 가열되고 지속되기도 한다. 또한 그런 신념들에 대해 심리적 에너지를 투입하여 어떤 신념이 개인들의 자아의 핵심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신념을 방어하려는 노력은 개인 정체성의 존폐문제처럼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신념에 정신적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 신념을 행동화하려는 단계에 이르면 신앙이 된다. 강렬하게 신앙화 된 신념은 사람이 존재하고 노력할 의미를 창출하는 정신적 에너지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질식하여 고사당하게 하는 사슬이나 장벽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민족, 공조하는 민족으로 의식을 변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념 형성 과정과 그 본질을 체제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분석 위에서 냉철히 논리적으로 신념들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분석 없으면 남의 신념을 모방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며 또한 논리를 덮어두고 남을 동원하여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의한 창 의 저해와 공조 파괴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이 신앙(faith) 의식이 진한 (폭 넓고 강한, 그러나 반드시 깊은 것은 아닌) 민족이라는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신앙이란 어떤 인격 (신 또는 사람), 이념 (아이디어), 대상(사물)의 사실성 (진실에 대한 확신), 가치성(요구를 충족시키는 효용), 신뢰성(타당하다고 확인되는 빈도)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믿음)을 지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신념은 물리적 혹은 논리적 증거에 근거를 두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여러 신념들이 체계화된 것일수도 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믿는 대상을 향해 가진 신념체계에 관련된 행위(입시 공부, 기도나 제사의식, 선거 참여)를 한다. 그 행위에 따르는 그 결과를 기대하며 그 성취되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신념은 확인되며 보강된다.

비가 와야 농사가 잘된다는 서술적 명제는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신념이다. 기우제(불공이나 기도)를 드려서 꼭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신념은 비를 가치화 하며 비가 내리는 사건에 정서를 부착한다. 신념은 정착화된 지식체계이지만 신앙은 정착화된 지식체계에 가치와 정서를 추가하여 처리한 정보이다.

우리 한민족은 정치적 과정이나 종교 의례 행위에도 신앙 수준의 심리적, 물질적 투자를 하며 많은 구체적 결과를 기대하는데 익숙해 있다.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그 정치인의 기능적 역량(또는 공약)을 평가하여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출신 고향이나 소속 정당 때문에 투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신앙 행위와 유사하다. 신앙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한국인의 종교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것과 관계 있다. 그러나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의식의 변환과 문화의 발전(굳이 선진 의식이니 선진문화니 하는 사대주의적 기준을 대지 않더라도)이 저해되고 있다. 심지어 사회질서의 혼란 (특히 정의를 표방하는 극한 대결 지향의 사회운동과 정치 파쟁 등의) 원인이 바로 미숙한 신앙관 및 신념 체계들의 난립과 그에 대한 과도한 정서적 몰입에서 파생하는 비합리적 행위에서 기인한다.

2. 신앙화를 설명하기 위해 가능한 가설

이렇게 신앙의식이 강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정립하는 테스트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가설로 점검할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비해 자기들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 능력 수단이 적을수록 또는 제한됐다고 인지할 때 외부의 능력에 의존하려는 신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근이나 전쟁의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종교적 신앙을 찾는다는 것은 흔히 관찰되는 사실이다. 둘째, 위의 함수의 연장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 자신의 능력 보다는 밖의 수단에 의해 성취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크다고 인지될수록 신앙 의존이 강해지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중동의 사막에서 조악한 자연환경과 자원 고갈 상태(석유가 발견되기 이전에)에서 유태교, 기독교, 회교가 변성한 것이나 시베리아 이남에서 샤머니즘이 변성한 것 (그 외에도 여러 종교문화의 단서들)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가설은 또한 현대에서도 사회 조사를 연구를 통해 재점검할 수 있다. 이 두 가설을 유동적으로 보면 셋째 가설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요구)를 정상적이며 합리적인 과정에 의해 성취하는 수단 또는 기회가 기존상태에서 보다 감소할수록 신앙적인 강도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의 격차가 증대하거나 일부 소집단 권력층의 비합리적인 정치행위 악순환을 깨트릴 수단이 적을수록 일반 시민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사회정의 가치를 찾거나 아니며 기존 정치의 악습적인 수단들을 숭배하는 순봉의 정치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신념이란 인지의 수준에서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진실 또는 진실에 가까운가, 가치라는 동기와 관련하여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선호할 만하기를 평가하여 형성된다. 신념을 주장하는 명제는 무엇이 가능한가, 존재하는가, 발생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 기대, 가설, 주관적인 개연성, 가정적인 언어, 인지 구도 (매핑) 등의 형태로 된다

신념은 행위를 이끌어 간다.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에 따라 현실의 지형

을 매핑하는 심리적 표상 양태도 다르다. 사람들이 어떤 신념 체계를 간직하는 데는 그 신념의 사실성, 가치성, 타당성 등에 대해 피상적으로 인지하되 행동이 따르지 않는 소극적 정도로부터,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신념체계를 수호하거나 실천하려는 신앙으로 행동화 하는 강렬한 수준까지 있다.

3. 신념행위의 세 가지 변수

사이드는 행위에 이르는 신념-신앙의 강도에 관계된 세 가지 변수를 말한다.¹⁴

첫째, 신념을 행동화 하는 데는 어떤 내용이 사실일 것이냐, 결과가 있는 것이냐는 개연성 크기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람이 믿고 예측한 결과가 발생할 산술적 개연성에는 숫자적(아날로그)으로 표현될 수 있는 확실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신념은 그 확실성 정도에 따라 0으로부터 1 (100 퍼센트) 사이를 오르내리며 양적으로 연속선 위에 차이를 가지며 다양하게 변한다. 신념은 “그렇다”와 “아니다” 둘 중에 하나로 종결되지 않는다. “참 아니면 거짓” 또는 “유죄 아니면 무죄”라고 두 개의 개연성밖에 없는 것 같이 말하지만 참과 거짓 두 극한 사이에는 “거짓말 같은 정말”이 있고 “참말 같은 거짓”도 있다. 또한 죄는 지었는데 무죄판결이 나고 죄 없이 처형되기도 한다. 이런 개연성의 연속선에서 어느 위치에 신념을 점찍어야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 믿음의 앵커를 내리게 되는데 그 선택은 도박과도 같다.

둘째, 결과에 대한 통제의 측면이다. 어떤 신념 혹은 기대를 갖고 행위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는 항상 그 기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구심적 요소와 외부적인 결가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 즉 자신의 능력(기술)이라는 내부적 요소와 환경이 주는 기회라는 외부적 요소는 별개로써 상호작용을 하며 어떤 기대를 계산하는데 불확실한 변수이다. 내부 통제형인 사람들은 어떤 기대한 결과 달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들은 바로 자신의

14. Karl E. Scheib, *Belief and Valu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기술과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부 통제형인 사람들은 자기 능력보다도 기회나 여건에 따라 (혹은 타인의 작용에 따라) 자신은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내부 통제형의 신념을 지닌 사람들은 좀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성취를 추구한다. 외부 통제형 사람들은 좀더 복종적이며 사회적으로 적응 능력이 낮다. 한국인들은 종교성이 강하다든지 정치권력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의 분포가 우세하므로 외부 통제성향이 높다고 하겠다.

셋째, 위험도와 불확실성 행위는 어떤 신념을 갖고 개연적(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인 기대에 근거하여 행위를 하는 데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따른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행위하는 것이 모험이다. 모험에는 성패의 개연성을 알고 하는 계산된 (예, 복권으로 목돈을 벌을 개연성처럼 이미 실적이 있고 계산된 확률도 있는) 모험이 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모험 (죽어서 천당에 간다는 개연성을 믿고 종교에 헌신하는) 실험해 보지 않은 예측만을 할 수 있는 모험이 있다.¹⁵

신념을 지니거나 그 신념의 행위를 하며 그 개연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데는 위험도를 고려한 결단을 필요로 한다. 개연성이 낮은 (불확실한) 신념을 갖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위험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그 신념을 방어하거나 그 신념의 결과를 보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 방어 기제는 단지 실제 효용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그 신념을 지닌 사람들 자신의 불안감을 처리하려는 보상 행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의 미신적 기복 신앙에서 그 결과를 얻는다는 개연성에 대한 확신이 낮기 때문에 그 것을 외부 힘에 의해 달성하려는 종교적 의식(기도나 제례)의 더 강도와 빈도를 높여 하게 된다. 기독교의 아멘을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백일 철야 기도나 불공 같은 것은 그 개연성에 대한 확신이 낮은 것에 정비례해서 더 열심히 해야 정신 에너지에 산술적으로 균형을 갖게 된다.

15. Karl E. Scheib, *Belief and Values*, p. 25-29.

4. 신념의 조건

신념이란 첫째, 어떤 상황(조건)이나 대상이 실재하느냐 혹은 실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시작하며 대상이나 상황을 존재 또는 비존재로 분류하는 두뇌 기능으로 발생한다. 즉 신의 존재가 사실이나 아니냐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정각에 집에서 출발하면 통근 열차를 타고 직장에 출근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이 사실이나 아니냐는 것이 그런 신념의 기초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런 인지된 범주들 (그것이냐 아니냐, 사실이나 아니냐) 사이에 관계를 지어보는 것이다. 신의 존재성에 관한 범주, 자신의 안녕과 이익이라는 범주를 연관 지을 때 기독교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경제원론대로 신이 십일조 헌금을 하면 물질적 축복을 주며 죽음후에 영혼의 세계를 보장하느냐는 신념이 대두한다. 신념은 어떤 사실들을 확인하려는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 사람 (모든 생물들)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환경과 자원 요건에 관해 확실한 정보를 항상 필요로 한다. 사슴이 시냇물가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되 안전해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조건들이 사실이라는 정보가 기억되어 있고 그 기억된 정보대로 냇물가에 물이 있고 안전해야만 사슴은 생존할 수 있다. 그 기억된 정보 내용과 그 내용이 거의 항상 사실이라는 개연성 두 가지가 합쳐서 신념을 이룬다.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꽃을 피어 열매를 맺고 그 씨앗으로 번식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정보가 식물에 기억돼 있어야 그 식물은 종족번영을 계속할 수 있다. 식물에 유전자에 기억된 그 예측 정보와 개연성이 식물의 신념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체가 생존하고 종족을 번식하여 번영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그 조건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화될 것이라는 개연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알기를 원하고 개연성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한다. 모든 생물은 자체 생존과 종족 번성을 위한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이라고 믿기를 원한다. 특히 사람은 많은 복잡한 여건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믿어야 하는 요구를 지닌다. 그러므로 신념은 모든

보장의, 그것이 종교에 의한 축복이나 내세의 보장이든 자동차나 생명 보험회사의 보험이든 삶의 기반을 확고하다고 느끼게 하는 기초이다. 신념은 모든 산업(농 짓기부터 정치에 이르는)의 기초이다.

5. 심리적 총체로서의 신념

신념은 사물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이냐, 사물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냐, 추상적인 개념이나 명제에 관한 것이냐, 구체적인 사물이나 상황에 관한 것이냐, 기대하는 미래적인 것이냐 이미 실현됐던 역사적인 것이냐, 자기 지향적인 것이냐 타자 지향적인 것이냐 등 여러 단면의 특성들을 조합하여 규명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신념의 보이지 않는 구조를 규명 짓는 요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대부분 신념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구조들과 현실 상황의 요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신념이란 상황마다 따라 독특한 것이다.

신념은 현실 세계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차적으로 인식한 것에다가 그보다 다른 정보를 가감하여 형성된다. 대통령 아들의 뇌물 비리에 대해 자기는 관계가 없다고 공언할 때 일부 순진한 국민들과 여당 측근들은 정보를 감소하여 대통령의 책임은 대단치 않다는 신념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신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국민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대통령 아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 언어로써 표출된 것보다는 훨씬 중하고 심각하다는 신념을 가질 것이다.

또한 그 신념을 측정하는 기준은 그 측정한 상황과 방법에 따라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즉 대통령 아들의 부정 사건 정보에 관해 그 주장된 내용이 실재한 사건이냐 허구적 사건이냐는 사실 여부, 그 사건은 단지 한 도덕적 혹은 법률적인 추상적 문제이냐 아니면 사회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문이냐, 그것이 한갓 지나간 사건이냐 미래에도 진행될 사건이냐는 시간성의 질문, 그것은 사건을 음미하는 한 국민 개인 (평 시민이든, 언론의 기자이든 혹은 정당 정치인이든, 윤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든) 자신에게 관계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생각하는 사람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계되는

것이냐는 등 신념의 연계 구조와 관련 지어 평가될 것이다. (샤이브, p. 36)

종교적으로는 불가사의한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신념이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형성되었고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심성에서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의문도 이런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예수의 추종자들이 당시 현실적으로 경험한 정보에 어떤 정보를 가감했는가, 그리고 그 발생했다고 하는 사건에 대한 신념을 서술하기에 앞서 그 자신들의 신념을 평가하는 능력이 있었느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신념의 내재적 구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협조라는 명목으로 수억 달러의 자금을 비밀리에 북한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다음 그 도덕성과 합법성,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실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전개되어 사람들의 다양한 신념들을 형성하여 여론의 분란을 초래한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성경은 한 마디도 틀린 것이 없다고 성경 자체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 내용 모두가 진실이다”라는 신념은 모순에 빠진다. 유사하게 “통치행위는 국가의 이익을 고려한 최종적 결정권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5.18 광주항쟁을 탄압한 군사정부의 행위에 대한 판결의 경우처럼 초 법적 모순에 빠진다. 한국에서 권력자(또는 종교 성직자)에 대한 법을 초월한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사고의 쳃바퀴를 못 벗어난 증상이다. 그 생각하는 논리가 다람쥐 쳃바퀴 도는 ”루핑“ (looping)의 논리이다. 다람쥐는 쳃바퀴 안에서 수백 미터를 달려도 세계의 전부를 뛰는 것이 아니라 쳃바퀴의 직경의 세 갑절 길이 (직경 곱하기 ”파이“-3.14159) 밖에는 못 가는 것이다.

6. 신념의 근원

권위주의적 신념의 틀을 벗어나는 정신적 지뢰제거 작업을 거쳐 자유로운 지평에 나서서 창의적이며 진정한 공조를 가능케 신념들을 새롭게 구성 내지 정리하는 데는 어떤 정신적 작업이 필요한가? 신념의 근원과 형성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신념은 사람의 추리 즉 경험한 일부 사실(들)을 근거로 그것을 총합하여 일반화하는 연역적 추리(induction)에 의해 형성된다. 빨간 사과를 먹었는데 달았지만 시퍼런 사과는 달지 않았다는 먹어본 경험에서 사과 색깔과 맛에 대한 신념이 생긴다. 어떤 사람이 위암을 약으로 치료하면서(혹은 수술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암이 쾌유되었다. 그 사람은 일차적으로 의료에 의해 암이 나았다는 신념을 가질 수도, 또는 의료보다는 기도의 응답으로 암이 쾌유됐다는 신념을 가질 수도 있다. 자신 혹은 친지들의 기도가 쾌유를 가져왔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사소한 경험을 총합하여 일반화하는 연역적 추리 방법이다. 모세가 3천5백 년 전에 홍해(사실은 갈대 늪)를 갈라서 건넜다는 문헌을 믿고 그런 기적이 자기에 게도 발생할 개연성을 믿는 것은 연역적 추론의 비약이다. 반면에 여러 실험과 임상 치료에서 몇 퍼센트의 치유효과를 입증한 많은 사례와 마찬가지로(확률의 일부로) 자기도 치유했다는 신념을 갖는다면 귀납법적인 추리에 근거한 신념이 된다. 모세의 기적 이 문헌대로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묵인하더라도 귀납적 추리에 의하면 그런 사건 같은 것은 3천5백년간 두 번 다시 발생한 기록이 없으므로 개연성 가치가 없는 신념이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은 귀납법적 추리에 의한 결론은 과학이라고 하여 경계하고 오히려 희소한 사건을 보편화하는 연역적 추리에 근거한 신념을 신묘한 것이라고 하여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오랜 역사 동안 산악으로 폐쇄된 환경 속에 짧은 시야를 갖고 살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데서 발달한 직관적 추론 습성의 탓이기도 하다. “미국에 안 가 본 것을 자랑으로 안다”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본 후에는 “배울 것이 많은 나라”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은 연역적 추론의 논리에 살던 사람들이 귀납적 추론의 논리로 깨어야 된다는 암시가 되기도 한다.

둘째는 어떤 관계에 대해 이론 또는 가설을 채택하는 데서 신념이 발생한다. 그 경우 연역적 유추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계시록에 기록된 지구 최후의 드라마가 실제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념은 연역적 유추에 근거할 수도 있지만 전혀 허구적 환상일수도 있다. 여하튼 그

런 신념을 채택한 경우 전혀 상호 관련 없는 것들을 관련 지어 예고를 한다. 가령 북한의 홍수와 가뭄이 엇갈려 기근을 초래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저주 현상이라는 식의 신념이다. 또는 666이라는 숫자를 겹고 늘어 펼쳐 세계사적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그런 유형의 신념 조작 행위이다.

셋째는 유비(analogy)로 형성되는 신념이다. 관찰한 사물들 사이의 유사성, 혹은 사건들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어떤 신념을 형성한다. 오렌지와 귤은 모양이 비슷하니까 맛도 같을 것이라는 신념이 그런 것이다. 한국에서 출신 지방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거나 학연 등의 유대를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완강하게 적용하는 것은 이런 신념에 근거한다. 유비로 신념을 형성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사물이나 환경 조건에서 다양성을 보지 못하고 비슷한 특수성에만 집착하여 선택하는 편향이 빠지게 된다. 특수한 조건만을 선호하는 그 패턴이 소집단 이기주의의 바탕이 된다. 그것은 또한 한국인들이 유명 브랜드의 상품들만 선호하는 성향과 나아가서 사치성과 소비를 지향하는 성향과도 관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반복하면 일류병과 그 병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전을 조달하기 위한 부도덕과 탈법 (개인의 범죄로부터 공직자의 부도덕 행위까지)에 연장될 것이다.

넷째는 권위에 근거한 신념이다. 자기가 권위 있다고 인정 혹은 존경하는 어떤 사람 혹은 정보의 근원에서 나온 내용이므로 그 내용 자체보다는 발원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관계된 내용을 믿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어떤 한국인 기자가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잘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말했다든지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신빙할 것이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일평생 동정녀였으며 기적 능력을 가졌다는 카톨릭교회의 신조와 신념들은 교황청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념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신조의 형성과정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서 마리아란 한 미혼녀로서 예수를 낳은 다음 결혼을 하고 예수와 그의 형제자매들을 양육하고 그 아들의 처형을 애통한 한 어머니였을 뿐이다.

7. 신념에 대한 판단

신념 내용의 객관적 정확성을 가름하는데 그 신념의 대상이 실재하느냐 실재하지 않느냐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Schieb, p. 38) 신념을 평가하는 기본적 단서로는 그 신념으로부터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작용이 있느냐 또는 어떤 형태의 자극이 나오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느냐는 것을 따질 수 있다. 즉 사람에게서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를 그 사람이 지닌 모종의 신념에서 나온 지표로 볼 수 있다. 즉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차량 운전을 하는 행위는 그 자신이 술을 마셨지만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과 신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의 지표이다. 뇌물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기업가의 행위는 그들이 뇌물 행위에서 얻는 결과가 사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첫째 신념의 지표이며 또한 불법 행위를 해도 적발되어 처벌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둘째 신념의 지표이기도 하다.

8. 신념 표현의 유동성

사람들에게 도덕적 신념 교육을 주입식으로 잘 하면, 혹은 종교적, 정치적 신념 교육을 철저히 하면 변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도덕적 사회를 이룰 것이라는 통념에는 허점이 있다. 개인이 진정 무엇을 일관된 신념으로 믿는지는 포착해 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신념의 표현이란 항상 상황에 따라 굴절되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봉에 관한 여러 심리학 실험에서 입증된 것은 사람들이 남의 압력을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판단이나 신념을 거침없이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생각하는 바와 믿는 내용을 그 집단의 압력에 맞게 조정하여 말한다는 것이 실험에서 드러났다.

또한 시간이 흐르는 과정 중에서 긴박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떤 사람이 지닌 여러 신념들이 순차적으로 발동된다. 따라서 특정인이 지닌 것 중에 어떤 신념이 표현되느냐는 것은 매우 상황 의존적이다. 그러므로 특정 상황에서 표현되는 신념이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신념에 내재된 특성이

기보다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외부적으로 부과되고 집행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런 규범의 집행 자체도 종종 일관성 없으며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어려서 유교식 가정교육이나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하면 그 사람이 성장해서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젊은이들이 이성관계에서 정절을 지키거나 사회의 부패에 저항할 것이라는 가정도) 맞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산당 교육을 철저히 받은 북한의 어린이들이 통일 이후 자유화된 사회에서도 옛 신념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은 정확치 않을 수 있다.

9. 신념과 가치

신념이란 사실성(인지의 수준에서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인 진실 또는 진실에 가까운가)에 일차적으로 근거하여 형성되며 가치란 동기과 관련하여 선호성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선호할 만한가)을 평가하여 형성된다. 신념을 주장하는 명제는 무엇이 가능한가, 존재하는가, 발생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의 기대 정서, 주관적인 개연성, 가정적인 언어, 인지 구조 (매핑) 등의 형태로 된다. 가치란 어떤 상황, 조건, 개체의 존재 상태 등에 관해 사실성(진실성 혹은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무엇이 선호할 만한가 (바람직한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를 판단의 결과이며 희망, 요구, 목표, 열정, 행동역량, 도덕 등의 행위 동력을 내포한다. (샤이브, p. 41-42)

신념과 가치는 사람의 결단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그 두 가지 중 단독으로는 행위를 유발하지 않는다. 즉 신념만으로는 행위를 유발하지 않으며 가치 판단으로 요구하는 바에 대한 선호를 할 때 그 가치 성취 (요구 충족)를 사실화 하려는 행위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북한에 거액 자금을 주고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만으로는 그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며, 비밀리에 거액을 주고서라도 회담을 성사시킨다고 선호한 가치 판단과 결부하여 그 행위가 발생한 것, 두 가지가 다르다는 의미 해석을 가능케 한다. 가정을 파괴하는 이혼이나 조직 폭력 행위 그 저변에도 그런 행위 결단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신념 뿐만 아니

라 그 결과에 대한 가치 선호를 판단하고서 행위가 발생한다. 그런데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그 가치 판단에서 어느 쪽으로 선호하느냐를 오도할 수 있다. 부도덕 혹은 범행을 하고서도 자신에게 부정적 결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념이 있을 때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더 선호한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1) 일차적 가치와 유도된 가치

본래 가치가 없던 것이 이미 가치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연관됨으로써 가치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면,

기념품: 그 자체로는 값없는 사소한 것이지만 어떤 중요한 사람, 장소 또는 사건과 관련 지어질 때 가치를 지닌다.

금 전: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와 관련 지어서 그 값있는 대상을 얻을 수 있는 교환수단이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다.

예술품: 미술품이나 골동품은 정서를 일으키는 효과 또는 다른 것을 표상하는 가치를 지닌다.

우표와 동전: 이런 것은 통화로 사용하는 수단적 가치와 함께 다른 대상을 표상하는 가치를 지닌다.

2) 가치를 조건화하는 패러다임

본래 그 자체로는 의미 없는 기호 또는 자극이 어떠한 직접적 만족감과 짝을 짓게 될 때 그 본래 직접적 만족을 주었던 대상에 대해 일으켰던 반응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킨다. (샤이브, p. 52)

전형적 조건화: 파블로가 개에게 종소리와 고기가루를 짝지어 훈련시켜 조건 반응을 형성함으로써 종소리만 들어도 개는 침을 흘리게 된 것이 그 예이다. 기념품이란 것이 전형적 조건화 된 가치에 속한다.

수단적 조건화: 침팬지는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고 땅콩을 꺼내 먹는 방법을 훈련함으로써 배운다. 화폐는 수단적 조건화 된 가치를 지닌다.

어떤 가치가 다른 사물에 연관되어 있던 가치를 발생시킨다는 사실로써 인간의 기본 동기를 규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차적 가치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가치가 전염되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한국에서 돈이 대부분 가치의 모두를 대표하는 측정치로 되고 있다. 정치계의 뇌물과 기업계의 로비 같이 불법으로 지적되어 드러난 현상만을 탓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 문화의 근간이 교환 수단적 가치에 집중된 문화로 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초급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는 데서부터 대학교수 취직에 억대의 현찰을 뇌물로 건네야 된다는 현실, 종교교단 회장을 선출하는데도 금품과 접대로 투표를 사는 것 등은 범법은 아니지만 문화 속의 가치관을 금전에만 집중시키는 현상이다.

좀 더 이유를 따진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얻는데 그 교환수단인 화폐가 많거나 아니면 남을 강압적으로 위협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금력과 권력이라는 두 가지 수단에 주로 의존해야 되도록 문화가 방향 지워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처럼 돈 안들이고 미소로써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배경이 없어도 순서와 절차에 따라 기본적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서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탐하는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뇌물 비리 추방은 엄정한 법적 규제 뿐만 아니라 뇌물을 주거나 권력을 가짐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결과를 대신해서 충족시켜 줄 수단적 가치를 필요로 한다. 그런 수단으로는 진의를 담은 말, 친절한 얼굴 표정, 공정한 성적평가, 평등한 기회 제공, 수많은 공공 규제의 완화와 철폐 등이 일상화되는데 있다.

3) 가치의 두 가지 패스 모델

사실은 친절한 표정, 진의를 담은 언어, 공정한 평가, 평등한 기회, 규제의 완화 등은 민주적 사회에서 인간관계나 공적 관계에서 통화로 사용되는 본래의 수단적 가치들이다. 그런데 이런 본래적 가치의 효과가 약한 것

은 아직 봉건적 전통사회의 인간관계 유형에서 덜 벗어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사회들의 경우). 아니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개화했으나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하여 그런 가치들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구미 국가의 경우).

뇌물을 받아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누구와 얼마를 무슨 대가를 암약하고 주고받았는가를 사법기관이나 언론이 따지는 일은 발생한 비리를 처벌하는데 필요할 뿐이다. 비리 연속 발생을 방지하려면 어째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뇌물을 주거나 권력으로 틀어 미는 수단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는가.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연구원들이 근본적인 동기를 물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기본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즉, 매슬로가 말하는 인간 요구의 최저 기본 단계인 생존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 뇌물을 준다는 것은 산술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과외비용을 위해서 뇌물을 준다는 것도 산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최소한 매슬로의 요구 계단 2단계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든가 3단계 (인정감을 얻기 위해서) 이상의 요구 충족을 위해 뇌물을 쓴다는 데서부터는 산술 공식이 성립된다. 학교에서 자녀가 우등생 클럽에 속한다던가, 교수직을 얻는다던가 재벌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이 소속감이나 인정감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인정감과 소속감을 충족시키려고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앓고서도 입증될 수 있다면 굳이 힘들게 무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 현 상태로는 그렇게 무리하는 것이 표준적이 규범이 되어 있고 단지 법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또 하나의 규범과 상치되고 있다.

누구나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수단으로 소속감이나 그것과 연관된 인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평범화 해야 한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부터 “왕따”라 하여 남을 배제하고 능멸하여 소속감과 인정감을 박탈하는 인간관계 유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현상이다.

4) 쾌락적 가치

20세기 상반기의 지배적 심리학 이론은 인체가 평형을 유지하려는 기제를 가졌으며 긴장을 조절하기 위해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즉 프로이드의 경우 사람은 쾌락 추구 원칙에서 움직인다고 보았고 심리학자들이 생체 실험에서 두뇌에 쾌감을 관리하는 영역이 있다고 입증했다. 두뇌의 쾌감대에 주는 전기자극은 쾌감을 일으키는 가치로 구실한다. 그러나 생활조건이 적절하게 안정된 조건에서는 그 쾌감은 행동을 조절하거나 규제하는데 아무런 기능을 갖지 못한다. 쾌감은 그것을 느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동물은 쥐 실험에서 보듯이 음식을 섭취하기 보다는 두뇌의 쾌감을 선택하는 행위를 하게 되며 그 결과 건강을 해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쾌감의 가치는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즉 청소년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을 흡입하여 일시적 쾌감을 맛보지만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며 사회에서 도태되는 일들에서 그런 이론은 정당하다. 그러나 성욕 충족이 생물의 진화과정에서 본래는 종족번식을 가능케 하는 가치 있는 행위로 시작했을 것이다. 대부분 동물들의 암컷들은 발정 주기에만 성적 쾌감이 가치 기능을 갖고 발동된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동물은 번식 가치 기능에서 쾌감만을 따로 추출해 남용하는 기제를 발전시키도록 진화했다. 사람의 그 언어는 본래 음식물의 소재, 외적 침입에 대한 경고 등 생존요구를 충족시키는 간단한 의사전달의 수단에서부터 발전했다. 그러나 현대 문명사회에서 언어는 두뇌 쾌감대에 전류반응을 일으키는 수단이 됐다. 사람들 사이에 긴밀한 언어가 사랑이나 증오를 조장하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살인이 벌어지기도 한다. 말이 사람의 질병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 질환을 정신과 의사와의 말로서 고치기도 한다. 종교 부흥사는 두뇌를 언어로 마사지하여 수만 명 청중에게 쾌감을 주어 사로잡기도 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대통령의 한 시간 연설은 한 나라의 일 년간 나갈 방향을 정하기도 한다.

언어를 기호화 한 상징들은 유선, 무선 전파를 타고 수천 마일 밖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대기권 밖의 우주선에서 정밀한 기계 부품을 작동한다. 이런 막강한 수단인 언어가 덜 발달했거나, 지나치게 발달했거나 녹이 쓸어 사회관계에 기현상을 일으키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한국의 신문 용어들이 다루는 정치기사 언어를 보면 셰익스피어 연극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고 이조 당쟁 사극 재연출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신문 기사는 현실을 사실대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그런 언어 양태가 정치인들이 춤추도록 유도하는 각본들인가? 한국 정치 파행의 경우 행위와 언어 어는 것이 먼저인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언론인들 자신이 바로 당쟁 패러다임의 매핑에 갇힌 수감자들이며 또한 그 패러다임에 정치인들을 끌어들여 묶어놓고 탈출을 저지하려고 그 패러다임의 정당성을 되풀이 주장하는 것 같다. “영남 아무개는 당쟁의 동인 각본대로 행동했다. 호남 아무개는 서인의 각본대로 행동할 것이다”는 등 언론보도는 스스로 성취하는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을 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 춤춘다.

섹스의 가치는 개인의 쾌감 달성보다는 종족 번성에 가치가 있듯이 사람이 느끼는 자기 능력감, 탐구욕, 그리고 정의감이나 윤리의식도 종족의 존속을 위한 본능의 발현일 것이다. 한국의 섹스 산업, 향락산업, 보약과 음식산업이 번창하는 이유는 집단으로서 느끼는 생존위기 의식과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전쟁 때 젊은이들이 쉽게 사랑에 빠지고 서둘러 임신하는 현상은 생존위기 의식에 절박하게 몰릴 때 후손을 남기려는 본능이 더 강하게 발동하는 현상이다. 식물을 보면 악조건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개체들이 더 빨리 꽃을 피우며 성장 조건이 좋은데 있는 개체들은 늦게 꽃을 피운다. 이런 이론의 맥락에서 정책을 전개한다면 “금강산 댐”이나 “북풍사건” 등 허다한 경우 위기의식을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차단돼야 한다. 또한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언론 매상에 주는 상승효과를 노리는 언론의 근시안적 습성도 교정돼야 한다. 그런 행태는 행위자 자신들인 정치인들이나 언론 정책 결정자들이 해야 하겠지만 반대로 그 위기의식의 소모자이며 피해자인 국민들이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기로 결단

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가치의 유용성 (Schieb, p. 51)

유용성이란 주관적으로 다르다. 자기에는 중요한 문서가 남에게는 휴지에 불과하고 자기에게는 대단한 보석이 남에게는 한낱 돌조각으로 아무 가치가 없을 수 있다. 금전의 경우는 1천원, 1만원 나누어 객관적으로 통용하는 척도가 있지만 어떤 가치는 일정한 척도로 측정할 수가 없다. 화폐의 경우도 가난한 사람의 10만원이 부자의 1억원과 맞먹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의 한 심리학 실험에서 “10달러 가진 것 보다 두 배 행복을 느끼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한 일이 있다. 그 응답은 평균 액수는 53달러였다. 1천 달러를 가진 것보다 두 배 행복을 느끼려면 평균 1만 220달러가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¹⁶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양한 가치들과 조건들을 하나의 유용성 지표로 생각하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것을 돈으로 측정하는 일부 사람들의 경향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이다. 그러나 혹은 사회의 다수가 모든 것을 돈으로 측정하는 문화는 큰 문제성을 안고 있다. 기업가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 돈으로 모든 것을 측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육자, 지식인, 종교인, 정치인, 언론인들의 일차적 가치는 돈이 아니어야 한다. 즉 교육가의 일차적 가치는 피교육자의 인성과 학습 성과에, 종교인의 일차적 가치는 타인들의 정신적 안위와 복지에, 정치인들의 일차적 가치는 국가 안위와 국민들의 번영에, 언론인들의 일차적 가치는 공정한 보도와 사회 선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전문인들의 일차적 가치들도 모두 돈으로 환원되는데 집중되고 있다. 전문인들이 추구해야 할 다양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역할 수행의 가치들이 금전 속으로 수축되어 집중되고 있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 부면들이 소개(疏開) 되어 부면마다 전문성이 진공 상태로 가는 전문성 강도의 쇠락을 초

16. Galanter, E. The direct measurement of utility and subjective responsibi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962, p. 75, pp. 208-220.

래하고 있다. 돈을 모든 것의 척도로 하는 성취욕 달성을 위해 전문성의 가치를 버리는 위험이 깊게 진행됐다. 전문인들이 그 전문 기능의 가치를 주장하고 수호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인 의식의 밀도가 낮았거나 그 자의식을 지킬 용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생존여건의 위협을 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단지 돈에 대한 밑바닥 없는 욕심 때문에 현혹됐다면 그 전문성의 가치와 전문인으로서의 용기가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것은 실용주의 문화가 가져온 인간성 부패의 결과이며 유용성 가치 기준을 여러 개의 단면으로 정하지 않고 금전 하나의 단면에서 규정한 문화에 준봉(준복)하기로 선택한 비겁성의 결과이다. 사회를 바로잡고 이끈다고 표방하는 언론인들의 공지와 자기발언에 대한 의무 등을 금전의 지표로 대체해 버린 비겁함의 결과이다. 그들이 자기 미학적 가치, 자기 스스로의 공지의 가치를 포기한 것은 자신들이 창조하는 가치의 독특성, 그리고 크기가 금전이라는 지표 하나에 대응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가치에 굴복하라는 압력에 준봉한 것이다. 자기 특유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자기 능력감과 자신에 대한 존중심이 충분히 강했다면 금전 하나의 척도에 굴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가치의 고수는 타인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금권의 압력으로 미술가가 자신의 그림을 바꿨다면 그는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라 환쟁이이다. 금품의 유혹으로 교사가 학생들의 성적 평가를 바꿨다면 그는 스승이 아니라 사무직 사환이다. 군 장교가 금품을 써서 별 계급장을 달았다면 그는 장군이 아니라 병영 구내 매점의 점원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이 이런 자기 특유의 가치들을 존중하고 금전이라는 하나의 가치에 준봉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 사회의 기초이다. 그런 다양한 가치들의 수호는 그 다양한 가치들을 지켜야 할 사람들의 자긍심과 사회의 압력 사이의 균형 문제이다. 전문성에서 A학점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적고 전문성에서는 C학점을 받아도 금전의 척도에서 B나 A학점을 받아야겠다는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만연한 것이다.

6) 단순한 가치관(simple decision paradigm)

어떤 가치들의 개념이 고정되었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는 기대치의 변이에 따라 행위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하나의 우세한 가치가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바람직한 행위이냐고 믿는 바에 따라 행위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선택 가능한 행위들에 대한 기대가 대등한 경우-본인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남들의 기대에는 별 차이 없다고 하는-경우에는 개인이 지닌 가치의 변이에 따라 행위에 변이가 따른다. 유일하게 우세한 단순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어떤 기대를 초래할 것인가라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위를 할 것이다.

돈과 권력을 모두 가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행위는 무엇에 의해 지향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명백하게 드러낼 것이다. 재벌이 돈과 권력을 갖고 자선 사업을 못하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이유는 돈 외에 다른 가치관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금력과 위세를 추구하지 말고 기업을 분산하라고 법적으로 강압하고 제재하기 보다는 권력이나 위세에 대응할 만한 새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사회로부터의 보상 즉 존경과 사랑을 공익자선 활동이나 교양사업에서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7) 가치의 형성발전

가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전된다고 보는 것이 정론이다. 가치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이 이론은, 동일시에 의한 가치 형성, 즉 부모의 가치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녀들의 경우 부모를 공격자로 보고 방어적인 기제를 발전시키느냐, 또는 온건한 양육자로 보고 동일시하느냐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측면을 부모에게서 선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또한 모방이나 동일시냐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동일시가 모방보다는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또한 경험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의 차이가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하튼 사춘기에는 아이들이 자기 특유

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한다. 사람은 주어진 어떤 새 역할에 관련되어 모종의 기대를 받게 된다, 그 기대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 역할 모델의 일부를 수행할 기회가 되면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역할이 바뀌면 그 수행도 달라진다.

4.19 세대의 학생 투쟁가들이 성인이 되어 정치권에 들어가 부패한 정치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역할의 변화 때문일 뿐.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 경영진을 노동조합의 간부로 임명하고 반대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회사의 경영 간부로 임명하는 실험에서 역할이 달라지면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직위를 본래대로 다시 환원하면 그들의 입장도 다시 환원된다는 것을 1956년 리버만의 실험에서 확인했다.¹⁷

8) 역할 기대와 신념 (p. 97-98)

나치 하수인들이 학살 명령을 수행한 것은 단지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 전달된 기대를 완성한 것이며 신뢰를 행위로 나타낸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미그랩(1964)의 전기고문 실험 결과, 남들이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전기고문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시험자의 지시에 따라 피험자는 명령받음대로 가학행위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¹⁸

사람은 독사를 맨손으로 집어 들던가, 염산 속에 동전이 꿰고 있는 실험용기에 손을 넣어 동전을 꺼낸단던가 (물론 실제로는 안전한 조건에서 하는 실험이지만), 남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라는 지시에 여건이 형성되면 응할 수 있다는-지시자가 말하면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에서 입증됐다. 이런 실험 사례는 어떤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가치를 수행하는 것이 그 역할의 일부라고 교시 받으면 그런 가치들이 그 적용될 상황이 닥칠 때 실제행위로 옮겨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17. Liberman, "The effect of changes in roles on the attitude of role expectants," *Human Relations*, 1956, 9, 385-402

18. Migram, S. "Group pressure and action against a pers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4, 69 pp.137-143.

Migram, S. "Group pressure and action against a pers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4, 69 pp.137-143.

물론 이런 일은 예외적이며 결코 보편적은 아니지만 그런 극한적 가치 행위가 형성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p. 98) 한국의 흉악범, 도둑, 횡령자들, 정치 하수인, 고문집행자, 정치붕당, 모리배, 광신종교인들 그들은 하수인들이거나 여건에 의해 스스로 부도덕한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집행하는 역할 수행자들일 수 있다. 그러나 미그램의 연구에서 40%는 그렇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신뢰해야 한다.

정신과 의사들이나 카운셀러들이 그룹치료 방식에서 역할 전위방식을 사용한다. 즉 고부간의 갈등을 다룰 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역할을 맡기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며느리 역할을 맡기어 즉흥 대화극을 연출시키면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 좀더 이해와 아량을 가진 인간관계가 발전한다는 치료방식이다. 한국사회에서 열러 인간관계의 갈등을 다루는데 이 역할 전위방식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어떤 형태이건 약간의 협조하는 상호관계가 없이는 다른 이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해된다. (p. 99-101)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배운 규칙을 신성시하여 의문의 대상이 되거나 고쳐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은 아이들은 규칙이란 사회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므로 상호 동의 아래, 경우에 맞게 변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인지능력과 추상적 가치관 발전에서 사회계층별 차이¹⁹

아이들이 그림을 스케치하는 것을 어머니가 코치하는 실험에서 저소득층 어머니들은 말로만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명령식의 지시를 했다. 중산층 어머니들은 전체 작품의 구상에서 그림 형태에 관해 일반적인 특성을

19. Mussen P. Early Socialization: Learning and identification. in Newcomb, T. (Ed.), *New Direction in Psychology* III,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1967, 51-110.

가르쳐 주는 정도로 그쳤다. 중산층 어머니들의 아이와의 협동적인 행위 양식은 바로 피아제가 말하는 바, 더 차원 높고 적절한 사고능력이 발전되는데 필요한 사회적 필수 전제 요건이다.

우리 한국식 교육(가정이나 학교의) 방식이 지시에 직선적으로 따르고 윗사람이 내려준 규칙 상자에 갇히기를 강요하는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매를 들어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권주의 논쟁이 그런 것이고 주입식 교육이 그런 것이다. “탈선”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직선적 사고방식의 표준 외에는 허용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의 용어이다. 상자 속의 생각 보다는 상자나 벽의 밖으로 나가는 열린 생각, 직선적이기 보다는 방사적인 좀더 나아가서는 쿼텀(양자 역동적인) 생각을 허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부모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행실을 잘하고 교사의 말을 잘 순종하고 말대답하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 중산층 부모는 아이들에게 요구하거나 지시를 할 때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한다. 아이들의 단순한 복종보다는 아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려고 시도하며 맹종보다는 아이의 성취를 강조한다. 이런 데서 인지능력과 추상적인 사회의 가치들을 소유하는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성인 범죄와 부패의 근원-한국이나 미국의 잡범들로부터 시작하여 대기업체의 백색 범죄에 이르는-그 바탕에는 이런 어린 시절의 가치형성과정에 차이가 있다.

쉐이브의 도덕 개발에 대한 이론 (Scheibe, p. 101)

협동적이며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자기 아닌 사회적 관점이 무엇인가를 알며, 역할이란 절대적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약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상호작용에서 도덕적 의무란 무엇인가라는 관념과 자율적인 도덕 자아가 발전된다.

한국의 전통적 가정교육 방식과 미국의 블루칼라 가정의 교육방식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나는 본다. 즉 주로 명령 순종이나 아니냐의 태일을 부과하는 규제에 의존하고 동기를 형성해 주기 보다는 결과된 행위를 통제

하는 경향이 그런 것이다. 학교에서 매를 때려 학생을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의 “교권론”에 대해 매를 때리는 요령을 지침으로 정하는 정부 교육정책가들의 구상도 참으로 구태의연한 것이다. 매를 배제하고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 또는 보충하여 초기에 인성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여 그것을 수행하게 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생들의 동기를 억지하고 나타난 행위 결과에 대해 벌을 줌으로써 자발적인 동기보다는 주어진 틀에 준봉하게 하는 학생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얼마나 많은 국가의 미래 인적 자원을 틀에 박힌 사람들, 창의력 보다는 규칙에 순복하는 사람들로 만들려는 것인가?

9) 가치와 신념의 연합 (p. 102-103)

신념이 어떤 경우에는 동기 또는 가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 종교적 신조에서는 신념과 가치가 융합돼 있다. 신을 믿는다는 것과 신을 사랑한다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 흔히 간과된다. 십계명이나 산상보훈은 가치-판단이지만 신앙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도덕적 가치로서 특성을 지닌 신념은 여러 면으로 좋다는 점을 고려한 후에 채택되는 것이다. 기독교 혹은 불교 신앙을 갖는 것이 축복을 받는다거나 재액을 막는다는 실용주의적 예화를 여러모로 참작하여 신앙과 도덕을 채택한다.

궁극적인 가치는 다른 가치로 축소 환원될 수 없다. 도덕 가치관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의무를 지닌다. 그 밖으로 수많은 외연적, 피상적 가치관들이 둘러싸여 있다. 자기의 편중된 가치관들을 평가할 능력을 지녀야 하고 잘못됐으면 수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할 수 있다.

가치에 의해 왜곡된 편견적 신념: 가치에 의해 결정된 신념

기대가 가치에 앞서 갖는 요소이다. 기대가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성공”을 가치로 하고 실패는 가치로 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목적이나 목표한 대상을 성취하기 위해 개입되는 어려움, 대가(비용), 그리고 성취할 확률 등을 감안하여 그런 요소들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그 성공도 가치 높게 또는 가치 없게 평가된다. 노동자가 땀 흘려 벌은 적은 돈은 피 값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저녁 술값으로 날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놀음판에서, 혹은 부동산 투기나 뇌물로 받은 돈은 대단한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낭비된다.

화폐가 잘 돌아가는 나라에서 돈이 낭비되고, 그 낭비 때문에 교사-학부모 사이에서부터 뇌물이 오가기 시작한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어떤 대상에 접근하기 어렵다든지 가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대상의 가치가 심리적으로 더 크게 보인다. 세계 축구에서 40위선에 머물렀던 한국이 8강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단하게 믿어졌었다.

처음에는 바람직스러웠던 것이 열정적 소망의 대상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 즉 가치관에 의해 기대가 영향을 받는다. 남녀 간에 호감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행여 저 사람이 나의 파트너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열정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그는 나의 사랑이다’를 거쳐 ‘우리는 죽기를 무릅쓰고 사랑한다’로 발전한다. 그래서 결실을 보든가 죽기까지 한다.

신념선택의 통제

마술적 혹은 미신적 의례는 사람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건의 발생에 대해 통제술을 시도해 보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홍수나 가뭄, 지진과 질병 등에 대해 자기가 (혹은 남을 통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 사건 발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일종의 행위 감정을 느낌으로써 그 결과에 접근하고 있다는 낙관을 갖게 된다. 주술적 미신적 으레 행위는 과거나 먼 장래의 일 보다는 현재적으로 사건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의 백분의 1 정도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행기 여행보다도 자기가 운전하는 자

동차 여행을 더 안전하다고 택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자동차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박장의 슬롯머신에서 돈을 잃고 따는 확률은 완전히 컴퓨터로 조작되지만 슬롯 신컨트롤 레버가 더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기계를 자신이 통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몰려든다는 것이다. 정치에서 시민들이 참견할 기회를 많이 주면 그 결과가 어떻든 시민들은 그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정치과정에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선택의 여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신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가치관이 관여된 예측을 하라고 강요하면 사람들은 선택할 여건들이 진실을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p. 107) 즉, 국민과 국가를 위한 참된 정책이라고 판단할 만한 정강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파벌의 결정에 승복하거나 아니면 도태 당할 것이라는 선택을 하려면 정치인들은 올바른 행위를 예단할 수 없다. 교회 목사의 아들에게 교회 당회장 직을 세습하려는 시도가 지닌 도덕적 가치 측면에 대해 선택할 여지를 두지 않고 단지 모두 승복하라고 목사 지지자들이 신도들을 강요하는 경우 신도들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

“확신한다고 요구받을 때 사람들은 확신한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조작될 수 있다.” (p. 107) 부흥사가 “아멘 하시오”라고 요구할 때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말하고 그 순간 자기도 그런 부흥사의 주장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요구 당하느냐에 따라 행위의 폭이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다.(p. 107)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그러하고, 어떤 군중을 만나느냐에 따라 정치인의 공약이 변하기도 한다. 어떤 의사표시를 하라고 강요당할 경우 사람들은 자기 본래의 신념을 왜곡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의사 표시를 하라는 압력에 따라 신념을 왜곡하거나 어떤 편향성을 지닐 가능성이 적다. 자신이 가진 정보량이 적은 때에 어떤 신념을 왜곡하라는 압력에 따르는 효과가 나타나기 쉽

다. 국가 정치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차단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신념을 왜곡하려는 자이며 교회 정치에서 교인들에게 지식보다 맹신을 강요하고 교회 행정에 관해 숨기는 목사는 교인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왜곡하는 경우이다.

여러 정보 중에 어느 것이 타당성이 더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 생길 때, 가장 강하게 가치관에 연결된 정보(혹은 신념)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잘 아는 이슈에 대해 사실이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는 가치관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가 잘 모르는 이슈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관해 주장되고 있는 선택 여지에 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10. 신념과 도박

불확정적인 것이 너무 많고 가치 준거 체계가 흔들리는 현실에서 희망을 붙들기 위한 어떤 자료로서 창출한 특별한 신념이 미신일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갖거나 물질 자료(부적 같은 것)를 지니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좀 더 갖게 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된 사회에서도 미신적 행위가 만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규가 많고 행동 제약이 많은 한국사회에서처럼 너무 인위적인 통제가 많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수단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미신적인 의례를 낳는다. 월드컵 경기를 치르면서 한국에서 “세레모니”라는 단어가 일반화됐다. 정확히 말하면 리추얼이다. 즉 어떤 행위 자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그것이 심리적 감각을 초래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우제를 드린다고 비가 오지는 않지만 가뭄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비가 올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연장시켜 준다.

복권을 사거나 도박을 하는 행위도 미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복권을 쥐고 당첨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부자가 된 꿈에 도취하는 즐거움은 당첨된 것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심리적 복지 효과가 큰 것이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도박장을 설치하여 오히려 국민에게 희비극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도덕적, 법적 의미를 정의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돈을 탄 사람

은 축하의 대상이 되고 도박에 파산한 사람은 부도덕한 것처럼 취급받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

도박행위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이론을 적용하자면,

첫째, 도박에서 이길 수 없는데 돈을 딸 수 있다는 허구적인 신념을 갖는 경우이다. 허구적 신념에 의한 도박은, 특정 도박 상황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이길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허망한 기대가 큰 때, 도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선택에 대한 압력이 큰 때 발생한다.

둘째, 도박에 개재된 가치관이 돈의 득실을 제대로 표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의 득실을 가리지 않고 도박하게 된다. 즉 돈의 득실보다는 스포츠나 연예관람을 하듯 심리적으로 회피의 길을 찾거나 쾌감을 얻기 위해 그 만족감의 대가로 돈을 치른다. 억압에서 반발하려고, 자기 나름의 자아를 주장하려고 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원시적인 사냥 습성으로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몰려서 도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심리적 충족을 위한 도박은 사람을 거의 노예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도박보다 더 도박에 중독 될 수 있다.

11. 의례행위와 신앙의 사회학적 유대

“모든 시작에 놓인 사실은 객관적인 불확실성이다. 참된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신념을 적응시켜야 한다. 어떤 진실을 고안해 내야 한다. 그것이 미신이다.”²⁰

스키너의 실험에서 비둘기에게 어떤 조건을 형성시키면 머리로 밖을 쪼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 마치 그 동작을 하면 음식이 나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²¹ 이것은 사람들의 리추얼(의례적) 행위들 과

20. McKay, Matthew and Fanning, Patrick, (1991), *Prisoners of Belief: Exposing and Changing Beliefs that Control Your Life*. California: New Harbinger Publications, p. 124.

21. Morse, W.H. & Skinner, B. F. “A second type of superstitious behavior in the pigeo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957, 70, oo,308-311.

도 연관이 있다. 매일 새벽기도를 하면 어떤 소원이 이뤄진다는 기대 행위나 행사나 조직 결성을 신문에 광고할 때 수백 명의 명단을 첨부하여 위세를 과시하는 의례적 행위도 그런 것이다. 월드컵 축구 응원에서 <붉은 악마>라는 두 단어의 의미가 지닌 어의론적 리추얼, 그 응원단 유니폼의 색깔 자체가 지닌 의례성, 응원자들의 집단 동작과 함성의 리추얼 등, 리추얼적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붉은 악마>라는 언어 자체가 한국 축구의 기적을 가져온 어떤 마력을 도출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붉은 색깔 그것이 한국 선수들과 응원하는 국민들의 심성에 다이내믹을 주는 심리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수백만 집단의 동작과 함성 (“대...한민국”) 그것이 선수들의 투지와 신체적 에너지를 동원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그런 모든 것이 의례 행위와 관련된 개연성이다.

그런데 한국 축구단의 기술과 체력 등 여건들이 실제적으로 성과를 좌우하는 변수이다. 이런 사실적 여건 변수가 한국 팀 실적에 얼마나 작용했는지, 아니면 응원의 의례적 효과가 얼마나 작용했는지 수학적 계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붉은 악마>의 응원이 의례적 효과를 지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붉은 악마>의 의례는 한민족의 여러 사회적 행위에서 중요한 의례로 남을 것이다.

미신적 의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여건들이 적절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초래하는데 관련된다고 믿어지는 행위를 더 하도록 어떤 자극을 강화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런 의례 행위가 과거에 우연히 발생했던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그 의례 행위를 함으로써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인다.

개인이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 예상을 객관적 (과학적) 예상과 현저히 다르게 계속 반복해서 할 때 미신은 존재할 수 있다. 과학적 가설이나 신학자들의 전제들도 미신과 차이를 짓는데 분명한 선이 없다. 코페르니쿠스 이전 중세까지의 과학에서 지구의 끝에 가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는 가설은 과학적이었다. 또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시간과 공간 속의 물리적 세계, 그리고 그 안의 자연사물과 인간

삶의 양태 등이-참 세계의 전부라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진실의 전부가 아닐 것이다. 월드컵 축구를 통해 한국인들은 자기들의 새로운 잠재력-질서를 존중하고 협동할 줄 알며 경쟁 상대방을 자기 자신처럼 존경하며 아끼는 미덕 행위를 할수 있는 잠재력-을 발견했다. 그 한국인의 모습은 오랜 역사 동안 외국의 침략과 모멸, 그리고 동족상잔과 생존경쟁 속에서 빚어져 있던 한국인의 이미지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런 한국인의 이미지 발현이 우연이었는가, 어떤 원인들의 집적에 따른 결과였는가-그 원인들을 미신적으로 추리하느냐 과학적으로 추리하느냐는 종이 한 장의 차이, 말 몇 마디의 차이이다.

미신은 어떤 앞서 있는 사태와 뒤따르는 사태 사이에 관련을 짓는 불완전한 인식 방법에서 기인한다.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행위를 하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추정하는 개연성(확률)과 주어진 객관적인 확률 예측치와 차질을 매우는데 미신이 필요하다. 예컨대, 치사율 높은 암에 시달릴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은 100% 치유이지만 그 병의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가능한 치유율은 0.01%도 안 될 경우 출현하는 것이 미신적 기원이다. 자신이 선거에 승리할 객관적 확률이 90%라면 그 후보는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51% 이상의 득표 확률보다 현실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50% 이하라면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 선택하는 수단이 미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과학적인 방법일수도 있다.

사람들은(지각이 있는 동물들도) 우리가 원하는 사태와 실제로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다른 사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병행배치 사고성향(parataxic thinking)이라고 한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을 필연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과학 방법에서 흔히 사용하는 유추적 사유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 별 자리의 변동이 지구상의 인간사 특히 개인의 운명과 관계를 지으려는 점성술이 그렇다. 좀 더 과학적이라고 인정하는 동물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사람의 심리나 건강에 관계 짓는 유추적 사고도 경우에 따라 위험할 수 있다.²²

22. McKay and Fanning, (1991), *Prisoners of Belief*. pp. 124-125.

어떤 종교적 관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의 은혜를 확보하려는 시도이다.²³ 그러나 여기에서도 도박에서처럼 결과는 최대의 상환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초자연적 세력에 의존하여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완전한 확신”은 그가 원하는 바 결과를 가져오는데 연관된 모든 원인들을 모조리 시도해 보는 기회를 몰수한다는 것이다. 즉 여호와와 증인 신도들이 중병에 걸렸어도 수혈을 거부하고 기도에만 의존하는 행위는 의료기술로 생명을 건질 기회를 스스로 앗아버리는 행위이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맹신 가운데 자기의 백방 노력은 하지 않고 일방적인 기도로만 결과를 얻으려는 기회몰수 행위에 빠져 있는가?

한국이 여러 조처에서, 특히 교육 공공 교육 정책에서, 일관성이 없이 조령모개 식의 정책 변경과 개각을 일삼는 것, 미신적 운의 섭리에 의존하는 심리학과도 관계 있다. 뇌물 거래행위도 미신적 리추얼(잡신을 음식물로 회유하던 미신적 관행과 주요 종교의 신에게 헌금으로 결과를 매수하려던 의례)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불확실성과 기회를 다루는 여러 가지 인간의 행위-미신, 도박, 제도화된 종교의 의례 등은 또한 인간이 자기의 본성에 관해 참으로 알고 하는 노력이기도 할 것이라고 사이브는 말한다. 자기는 무엇이며 멸망할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신이 선택한 자인가 신에게 거부당한 사람인가, 자유로운 존재인가 종 같은 신세인가, 등을 말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성의 역량 (자기 목표를 수정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평가하는)에 직면하게 된다.²⁴

“신앙이란 사람의 확정되지 않은 자아와 그 자아 밖의 어떤 참조할 상상적이거나 사실적인 근거와의 관계를 짓는 연결고리이다.”²⁵ 곧 생존하며 자아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아 내부와 외부 환경구조에 대한 정보의 체계이다. 사회적 환경관계 구조에서는 나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위해

23. Ibid, p. 130.

24. Ibid, p. 130.

25. McKay and Fanning, (1991), *Prisoners of Belief*. p. 131.

로우냐 위협롭지 않느냐 보다 우세하냐 열세하냐는 측면들의 교차와 연속선으로 구조화된다. 또한 물리적 환경관계 구조에서는, 외부 세계의 특성들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단면들의 연속 위에 조직된다.

7 장 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1. 정돈의식과 하나님

핵심적 자의의식은(core consciousness) 핵심적 자아 (core self)가 현실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한다. 확장된 의식은 바깥 세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게 한다. 나에 대해 버리고 죽는다는 것, 거둬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새 하늘과 새땅을 본다는 의미는 그러한 자아의 해탈에 관련된다.

1) 의식의 수준과 정보처리 유형 - Dean Hamer, God Gene

샌디에고 신경학 연구원장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에델만 박사 에 따르면 의식이 발생하는 두뇌의 부위를 다음과 같다.²⁶ 외부의 사실 정보를 입수하여 환경의 자극에 대해 빠른 판단을 하는 감수(sensory)기능을 갖는 것은 시상피질계(thalamocortical system: thalamus & cerebral cortex)이다. 시상피질계의 감각으로부터 입수된 자극을 뇌간(limbic brain, amygdala, hypothalamus 포함) 시스템이 평가하게 된다. 원시적 두뇌인 뇌간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반응으로 “좋다,” “해롭다”든가 색깔을 판단하는 정서적 기능을 갖는다. 감각이 입수하여 반응 체계가 전달하는 정보를 기억체계인 히포캠퍼스(hypocampus)와 대조하며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서 인식은 발생한다.

한국 사람이 정서주의적인 이유로는 대뇌의 정보를 인지하는 기능이

26. Dean Hamer, *God Gene*, p. 98에서 Gerald Edelman, *Bright Air Brilliant Fire and A Universe of Consciousness* 재인용.

부정확하든가, 입수한 정보를 원시적 두뇌인 뇌간의 활발한 기능이 편파적으로 평가를 하든가, 기억체계에 부호화 된 정보가 부정확하든가 그 정보 인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능의 부진이나 부정확한 조합이 정서주의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

2) 영적 각성

자아초월과 영적 각성에 관계되는 의식에 세로토닌(serotonin)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준다. 세로토닌이 신비경험의 일부 단면인 인식(perceptions)을 변환시키고, 사교성의 한 단면인 자아 초월적 동일시(transpersonal identification) 현상을 증대시킨다. 또한 성화(sacredness)의 한 단면인 기분상승을 초래한다. 이 모든 변환이 1개 모노아민(monoamine) 성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쥐에서 VMAT2 유전인자의 작동을 중단시키면 모노아민(serotonin, dopamine, noradrenalin)의 수준이 낮아진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세로토닌은 영성 기질 발휘에 중요하다.²⁷

도파민(dopamine)은 우리에게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한다. 도파민은 동물의 두뇌를 활성화하는데 도파민이 저해되면 보통 즐거워야 될 현상도 재미없게 느끼게 된다.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이 도파민과 관계 있다는 가설이 합리적인 것 같다.” [신약 성경에서 “새 술에 취했다”는 현상은 도파민을 많이 섭취하게 한 음식물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또한 부신수질 호르몬(nor-adrenaline 혹은 norepinephrine으로 알려짐)은 비상시에 대응하도록 두뇌의 정보장치 기능을 한다. 비상시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변연계(amygdala)의 신호로 두뇌의 깊은 곳에서 부신수질 호르몬(nor-adrenaline)의 분비를 늘려서 전뇌 부분으로 보낸다. 이것이 줄면 고혈압과 사회적 고립이 발생한다. (pp. 114-115)

VMAT2 유전자가 신비 경험과 영성 기질을 좌우하느냐를 테스트하려고 에델만의 의식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모델은 사람의 의식에 핵심의식(core consciousness), 고차의식(higher consciousness), 그리고 이 둘이 정

27. Dean Hamer, *God Gene*, p. 112.

합되는 등, 세 가지 중요 과정이 발생한다고 전제한다. 고차의식은 자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아를 환경의 실상에 통합한다. 그래서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에 자아가 일치하는 감정을 창출한다. 자기를 잊게 되는 능력도 발생케 한다. (p. 117) 일차적 의식과 고차 의식의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 모노아민이 흘러드는 것을 VMAT2 인자가 컨트롤한다. 그래서 신비적 자기 초월의 각성(“밖의 모든 것은 내가 없이도 존재해 왔다”고 자기 것 밖의 현상들 자체를 그대로 보는 각성)이 발생한다.

SPECT실험에서 d'Aquili는 불교의 참선 명상가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했다. “자기들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일차적 의식(primary consciousness)에 집중시킴으로써 2차적 의식(secondary consciousness)을 축소시키고 통상적인 자기에 대한 인식을 잊게 된다. 그들은 세계와 하나가 되고 세계는 곧 그들의 자아가 된다.(p. 126) 이 현상은 프랜시스칸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관찰됐다. 개인이 고립된 상태에서 우주의 모든 것과의 연합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금욕주의가 자기부정을 하다가 빗나간 것은 모든 있는 것을 축소시킨 때문이다.) 자아 초월 경험의 한 시발점은 미적 감상(aesthetic appreciation)로부터 시작해서 절대적 연합적 존재(absolute unitary being)로의 길로 가는 진행이라는데 Newberg와 d'Aquili는 의견을 일치한다. 그 연속선상에서 각 단계마다 그 지향성 연관 영역(orientation association area)이 특성 있게 분화된다. 결국에는 다양성을 극복하고 합일성에 이르게 된다.²⁸

John O'Donahue, *Anam Cara, A Book of Celtic Wisdom*, New York: Harper Collins, 1997.

모든 사람들이 소속감을 갈구하고 있다. 사람들은 관계에 굶주리고 갈망하고 있다. 공공연하게 광고되는 대중적 이미지나 텍스트를 단순하게 가상실험(simulate) 한 것처럼 보이는 목사의 설교에 등장하는 관계성의 이미지는 공허한 것이다. 온전한 친밀감이 없는 것이다. 참된 친밀감은 영

28. Newberg, A. E. & d'Aquili, V. Rause, *Why God Won't Go Away*, New York: Ballantine Books, 2001.

혼의 성스러운 경험을 주어야 하며, 사람이 최종적으로 성취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다. 그리움의 열망 속에 진정한 생기가 있고, 그 생기가 창조적 열정에 승복할 때 초월적 변화의 궁극적 상태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3) 신-인간 개념

Deepok Chopra, *How to Know God: The Soul's Journey into the Mystery of Mysteries*, New York: Harmony Books, 2000.

신-인간이라는 개념은 히랍 신화의 영웅들에게 허다하게 있었고 이집트의 파라오들에게도 있었다. 현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의 거대한 도박장은 영혼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왜곡의 장소이다. 우주의 원자는 질량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진동하는 에너지들의 뭉치로 구성됐다. 그 것은 형체 없는 에너지, 공간의 제약이 없는 에너지의 진동이다. 쿼텀 수준에서 온 우주는 하나이며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빛과 같다.

명상의 상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무엇도 판단, 의견, 반응에 부딪치지 않으며 신념으로 채우는 것보다도 신념을 비우는 것이다. 현대의 영화는 매초 24번 영상과 암흑이 교체되면서 동작이 연속된다는 환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람은 매순간 광자(photon)의 섬광과 암흑은 공허가 반복되는 우주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항상 계속돼 왔으며 지금도 매순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태초의 창조와 파괴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창조의 마지막 시점은 지금이다. 시간이란 사람이 창조 질서를 파악하는데 필요해서 만든 편의한 방편에 불과하다.

현실이라는 물리적 샌드위치에는 세 수준의 계층이 있다. 첫째 물질적 현실은 대상과 사건의 세계이며 신체적 존재 영역이다. 둘째, 쿼텀 현실은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되는 과도적 영역이며 기도 현상이 발생하는 마음의 영역이다. 셋째, 실제상(virtual)의 현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주의 기원이다. 이 영역은 신과 교류하는 영성의 영역이다.

“보이지 않는 창조의 근원이 존재할 것이다. 다만 우주 탐사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기 이전까지만 역추적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만나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잠시 그 영원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지만 성인들은 그 신비경에 산다. 체중이 가벼워지고 공중에 뜨는 기분, 숨이 가벼워지며 통증과 불편이 없어지고 힘이 샘 솟으며 시간과 청각이 명료해지는 창조의 질서에 동참했다는 희열, 가슴에 느끼는 시원하고 벅찬 느낌. 기록하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어느 경지이다. 그 과도적 영역에 머문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거기에 갈 때 물질적 현실이 우리를 잡아당긴다.(p. 13)

사람의 두뇌 속에 신과 영이 있다. 인간은 혼돈 속에서 살 수 없으며 사냥꾼의 본능처럼 우리는 신을 찾는다. 생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기쁨, 진리, 아름다움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기도로서 도달하는 곳은 물질적 현실 너머의 영역이며, 기도는 두뇌에서 진행되는 쿼텀 이벤트이다. 제도화된 종교를 훨씬 넘어서는 빛을 보는 것이다. 우리의 두뇌는 세계의 여하한 기록의 구절이든지 골라서 해독(decoding)할 수 있다. 기존 문건을 해독한다는 것은 그 신호와 의미를 자신의 두뇌에서 재 부호화(re-encoding)하는 작업이다. 성경이나 마르크스주의의 골자를 읽고 그것에 그대로 빠지지 않고 각자 재 부호화 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경지에 이른다. 두뇌에서 부호를 재편성 작업을 막는 교조주의가 신성모독이다. 정통 신앙이나, 진보와 보수 이념을 둘러싼 논쟁을 하는 것은 개인이 입수한 정보를 재 부호화하는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런 지성의 모독이 타의적으로 발생하지만 허다한 경우 개인 스스로 그러한 모독의 중복이 되기를 선택한다. 그 이유는 각자 두뇌의 역량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지성적 용기가 부족한 때문이다.(p. 14)

과거의 유일신교를 주장하던 종교는 왕권과 야합하여 지배를 추구하는 타락을 했으며 인류 분열의 발단인 바벨탑이 됐다. 예수의 기적은 물리적 실재의 조건을 바꾸려는 것보다는 감관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즉 물리적 생체의 영역 넘어 영적 장을 공개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말은 실상의 영역이 각 사람 안에 있다는 말이다. (p. 34) 타종교를 친족으로...

신념 체계가 다른 사람들의 것도 타당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세계 평화 가능하다. 경쟁이 아니라 우주의 시초를 탐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초프라(Chopra)는 신에 대한 인간 두뇌 반응에 다음 같은 7가지의 수준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위험, 위협 등 생존에 관한 수준(danger, threat, survival)

둘째, 노력, 경쟁, 권력 추구(striving, competition, power)

셋째, 평화, 평온, 반성(peace, calm, reflection)

넷째, 통찰력, 이해, 용서(insights, understanding, forgiveness)

다섯째, 열망, 창조성, 발견(aspiration, creativity, discovery)

여섯째, 존중, 연민, 사랑(reverence, compassion, love)

일곱째, 제약 없는 연합(unbound unity).

성경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종교 경전이 이 수준들 중 어느 한두 가지를 다루며 항상 신을 논급한다. 인간 두뇌의 놀라운 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는 것이다. 구속(redemption)이란 자기 내면의 영혼의 눈을 보게 하는 역량을 일깨우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p. 24) 물질세계는 밀도 높은 물질을 비가시적인 에너지로 환원시킨다. 우리 머리에는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는 어둠 속에서 믿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밝음 속에서 믿는 것이다.

2. 영혼에 관한 놀라운 가설

1) 영혼이란

영어의 영(spirit)이란 단어는 라틴어의 호흡(spiritus)이라는 말에서 왔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하며 사람의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끌어가는 원천적인 에너지 또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원칙을 영이라고 한다. 세속-비세속적 의미로는 영이란 가시적인

차원과 비가시적 차원을 연합하는 힘으로 보았다. 그러나 종교에서는 의미를 좁혀서 사람의 육체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속성으로 말한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심신을 변환시키며 각자의 본래 능력의 한계를 넘게 하는 에너지로서 성령을 묘사하며 이를 경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신약의 성령은 공동체의 상호 관계를 동정과 협동 행위로 변경시키는 활력소로도 묘사하고 있다.

필자의 책에서는 영 혹은 정신은 비물질적인 차원, 그리고 내세의 신비적인 경험으로 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현세의 삶에서 따라가야 할 의미의 원천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2) 영적 지능이란

사람의 영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학자들 중에서 라만찬드란(Ramachandran)은 두뇌의 영적 현상을 추적하고 그 두뇌 회로가 있다는 실험적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다.(Ramachandran, V.S. and Blackessee, S. (1998). *Phantoms in the brain*. London: Fourth Estate.)

라만찬드란의 실험에 의하면 사람이 애매모호한 종교적 또는 영적인 단어나 아이디어에 노출되었을 때 두뇌의 측두엽(temporal lobes)에 나타나는 전류가 간질 발작상태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관찰했다. 간질 상태는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난 신비한 경험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신의 빛을 본다든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 진리를 통찰한다든가, 창조자와 하나가 된 느낌, 궁극적인 황홀상태 등이 그런 것이다. 역으로 보통 사람에게도 뇌 측두엽의 여러 부분에 자력장(磁力場) 자극을 주면 타계로 가는 경험, 전생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경험 등 신비적 체험을 일으킨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이들 실험 전문가들은 뇌의 이 영역을 ‘신의 자리’(God Spot 또는 God Module)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서구 문화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축적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배경에서 된 것이며 다른 문화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반복 실험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신비적 경험이 발생하는 영역이 두뇌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신의 존재를 논의한다든가 신적인 의식이 있다고 주장으로 비약하기는 어렵다.

그런 제약을 벗어나 조하(Zohar)와 마샬(Marshall)은 *Spiritual Intelligence: The Ultimate Intelligence*라는 책에서, 두뇌의 ‘신 영역’ 관측을 근거로 사람이 영적인 지능(spiritual intelligence)을 지녔다는 단서라고 암시했다. 그들이 말하는 영적 지능이란 현 상황과 생각의 한계를 바꾸고 창조적이 되며, 경험의 전후 관계 맥락을 재구성하거나, 경험에 대한 이해 내용을 변환시키며, 기존 규범이나 법규를 이해와 동정으로 조화시키며, 마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숙고하며 창조하게 하고, 선악의 문제에 응대하게 하며, 선택을 확장하고, 보다 높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자아와 삶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환시키는 등의 능력이다. 그런데 사람이 지닌 이런 능력은 동물적인 생존 본능의 진화로 나타났다고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다. 6만 년 전에 생존했던 네안데르탈 인간의 무덤에서 나오는 유물로 보아 그때에도 내세에 대한 개념과 상부상조하는 이타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3) 영혼에 관한 놀라운 가설

Francis Crick, *The Astonishing Hypothesis: The Scientific Search for Soul*, New York: Charles Scribners, 1994

모든 종교에서 영, 혼 (spirit, soul)이 실재한다고 주장하지만 현대 과학에 무게를 두는 많은 사람들은 영, 혼의 실재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사람의 출생 이전이나 죽음 후에는 개인의 생명이 없으며 영혼이란 메타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신 작용의 핵심인 마음 (mind)도 단지 두뇌의 신경세포들과 연관 분자들 사이의 생화학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영혼을 부정하는 이런 설명이나 주장은 “놀라운 가설”에 근거한다고 쿠릭(영국의 물리학자이며 생화학자로서 DNA의 공동발견자이며 1962년 노벨상 수상자)은 반박한다. 사람의 회로애락, 기억과 야망, 자

기 정체성과 자유의지 등이 모두 두뇌의 수많은 신경세포들과 그 연관된 화학분자들의 활동 결과에 불과한가?

사람의 마음(mind) 혹은 정신(mental)이라는 것이 단지 신경 세포들의 결집에서 발생하는 기능들에 불과한가? 사람의 정신 그 밖에는 연결되는 근원이 없고 육체의 생명 활동이 중단되면 그 정신은 소멸하는가? 사람의 영. 혼이라는 실체는 물리적 시간, 육체의 제약을 너머 존재한다는 이해를 여러 문명권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지녀 왔다. 그러므로 영. 혼의 존재를 믿기보다도 부정하는 가설이 놀랍다는 것이 크릭의 입장이다. 그러면 왜 영혼을 부정하는 그 가설을 수용하기 곤란한가를 크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서론p 1-12)

첫째, 그런 환원주의(복합 조직은 그 부분을 이루는 신경세포들의 상호 작용일 뿐이라는 설명)를 설명하는데 제약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현대 과학의 찬란한 성취는 환원주의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철학의 관점에서 환원주의를 거부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환원주의자들의 주장이 불확실한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구분하여 범주를 정할 때 오류를 낼수 있기 때문이다. 1920년대에 유전인자를 일반 물질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이다. 유전인자와 일반 분자는 범주가 다르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영. 혼 개념의 대상이 실재하는가 여부를 계량 물리학적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려는 과학적 노력이 있어 왔다. 영. 혼의 작용을 사진기로 영상 포착을 한다든가 그 음파를 녹취하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에너지의 변동을 포착하는 역장 계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 방법으로 측정되지 않는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실재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범해왔다. 그런 오류 투성이의 범주화 노력의 결과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실재하지 않는다거나 “진리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타당한가? 천문학, 생명공학, 물리학에서 새로운 발견이 계속되고 있다. 1백 년전의 과학적 방법으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우주비행, 인공 생명 등은 실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당시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런 진리 설명 방법론은 우주의 실재에 대해 설명하는

데 스스로를 제약하는 것이다.

둘째, 사람 의식에서도 본성 때문에 환원주의는 그대로 용납하기 어렵다. 정신적 경험과 주관적인 판단 즉 붉은 것을 붉게 느끼고, 아픈 것을 아프게 느끼는 경험이 주관적이다. 그런데 네가 빨간 색을 보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어떤 대상에서 빨간 색을 나도 본다고 확인할 길이 없다. 나의 입맛에는 반찬이나 국물이 너무 짜지만 나의 아내는 짜지 않다고 말한다. 나는 독감예방 주사를 맞고 앓아 누웠지만 나의 친구는 예방 백신을 맞고 전혀 앓은 일이 없었다고 말한다. 어느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 같은 객체의 빨간 색을 감지하는 나의 두뇌 신경세포 연관관계(신경 세포들이 자극에 의해 연관적으로 발동하는 현상)가 제3자의 두뇌에서 그 동일한 신호등의 빨간 색을 감지하는 연관관계와 똑 같다고 할 수 있는가? 왜 여러 사람들이 똑 같은 목사의 설교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듣고 감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증을 느끼는가? 피차 과거의 경험(학습내용)이 다르면 하나의 객체에서 속성을 똑 같이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다르게 지닌 의식의 여러 형태를 말하기 전에 각자의 신경 세포 연관관계를 알 필요가 있다.

셋째, 사람들 마다 지닌 자유의지라는 문제가 있다. 사람 각자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신경세포 연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 각 신경세포 개체만으로는 우둔하여 감각능력이 없다. 그러나 신경세포들이 순간적으로 연합해서 격발하여 인지, 정서 등 반응 행위를 발동시킨다. 그러므로 사람의 어떤 행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출현하는 행위는 부분적인 행위를 조합한 것이 아니라 두뇌에 기억된 정보들에 의해 두뇌 신경세포들의 순간적 혹은 연속적 격발에 의해 출현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두뇌에 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사람의 인지 능력 밖에 실재의 세계가 존재하며 사람이 이 세계를 다 알기는 불가능하다. 단지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 세계 속성의 일부에 관해 비슷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우리 두뇌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한다. 단지 두뇌활동의 일부를 알 뿐이다. 그리고 외계나 자신의 두뇌에서 발

생하는 일을 안다는 것 자체도 흔히 오류에 빠진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카를 융(Karl Jung)에게서 영혼의 문제

융(Jung)은 라틴어에서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 두 가지를 구분해 사용했다. 아니마는 영혼(soul)이라는 의미를, 아니무스는 정령(spirit)이라는 뜻을 라틴어에서 가진다. (독일어에서 각각 Seele와 Geist에 해당한다.) 아니마는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사람이 죽을 때 육체를 벗어나는 영혼으로서, 그리고 아니무스는 신체밖에 근원을 두며 사람이 죽을 때는 신체를 떠나는 기, 숨 같은 측면을 말한다. 하지만 두 용어는 서로 맞바뀌 사용되기도 했다. 두 가지 용어가 모두 사람의 내면 세계를 그리는 것인데 아니무스는 좀더 남성적인 인성을, 아니마는 여성적인 인성을 의미한다고도 보았다.

Murray stein, *Jung's Map of the Soul*, Chicago: Open Court Publishing, 1998

3. 영혼의 탐색과 과학과의 대화

Matthew Fox Rupert Sheldrake, *Natural Grace: Dialogue on creation, Darkness, and the Soul in Spirituality and Science*, New York: Doubleday, 1996.

1) 왜 과학시대에도 영혼의 탐색이 유효한가

2004년 2월 미국의 수퍼 보울 축구 경기 중반 쇼에서 자넷 잭슨이 가슴을 드러낸 사건이 서구 문명권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여자가 가슴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바람직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외설적인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에는 사람들이 기본 욕구 표현을 원하면서도 위장하려는 자못 이중적인 콤플렉스가 깔려 있다. 모든 문화에서 남성 여성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양태를 나타내고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로 어떠한가 되는가에 너무 집착하여 기본 욕구를 억압하거나 변태적으로 도착된 섹슈얼리티를 입증하려고 지나친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남자나 여자는 자기의 생명 재생력(virility)을 최대한 과시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자기의 유전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번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최적절한 파트너와 교접하여 안정된 관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의 얼굴미용과 의상 사치는 그런 본능의 연장이다. 여자는 자기의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파트너에게 어떻게 매핑 될 것인가를 자기 밖에서 반사해주는 자기모습을 타인을 통해서 보려고 한다. 그 중 거울이 없던 시대에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확인했다. 석경(mirror)이 발명되어 자기 모습을 혼자서 볼 수 있게 됐지만 자기 모습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은 역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즉 사회적 거울이다. 인기인(celebrity)이란 그 사회적 거울에 자주 “바람직하게” 비쳐진 사람이다. 남의 시선을 끌어 자기를 확인하려는 바람, 그것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바람이 든다”는 행위로 사람을 들뜨게 만든다. 개인으로 하여금 그 개성 자체를 표현하여 남의 시선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바람 드는 것”의 반대는 자기성찰과 명상이다.

자기성찰은 자기의 생각과 믿는 내용이 자기의 행동 양태를 자기 의식 속에서 평가하며 정리하는 행위이다. 명상은 우리 존재의 근원을 찾아 자기의 본질적 이미지를 보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명상은 사회적 남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지 않고 자연과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이며 현실에서 보이는 것 너머의 초월적인 근원에 접촉하여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각각 자기의 구원자(그리스도나 붓다)가 되라는 부름을 연민(compassion)의 신으로부터 받는다. 세상 안에 사는 빛으로 신의 상속자로서 “참된 나”(그리스도나 붓다)는 우리 안의 빛이며 우리 자신 안의 상처이다. 그 상처를 순화시키고, 그것을 존중하며,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화 하는 그 것과 관계를 짓는 수련이 명상으로 시작된다. 신은 우주에서 가장 새로운 것이며, 항상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의 신, 암흑의 신을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혼란-암흑에서 신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니까.”(매튜p 119)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다”(天上天下唯我獨尊)는 말은 무엇인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기 근원을 알고 자기 지향을 하며 남의 거울에 반사되는 이미지를 우려하지 않으며 자기 할 것을 하는 “나”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상처를 아파하지 않으며, 배신을 고깝게 여기지 않으며,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미래에 것을 염려하지 않으며, 미래에 바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이미지를 그리며 창조하고 추구하는 ‘나’이다. 그 ‘참 나’는 자기만의 욕구에 집착하지 않으며 남(남의 참 나)을 대등하게 존중하는 존재이다.

“선불교의 자기를 비우는 명상에서 그 단순한 방법은 고요함, 그 속에서 자기의 이미지를 듣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이미지 아닌 이미지들(Non-images)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는 옅은 분계선이다. 무에서 신은 출생했다. 우리가 자신을 비어 버리는 명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우주적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신의 아들, 신의 딸을 그려낸다. 비어 내는 명상을 따르는 기술 그 것은 기도가

며 교육이다.(매튜, p. 120)

연애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결실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연애하는 현재를 미감적으로 즐기는데 끝내거나 나중에 회상하며 엔조이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려고 한다. 자기가 추구하던 이성대상을 버리고 또 다른 이상적 대상을 추구하거나 새 연인의 이미지를 그리기도 한다. 처음 사랑을 단념한 것이 성장의 한 단계로 말끔히 지워질 수 있는가? 그 포기한 사랑의 이미지를 후회하는 것은 퇴행(뒤로 돌아가는 것)이다. 추억(뒤로 돌아가는 기억)은 우리의 정신에 음미할 정서 요소를 주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실상을 추구하는데 발을 묶는다. 과거에 어떤 소유할 기회를 갖지 못한 후회로 그 것을 복수하기 위해 되돌아가는 것은 도덕적 발전을 저해한다. 자기에겐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들을 보복한다고 지하철에 불을 질러 수많은 인명의 참사를 내는 것이 그런 저주에 가까운 퇴행과 고착의 본보기이다. 고착, 뒤를 돌아다보며 과거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일반 기억과 어떻게 다른가? 그런 기억은 얼마간의 의미를 가지며 가치를 갖는가? 그러나 기억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이미지에 비할 때 그 가치가 비교되지 않는다. 기억은 필요한 것만 재인출해 활용하는 수단적 정보의 프레임으로만 가치를 지니게 하고 정서적 무게는 미래의 이미지에 두어야 한다. 과거의 기억은 정보의 파편으로 존재하며 미래의 이미지는 정서의 무게로 가득 찬 희망이다.

물질적 에너지는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불멸의 법칙이 통용되고 있다. (p. 125) 나무를 불태웠을 때 그 나무는 사라졌지만 그 열은 우주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 정신 에너지도 불멸한다는 법칙을 주장한다. 삶이 타인에게 베푸는 온정,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고 우주 어느 곳에 떠돌며 영적 영양소로 화산처럼 축적된다. 아름다움, 우정, 동정, 고통, 경이, 창의력이 축적되어 생물계를 풍요하게 하는 정신적 비료가 된다. 우리는 남의 입김을 같이 호흡하며 서로의 기쁨에 서로의 슬픔 속에 들어가 있다. 기쁨과 슬픔은 사유물이 아니고 연장된 심령이나 영혼은 집단적이다.

2) 의식의 집단 연장

한국인들이 월드컵 대회 때 보여준 집단의식 그것이 의식의 집단적 연장의 좋은 예이다.

독일에서는 독일 국가교회가 신비주의를 개발하지 못해 히틀러가 가짜 신비주의로 성공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더 그렇다. 그래서 말초신경주의자들은 사이키아텔릭, 통 기타, 복소리 등 소음의 리추얼이 신비에 접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바다에 영혼이 접촉할 명상을 빼앗아 간다. 그러므로 종교음악은 고요함을 보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록 뮤직 형식의 예배음악은 현장에서 가시적인 행동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우주 속의 이미지를 볼 기회를 차단한다. 손뼉을 치는 부흥예배 음악이나 굿놀이 찬송은 그 소리에 압도되어 자기 내면 깊이 우주로 통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고요함을 파괴한다. 지방 방송이 너무 소란해서 우주 방송을 못 듣게 한다.

말초신경을 엔터테인하는 피부 깊이의 예술이 신비주의에 접근한다고 착각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소금물과 사탕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며 순수한 물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다. 그런 피부 깊이의 예술이 주는 이미지가 수록되는 곳은 우리 두뇌의 어느 부위인가? 고요한 명상에서 찾는 이미지가 등록되는 우리 두뇌의 부위와는 어떻게 다른가? 그 두 부류의 이미지들을 재인출할 때 그 시간과 적용가치는 어떻게 다른가? 하룻밤에 10만원자리 록 뮤직 공연을 보고 들은 기억이나 몇 백만 원자리 노래방 술상에서 떠들었던 기억은 나중에 두뇌에서 어떻게 인출되어 무엇에 소용이 있는가? 산간 계곡이나 조용한 해변에서 몇 분간 조용히 잠길 수 있었던 명상에서 찾은 이미지는 나중에 두뇌에서 어떻게 인출되고 어떤 소용이 있는가?

사이키아텔릭으로 흔들고 소음에 귀를 대는 이유는 사람들의 영혼의 감관능력이 퇴락해서 우주 본원과 접촉하여 대화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심령의 연장 기능(psychic extension function)이 막혀서 영혼의 안테나를 온통 열어 보려고 하는 절규 행위가 사이키아텔릭 뮤직이다. 그런 몸부림을 하도록 심령의 감수기능을 막는 것이

무엇들인가?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 타인에 의한 자아의 좌절, 그로 인한 분노와 원한, 그리고 처절하고 비통한 애원 그런 것들이다. 명상을 통해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라는 작은 그리스도(혹은 붓다)로서 자각이 올 때 타인이나 환경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또 그것들이 나에게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미래에 할 것인가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

한국에서 주말에 등산을 많이 한다. 40여년전 졸업한 나의 배재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 뉴스레터를 보면 환갑을 넘긴 친구들이 자주 단체 등산을 한다. 내가 대학시절에 친구들과 하던 등산을 회고해 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등산에는 남과 함께 한다는 공동행위의 즐거움이 크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명상할 기회로서는 별로 의미를 갖지 않는 것 같다. 등산은 요즘에는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건강관리 방안으로 더 의미를 갖는 것 같다.

밤의 암흑 속에서 모든 생물이 잠을 잘 수 있는 그 가운데 더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 암흑 속에서 의식 없음에는 지구상의 만물이 공통적이다. 구약의 창세기가 서술하는 창세전 우주의 암흑은 이미지 곧 빛이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 한국인들의 타인들에 대한 감수성이 큰 것은 자기들 고유로 지닌 이미지가 빈약함을 의미한다. 곧 각자가 지닌 빛이 빈약함을 의미한다. 타인지향성, 권위 지향성. 준봉성은 이미지들이 빈약함, 곧 의식이 희박함에서 기인한다.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빛이 희미해서 남의 빛으로 비추는 남의 이미지를 따라 가기 쉽게 된다. 과거에 속한 어떠한 이미지에도 고착(우상 숭배)하지 않되 다가올 새 이미지를 견고히 지니는 것(소망)이 필요하다. 그 다가올 이미지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이어야 새 의식을 지닌 새로운 존재가 된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우주의 에너지의 원천이며 매 순간 새창조를 시작하는 신과 직통하여 새 이미지, 새 에너지를 자기 안에 담음으로써 매 순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나의 습관 혹은 타인이나 거울에 비친 나의 이미지를 고집하는

것이 오만이며 허구이요 죽음이다. 그런 ‘나’에 대해서 죽고 다가오는 새 이미지를 영입하여 견고히 지나는 신앙, 그리고 매순간 바뀌가는 역동적 희망의 생활이 새 의식의 삶이다.

낮의 빛은 만물의 다양성을 보여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러나 밤의 암흑은 모든 만물이 하나라는 통일체성을 재 경험하게 한다. 밤 늦게까지 휘황찬란한 가로등과 상업 간판은 불면증을 초래한다. 밤의 환락가의 불빛들을 찾아 밤늦게 쏘다니는 노동을 연속하게 한다. TV나 컴퓨터 모니터는 빛의 기계,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기계이다. 그러나 그 빛과 이미지는 우리의 시각과 두뇌에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설득하려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를 밤에 피로하여 노동하도록 한다. 사람들은 자기 영혼 깊이로 와서 닫는 이미지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눈앞에 밤늦게 명멸하는 이미지에 정신을 내맡기고 있다. 마치 병원의 마취과 의사 앞에 누워 자기의 의식을 내어 맡기고 최면을 걸어 주기를 기다리듯이 사람들은 피동적이 되어 의식을 내어 맡긴다, 그래서 TV프로그램 연출가들과 인터넷 매신저들의 두뇌 속을 휘저으며 그들 멋대로 이미지들을 우리 두뇌에 쑤셔 박아 웃고 울게 만들어도 그 시간대 안의 감각적 즐거움 만으로도 만족한다. 대개 TV를 통한 그런 이미지는 단기성 창업 기억력 위에 작용하다가 사라지며, 영구적으로 기억할 가치가 있는 정보 이미지를 주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의식을 바보로 만든다.

현대 문화—TV의 이미지들, 광고매체의 이미지들, 음악 등에 의해 우리들의 의식은 너무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우리는 “올라가자 올라가자”(더 엔조이 하고 소비하자)라는 선동에 따라 모든 이미지의 피치를 높이도록 두뇌의 어느 부분이 과도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모두 개발해 버린 고층 아파트들 단지의 옥상같은 현기증 나는 높이에서 어떻게 나의 안에 낮은 곳으로 내려갈지를 찾을 것인가? 그리스도는 낮은 곳에 임했다. 마구간에서 그가 탄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다윗 왕의 계보에 올린 마태복음이나 모든 군주의 으뜸이라고 치켜세운 신약성경의 맥락을 헛짚은 것이다. 교황이라는 상징적 인물이나 교황청 산하의 거대한 관료 조

직과 아버지, 목자를 상징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지위가 모두 헛짚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각자 자기 안에 신의 나라가 있다고 했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그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관계의 기본은 무릎을 꿇고 남의 발을 씻는 겸허한 행위에서 시작됨을 시범했다. 그 모든 허구적 이미지, 높은 자의 이미지를 빼어낸 이미지 없음의 상태, 암흑이 이 문명에 필요하다. 교회가 개혁을 원한다면 이미지 빼기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식이 암흑속의 통일에 (예수가 장사됐던 골고다의 돌무덤) 되돌아가 시작해야 한다.

매튜가 말했듯이 문명시대에 우리들은 암흑에 굶주리고 있다. 의식의 텅 빈 상태, 이미지나 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 휴식을 통해 재생이 이뤄지는 잠의 밤 그것들이 우리에게 모자란다. 우리의 감각은 하루 24시간중 3분의 2 동안 감각 입력을 받는다. 밤의 잠은 그 감각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다음날 새로운 빛과 새 이미지들의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여백을 만든다. 우리는 새 날에 가득 차기 위해 지나간 날의 이미지들을 비워내야 한다. 그래서 밤이 필요하다.

우주 만물 모두가 각각 그것의 영원한 원형을 반영한다. 생물에게서는 용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이 그런 것이다. 한 마리 말은 영원한 말의 개념을 반영한다. 진화론적 패러다임은 유대교의 유산에서 온 것이다. 선택된 민족, 광야로의 탈출과 약속한 땅으로의 진입,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죽음 그리고 재림 예고 이것이 17세기 과학을 밀어붙여 오늘의 과학기술을 진화시킨 것이다. 생물의 진화에 관한 다윈의 학설은 유대교적 신과 우주의 진화관에서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우주의 출현을 설명하는 천체과학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주공학이나, 컴퓨터공학 그리고 생명공학은 물론 진화의 패러다임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

3) 형태의 공진-morphic resonance (Rupert, p. 164-166)

생물 뿐 아니라 무생물질도 집단 기억을 갖는다. 예를 들어 우주 진화 과정에서 찰물이 처음 소금이라는 결정체로 되는 데는 어려움과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 과정이 성취된 다음 그 뒤에는 쉬

워진다. 또한 여러 문명이 격리된 고대에 인류가 각지에서 소금을 짬물로부터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기술을 전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수도 있지만 교통함이 없이 대기를 통해 물질의 분자가 이동되며 그 물질 분자의 특성이 전파되어 형태적 공진을 일으킨 때문이라고 루퍼트(Rupert)는 주장한다.

동물이나 인간의 행위에서도 형태의 공진이 발생한다. 어떤 한 사람이 일단 배운 기술은 다른 사람들도 배우기 쉽다. 자전거를 타는 기술이 원시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것 같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진된 기술은 여러 사람들이 배울수록 나중 사람들에게 쉽게 된다. 컴퓨터를 처음 발명했을 때는 연구소의 일부 사람들만 겨우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쉽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이런 기술 습득능력이 동류 인간들에게 널리 잠재해 기억되어 있다는 이론은 칼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과도 통한다. 루퍼트는 이를 무의식 대신 형태의 장(morphic field)이라는 용어를 쓴다. 축제나 종교행사 때의 의례(ritual)행위도 형태의 장의 한 유형이다. 의례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한 양식 행위이므로 모든 인류사회들이 의례를 지니고 있다, 사냥감을 많이 발견하도록 운수를 조작하려는 사냥 의례로부터, 농작 풍년을 위해 비를 내리게 하려는 기우제나, 병자를 고치려는 치병 의례 등, 원시시대로부터 시작된 의례들은 언어를 통한 기도로 발전하기 이전에 춤 같은 신체의 동작이나 불이나 자연물을 첨가한 동작 등으로 얹혀 발전했다.

의례의 형태에 관해 사람들은 보통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에 그런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자는 보수주의가 존재한다. 전에 하던 대로 같은 음식, 언어, 주문 등 의례의 목적은 현재의 참여자들이 시간을 본래의 사건에 연결되어 본래의 참여자들과 유대를 짓는다는데 있다. 의례가 미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반복되지만 하나의 의례를 타파하고 새로운 의례를 개발하는 것이 과학이다. 종교적 의례와 과학적 방법은 같은 동

전의 양쪽이다. 과거에 그 의례를 수행했던 사람들과 형태적 공진에 들어
가서 하나가 된다.

형태적 공진은 우주를 경험하는 것이다. 집단적 기억과 신비, 조상들
의 지혜 등을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이미지로 불러 일으켜서 전체에 연결
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성만찬 의례이며 붉은 악마의 축제 같은 것이다.

붉은 악마라는 단어의 피상적 언어 의미는 혐오감을 주는 것이지만 한
국인들이 그 피상적 형태를 개 의하기 보다는 그 언어를 둘러싼 의례 행위
에 심취된 것은 그 의례가 바로 집단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그것이 집단적
금지, 그리고 암시적으로는 조상들의 지혜가 현재의 지혜와 합쳐 세계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민족으로서의 잠재력을 스스로들에게 확인시켜 주
는 축제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형태적 진동의 주파로 조상들, 천사들,
젊음, 미래 등이 모아지는 것이다.

의례는 고대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우주 이야기를 가르치는 방법이
였다. 의례는 우리 존재의 근원을 배우고 그럼으로써 도덕의 기반을 아는
길이였다. 일단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
가, 그리고 어떻게 거기로 갈 것인가에 합의할 수 있다. 그것이 도덕이다.
(Rupert, p. 168)

지혜가 있고 거기에도 연결이 있다면 그곳에 도덕이 있다. 사람들의 정
신을 상자에 가두고 권태를 느끼게 하는 것이 죄이다. 건전한 의례는 어느
방향으로 돌아서도 아름답고 흥미로운 것이다. 교육과 의례문의 또 다른
면모는 참여, 즉 무엇인가에 함께 손을 대며 해내는 것이다, 함께하는 행위
는 형태적 파장을 일으켜 그 안으로 충일하게 들어 가는 길이다. 교육과 의
례문 또한 가지 단면은 기억하는 일이다. 예수가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
나를 기억하라”한 것을 기념하는 성만찬은 과거로 우리를 연결 짓는다. 의
례 또한 미래를 기억하게 한다. (오지 않는 일을 어떻게 기억한다는 말인
가? 그것은 미래의 상을 두뇌에 그려 기억하는 것이다. 미래의 상을 그린
다는 것은 이미 지닌 이미지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관련된 공간에 투사
하는 행위이다. 우리 자신을 미래로 파견하여 그 시공에서 발생할 일을 미

리 엿보게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현재의 자신의 두뇌에 마사지하여 두뇌의 기억 용량에 진하게 등록해 두면 그 환상은 현실의 이미지 또는 과거에 경험하여 기억한 이미지와 대등하게 우리의 두뇌에서 인출해 내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기능한다. 그렇게 두뇌를 마사지하는 행위가 축제이다. 종말론(Eschatology)은 미래를 지칭하며 종말적 사건이 온다는 기억은 현재에 어떤 작용을 한다. 종말적 사건은 “시간의 끝”이라는 그 공간에서 의미를 발생하기 보다는 사실 현재에 부여하는 의미가 더 크다. 마치 현재 우리들이 편재한 사실들을 평범하게 여기며 지나치듯이 어떤 종말적 사건은 그것이 발생하는 미래의 “시간의 끝”에서는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올 사건은 그것을 기대하는 현재에서 더 의미가 큰 것이다. 이것이 도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기억은 상응행위(reciprocation)의 바탕이다. 즉 과거에 자기나 자기의 측근에게 베풀어진 선의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선의를 되갚으려 한다. 현재의 나의 선의에 대해 지금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혹은 신원미상의 사람이 미래에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되갚을 것이라는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밀고 가는 노리쇠(충기의 탄환을 약실에 밀어 넣는 부분)가 될 수 있다. 부도덕 행위나 범행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한결 같이 얼굴을 숨기려는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들이 그런 행위를 저지를 때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는 결과의 이미지를 두뇌의 기억에서 동원해 내지 못 했었다는 것의 반증이다.)

미래를 기억한다는 말은 이런 것이다.

결혼 축제에서 미래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들은 신랑신부만이 아니다. 양측 부모들은 자식들 가정의 미래의 행복을 그리며 무엇보다도 귀여운 손자들의 얼굴들을 그린다. 기혼 하객들은 자신들의 초혼 당시의 이미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결혼 관계의 중요성을 재 다짐하며 더 앞으로 더 좋은 결혼관계를 가질 것을 그린다. 미혼 남녀들은 다가올 자기들의 결혼을 향해 이미지를 투사하며 기대에 부푼다. 심지어 코흘리개 여자 아

이들까지도 자기들의 미래 신랑과 결혼 잔치 이미지를 그리며 두뇌에 “인상 깊이” 기억한다. 경험하지 못한 것의 이미지를 그려서 두뇌에 기록하는 것은 현재와 앞으로의 행위를 가이드 하므로 도덕의 기반이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성행하는 나이트클럽과 포장마차의 의례성은 어떤 것일까? 환락가 술집에서 호스티스가 동석한 음주나 또는 길가의 포장마차에서 외로운 혹은 친구와 어울린 그런 상호 행위도 의례의 형태들인 것이다. 호스티스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미래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그리면서도 허위로 웃음을 지어 돈과 교환한다. 그 웃음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현실 이미지를 한껏 엔조이하는 현재라는 공간에 만발하는 축제일수 있다. 또는 과거의 사연에 현실이 매인 채 미래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현실의 이미지에 잠시 정거하는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 또는 현실을 탈출할 확고한 각오를 갖고 미래에 갈 곳의 이미지를 정해 놓고 그 수단으로 현실 상황을 시한적으로 이용하는 축제일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술을 폭음하며 돈을 뿌리고 그 대가로 받는 허위적인 웃음에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음주객들과 술 상무들의 두뇌에는 어떤 이미지들이 기억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인가 어떤 이미지를 기억해 두려고, 또 어떤 이미지를 떨쳐 버리려고 몸부림치며 두뇌를 마사지하는 축제성을 지닌 행위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접전에 이르지 못하는가? 사회적 제약 때문이라고 탓할 것인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긍정하지 못하는 때문인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확고하게 긍정하지 못하게 하는 유교 문화의 탓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화의 비도덕적 잠재력이 있다.

4) 의례는 교육의 한 형태이다 (p. 167-8)

의례는 우리를 미래로 투사하게 하며 우리가 아직 개인의 삶 혹은 사회적 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은 올바른, 공평함, 정의를 경험하게 한다.(p. 171) 예수가 모든 것의 빛이라는 지칭, 그것은 지금 도시 환락가의 전광판,

TV의 현란한 화면들 그리고 레이저 광선과는 어떤 연관을 갖는가? 매튜는 예수 재림을 빛의 줄기(beam of lights)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고통을 재생(리사이클)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원형이라고 그는 말한다. (p. 171) 만약 ‘형태의 장’이 들판이나 경기장 같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목자가 되라”는 예수의 말은 “우리 자신 안의 양을 사목한다는 의미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우주적 그리스도, 어린 아이를, 모든 기억들-우리 조상들에 관한 기억들과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모든 기억들이 있는 - 우리 자신 안의 들판에서 자기를 사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자고 매튜는 말한다.

빛은 흐르는 유체이다. 물체는 동결된 빛의 줄기이다. TV는 빛줄기가 흐르는 것이다. 빛은 이미지를 담아 옮기며 투사하여 매핑을 하게(그리게)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너는 너 자신 안의 빛, 곧 그리스도를 관리하는 목자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자기 안의 그리스도에게 사목하는 목자 노릇하는 일이다. 너희는 모두 목자다. 너는 너 자신의 목자이다. 이 역할과 사명 보수성의 의미는 전통을 기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5) 매튜와 루퍼트의 대화(p. 180)

과학자의 놀라움 경이감은 어릴 때의 동기로 시작된다.

경이감을 잃지 않고 지닌 학자는 리터지에 참여를 환영받는다. 그러나 경이감을 잃은 과학자들은 죄를 고백하고 재생되어야 한다. 과학자들은 개별적 경이감으로 그 전문직을 선택하여 시작하는 데 생물학자가 되기 위해 동물을 해부하는 혐오할 실험에서 일차적 의례에 대한 저항감을 굳힌다.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즈음이면 이런 정서적 반응은 다 소멸하고 과학자가 되려던 처음의 포부와 영감은 억압되거나 중단된다.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언은 다 어디로 가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환자들을 점 찍어 내는 기계적 행위로 변한다.) 그 다음에는 연구 기금, 명예, 연구소의 확장 등 야성과 왕국을 짓기에 몰두한다. 기업가, 목사, 교사도 그렇게 왕국건설에 밀리는, 원초적 형태의 장(에텐 동산을)을 떠난 요구에 떠밀려간다. 첫 사랑

의 경이와 질문을 잃은 원죄 상태에 빠진다. 원초적 존재 형태의 장, 그것을 어떻게 되살리느냐, 의례가 그것을 되돌려 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사예다가 새로운 우주론과 심령성을 가져와야 타성, 중독, 습관을 넘어서 움직이는 새로운 의례 말이다. 새로운 것이란 원초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습관은 후천적으로 습득한 사회적 본성이면서 본래의 자연적 본성 위에 지어진 것이다. 의례도 습관화되기 때문에 둔감해지고 효과가 무뎈진다. 종교 예식, 도덕의례를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원초적 창조의 운동에 공진하게 하고 원래의 통찰력을 지닌 시간을 연결하여 지금 여기에서 창조적 잠재력을 계속 새롭게 하는 말초 자극이나 사치품, 타락적 향락을 찾는 사람들은 이 원초적 경이감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원초적 경이감을 상실하고 창조의기원을 잊은 사람들은 원죄에 빠진 것이다.

도덕적 타락 이전에 순수한 상실이 창조적 오리지널의 - 처녀성의 순결-같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그 형태적 원형 판(템플릿)을 찾으러 파일 폴더를 뒤지며 헤매는 것이다. 온갖 파일들을 문서 형태로, 그리고 촉감-광감-음감(触感-光減-音感) 등의 감각 형태로 뒤지며 열어 보려는 혼란이 부도덕하고 관감주의적인 행위들을 낳는다.

원래 종교는 모든 것을 설명했는데 17세기에 종교가 구속과 도덕성만을 갖기로 하고 나머지를 모두 과학에 내어준 것, 그것은 바게인을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종교가 나머지도 설명한다고 나설 수 있지 않는가? 자기만의 좁은 소견만 고집하지 말고 창조적 의례문, 형태적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미지를 만들되 도덕적 소리로 프랜시스 베이컨은 과학은 전 자연을 영역으로 하는 새로운 사제라고 했다. 즉 우리는 과학에서 종교적 의례의 면모들을 회복해야 한다. 과학적 실험은 신탁을 추구하는 현대적 형태이다. 전통적인 신탁은 사제나 점술가들을 통해 전해지고 해석됐다. 무엇을 모를 때 신의 계시를 구하던 종교 사제들 대신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신의 창조 원리와 갈 방향을 알아낸다. 한편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에서 우주질서를 파괴하고 정복한다는 오만보다 창조의 질서에 참여한

다는 의례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은 과학자들만의 할 일이 아니라 교육자, 정치가, 심지어 기업가들도 자신들의 행위에서 리추얼 감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행위 형태의 원형적 장과 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남의 성취를 모방하거나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다. 한국에서 종교의 의례들조차 탐욕과 성취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자연을 통해 우주의 질서에 접촉하며 본원적 의미를 찾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의례가 메마른 결과이다. 한국에서 분노의 시위가 많은 이유도 본원적 의미 추구가 단절되고 눈앞의 이해관계만 보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한국의 여러 민속의례들 특히 지신 밭기 같은 행사는 미신 행위만이라고 할 수 없다, 원초적 의례를 보존하고 추구하는 제도화된 종교행위에 버금가게 의미 있는 의례이다. 자기자신의 종교적 의례가 의미를 잃은 진공상태에서 사람들은 본원적 행위 대신에 TV를 통해 남이 가상적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행위를 본다. 자기의 삶의 현실에 떨어진 모방 행위의 영상을 보며 현실에 바뀌치기 한다. 학원의 교실도 실습 의례가 빠져 지루하다. 정원 가꾸기, 목공일 등 행동하는 것이 교육에서 빠지고 주입식 암기만 하니까 어린이들이 깨어진 본래의 의례성 행동의 표현을 찾아 비행을 저지른다. 수련이란 제자와 가르치는 스승 사이에 직접 행위를 통한 경험을 전수하는 예술이다. 수련 대신에 정보 주입과 암기를 위주로 하는 요즘 한국의 교육은 그런 면에서 인간 병들이기 대공정(大功程)이다. 우주 본원에 관한 존중이 없이 단지 편이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학은 영성을 모두 소독하여 영적 불임증에 걸리게 한다. 과학과 영성의 결합점이 필요하다.

4. 영성으로의 초대

William Collinge, *Subtle Energy*, New York: Warner Book, 1998

누군가 자기 집으로 오고 있다는 예감을 가졌는데 정작 손님이 찾아오는 일이 있다. 흔히”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속담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가 나타나

는 일이 종종 있다. 우리들의 신체는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부터 오는 다른 사람들의 주의(attention)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원격 영향력이란 개인의 에너지 필드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심지어는 수 마일씩 떨어진, 사람에게서 그의 에너지의 영향을 느낀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사람의 시선은 에너지를 방사하고 남의 시선이 닿을 때 우리들의 자율신경은 반응한다. 이런 자율신경의 반응은 실험실에서나 통제되지 않은 일상적 상황에서 신체(피부)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로 검증될 수 있다. 기차를 타고 통근하는데(Metra 철도) 뒤편 좌석의 사람이 하차하려고 뒤에서 접근하는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다.

1) 영적 바이오 피드백(spiritual bio-feedback)

사람들이 자기의 자율신경 활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바이오 피드백이 가능하게 됐다. 두뇌의 상상 내용이나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으로써 우리는 심장의 박동, 혈압, 근육의 긴장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바이오 피드백은 타인이 지닌 생각이나 의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누가 나를 주시할 때 나의 신경이 긴장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경험하는 예이다. 자기를 주시하는 아름다운 이성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공명하므로 설레게 된다. 또한 여러 사람 앞에서 세미나 발표를 하거나 설교를 해 본 사람이면 청중들의 흥미로운 시선이 맞닿을 때 자기가 본래 준비한 것 이상의 좋은 영감이 머리에 떠올라서 성공적으로 스피치를 하게 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중들이 즐거나 흥미로운 시선의 교류가 없으면 스피치를 할 기력이 떨어지며 준비한 원고의 내용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얼버무려 끝내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신경의 장(neuronal field)또는 초월의 장(hyperfield)을 공유할 수 있다. (윌리엄, 폴린, 1998) 러시아의 실험에서 몇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옆 방에서 공포의 정서, 불확실성, 자신감의 결여 등의 정서와 함께 여러 숫자들을 내용으로 하는 정서적 신호를 보낼 경

우에 문제 해답을 찾는데 지연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남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도록 정신력을 집중하면 피험자의 문제 해결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도 입증됐다.²⁹

반대로 텍사스 샌 안토니오의 Mind Science Foundation의 브라우드와 슬리츠 박사 팀의 실험에서는 옆방의 사람들이 강한 긍정적 의도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다른 방에 있는 피험자의 혈압과 피부 전류가 낮아짐으로써 긴장감과 불만이 해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브라우드 박사 팀은 격리된 방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60명이 차례로 정신 에너지를 집중하는 실험을 했다. 이 실험은 평상시에 집중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보다는 집중력이 약한 사람을 위해 격리된 다른 방에서 여러사람들이 정신 에너지를 집중해 줌으로써 그 피험자가 문제에 초점을 더 잘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다.³⁰

사람의 심장은 우리 두뇌의 파장을 조절하며 소화기관 세포의 진동도 조율하여 심장의 박동에 공조하게 한다. 머리, 심장, 내장이 모두 동물로 진동하게 되어 명료성, 쾌적감, 직관력, 내적 평안 등을 갖게 한다. 심장의 박동은 또한 우리 신체 밖으로 방사된다. 심장의 에너지 필드는 4-5 피트 밖에서도 자력 기기로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차리며 그로 인해 자신도 “기분을 잡치거나” 성난 상태로 되기도 한다.(Collinge, p. 48)

우리의 생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이오필드(biofield)이다. 우리가 죽으면 바이오필드는 시체에서 없어진다 바이오필드가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물리적 세계 너머의 미묘한 영역과 물리적 차원을 연결하는 에너지의 변환장치(transducer)이다.³¹

29. May, E. Vilenskaya, 1992. Overview of Current parapsychology in the Former Soviet Union, *Subtle Energies*3(3): p. 45-67.

30. Braud, W., and M Schlitz. 1991. *Consciousness interactions with remote biological systems: Anomalous intentionality effects*. *Subtle Energies* (2)P1:1-46.

31. Collinge, p. 17. This concept is equivalent to BIOFIELD(Richard Pavek of BIOFIELD Research Institute, CA).

마치 마이크로 폰이 음파를 전류 파동으로 바꾸듯이 우리 신체는 초물리적 차원의 에너지를 물리적 차원의 실체로 변환시키는 생물 장치이다. 우주 에너지를 사람이 포착하여 변환시키는 장치는 우리 몸의 내분비선, 신경조직, 우리의 바이오 필드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협동하여 미묘한 초 에너지들을 파악하게 한다. 영적시각에서 인간 전신이 에너지 변환기가 된다.

바이오필드가 포착하는 라이프 포스(life force), 라이프 에너지는 동식물에게도 땅 자체에도 작용한다. 동양에서 말하는 기는 과학 기기로 측정할 수 없어도 생물들이 감지하고 변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물 특히 사람은 우주와 더 밀접하게 훨씬 더 다양한 감지 기능을 갖고 있다. 과학 기기로 측정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말하면 우리의 지식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된다. EEG가 발명되기 전에 뇌파가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없었으나 뇌파란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된다. 과학적 측정기기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느 기기든 물리적 실체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제약이 있다.

사람의 심장이 신체 중에서 가장 강한 전자자기장(electromagnetic field)을 생성해 낸다. 깊은 사랑, 동정, 보살핌 등의 감정을 가짐으로써 심장의 전자자기장이 확장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고 있다. 테레사 성녀의 헌신적인 봉헌을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보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디프레션이 사라지는 경우가 그런 것이다.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혹은 월드컵 축구를 관람하며 응원하는 것 같은 집단행동 상황에서 미묘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캐스케이드(cascade)현상을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한다.

영화 ‘글라디에이터’의 클라이맥스에서 로마 원형 투기장의 검투사들의 사투를 본 경기장의 관중들은 단지 피를 보는 데서 흥분하는 잔인성보다도 분기하는 에너지를 충전하게 된다. 한국에서 수십만 관중이 풋볼 시위에 참여하는 현상도 어떤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데 동참하는 목적으로 발생하겠지만 그 참여자들은 분출하는 집단의 에너지를 나누

어 갖게 된다. 고대 여러 문명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용어로 이 바이오필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알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프뉴마(pneuma)라고 했고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는 이 용어는 고대 이집트에서 안크(Ankh)라고 하였고 중국문화권에서는 기라고 칭해 왔다,(중국Qui, 한국과 일본 Ki). 아프리카의 가나(Mu-lung), 폴리네시아(Mana), 아메리카 원주민 다코타(Ton) 오 휴런(Ok)들도 각기 이 에너지를 이해하고 있었다. 지금 미국과 영국 영어권에서는 바이오 에너지(bioenergy), 생체자력(biomagnetism)이라는 말로 이르고 있다.

우주 만물이 에너지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에너지를 방출한다. 에너지와 영(spirit)은 가까이 얽혀 있다. 에너지는 원 자료이고 그 에너지로 영이 물리적 실체를 만들어 낸다. 우리는 모두 에너지의 존재이다.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함양하고 유지하며 다른 에너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호흡은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의 경계선을 매순간 건너 오가는 단순한 작동이다.

2) 눈의 에너지

동물의 눈은 에너지를 교류하는 신체의 첫째 출입문이다. 왜냐하면 눈은 신체의 어느 부분보다도 멀리 있는 대상에게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상대를 파악하고 또한 에너지를 멀리 보내는 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은 밖에서 들어오는 빛 에너지의 양과 강도를 조절하지만 눈 자체가 인체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즉 눈에서 전자기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것을 구 소련 과학자들이 발견했다. (p. 44-45참조) 그러나 눈의 에너지는 인체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여러 수준의 강도로 방출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빛나는 눈동자”라든가 “눈에 정기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사람이나 사물)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쏘아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에너지를 그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

군가 자기를 “찌뚫어 본다”는 말도 눈의 에너지를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한다는 뜻이다. “차가운 눈초리”로 흘겨본다 든가 “매서운 눈매”로 찌려본다는 일상 용어들은 눈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을 무의식중에 인정하는 말들이다. 우리 문화에서는 젊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윗사람을 똑 바로 바라보는 것을 금기로 살아왔다. 6.25사변후 우리들의 청소년 시절에는 길을 다닐 때 “찌려본다”며 시비를 걸어 폭행하는 일이 흔히 있었다. 상대를 똑바로 보며 눈의 문을 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약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악의적인 눈의 에너지에 자신이 피해를 입을 위약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시선을 피함으로써, 눈을 감음으로써 사람들은 눈의 에너지 교류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이며 또한 취업 인터뷰 같은 경우 자기의 진의를 정확히 전달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어느 문화에서든지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약한 것이 있다는 직감을 준다. 무엇보다도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젊은 남녀들 간에 눈이 맞는 순간이다. 권위자 앞에서 시선을 내리는 것은 굴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성관계에 있어서 눈의 마주침은 관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인간 사회의 상호관계가 눈의 에너지 교류로 확실하게 매듭 된다. 국제 외교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협조계획서와 협정 제안을 오랜 세월동안 각종 통신방법으로 교환하더라도 관계국 수뇌들이 맞대어 정상회담을 (단 30분간 동안) 한 후에 매듭짓게 되는 것도 눈의 에너지 때문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반세기기를 넘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남북한 양측 정상이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신실한 에너지를 교환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3) 자연 에너지

점술이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지하의 수맥이나 광맥을 찾는 재능(dowse)은 동서고금에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로 수맥을 피하여 묘자리를 찾는 것은 단지 미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과학적 기기로 측정되지 않지만 더 정확하게 자연의 에너지 법칙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땅이 지닌 생생한 에너지가 술자의 예민한 생체 자기감응력을 통해 파악되며 물이 있는 곳을 찾았을 때 술자 개인이 아닌 더 초월적인 존재의 에너지가 막대기를 굽혀서 그 지점을 가리켜 준다.

산꼭대기에 기가 모인다는 것은 “백두산 정기”등, 산에 정기가 있다고 말해온 우리 조상들의 전언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 한 예로 영국 월서 주의 솔스베리 평원에 있는 스톤헨지(stonehenge)를 들 수 있다. 기원전 1800년경에사용되던 제사의 유적인 이 거대한 돌들은 땅의 에너지를 모아 올려 공기를 정화하는 침봉의 기능을 했다고 한다.

4) 감사의 정서에너지 (p. 52-65)

단지 사랑이나 감사를 느낌으로써 심장에서 발생하는 에너지파동의 일관성이 증진된다. 감사한다는 것은 불쾌한 정서적 또는 정신적 반응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이탈하며 자기의 주의를 자기의 심장으로 집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지향하여 감사 또는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도록 집중하는 행위이다. 칠디어 박사가 본래 스트레스 감소의 수단으로 개발한 이 방법(DEVELOPED BY Doc Lew Childre, the founder of Institute of HealtheMath)은 불과 1분간의 감사 감정 집중 훈련이다. 그 행위로 심장 에너지 필드의 일관성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 신체의 다른 진동 기관들이 심장의 박동에 맞추어지게 된다. 이 현상을 진동 횟수의 조율이라고 하는데 이 조율로 뇌파와 호흡 패턴도 영향을 받게 된다.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면 자신의 에너지 필드 밖의 타인의 에너지 필드에 접근하게 된다. 그 에너지 필드의 내용이 남에게도 알려질 수 있다. 사람의 상상(IMAGINATION)은 5개 감각을 초월하여 인지하는 수단이다. 마치 적외선 가글로 밤중에도 시야에 들어오는 사물을 보듯이 상상은 심장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타인에게서 진행되는 내

용(김새)을 알아차리면서도 모호한 이미지라고 주의를 안하거나 도외시하게 된다. 성경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예식을 커뮤니온이라고 한다. 이것은 에너지 필드들의 교류(Communion)이다.

리드(Reed)는 두 사람이 자기에 관한 집착을 풀고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자기의 경험을 통제하려는 것을 포기하면 두 사람 사이에 애쓰지 않고 진실한 친밀감이 발생한다. Flemss는 이런 에너지 필드의 접촉 공간을 상상의 영역(duur imaginal zone)이라고 한다.³² “만일 우리가 우리의 정서적 상상력을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하면 그 상황 자체가 내보내는 진동으로부터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자석 주변에 쇳가루를 뿌리면 그 쇳가루가 자기의 파장 분포 형태를 보여주듯이)

5)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고서도 에너지가 전달된다. (p 115)

실험실에서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앉아 5개 감각기관으로는 대하지(보거나 접촉하지) 않지만 피차간 상대방의 에너지 필드에 잠겨 들은 다음 다른 방으로 격리시킨다. 두 방에 격리된 상태에서 갑에게 플래쉬 라이트를 비쳤을 때 다른 방에 있는 을의 뇌파 패턴이 갑의 뇌파 패턴과 같아진다. 을은 직접 플래쉬 라이트를 보지 않고서도 빛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감관을 초월하여 에너지 필드 사이에서 직접 교류가 이뤄진다는 증거이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주의를 집중하면 신경의 장(neuronal field or hyperfield)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6) 사람의 두뇌는 남의 두뇌와 연결되어 깊고 편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p116)

초국지적 마음(nonlocal mind)이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신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는 더 고차적인 정신 세계의 일부분이라

32. Reed, H. 1996. Close encounters in the Liminal zone: experiments in imaginal communication. Prt I.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41: 81-116.

는 의미로 마음을 정의하며 거기서 제약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³³ 초국지적 마음의 예로 아들이 먼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거나 죽음에 직면할 때 어머니는 동시에 알아차리는 일이 흔히 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불길한 예감을 갖고 탑승하지 않았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예도 흔히 있다. 종교적으로는 먼 거리에서 어떤 신도에게 발생할 일을 감지하거나 원거리 기도로써 질병이 치유되는 예들이 있다.³⁴

McGraty, R. 1996 학회 논문 발표(p. 125-126)

두 사람이 접촉하거나 가까이 있을 때 에너지가 교환된다. 손을 서로 잡고 있을 때는 피차 간의 피부에 상대방의 심장 에너지가 포착되고 뇌파에도 상대방의 영향을 받는다. 라텍스 장갑을 끼고 손을 잡으면 전류 전달의 강도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3피트 떨어져서 피차간 닿지 않아도 상대방의 전류가 포착된다. 그러나 5피트 이상 떨어지면 상대방의 전류가 파악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나 참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 그의 심장박동에 자기의 심장 박동도 엔트레인(entrain) 되지만 화가 나거나 선동적인 사람의 일관성이 없는 말에는 일관적으로 엔트레인되기 어렵다.(p. 126)

원거리 영향력- 다른 사람이 우리의 에너지 필드밖에, 수십 리 밖에 있더라도 에너지의 임팩트를 느낄 수 있는 현상(p. 132)

이 실험들은 사람들 간의 주의는 개인 간의 경계선을 넘으며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의 제약을 넘어 교류된다는 것이다. (p. 134-136) 원격 영향(remote influence)이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에너지 필드 밖에, 심지어는 여러 마일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에너지 영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에너지 필드는 자기 신체 주변에 여러 피트까지 연장되며 파

33. Dossey, Larry. 1992. "But is it energy? Reflections on consciousness, healing, and the new paradigm". *Subtle Energies*, 3 (3) 69-882

34. Gough, W. C., and R.L. Shacklett. 1994. The science of connectiveness: Part I: modeling a greater unity. *Subtle Energies* 4(1) 60.

라서 각자의 에너지 필드 거리의 두 배가 되는 데서 두 사람의 에너지 필드가 맞닿을 수 있다. 그래서 그룹과 대중의 모임에서 큰 집단적 에너지가 발생한다.(p. 136) 2004년 12월말 인도양의 해일로 10여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동물들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동물들은 자연적 예지력을 갖고 미리 도피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³⁵

스태디엄에서 카드 섹션으로 일어서며 어떤 그림을 율동적으로 만드는 “웨이브”활동에서 그 중간에 앉은 어떤 개인이 저항하지 못하고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집단의 에너지이다. (p. 137) 작은 물방울 두 개를 가까이 하면 하나의 큰 물방울로 합쳐지듯이 사람들이 에너지로 연결되면 동조(sync)현상이 발생한다. 동조란 추의 왕복으로 작동하는 여러 개의 벽시계들의 추(oscillator)를 제각기 흔들도록 해 놓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계추들이 모두 같은 주기로 흔들리게 되는 현상에서 나타난다. 사람들이 동조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그룹 안의 사람들의 심장이 같은 주기로 박동하며 전체가 마치 하나의 큰 추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집단운동, 부흥회의 감동, 유사종교 단체의 복종 등에서 나타난다. 카리스마적 영성 지도자, 부흥사, 정치 웅변가, 세일즈맨에게 끌려 들어 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굿 같은 의식으로 집단의 의도를 강하게 대상에게 집중함으로써 정신의 정화, 악령의 축출 같은 기적적 치유가 이뤄진다.

사람들은 모두 치유능력을 지녔으나 문화적 차단과 편견으로 인해 치유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p. 259) 성경의 치유 기적들처럼 여러 문화에서 치유자들이 병을 치유한 기록들이 있다. 만약 약품으로 이런 병들의 치유가 이뤄졌다면 실험 보고서가 있겠지만 영적 치유는 그런 입증 기록들이 없어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

35. Tart, C. 1985. Subtle energies, healing energies. Interfaces, Linguistics, *Psychology of Health Therapeutics*. 12 (1) (p. 3-10)

원거리 기도모임 효과

Byrd, Randolph. 1988, *Positives therapeutic effect of intercessory prayer in coronary care unit population*. Souther Medical Journal 81:826-9.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심장과 의사인 버드는 약 4백명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원거리 기도 실험을 했다. 환자의 절반은 보통 치료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들이 모르게 전국의 개신교와 카톨릭 기도 그룹에서 각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주었다. 이 실험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계하고 환자들 자신이나 병원 스태프들이 모르게 진행했다. 그 결과 기도를 받은 그룹에서는 순환기장애로 인한 심장마비가 적었고, 이노치료, 폐렴의 발생 등이 현저하게 낮았다. 기도 치료그룹이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5분의 1, 폐 부종 발생은 3분의 1 정도로 적었다. 호흡장애를 처리하는 인공 환기 밸브 삽입은 기도를 하지 않은 그룹에서 12명이 발생했는데 기도 그룹에서 전혀 없었고 실험 후 추적하는 기간에 사망자의 수가 기도 그룹에서 더 적었다. 원거리 기도의 효과가 확실히 입증됐다. 에너지는 근원에서 멀어질수록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기에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다. 원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신체 에너지가 장거리를 건너 환자에게 도달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적다. 기도의 효과는 에너지 필드로 연결되는 것이기보다는 에너지 필드가 아닌 또 다른 차원으로 나갔다가 수혜자의 에너지 필드로 다시 들어간다는 차원 간의 전달 현상 (cross-dimensional phenomenon)일 것이다.(p. 265-266)

원거리 기도의 임팩트는 심장을 통해 전달된다. 심장은 원거리 기도가 신체에 들어가 임팩트를 일으키게 되는 입구이다. 심장은 우리 영혼의 자리이다. 기가 들어가서 최강의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심장이다. 기도로 전달되는 것의 본질이 에너지라는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류 모든 문명에서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 “마음을 열라” “심장을 열라”는 말은 그 연유일 것이다.

제 2 부 신념의 여러 단면들

- 1장 신념의 정의와 분류
- 2장 태도, 의견, 신념의 개념
- 3장 신념의 구조
- 4장 신념의 형성과 갈등
- 5장 신념의 체계
- 6장 립톤의 신념 생리학
- 7장 신념의 가치
- 8장 신념과 태도의 정서적 기반
- 9장 신념과 의례적 행위
- 10장 착오신념의 긍정적 기능
- 11장. 착오신념의 부정적 결과
- 12장. 사람의 환상은 어떻게 발생하나?
- 13장. 인지 편향성이 발생하는 원인
- 14장. 원인과 유형의 다양성
- 15장. 신념에 대한 사회학적 결론



< 87년 박사학위수여식-로올라대학교 >



< Asbury 신학교 >

1장 신념의 정의와 분류

1. 신념(Belief)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의 신념은 그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것들이다. 즉, 신념이란 우리가 대상, 자신, 환경 등에 관해 사실이라고 내세운 주장(statement)이다. 사람은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에 정착(anchor)하기 위해 신념들을 창조한다. 우리는 주변 세계를 신념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살아나간다. 신념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진리(assumed truth)이므로 그 단순한 주장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사람이 무엇인가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 그 진실은 신념을 무너트린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 항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난해한 질문에 봉착한다. 그래서 일단 신념을 형성하면 그 신념을 가지고 참으며 버티려고 한다. 어떤 신념의 진실이 무엇인냐는 그 대답은 각자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일 것이다.

일들이 항상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는다. 그렇지만 단지 우리가 경험에서 항상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도 필연적으로 사실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발생한 일에 관한 얇은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믿고 있던 사건들이 이후에 그 믿었던 대로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인과관계로 발생한다면 그 사건에 관한 신념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전의 신념은 변경돼야 하는 것이다.

신념은 이미지로 시작하지만 그 구조화는 언어를 통해서 가능해졌다. 언어적 사실(language reality)이 존재(existence)화 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 창조됐다”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은 “언어가 곧 신이다”라고 기록했다. 어떤 것에 대한 단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는다. 신념은 언어를 통해 문화에 구조화된다. 그래서 다른 언어권, 타문화, 타종교의 사람들의 신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1) 신념과 프레임

사람은 그 신념을 도구로 하여 새로운 사건의 의미를 추론(reasoning)한다. “폭탄 테러는 무섭다”는 신념을 가지고 천둥소리를 폭탄 소리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이 곧 프레임이다. 그런 신념들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는 말은 신념을 바꾼다는 뜻이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저항하지만 남을 설득하려면 그의 신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된 것이며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2. 신념의 형성과 유형

신념은 자기의 경험과 반성에서 발생하는 것과 타인이 주입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두 가지 형성과정에서 나온다. 신념의 두 가지 형성 방법과 과정은 그 신념의 대상(주변의 세계와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따라 매우 다르다.

1) 자가 생성 신념들

호기심과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신념을 스스로 형성한다. 자가 생성의 신념을 자진(self-generated beliefs)이들은 편안한 것이나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보다도 진실을 선호한다. 이들은 천문가들이나 권위자들을 불신할 수도 있으며 남의 신념을 속히 맹목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반론하며 토론하기를 선호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형성되기까지 불확실성과 모호성 가운데 기꺼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경험에 의한 탐색과 실험: 경험은 진실의 표증이고 경험은 우리가 진실을 입증하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스스로 시험해 본다는 것은 어린 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행위이다. 경험한다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거나 행위를 해보며 특정 신념을 확정하기 전에 폭넓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 경험하려는 노력은 부모의 지도와 교

육 스타일과 수준 등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만 자신의 노력은 평생 지속된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확신을 갖는데 충분한 경험을 할 시간이나 기회를 갖지 못한다.

반성과 사색: 외부적 경험에서 변형된 것 중의 하나가 내면적 반성(internal reflection)과 사색(thought)이다. 반성은 외부적인 것과 반대되는 내면적 경험이다. 반성은 일들에 대한 평상적인 명상을 포함하며 자기 주변의 세상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멘탈 모델을 구조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외부경험을 한 후에 반성하거나 반성한 후에 외부 경험을 한다면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이런 내면적 경험-성찰 과정은 외부 환경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며 자주 가질 수 있다. 내면적 성찰은 외부적인 산만한 자극이 없는 곳이든 어느 장소에서든지 할 수 있다.

2) 외부 생성 신념

“성경이 말하는 천당을 나는 믿는다”는 경우처럼 남이 발견한 사실이나 주장을 자기의 경험인양 대체하여 신념으로 삼는 것이 외부 생성의 신념(externally generated beliefs)이다. 남이 전달하는 신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들이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부문에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상사를 누군가 통제한다고 느끼기는 통제 감각(sense of control)요구가 더 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확실성을 원하고 모든 것이 맞는 해답으로 종결되는 것을 찾는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남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외부의 근원에서 생성된 신념을 자기의 것으로 쉽게 받아들인다.

전문가(Experts): 어떤 특정 영역에 관해 지식을 가졌다고 입증한 사람들이 전문가이다. 전문가는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과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남에게 보여줄 만한 기술을 지녔고 인증 받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들이 말하는 것, 저술 등을 통해 그들의 기술이나 지식에 의존하는 이유는 그들을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특정한 부면에 관해 도움을 받으려는 실용적인 이유에서 전

문가들을 찾고 신뢰하지만 맹목으로 남을 믿지는 않는다.

권위자(authority): 권위자는 그 사람의 지위나 카리스마적 파워 때문에 남들의 신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부모, 성직자, 관리자 등은 그들의 지위에서 신념을 제공하는 것이지 자기들의 전문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권위자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상재의 지위를 신성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설득에 나약하게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권위자들이 말하는 것의 합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와 권위자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어떤 사람은 전문성 때문에 권위도 지니게 된다. 사람들이 논쟁에 들어갈 때, 남을 타당한 논리로 설득하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에 남들더러 따르라고 압박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로 권위자 행세를 하는 것이다. 권위자가 부과하는 신념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소속감 요구와 사회적 승인 요구가 많은 사람들이기 쉽다. 이런 대상들은 표적으로 찾아내기 쉽고 위사종교의 추종자가 되기 쉽다.

3. 신념의 형태적 특질들

1) 신념의 속성과 변환

신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속성을 갖는다. 첫째는 자동적 신념화(automatic believing)기제를 가지고 있다. 즉, 사람들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생각한다. 둘째, 사람의 신념은 편향성(bias)의 기제를 갖는다. 즉,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 체계에 맞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셋째, 신념의 지속성(perseverance)이다. 즉, 사람은 일단 형성된 신념을 오래 간직하며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일단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면 그 믿음을 뒤집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본래 신념을 계속 갖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기의 신념에 대해 남들에게 공개된 경우, 자기가 전에 주장하던 신념을 버리기는 어렵다. 특히 특정한 개인이 폭넓게 정착된 신념의 체계를 지닌 경우, 그 신념체계의 여러 신념들을 흔들지 않고 그에 속하는 단편적 신념을 제거하기가 어렵다.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고 생명을 포기하는 순교자나 자살 테러범의 신념은 제

거되지 않는다. 어떤 전문가나 권위자가 일단 말한 것을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본래 형성된 신념 중에서 자신이 호감을 가진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2) 신념의 강도, 정체성, 개방성

신념들은 강약 정도(strength)에 차이가 있다. 강한 신념들은 자살 테러 행위 같이 사람의 행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반면에 약한 신념은 의심을 수반하며 반대 주장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 강한 신념은 자기의 정체성(identity)과 흔히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예를 들어 독실한 기독교 신자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자기 정체성의 전부이며 그 신념을 버리면 잃어버린 자아 상실감에 빠진다. 강한 신념을 지닌 사람들은 변하기 어렵지만 일단 신념을 바꾸기 시작하면 쉽게 무너진다. 이들은 세계를 흑백 논리로 보며 무엇인가 신념을 지녀야 되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이들이 상당한 설득이나 변민을 거쳐 신념을 일단 바꾸게 되면 또 다른 신념에 강하게 집착하게 된다. 약한 신념의 소유자는 아직 확실히 설득되지 않았거나 대안에 대해 마음을 열어 두려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새 경험은 약한 신념을 더욱 약화시킨다. 세상이 단순히 흑백 논리로 보이는 청소년기에는 이상주의에 빠져 희망을 보며 꿈을 갖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주어진 신념에 정착하는 데 주의를 집중한다. 이런 때에 약한 신념에 설득되면 또 다른 약한 신념으로 바꾸기 쉽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시기의 ‘개종’을 하더라도 영속적이 아닐 수 있다.

맹목적 신념

자기의 신념이 100% 옳으며, 그 신념은 항상 진실이고 도전을 받더라도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 맹목적 신념이다. 맹목적 신념은 강한 신념이며, 그리고 강한 신념은 맹목적 신념이기 쉽다. 이런 것은 종교성 광신(zealot)이다. 광신은 제도화된 종교에 관해서만 아니라 스포츠 팀에 대한 광신으로부터 과학에 대한 광신에 이르는 광범위한 신념 현상을 이룬

다. 특히 자기 망상과 폭력에 대한 광신이 집단 학살이나 자살테러 같은 범행에 이르게 한다. 맹목적이면서 약한 신념은 진실에 관한 깊은 믿음이기 보다는 단지 무엇인가를 믿어야겠다는 요구에 근거한 신념이다. 약한 맹목적 믿음은 깨지기 쉽기 때문에 남이 그 신념을 흔들고 대안을 제시하면 변화되기 쉽다.

불신(disbelief)

불신은 신념의 한 변종으로 다른 종류의 신념들을 수반한다. 한 사람이 무신론 신념의 소유자라면 그는 유신론 종교의 신념을 믿지 않는다. 기독교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독교 외에 종교의 기본 신념을 가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불신의 강한 정도는 그와 관련된 신념을 반영한다. 한국 축구 팀 실력에 대한 신념을 지닌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 축구팀의 실력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신념을 갖는다.

4. 신념의 변환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지지한다. 반대로 믿지 않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사람은 새 비전을 보면 전격적으로 개종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지닌 신념을 변환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신념의 유형을 파악하고 근원을 찾아야 한다. 만약 내면적으로 생성된 신념의 사람들이면 그들은 실제 경험이나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야 신념을 바꿀 수 있다. 외부적으로 부여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전문가, 권위자로 행세하거나 전문가를 들먹이는 것이 방책이다. 신념은 논리적이 아니며 비논리적일수록 그 신념을 둘러싼 벽이 높다. 남의 신념을 바꾸려면 먼저 그의 신념의 강도, 유형, 내용 등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모든 신념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단지 공개해도 좋을 것만 공개하도록 해야 된다. 먼저 남의 신념의 강도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 신념에 약간 도발을 하여 그 반응 속의 감정을 탐지한다. 강한 신념들이라면 그것이 맹목적인가를 찾아낸다. 맹목적 신념이 아니면 그 합리성에 도전하고 만약 당사자가

그 맹목적 신념을 방어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의심의 씨를 뿌려준다. 맹목적 신념에 대해서는 그 신념의 근원을 찾아내고 그것을 무너뜨리든가 약화시킨다. 약한 신념에 대해서는 왜 그 신념들을 갖는가를 알아내고, 그것이 어떻게 허약한 신념인가를 드러내 보이고 더 깊은 목적을 뒷받침하는 신념을 제시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다.

극단적 신념의 논쟁과 방어기제

사람의 신념은 점차적으로 강화되거나 약화되어 극단적 견해를 갖는다. 환경 보호론자, 낙태반대주의자 같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에 열성을 가질 때 그는 점차 극단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극단적 신념의 소유자들은 증거를 찾을 때에 자기 신념을 입증하는 증거는 증폭시키고 지지해 주지 않는 증거를 축소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그 관점은 점점 더 참호에 빠지듯 확고해지고 극단 화된다. 이들은 자기의 신념을 대치할 유사한 대안 신념의 입지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는 욕망의 소유자들이다. 만약 반대 신념의 작은 관점에나마 자기가 일치한다고 시인하면 자기 신념의 명료성이 혼란해지고 자기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더욱 극단화 한다.

신념에 관련된 논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옳고 상대는 틀리거나 나쁘다는 명료한 입장이 밝혀 지기를 선호한다. 이는 자기 정체성 요구, 특히 자기 우월성의 요구와 관계된다. 그래서 피차 간에 어떤 중첩되는 부면에서든지 자기가 틀렸다고 지적되는 합의는 어떤 것을 막론하고 위태롭다고 여기게 된다. 합의를 찾는 논의가 마치 자기를 상대방이 어두운 코너로 유인하여 불리한 후퇴를 더 하도록 만든다고 의심하게 한다. 이런 경우에 가장 쉬운 대응방법이 자신도 극단적 입지를 택하거나 상대방을 그 반대의 극단적 입장에 밀어붙이는 것이다.

반기독교 운동가들이 수구 기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근거해서 대립한다. 사형을 반대와 찬성하는 논쟁에서 양측이 같은 증거 자료를 갖고 논쟁한다. 이처럼 대립하는 양측이 같은 입지에 서게 될 때에도

피차의 차이를 강조해야 되니까 그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효과는 더 악화된다. 반면에 상대 인물이 앞에 있으면 피차 체면손상을 피하려고 하면서 상대의 존재 자체 때문에 객관화하기가 어렵다. 좌, 우익 정치 그룹에 속해 자기 파당의 정치 이념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파당의 신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대파 정부의 실책을 찾으려 한다. 그런 노력을 하면서 자기 그룹의 이념이 정당하다는데 더욱 확신을 갖게 된다.

5. 추론 오류와 허구신념

1)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편향성

출판되는 모든 책들이 여러 차례 교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오자가 인쇄되어 출간된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포착되는 오류만 “틀렸다”고 지적하여 교정하기 때문이다. “눈에 포착되지 않는 오자는 오류가 아니다”라는 신념을 우리 마음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매사를 현실 그대로가 아닌 자기의 신념을 통해 보며 신념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식(selective perception)하여 반응하게 된다. 이것은 위약(placebo)으로 병이 치료되는 현상, 맹물을 “술이다”라고 믿고 마시면 취하는 현상에서 나타난다. 미국 대학 풋볼 경기에서 선수들이 난폭하게 게임을 했는데 대학 응원단을 상대로 한 심리학 조사연구에서 각각 자기 반대 편 선수들이 폭력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누군가 “매우 수궁할 수밖에 없는” 증거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지닌 신념에 대해 의문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런 증거들이 의문스러울 때는 기다려야 한다. 진실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은 신념일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적 확신의 허구

별로 특징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개성미가 뚜렷하다”고 “스타 아무개와 비슷한 데가 있다”라고 말해 주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자기의 인성을 묘사하는 말들이 정확한지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사람

들은 “대단히 정확하다”고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기에 관해 호의적 묘사를 하는 경우(간혹 날카로운 비판 언사가 있더라도)에는 더욱 정확하다고 동의한다. 그 경우 분석의 근원에 대한 신뢰성이 증대되고 그 분석이 자기 자신에 맞도록 된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이런 기제는 사람들 일반에 관한 속성을 가지고 “당신에 관한 묘사”라고 하면서 그 언어들 중에서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대부분 사실이라고 동의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기제를 개인적 확신의 허구(personal validation fallacy)라고 한다. 개인 뿐 아니라 그룹에 대해서도 이런 기제가 작용한다. “이 교회는 독특한 종교 문화를 갖고 있다”고 방문자가 말해주면 그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우쭐해진다.

자기에 관해 단순한 정보 점검을 근거로 하여 점술가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도 고객은 그것이 자기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맞힌다고 놀라는 ‘확인의 오류’(validation fallacy)에 빠진다. 주간 신문에 나오는 ‘금주의 사주팔자’나 ‘당신의 운세’(horoscope)을 읽으면 그럴듯하다. 인성 테스트 피험자들에게 각자의 운세에 관한 일반적인 묘사를 주고서 자기의 특성과 어느 정도 맞는지 스코어를 내라는 실험을 했다. “정확하다”가 5점인 이 스케일에 피험자들의 평균 레이팅은 4.26점이었다. 일반적인 묘사들이라도 자기에게 관한 것이라고 하면 정확하다 동의하는 신념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것은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그를 “이해한다”고 전달하면 신뢰와 친근감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반면에 일반적 묘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남이 접근할 때 자신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잘 지키는 자기 방어가 필요하다.

2) 신뢰의 근거인 전문성

새로운 화장품을 선전하는 광고에서 흰색 가운을 입은 과학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상품의 효과에 관한 원리 설명을 하면 설득 효과가 크다. 설득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면, 전문가나 어떤 근거가 있는 사람이면 다 설득되기 쉽다. 전문성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더욱 설득

력을 갖는다. 그런데 사람을 믿게 될 신뢰의 근거(source credibility)인 전문성 실력에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전문가인데도 그의 인상 때문에 그를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는 타입이 있다. 신뢰의 근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 누군가 전문성을 주장하며 우리를 설득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전문가인지 배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3) 패턴을 인지하는 허상

도박하는 사람들이 절박할 때 카드의 짝패나 게임 수단에서 발생하는 숫자의 유형이 있다고 보면서 승산이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보통 아무런 패턴이 없는 것들에서 어떤 유형이 있다고 인지(clustering illusion)하게 된다. 특히 우리는 타인들을 볼 때 각 사람의 전체 인간상의 구체적인 면들을 보지 못하고 개략적인 패턴으로 본다. 패턴을 조작하는 기계처럼 사람들이 인지하는 이런 방식이 유용한 경우도 있다. 없는 패턴을 인식했다고 해서 그 특징이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출신 지방이나 출신 대학을 근거로 사람들의 패턴이 정해지는데 어느 정도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된 사람 각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한 무작위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처럼 보이는 패턴을 찾게 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우발적인 사건을 패턴화 하면 배나무가 아닌 나무에서 까마귀가 날아갈 때 그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된다. 어떤 유명한 야구 투수가 볼을 던지기 전에 볼을 엉덩이에 문지르고 던지는데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다고 하자. 그 선수는 단지 볼에 묻은 땀이나 흙 같은 불순물을 닦아낸 것인데 그 행위가 마술을 일으켰다고 관중은 믿게 된다.

4) 제약된 합리성

사람은 만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세계가 너무 복잡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역량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항상 시간의 제약이 따른다. 그리고 각자 지닌 스키마들이나 결정 조건들에도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우리들의 결정은 모든 것을 완전히 사려한 다음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 역량과 주어진 시간 한도 안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은 결정 이론에서 경내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의 두 가지 원인을 인간 마음의 한계와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어떤 결과의 유용성을 산출할 때 사람들이 최적합한 선택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 한계는 인간의 결정이 완전하다는 전제에 대해 도전이 된다. 예를 들어 새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전문 잡지의 평을 읽고 실제 촬영한 사진들 샘플을 보고 모델을 결정한 후에 카메라 점포에 간다. 그런데 본래 사려던 것보다 세인즈맨이 특별 바게인을 제시하면 그 모델의 카메라를 사게 되기 쉽다.

모든 거래나 정치 행동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는데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수를 줄이고 그 기준을 제약하는 방법을 실제 사용하고 있다. 또는 상대의 기존 한계선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보여줌으로써 그 한계성을 무너뜨리고 인지의 근거를 새로 구조화하도록 유도한다. 자기가 결정을 내릴 때는 합리적인 듯 보이는 것이 실제 적합한 것인지는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이 내린 결정에 빨리 휩쓸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합리적인지 그들을 대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다.

5) 합리주의(Rationalism)

합리주의란 우주의 진실을 충분한 사고와 이해를 통해 설명하려는 탐구 방법이다. 합리주의는 “진실은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써 제일 잘 발견된다”고 전제한다. 세계의 모든 일은 인과관계 법칙에 의해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면에서 합리주의는 결정론적이다. 합리적인 논쟁은 진리가 무엇이나

는 주장을 하는데 새 질문에 항상 일리 있고 지능적으로 탁월한 활동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철학으로부터 논리학과 수학은 전통적인 합리성의 학문이다. 합리주의는 우리의 감각 경험은 너무 혼돈스럽고 일시적이며 선험(경험 이전의 이해) 또는 합리적 통찰이 우리 정확한 지식의 출처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사고를 통해 도달되는 신뢰성이 나약한 개인의 인식에 근거하는 합리주의에 도전하는 실증주의(Positivism)는 경험적인 증거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이성의 한 부분인 사람의 지각(perception)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합리적 사고에 의한 결정에도 허점이 있다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6) 인식 대비의 효과와 신념

어떤 여성이 두 남자와 선을 본다면 누구를 더 선호할까를 결정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성을 몇 가지 단면들(외모, 성격, 학력, 경제력, 가정배경, 취미 등)을 비교하게 된다.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할 항목과 준거의 항목들을 대조하는 경향을 인식의 대비(perceptual contrast)라고 한다. 양측 항목들이 가까운(비슷한) 것으로 보이면 다른 어떤 고정된 기준에 비교하기보다는 이 두 항목들 사이에 비교하여 평가하는 경향이다. 중량을 들어 올리는 실험에서 처음에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게 하면 그 피험자들은 그 다음부터 들어 올리는 무게들에 대해서는 훨씬 가볍다고 과소 평가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 경우 인식 대비의 효과(Perceptual Contrast Effect)가 발생한 것이다. 고등학교의 정규 수업에서 수학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사립학원에서 내는 수학 시험문제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런 양쪽 시험을 치러본 학생들은 학교의 정규 시험의 수준이 학원의 수준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한 손을 뜨거운 물에, 다른 손을 차가운 물에 담근 후, 미지근한 물에 두 손을 모두 넣어 본다. 찬 물에 담겼던 손은 덥게 느끼고 더운 물에 담겼던 손은 차게 느낀다. 실제적으로 세일즈맨이 어떤 물건을 좋게 보이도록 하려면 처음에 저질품을 보여주고 다음에 팔려고 목표한 물건을 보여준다. 상인들이 비싼 물건을 판매하려고 처음에

는 터무니없이 비싼 것을 보여주면 고객은 본래 비싼 것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면서 구입한다. 10박의 북유럽 호화급 여행 패키지를 5백만 원에 예약한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여정의 최상급 여행 패키지가 9백만 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5백만 원짜리는 바게인(bargain)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예를 들어 결혼 후보를 몇 사람 선을 본 다음 결정하는데)에 무슨 비교의 기준을 사용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자기는 하나를 선택하려는데 상대가 몇 가지 조건(제안)을 보여 제시한다면 처음에 보여준 것이 인식대비 효과용으로 사용하는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2장 태도, 의견, 신념의 개념

1. 이념 대립의 원인

인간 사회생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신념에 감정을 투입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융통성 없이 대립하는 행동양식이다. 그런 현상은 정치인들의 이합집산, 장관해임안 같은 안건에 걸리는 정당 정치인들의 팽팽한 대립, 교회나 사찰의 임원들의 대립과 분열, 보수-진보주의자들의 ‘남남 갈등’ 등으로 갈등의 진화로 이어진다. 그 대립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 각자의 태도, 의견, 신념 (attitude, opinion, belief)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 또는 세 가지 모두가 다르거나 조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혹은 그룹)마다 각기 다른 본래의 신념과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대립이다. 그러한 부조화하는 요인들이 공조를 역진화(counter-evolution)시킨다. 역진화란 단지 특질과 기능이 소멸하는 퇴화와 다르게 역기능의 특질이 진화하는 현상이다. 태도, 의견, 신념의 부조화가 역기능의 진화로 가지 않게 하는 방도를 진화론적 맥락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그 태도를 벗어나려면 1차적으로 사고와 행위의 대상에 대한 태도변환이 필요하다. 태도변환의 선제조건으로 각자의 신념의 내용을 재개념화(re-conceptualization)하여 신념을 수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 개념을 65세 이상 연로자모두에게 매달 20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정할지, 빈부를 차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해도 공정한 복지 개념이 위배되지 않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재개념화이다.

- 2차적으로는 신념 대상들을 재분류하는 (re-categorization) 인지가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종교탄압’이라는 파워 정치적 개념과 모든 국민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갖는다는 조세 행정적 개념은 범주를 섞지 않고 분류해야 된다. 신념을 수정하고 재분류하는 대신에 신념과 태도를 고수한 채 단지 주체가 대상 지향성(orientation)이나 소속을 재편성(re-coalition)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이합집산이다. 그런 예는 정치인이 보수 이념을 간직한 채 진보 야당과 야합하여 선거의 승리를 도모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신념의 수정이 없는 소속의 변경은 이념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3차적으로는 최소한 양방의 신념을 비교하여 상황 적용에 더 효능성 있는 것을 판명하여 ‘우성 인자’를 발현시키는 선택이 필요하다. 합리성과 효용성이 없는 신념의 인자를 단지 자기 집단의 속성이라고 우기며 상대 그룹의 우량 인자를 도태하려는 데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 결과 공조의 역진화로 이어진다.

태도, 의견, 신념 이 세 개념은 사회의 공공 생활영역에서 논쟁거리(정치적 이슈, 종교적 이념, 도덕적 입장, 미학적 감각, 후세 교육, 경제 정책 같은 구체적 방법론 등)에 대해 내리는 각자의 판단이 어느 정도 사실성을 지니는가, 어느 정도 비합리적으로 편향되어 특정한 측면을 더 선호하는가에 관계된다. 우선 세 개념의 교과서적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향성과 정서: 태도

태도란 어떤 대상(사물은 물론 자신과 타인을 포함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의견(가치관)과 정서를 수반한 행위 지향성이다. “성모 마리아에 대하여...”라든가 “탈북 난민에 대하여...”라는 태도의 경우 대상, 지향, 정서의 세 요소가 있다. 어떤 행위이든지 최소한 태도의 이 세 가지 요소의 기

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성모 마리아에 대하여...”라는 태도에는 그 대상에 대한 호의적 가치를 수반하며 숭상하는 행위를 준비하게 한다. “탈북 난민에 대하여...”라는 태도는 그 사람들 자체보다도 탈북 했다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의견을 지니며 행위를 지향케 하는 것이다. 이 같이 행위가 지향하는 대상에 따라 객체 대상에 초점을 두는 것과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것 두 가지 종류의 태도들이 있다. 객체에 대한 태도는 단 하나의 가치관을 드러내기 보다는 일정한 폭의 가치관들을 드러내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가치관들의 범위는 그 대상을 접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태도의 변화란 그 태도를 구성하는 몇 개의 신념 내용의 하나 또는 몇 개의 신념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것이다.

대상이 무엇이며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자기에게 지녔는지를 모른 채 정서만을 가질 때 태도는 형성되지 않는다. 10여명의 대통령 후보가 난립한 선거에서 후보들이라는 대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누구에게 대한 지향성이 없이 혐오의 정서만 있으면 후보에 대한 태도는 성립하지 않고 단지 선거에 대한 태도만 형성된다. 어떤 대상에 대한 지향성을 정서가 조절하며 그 조절에 따라 지향성은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타성을 지니게 된다. 일본에 대한 한국민의 감정이 반일 태도로 지속되거나 한국인들끼리 출신 지방에 따라 차별하는 태도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지향성을 정서가 조절하기 때문이다. 태도는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이며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신념으로서 정착될 수도 있다.

태도는 신념의 내용이 되어 특정 대상에 대한 정서를 보강하여 행위로 표현될 수도 있다.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나 정치 후보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은 당초 세미한 지향성과 정서로 발단한 태도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그 신앙의 대상이나 후보자에 대해 자기를 통째 헌신하기로 다짐할 정도의 신념으로 발전할 수 있다. 태도는 또한 기존하는 신념이나 가치관에 근거하여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정서를 동원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예수의 희생정신에 대한 신념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에 대한 지향성과 연민의 정서가 발생하여 ‘선교사’로 가는 모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치관에 근거하지 않

은 어떤 태도가 지속하면서 신념이나 가치관을 새로 탄생시키거나 기존 신념을 변형시키기도 한다. “미국에 한 번도 가 본 일이 없다”고 자랑하던 태도를 가졌던 노무현 후보자가 당선 후에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미국에 대한 평가(신념)를 달리하게 된 것이 그런 예이다.

태도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포함한다. 태도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독특하며 예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포함한다. 태도는 일관되게 행위를 하는 경향과 관계있으며 행위를 하기에 앞서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만 관찰되는 것은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가능하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정부가 내세운 구호에서 그들의 태도가 초기에 표방됐지만 그 결과는 정권 말기 또는 다음 정권에서 드러난다. 그런데도 대부분 태도에 관한 평가나 연구는 최종 발생한 행위보다도 언어 표현을 근거로 태도를 측정한다.

2) 의견

의견이란 특정한 문제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진열된 여러 종류의 과일 중에서 어느 과일을 가장 좋아 하느냐고 질문할 때 “빨간 사과”라는 언어의 표현이 의견이다. 또는 말 대신에 선거 후보 중에서 특정 후보를 상징하는 기호나 그의 사진을 치켜들더라도 의견의 표현이 된다. 의견은 어떤 대상(개인이나 그룹도 포함), 상황, 특정한 사건 등에 관해 사람들이 지니는 판단으로 시작하며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북한 경제 원조에 대한 찬성-반대 주장은 태도가 의견으로 표현되어 북한을 계속 돕자든가 돕지 말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3) 신념

신념(belief)은 현실의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개인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서술(statement)이다. 신념은 개인이 세계를 이해하는 이지(理智) 구조를 형성하며 그가 모든 것을 인식하는 테두리를 형성한다. 무엇이 사

실이나 허위냐를 주장하는 점에서 신념은 가치와는 구별된다. 가치란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좋다고 여기거나 욕구하는 것에 관해 또는 좋지 않다고 배척하는 선호성 서술이며 그 것이 신념화 될 수 있다. 신념은 개인의 직접 경험, 관찰, 논리적 추정, 전통, 종교적 교리 등에 근거한 서술로써 우선 형성되며 2차적으로는 타인들이 내세우는 서술(주장)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과학적 신념과 대응하여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개인 혹은 소수만이 지니는 비과학적 신념이라는 말이 가능하다.

종교에 바탕을 둔 서술(주장)을 신념이라고 한정할 경우에는 경험적 관찰에 의한 주장은 신념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과학적 사실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가치관은 여러 상황들을 초월하여 대상(들)에 대해 한 가지 신념을 일관적으로 표상하는 단위 신념이다. 신념은 당장 임박한 목표 뿐만 아니라 좀 더 궁극적 존재의 상태에 관해서도 행위를 유도하고 판단을 내리게 한다. 또한 가치는 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선호성 신념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선호할 것인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선호하게 하는 행위 결정 명령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4) 의견, 태도, 신념의 상호관계

복합적인 사회일수록 의견, 태도, 신념들은 더 다양화된다. 그리고 현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견, 태도, 신념의 상당한 부분은 과거 역사의 이슈나 사건들에 의해 조건 지어지고 지배된다. 의견, 태도, 신념은 부모에게서 어릴 때 배우며 성장한 후에도 계속 형성, 변환된다. 의견, 태도, 신념은 어떻게 형성되며 그 변형과정은 어떠한가에 관한 몇 가지 원칙적 명제들을 버얼슨과 스타이너가 제시한 맥락에서 나는 한국 상황에 대입하여 정리하며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¹ 사람들이 타인 또는 그룹 멤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룹의 의견, 태도, 신념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신의 의견, 태

1. Berson, Bernard & Steiner, Gary A. (1964). *Human Behavior: An Inventory of Scientific Findings*, New York: Hartcourt, Brace & World, p, 559 f.

도, 신념을 조율하는 기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자기들의 상태를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의견, 태도, 신념의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소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언어 혹은 “선진국에 비교하여...”라는 언사는 한국인들이 남들보다 뒤떨어졌다는 의견, 태도, 신념을 갖게 한다. 반면에 해외 선교, 북한 원조, ‘월드 컵 게임 주최국’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세계 공동체 속에서 인정감과 우월을 확인하려는 의견, 태도,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 이슈가 중요하거나 자신들에게 타당성이 클수록 그 의견, 태도, 신념에 대한 그룹의 합의는 강해진다. 그 의견, 태도, 신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할수록 사람들은 그룹의 유대 자체를 결정의 근거로 삼게 된다. 즉 개인들에게 직접 타당성이 없거나 합리성이 없더라도 그룹을 근거로 하여 따르게 된다. 세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룹의 결정에 따라 밀려가게 되는데 한국의 정치인들의 파쟁 특히 정파를 따라 새 정당을 만들고 ‘해쳐 모이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런 것과 관계있다고 분수 있다. 교회에 새로 출석한 사람들이 교회의 ‘문화’를 채 이해하기도 전에 그 교회의 다수 분위기에 따라 적응해 가며 동원당하는 것도 이런 것과 관련지어 풀이할 수 있다.

- 그룹 멤버들 사이에 접촉이 잦을수록 의견, 태도, 신념에 동의할 가능성이 증대하며 그 동질성이 강할수록 그 의견, 태도, 신념을 행동화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의견, 태도, 신념 체계가 상충될 때에는 더 자주 접촉하는 편의 의견이나 태도, 신념이 우세하게 된다. 공산당이나 유사종교 단체에서 자주 집회를 갖는 것도 이런 점에서 성과가 있다. 요즘에 교회에서도 연일 새벽 기도로부터 주중, 주말의 밤 집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접촉과 친교 기회를 마련하여 신도들의 의견, 태도, 신념을 통제하고 있다. 물론 어떤 그룹과 단 시간 접촉을 갖더라도 의견, 태도, 신념이 거기에 맞춰서 변할 수 있다. 단 한번 길 가에서 눈길만 주고 스쳐간 젊은 이름 모를 이성이 일평생 연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단 3일간의 북한 방문이 한 사람의 세계관을 바꿀 수도 있다.

신념을 논하는데 1920년 대에 W. I. 토머스와 재니에키가 사회적 태도를 연구할 것을 주장한 이래 사회심리학에서 태도라는 개념이 중요한 몫을 차지했었다. 태도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관한 몇 가지 가치관을 혼합하여 표상된다. 그러나 가치관이란 것이 더 다이나믹한 개념인 것 같다. 그 이유는 가치관은 인지적 요소, 감성적 요소, 행위적 요소를 종합하여 행동을

유발할 동기가 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가치관은 태도를 결정하며 행위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또한 개인들이 지닌 가치관은 종류 수가 안정되고 단순하여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닐 수 있는 반면에 태도는 더 다양하고 수시로 변할 수 있다. 그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문화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치관이 더 간편하며 유용하다.²

5) 신앙 의식의 강성화

한국인의 신앙의식이 강한 것은 정치적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것과 관계 있다. 그리고 정치인의 출신 고향이나 소속 정당 때문에 투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신앙 행위와 유사하다. 신앙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의식의 변환과 문화의 발전은 저해되고 있다. 사회질서 혼란(특히 정의를 표방하는 극한 대결 지향의 사회운동과 정치 파쟁 등의)의 원인이 바로 미숙한 신앙관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미숙한 신념 체계들의 난립과 그에 대한 과도한 정서적 몰입에서 파생하는 비합리적 행위들으로써는 소위 선진 의식이니 선진문화니 하는 사대주의적 기준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한 신앙의식이 강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정립하는 테스트로 다음과 같은 가설로 점검할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 자기들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효능 수단이 적을수록 또는 제한됐다고 인지할 때 외부의 능력에 의존하려는 신앙이 더 강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근이나 전쟁의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종교적 신앙을 찾는다는 것은 흔히 관찰되는 사실이다.

둘째,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 자신의 능력 보다는 밖의 수단에 의해 성취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크다고 인지될수록 신앙적 의존이 강해지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 가설은 중동의 사막에서 조악한 자연환경과 자원 고갈 상태(석유가 발견되기 이전에)에서 유태교, 기독교, 회교가 발생하여 변성한 것이나, 인도에서 불교가 발단한 것, 시베리아 이남에서 샤머니즘이 번

2. Rockeach, *Belief*, pp. 157-158.

성한 것 (그 외에도 여러 종교문화의 단서들)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가설은 또한 현대에서도 사회 조사연구를 통해 재점검할 수 있다.

셋째 가설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요구)를 정상적이며 합리적인 과정에 의해 성취하는 수단 또는 기회가 기준 상태에서 보다 감소할수록 신앙적인 강도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의 격차가 증대하거나 일부 소집단 권력층의 비합리적인 정치행위 악순환을 깨트릴 수단이 적을수록 일반 시민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사회정의 가치를 찾거나 반대로 기존 정치의 악습적인 수단들을 숭배하는 순봉의 정치 신앙을 갖게 된다.

2. 의견, 태도, 신념의 안정성과 변환

의견이나 태도보다 신념은 더 안정되어 있으며 특히 신념은 실제 행동보다도 더 서서히 변한다.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어떤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고 행동에 동조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단지 태도만을 바꾸고 의견이나 신념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의 의견이 변경되지 않았으면서 어떤 과제를 지지하는 행동에만 동조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을 바꾸었더라도 신념은 바꾸지 않았을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한 경우의 동조 행위는 개인이 우세한 자들의 행동에 승복한다는 태도의 변화였을 뿐 신념의 변환은 아니었다. 그 경우 의견 주장에 대한 논란은 배후에 숨어버린다. 더더군다나 태도를 승복으로 바꾸고 의견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기본 신념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제 강점 시대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친일 태도로 행위를 했다고 후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에는 한계가 있다.

집단주의적이며 다양성보다 동질성 합의를 추구하는 한국에서 태도와 행동 수준에서는 획일성을 기할 수 있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많은 사그라지지 않은 다양한 의견과 신념들이 억압된 채 지하수처럼 흐른다. 그 신념들이 다시 의견화 하고 태도로서 정서를 수반하여 쌓이다가 분출할 때 큰 폭발이 생긴다. 학생 시위나 노조의 파업이 격렬하고 폭력을 불사하며 치단

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독재 정권이나 종교적 그룹에서 의견과 신념을 억압적으로 획일화하는 데서 사회나 그룹의 평형을 찾는다는 것은 계산착오이다. 신념과 의견을 조화롭게 평형을 추구하는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1) 의견의 영향에 의한 행동 제약

개인이 부모, 그룹, 사회계층의 영향권을 떠나서 단지 객관적 또는 합리적 분석만으로 어떤 아이디어나 정보에 대한 장기적 의견, 태도, 신념을 형성하거나 발전시키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개인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개입되지 않은 피상적인 문제나 불분명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권위 있는 결단이 내려지면 그것을 지지하는 편으로 의견이 결집된다. 그리고 기존하던 의심 또는 결정 보류는 사라지게 된다. 한국인 스스로 아직 민도가 낮다고 말하며 언론이나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동원당하고 집단 행위로 몰려가는 것에 이러한 면이 있다. ‘월드 컵’ 행사를 전 국민의 과제로 삼아 동원되는 현상도 그런 것이다. 기독교 지도자들과 불교 지도자들이 각각 월드 컵 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도회와 법회를 개최했다는 일은 한국에서는 흐뭇한 이야기로 보이겠지만 국제적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선 한국의 대종교들이 매우 원시적 신념 범주 안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과 범세계적 종교인 기독교와 불교가 한 개체 국가의 행사에 부수 기능을 하는 데로 국지화 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한다는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의견이 영향권을 확대하여 촛불시위 시리즈가 확대된 데에도 이런 기제가 작용했다.

2) 관심의 크기와 태도의 일관성

이슈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그 이슈에 대한 의견, 태도, 신념은 일관성을 지닌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에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될수록 논쟁이나 선전으로 그 신념을 바꾸기는 어렵다. 자기 측근 그룹이나 계층의 관심사로서 개인이 깊이 감정적으로 빠진 신념의 경우에는 지성적으로 호소하더

라도 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지역감정이 개입된 신념을 도덕 차원에서 호소하더라도 바꾸기 어려운 것이 그런 이유이다. 친족과 동창의 유대가 주는 안정감이 크거나 그런 유대에 대해 의리 지키기 혹은 충절을 맹서하면 그 정서가 태도 변화를 막는 장벽이 된다. 신념에 감정이 투입되면 신념의 강도가 높아지므로 그 수정이 더욱 어렵게 된다.

어떤 의견, 태도, 신념이 종교나 역사의 전통, 부모, 그룹, 계층의 특성 등에 따라 지속되면 변화는 전혀 발생하기 어렵다. 반면에 그러한 전통이나, 가족과 동료 그룹들로부터 감정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황에 있는 사람들은 의견, 태도, 신념을 바꾸기 쉽다. 공산주의의 세뇌 방법은 그룹의 압력에 의해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으로부터 소외하며 자기 파괴적인 고백을 함으로써 새 동반자들을 얻게 하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주장도 그룹의 감정적 지지를 통해 개인들이 그 그룹의 신념에 준봉하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반면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신학자들을 교단에서 축출하는 것은 이 원리를 역용해서 근본주의 신념 체계를 보호하려는 책략일 뿐 그 신념의 진위와는 관계없다. 그 경우 신념의 타당성은 지지하는 집단의 세력에 잠정적으로 의존한다. 그래서 신념의 진위와 상관없는 종교성 ‘마녀 사냥’이나 ‘광우병’ 촛불시위 같은 집단행위도 신념의 진위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극단적으로는 6.25 같은 동족상잔이나 나치의 유대인 학살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

3) 의견 암시성과 준봉행위

어떤 일에 관심도가 낮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의견, 태도, 신념이 약하게 형성되며 마음을 바꾸기도 쉽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공약, 종교인들의 전도, 언론의 편향적 설득, 그리고 상업주의 선전 등 매사에 일일이 상세하게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정도로 의견을 갖도록 받기되어 있다. 정치, 종교, 그리고 소비자 상품 수많은 것에 대해 강도 높은 의견, 태도, 신념을 형성하도록 유도되어 시민들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의견, 태도, 신념도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상 대화에서 정치 토론이 나오

고, 언론 보도 내용에 ‘델파이’(Delphi)의 신탁(神託, oracle)인양 설전을 한다. 교회(신앙) 이야기로 열을 올리다가 선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새로 출시된 상품을 급히 달려가 매입하는 등 바쁘며 고단한 생활이 연속된다. 그리고 ‘쫓불시위’ 같은 군중의 행위에 쉽사리 동참한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활동이 자아실현보다는 누군가 조작하고 있는 강도 높은 의견, 태도, 신념에 따라 춤추기 위해서이다. 타의적으로 제안되거나 암시되어 행동을 준비시키는 태도 형성 기회(언론 보도, 정치적 선동, 종교 전도, 상업광고 등)에 개인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쉽게 반응하는 기제는 경쟁이 심한 생존여건과도 관계있다. 생존의 자원이 부족하여 경쟁에 이겨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타인들의 암시와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생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나 암시에 대해 그 진위를 판단하기 전에 반응행위를 하여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해 놓고 그 진위를 따진다는 선택행위의 패턴이 형성된 것이다. 목표선별 행위보다는 목표 점거 행위를 앞세우게 된다. 물고기인지 가제인지 선별하기 전에 일단 손에 움켜쥐고 나서 판별하는 포착 선행적 행위 패턴이 형성된 것이다. 왜, 어디로 달리는지 생각하기 전에 남들이 뛰니까 자기도 뛰어야 산다는 판단을 먼저 하게 된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영어 교육에 몰두하고 중학생을 조기 유학에 보내며 기러기 부부들이 속출한다.

“바쁘다, 바빠”라는 사람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은 자아실현을 위해 바쁘기 보다도 타인들이 조작하는 강도 높은 의견-태도-신념의 굴레에 따라 춤 추기에 바쁘다. 자기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의견, 태도, 신념에 따라 바쁘게 뛰지 않고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다고 해서 당장 쫓아가 사려는 어리석은 강박감에 덜 밀린다. 미국의 한인들이 교회 행사에 논산훈련소 훈련병처럼 바쁘게 동원되어 교회가 삶의 전부인양 몰입하는 패턴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모와 교사 등 권위자들의 암시에 순복하며 형성된 인성의 한계 때문에 자기의 독립적인 의견, 태도, 신념이 약하게 형성됐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수에 깊은 지적 탐구를 하여 자신의 의견, 태도, 신념을 깊고 확고하게 형성

하기 보다는 목사의 의견과 암시에 따라 움직이기에 바쁘다.

그리고 과도하게 의견, 태도, 신념을 동원하여 조작하면 탈 감응증이 생길수도 있다. 즉 아무리 정치적 구호와 종교적 주문을 외쳐도 국민들이 춤을 추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런 주장에 반대되는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다. 너무 강조 주간, 부흥주간 등등 설치 휘두르니까 아예 그것에 반대되는 비도덕적, 비협조적, 비참여적 행위들이 나올 수도 있다. 한국민이 의식 변환을 하려면 일상생활에서 탈정치, 탈종교를 할 필요가 있다.

3장 신념의 구조

사람들이 지니는 신념들은 핵심적인 신념으로부터 피상적인 신념으로 그 지니는 깊이가 다르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 지니는 신념(“나는 지성과 종교신앙을 자부하는 공직자 아무개이다”라는)이 가장 핵심적인 신념이다. 맥케이는 핵심적 신념들이 영키는 관심사들은-자기 가치, 안전, 수행, 통제, 사랑, 자율, 정의, 소속, (타인) 신뢰, 성취의 표준 등 10가지이라고 했다.(p. 21-32)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는 규칙에 관한 신념 즉 적응성 신념구조(“정직하고 남에게 공정하게 행동하며...”)가 그 다음 2차적으로 핵심에 가까운 신념을 이룬다. 이 차원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예를 들어 자기가 완전주의자여야 한다든가 자기는 한 위선자에 불과하다는 신념의 근거에서 어떻게 행위를 할 것인가를 찾는다. 그리고 자아에 관한 핵심 신념들과 규칙성 신념들을 특정 상황에 적용하는 수준에서 발생하는 자기 신념들의 조화(“뇌물을 받고 탈세를 눈 감아 줄 것이냐... 그것이 나의 정체성에 위배되는데 어떻게 그 차질을 정당화하느냐”는 등등) 즉 독백이 3차적으로 진행된다. (McKay, p. 11- 39) 사람의 의식이 깨어 있는 동안 외연적인 신념들의 상호조화 즉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쉬없이 계속한다. 핵심 신념의 결

과는 정서에 영향을 끼친다. 감정이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기 스스로의 독백 차원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너무 높은 자기 표준을 지닌 사람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의 우유부단, 일관성 부족을 자녀들이 배워서 자란 후에 혼란을 느끼고 주저하게 된다. 핵심 신념에서 나오는 독백은 직업 수행과 건강, 삶을 즐기는데 영향을 준다. 특히 주요한 핵심적 신념을 터치하는 독백을 할 때에는 많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스트레스 홀몬의 수준을 높인다. 고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신념들을 조희하는 독백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홀몬을 많이 분비시켜 사람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게 된다.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신념 즉 핵심적인 신념은 그 다음 2단계의 신념을 조정하며 영향을 끼친다. 생존하고 환경과 상황에 대응하는 규칙인 2차적 신념은 자아 정체성에 관한 핵심적 신념에 의해 정해진다. 똑같은 상황에서 학생, 목사, 불량배 중 어느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자신하고 있느냐에 따라 처신할 규칙에 관한 자기의 소신이 다르다. 자아 정체성에 관한 핵심적 신념은 3차적 신념 수준에서 각 사람마다 자기 혼자의 대화가 진행되는 진폭을 조정한다. 그 독백을 가지고 사람들은 세상 만사를 해석하고 특정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단하며 그 결과까지도 평가한다. 그 독백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행동이 마비되어 모험을 두려워하고 이미 남들이 다 실험해서 안전한 방식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안전책은 역시 무언가 정체되고 희망이 없다는 느낌을 계속 갖게 한다.

한국의 정치가 3류 정치에서 췌바퀴를 도는 이유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신념의 독백 내용이 빈약하며 부정적인 독백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들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신념이 유능하고 정직한 언론인이나 정치인으로서 선명하게 정립돼 있느냐, 즉 핵심적인 신념들을 지녔느냐가 의문스럽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다음 2차적으로 행위 규칙에 관한 신념이나 3차적으로 상황마다 스스로 진행해야 되는 독백이 빗나가는 것이 십상이다. 교회 공금을 유용하고서도 수사하는 검찰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공박하는 목사나 그 추종 교인들의 경우는 더 더욱 그 핵심적 신념

이 어떤 것인지 의문스럽다.

1. 핵심 신념의 형성

사람의 자기 정체성 수립 작업은 성장하면서 마음 속에 사건들의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진행된다. 어떤 상황과 그에 대응했던 행위가 초래한 결과, 그 인과관계 구성이나 성과를 초래한 계획 등의 특성이 비슷한 것들을 목록(catalogue)화 한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이 사건들의 목록에 있는 표본에 조회하여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가를 살핀다. 남들의 비판을 들으면 그것을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반영한다. 그리고 새 경험이나 타인의 언급이 자기 자신에 관한, 그리고 자기가 활용할 규칙에 추가된다. 그 일부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신념 즉 핵심 신념에 추가된다. 핵심 신념이란 미래를 들여볼 수 있게 하는 수정 공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할 때 그것이 위협적인가 안전한가, 그리고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재빠르게 판단하고 개념화한다. 그러는 중에 그 다가올 결과에 관한 예측을 한다. 그런 판단과 예측 기능이 신념들은 경험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하며 범주를 정하며 이 신념의 부류들이 각자의 결정을 돕기 때문에 신념은 적응 수단이 된다. 그러한 신념들은 새로운 상황과 적응 기제에서 나올 결과-“나의 실력으로 대학을 졸업한후 취직 시험 관문을 통과할 것이냐” “조기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것이 더 좋겠냐”-를 예측하게 한다.

2. 핵심 신념의 보전

사람의 핵심 신념은 어떻게 변형되거나 보전되는지를 살펴보려면 먼저 아래의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준봉 편향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신념에는 이미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견해에 맞는 정보만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인 핵심 신념 구조를 지녔다면 긍정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신념이 맞아 들기 어

렵다. 사람은 정보를 분류해서 기억하는 경향을 지녔기 때문에 기존 신념에 조화되지 않는 정보는 수용되지 않고 기억에 수록되지 않는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경험을 분류하고 기억할 핵심 신념구조가 결핍되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둘째는 신념의 상습성이다.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재빨리 조회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익숙한 내용을 우선 찾아 내게 된다. 그런 신념은 어떻게 대처할지를 일러주는 정보이거나 어떤 전제 같은 것이다. 종교는 사람이 다급할 때 “아이쿠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하고 찾아가는 기억의 궤도 중 하나이다. 그런 기억을 따라 직행해서 찾아내는 신념의 내용은 마치 자주 돌리는 레코드판(구형 비닐 유성기 판)에 홈(grooving)이 파이듯이 정신적으로 자주 빠지게 되는 구렁텅이를 형성한다. 매사에 “할렐루야”를 부르는 장조림 신앙에 상습화된 사람들은 그러한 정신적 계곡의 낡은 정보의 궤도들로 매번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4장 신념의 형성과 갈등

1. 신념의 발생과 변화

이념 논쟁은 무엇이 사실 정보냐는 논쟁이다. 정보는 어떤 대상의 사실에 관한 앎의 내용(지식)이다. 그 앎은 이미지 형태로 인지된 다음 개념화되어 언설이나 문자로 표현된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간직하는 정보 내용이 신념이다. 신념을 이루는 정보들은 개념, 가설, 이론, 패러다임 등의 단위로 존재한다. 사실에 관한 정보인 신념의 내용들이 체계화된 것이 이념이다. 신념들이 체계화되어 인간의 어떤 행동에 필요한 태도, 행동방식, 성과달성의 처방으로 구축될 때 이념화의 수준에 이른다. 신념의 내용에 정서가 부착된 것이 신앙이다. 일반적으로 ‘믿음’(belief)이라는 단어는 신념의

내용만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념에 정서가 포함된 신앙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서와 감정을 흔히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지만 그 발생 순위가 있다. 정서란 동작 중(energy in motion)인 상태의 에너지이다. 정서는 인간이 자신 및 환경과 대상의 에너지 변동을 감지하는 심신 상태를 총칭한다. 정서는 감각기관에서 입력되는 자극을 두뇌의 동물적 부분 (lymbic system)에서 감지하여 심장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정서는 무의식에서 출현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의식 수준이다. 무의식에서 출현한 정서는 대뇌(celebral cortex)의 기억된 정보와 조화하여 해석된다. 의식된 정보를 부호로 분해(encoding)하여 대뇌 기억 장치(memory)에 수록한 이미지의 단위들이 개념을 이룬다. 개념들이 조합하여 특정한 스토리(schema)로 재 인출(recall)되는 패턴을 이룬 것이 신념이다. (두뇌에서의 의식 처리 기제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다룬다.)

사람이 무의식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서는 1천여 개이지만 의식 수준에서 감지하는 정서는 수십 가지에 이른다. 정서 상태를 감지하여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정서를 해석하는 것이 감정이다. 감정은 정서의 색깔과 농도를 음미하고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우리가 정서에서 유발되어 느끼는 염려, 분노, 행복, 슬픔 등 감정들은 극상의 좋은 감정에서 최악의 나쁜 감정까지 폭 넓다. 개인의 인지 능력에 따라 더 예민하게 여러 정서를 감정으로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정서에 대해 ‘무감정한’ 사람이 있다.

정서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에 의해 행위가 유발되는데 행위는 역으로 정서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정서-감정-행위-정서의 순환 고리가 계속된다. 때로는 우리가 정서를 표현하는데 전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또한 정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는 행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신념에 정서가 부착된 것이 신앙이듯이 대부분 이념에도 정서와 행동 지향성이 부착된다. 그 점에서 신앙과 이념은 공통성을 갖는다. 그러나 신앙은 통상 존재의 초월적인 근원을 가치의 최고 원천으로 삼으나 이념은

인문적인 정보와 그 유용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구조적으로는 이념의 갈등은 신앙의 갈등과 유사하다. 경제성장이나, 균등한 분배냐는 정치, 경제의 이념 논쟁은 정통 기독교냐 이단 사교냐는 신앙관 논쟁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흔히 이념이나 신앙의 논쟁과 갈등을 다루는 분석은 신념들의 내용과 특정 신념 체계의 형성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귀결을 어느 한쪽이 우세한 에너지의 동력에 의해 압도하는 것을 목표로 지향한다. 그 갈등의 해소가 어려울 때는 양비론으로 타협하여 실리를 양분한다. 이런 방안은 유용성(utility)에 의한 이념 갈등의 불길을 잠정적으로 잡는 진화(鎮火)에 불과하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자기 측의 신념 정보가 사실이라는 주장과 자기 편이 우세하여 압도해야 된다는 두 가지에 집중된다. 그러므로 이 대결은 어느 한 편의 정보가 허위이든가, 양자가 사실일 경우에는 부착된 에너지가 우세해야 결판이 난다. 정보의 사실성과 세의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갈등은 평형은 지속된다. 그러한 지평에서는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나는 그러한 차원의 이념 갈등 해소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신념들(신앙관)이 고유하게 형성된다는 전제에서 복합적인 신념들을 각기 소유하면서 관용의 분위기에서 공조와 협동이 진화하는 모델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려 한다.

신념은 어떻게 발생하며 변화하는가? 그 변화는 인성의 성숙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 사람들이 특정 신념(들)을 지향하거나 동조하거나 선택하거나 고착하는 기제는 무엇인가? 신념에 따른 행동 지향성은 어떻게 변화하여 공조와 협동을 지향할 수 있는가 등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다양성과 복합성 인정에 의한 이질성에 대한 감내(tolerance)의 증대로 변화가 가능한 가상의 모델을 탐색하려 한다. 그러나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를 강조해온 전통에서 복합성에 대한 민감(sensitivity)과 감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위 발칸화(Balkanization)라는 주민 분열 현상의 원인을 나는 산악 지형에 있다고 본다. 산악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계곡 안의 분지가 세계의 전부이다. 평야지대의 사람들의 세계는 끝없는 지평선 너머까지 펼쳐진다. 산악 지대 사람들의 인지 대상은 계곡 안의 환경과 생명들과 문화 등 특수적인

것 밖에 없다. 평야의 사람들의 그것은 흔하게 널리 펼쳐진 모든 것들 즉, 보편적인 인지 대상과 문화가 있다. 그 잔재인 소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단일 민족, 단일 문화를 가치로 하여 확대 집단주의가 준봉의 압력으로 활용돼 왔다. 아직도 발칸적인 소집단 이기주의와 이것을 대 집단 준봉으로 끌어올리려는 이중의 문화-사회적 압력이 한민족의 삶 여러 부면에서 기능한다. 그런 현실은 다원화 사회 지향성을 억압한다. 초급학교 학생들을 왕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차별과 학대에 이르는 행위는 산악이 많은 반도 지형의 산물 발칸화의 증상이다. 다행히 경제발전은 고속교통망과 인터넷 소통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장해 놓았다. 경제적 여유 증대와 교통, 통신망의 발전은 계곡 민중의 소집단이기주의를 분쇄하여 개인주의 증대를 초래했다.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는 상호 증진한다. 동시에 개인주의는 다원사회의 질서와 규범적 행위를 잠식하는 묘한 관계를 갖는다. 다원화의 증진으로 국가 규모의 사회적 협동을 저해하는 소집단 이기주의는 분쇄되지만 무엇이 다원화 사회의 협동을 가능케 할 것인가? 자기들을 예언자라고, 자이언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신념을 구현하는 세력장(force field)의 압력이 협동의 요인가? 가치정보로 구조화된 신념들을 구현하는 규범(도덕률과 성문법률)이 협동의 요인가? 종교인들이 말하는 초월자의 신령한 능력의 섭 리가 있어야만 인간 협동(하나님의 나라 질서)이 가능한가? 그 외에 또 무엇이 후보 요인인가?

개인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신념의 압력으로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는 현재 한국 방식의 정.경.언 유착은 출구가 없다. 최소한 그 대안은 개인들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된 ‘비개인적 규범’(impersonal norms)을 구성할 신념들이 사회학의 한 이론을 들겠다. 비개인적 규범을 구성할 신념에서는 최소한 천안함 사건을 정부의 조작이라고 공박하는 행위나 검찰의 조사를 정치화 하는 갈등조장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대부분 갈등은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라는 신념을 사회적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인적 규범(personal norms)을 축으로 한다. 정당, 종파, 자생단체 등이 인적 규범을 주장하고 언론이 부채질하

며 시민들이 특정 인적 규범을 자기의 것으로 동일시하여 거리와 인터넷에 나서는 신념 갈등의 행동화가 발생한다. 그 모델들을 운용하여 사회과학적 연구(서베이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들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협동(도덕적 공존) 행위 증대의 전제로서 진화론적(evolutionary) 맥락을 응용한다.

2. 유기체는 신념을 필요로 한다.

모든 유기체는 존재하기 위해 정보에 의존한다. 단세포 생물로부터 사람에 이르는 모든 생명체는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항상 찾는다. 사람은 심 없는 탐색으로 자기가 어디서 출현했으며 자기의 주요 요구와 관계 있는 정보를 찾는다. 정보는 개인의 삶에 필요할 뿐 아니라 정보에 의해 거대한 자금이 오가며 전쟁이 발생하고 승패를 판가름하며 제국이 건설되고 패망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며 조작하고 전달하며 철저히 보안한다. 더 나아가 정보를 제작하려고 거대한 조직이 건설되며 정보를 수집하려고 생명을 바치기도 한다. 어느 정보가 사실이나를 두고 논쟁을 하며 격렬한 집단 충돌을 하고 자기 측 정보에 반대하는 집단을 압도하거나 제거하려고 시도한다. 그것이 이념 논쟁이며 종교 투쟁이다.

정보란 정확히 무엇인가? 정보란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사실에 관한 이미지다. 사람들은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건너갔다는 실현되지 않을 이미지들도 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 이미지도 모두 정보는 아니다. 정보란 가능성 있는 이미지들을 모두 총칭으로 점검한 다음 특정 현실에 맞는 마지막 하나를 선택한 이미지다.³ 허다한 이미지들이 지니는 비가능성들을 배제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요구를 실현할 가능성을 가진 이미지만이 정보이다. 이념 논쟁은 정보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

3. William A. Dembski, *Intelligent Design as a Theory of Information*. http://www.arn.org/docs/dembski/wd_idtheory.htm.

러 이미지 체계들을 둘러싸고 자기들의 이미지 체계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 최종 원인은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다. 그것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논하거나 모호한 논리로 반박하는 이미지들은 모두 정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무덤 소재와 부활 사건의 진상규명 같은 어떤 요구에 관련된 사실 가능성을 논란하는 이미지 체계들도 허다하다. 이미지체계들의 허다한 수량이 확률 계산을 좌우하여 정보의 질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것이 군중집회나 시위를 통해 행동화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런 이미지들을 집합한 수량적 인상(quantitative impression)이 정보의 사실성을 좌우하지는 못한다. 북한의 핵무기 실력에 관한 이미지의 단서들이 아무리 많아도 정확한 사실로서의 정보는 단 한 가지 뿐이다.

어떤 정보가 유용성을 가지려면 상황에 대조하여 구체적 (specified) 정보와 비구체적 (unspecified)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비구체적 정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⁴

- 허공에서 많은 가능성 중에 표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하나를 무작위적으로 포착하는 이미지는 비구체적(unspecified) 정보이다.
- 많은 가능성 중에 어떤 성공한 패턴을 따라 파악한 이미지가 구체적 (specified) 정보이다.
- 많은 가능성 중에서 표적으로부터 빗나간 패턴을 따라 파악한 이미지는 조작된 (fabrications) 정보이다. 조작된 정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 이념 논쟁은 어느 것이 구체적 정보냐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판가름하려는 정보 탐색의 방향이다. 그러면 구체화된 정보와 비구체적 정보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구체적 정보가 만약 그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명시된다면 그 가능성은 이미 성공한 패턴에 대비해서 알 수 있다. 대비할 만한 성공적 패턴이 없다면 그 정보는 비구체적 정보이다.
- 구체적 정보가 비구체적 정보로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구체적 정보가 그 배경 지식이 증대되면 구체적 정보로 승격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암호로 입

4. William A. Dembski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신호(signal)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수된 신호들은 비구체적 정보이지만 암호를 해독하면 구체적 정보가 된다.

어떤 실현된 사실 없이 이미지 패턴을 가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가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체적 정보란 이미 실현된 가능성에서 패턴을 추출해 낸 것이다. 예를 들어 생명의 기원에 관해, 생명들이 이미 존재하게 된 후에 그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성서적 창조론 또는 진화론이라는 패턴을 지은 구체적 정보 체계로 종교와 과학의 이념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생명 현상이 있기 전에 우리가 창조론이나 진화론 같은 구체적 정보 논쟁을 할 수는 없다.

신념의 정보 내용은 다양한 요구의 차이를 반영한다. 신념의 충돌은 첫째 사람들의 요구충족을 위한 행위 지향의 차이에서 온다. 사람은 수많은 요구를 지니는데 매슬로가 제시한 요구의 계층(need hierarchy)을 응용하여 이념의 발단, 형성, 변화 과정을 패턴 짓는 한 축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요구를 충족하려는 행위들도 요구와 같은 축의 연장선에서 탐구할 수 있다. 요구 충족 행위의 성과는 신념을 발생시키며 강화하거나 약화시킨다.

인간의 행위는 그 유형과 수를 나열하기 어렵게 다양하므로 이 책에서는 협동행위와 그에 상반되는 갈등행위 두 가지의 큰 단면에만 관심을 둔다. 협동 행위는 신념의 가치에 대한 공조로부터, 규범 없는 서로 나누기, 연민의 표현, 인습수준의 윤리 행위, 성문법규의 준수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갈등행위는 단순한 가치관에 대한 반대 의견, 근거 불확실한 반감이나 저항의 표현, 공개적인 갈등 조장, 은밀한 모의와 공작, 조직적인 박해와 착취, 강압적인 투쟁, 폭력에 의한 권리 침해와 약탈, 사회 질서 전복 행위 등을 열거할 수 있다.

3. 인간의 요구계층과 이념 갈등 유형

사람의 여러 가지 요구를 매슬로우는 5 계층으로 분류했다. 그의 분류는 반세기 이상 인용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의 요구는 기본적인 것이 충족된 다음에 윗 단계의 요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

은 가장 먼저 신체에 관계된 요구를 추구하고 그 것이 충족되면 자기 위치의 안전, 다른 사람과의 친교, 사랑, 존경을 차례로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 4단계의 요구들은 결핍을 채우려는 요구로서 신체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암시가 나타난다. 즉, 호흡곤란, 갈증, 배고픔, 그리고 나아가서는 질병 등의 증상을 느끼게 된다. 그 이상의 결핍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걱정하며 긴장하게 된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자아 확장을 추구하게 된다. 매슬로우의 각 요구 단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 특히 인접한 두 단계는 분리되기보다는 상호 연관된다.⁵

1단계- 신체적 요구: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공기, 물, 음식 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의복, 거주처, 섹스 등 존속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부차적인 요구들도 여기에 속한다. 곡류와 야채, 축산물, 수산물 등 식량과 주택 건설 등의 정책에 관한 정치적 이념 논쟁은 1단계 요구 충족을 둘러싼 논쟁이다. 녹지대 단지 개발, 간척과 4대강 개발과 운하 건설에 대한 이념 논쟁도 이 요구 수준에서 정착되어 발생한다. 경제개발이 우선이냐 공정한 분배가 우선이냐는 보수-진보의 논쟁도 1단계 요구에서 출발하여 다음 단계 안전의 요구와 얽혀서 발생한다. 한국 종교의 특성인 기복신앙은 1단계 요구에 고착된 신념체계이다.

2단계- 안전의 요구: 사람이 생존하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될 필요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은 신체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는 안전으로부터 생존여건이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는 사회적 요건을 필요로 한다. 즉 신변의 안전, 재정적 안전, 보건과 복지, 사고나 재해로부터의 안전 등이 이 요구에 속한다. 불평등과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없도록 세계가 질서 있게 통제되기를 원하는 요구도 안전 요구다. 사람들의 생업이 조직적 직장으로 변모한 현대 사회에서는 직업의 안정을 위한 노사관계의 이념논쟁, 불평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처리하는 권위와 규율체계

5. A.H. Maslow,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1943):370-96.

에 대한 요구로부터 발생하는 사법 집행과 인권보장에 관한 이념 논쟁, 금융과 재정 저축 정책에 대한 논쟁, 보건 정책과 보험, 직업사고 상해보험, 근로 불능이 됐을 때의 적절한 보장과 연금 등이 안전 요구에서 이념 논쟁들이 발생한다. 종교적 기복신앙은 2단계의 안전 요구 충족도 지탱한다.

3단계- 사랑과 소속 요구: 사람이 신체적으로 생존의 기본 요구와 안전 요구가 충족된 다음에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남들에게 사랑을 받을 요구가 대두한다. 이것은 어린이가 어머니와의 유대에서 사랑을 받으며 가족과 친구, 학교, 직장, 교회 등에 소속감을 느끼는 요구이다. 소속의 요구는 순수한 정서적 요구인 것 같지만 사랑과 지지를 받으려는 요구의 실상은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1차적 요구 충족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 그물망을 확보하려는 요구이다. 사랑에 기초한 결혼으로부터 동지 선언을 바탕으로 한 정치 파당에 이르는 제도적 기구는 사회적 유대를 뒷받침하는 3차 요구의 구현이다. 소속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룹의 이념(상징, 정보 내용, 행위 방안 등을 포함하는)을 만드는 선택 행위가 발생한다.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 이념에 준봉하다가 김일성 왕족 3대 계승 이념을 수용하는 소속감 요구 충족 행위는 정서적이기보다는 신체 안전 요구를 보장받기 위한 1,2차적 요구 준수이다. 그러나 남한의 친북 좌파가 북한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는 3차적 요구의 선택이다. 한국 기독교인들, 특히 재미 한인들이 교회에 소속하는 원인으로 중요한 것은 3차적 소속감의 요구이다.

4단계- 존중의 요구: 사람은 남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며 스스로를 존중할 요구를 지닌다. 소속 요구의 연장선에서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기를 바란다.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공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필요한 어떤 행위를 한다. 취미활동, 재능발휘, 전문직 진출 등은 그런 노력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자기 존중감이 올라가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남들의 존중을 더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명망을 얻고 남들의 칭찬을 받는 외면적인 것만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를 바꾸기는 어렵다. 자기 내면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매슬로우는 지위, 명성, 신분, 남의 관심 등 인정을 외면적인 존중감을 주는 방편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더 고차적인 것은 자기 존중, 힘과 능력, 숙달, 독립성, 자유 등으로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 성취되는 내면적인 것으로 분류했다. 자기 존중감을 내면적인 능력감보다도 외면적인 인정 달성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위험하다. 그 위험성의 증상을 한국 현실에서 보면 학력 위조나 신분 과장 같은 지위(status) 조작, 저술이나 과학 기술 날조 같은 성취의 조작 등 각종 과장과 허위 조작으로 질서의 혼란과 신뢰의 붕괴를 초래한다. 인상관리가 지나쳐 능력에 넘치는 사치와 소비를 조장하여 개인 경제에 부담을 주고 그를 뒷받침하는 사기와 뇌물, 횡령을 초래한다. 외면적 존중감 요구는 수치(羞恥)의 문화(culture of shame)를 조장하여 범법행위를 추궁하는 검찰의 조사를 정치적 갈등으로 위장하며 양심을 외면하는 도덕의 붕괴를 초래한다. 신앙생활에서도 허위 간증이나 과장된 행위로 남들을 기만하고 집사, 장로 타이틀에 연연하며 자아 파탄에 빠진 것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5단계- 자아실현 요구: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 양태를 그리며 그 존재를 구현하려는 요구를 갖는다. 즉 자기의 온전한 잠재력이 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 것을 실현하려는 요구이다. 그 잠재력이란 창의성, 도덕성, 자발성에서 발단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량이다. 그 결과 선입견으로부터의 해방되고 나타난 현실을 수락하는데 이르는 것이 성취라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요구는 사람마다 다른 광범한 것이지만 각 개인에게는 구체적인 독특한 요구 형태들로 나타난다. 어떤 이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잠재력을 구현하는 최종 이미지로 학자, 체육인, 예술가, 발명가, 법조인, 정치가 등이 되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이 요구가 종교계, 학계, 정치계, 산업계, 예술계, 언론계 등에서 전문가 지위와 파워를 앙망하는 사람들의 신념 갈등으로 나타난다.

물질과 신체적 안전의 요구 충족이 더 긴요하다는 사람들은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이념을 선호할 것이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부를 축적하고서도 만족의 끝이 없이 물질적 요구단계에 고착된 사람들일 수도 있다. 분배의 정의를 구현하는 이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어 사회의 혜택을 원하는 사람들이거나 자기들의 물질적 요구보다도 소속감이나 존중감 요구충족이 더 중요한 사람들일 것이다.

5장 신념의 체계

1. 신념의 기능

각 사람이 어떤 목적성을 가졌느냐에 따라 현실의 상황을 자기의 신념으로 매핑하는 표상 양태도 다르다. 그리고 어떤 신념의 사실성, 가치성, 타당성, 자신의 요구 정도 등에 따라 사람들이 그 신념 체계를 간직하는 강도가 다르다. 신념은 행위를 이끌어 가지만 피상적으로 인지하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소극적 정도로부터,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신념을 수호하거나 실천하려는 순교적 신앙으로 행동화하는 강렬한 수준까지 있다. 행위에 이르는 신념-신앙의 강도에 관계된 세 가지 변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⁶

1) 신념, 신앙의 강도

첫째, 신념을 행동화하는 데는 어떤 내용이 사실일 것이냐, 결과가 있는 것이냐는 개연성 크기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념은 “그렇다”와 “아니다” 둘 중에 하나로 종결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흔히 “참 아니면 거짓” 또는 “유죄 아니면 무죄”라고 두 개의 개연성 밖에 없는 것 (양단 간의 하나) 같이 말하지만 참과 거짓 두 극한 사이에는 “거짓말 같은 정말”이 있고

6. Karl E. Scheib, *Belief and Valu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pp. 25-36.

“참말 같은 거짓”도 있다. 또한 죄를 지었는데 무죄판결이 나고 죄 없이 처벌되기도 한다. 사람이 믿고 예측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음”으로부터 개연성이 “항상 있음”까지 확실성의 정도 차이가 있다. 본질적으로는 전무(全無)와 영원한 실재 간의 차이가 있다. 숫자적(아날로그)으로 표상한다면 어떤 신념의 내용이 현실화될 개연성은 0(확고한 불가능)으로부터 100퍼센트(확고한 가능)사이를 오르내리며 양적으로 연속선 위에 차이를 가지며 변한다. 이런 개연성의 연속선에서 어느 수준에 신념에 맞을 내려야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점에 선가 믿음의 앵커를 박는다. 그 선택은 도박과도 같다.

둘째, 신념으로 기대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누가 통제하느냐는 측면이 있다. 어떤 신념을 갖고 행위를 선택하는 상황에는 항상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며 그 기대 수준에 영향을 주는 구심적 요소와 외부적인 결과 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 즉 자신의 능력과 기술이라는 내부적 요소에 대한 신념과 기대가 그 하나이다. 그리고 외부적 기회 요소 (환경, 상황, 타인이나 신적 존재의 개입을 포함)들이 주는 결과에 대한 신념과 기대가 있다. 이 자기 내부적-외부적 두 가지 신념은 상호작용을 하며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는데 불확실한 변수로 기능한다.

내면 통제형인 사람들은 어떤 기대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들은 바로 자신의 기술과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부통제형인 사람들은 자기 능력보다도 기회나 여건에 따라 (혹은 타인의 영향력에 따라) 자신은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내면통제형인 신념을 지닌 사람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성취를 추구한다. 외부통제형인 사람들은 좀 더 복종적이며 사회적으로 적응 능력이 낮다. 한국인들 중에 종교성이 강하다든지 정치권력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의 분포가 우세한 현실은 외부 통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통제형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그 책임을 외부적 요인에 전가하기 쉽다. 따라서 외부통제형인 사람들이 항의 행위로 발전하기 쉽다. 정치 관계에서 음해 공작설이나 주요 정

책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는 원인도 외부 통제형 판단에서 나오는 자기 무능감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양태이다.

셋째는 신념 행위에는 위험도와 불확실성의 측면이 있다. 어떤 신념을 갖고 개연적(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인 기대에 근거하여 행위를 하는 데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따른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행위를 하는 것이 모험이다. 모험에는 성패의 개연성을 알고 하는 계산된 (예, 복권으로 목돈을 벌을 개연성처럼 이미 실적이 있고 계산된 확률도 있는) 모험이 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모험 (죽어서 천당에 간다는 개연성을 믿고 종교에 헌신하는) 실험해 보지 않은 예측만을 할 수 있는 모험이 있다.

신념을 지나거나 그 신념의 행위를 하며 그 개연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데는 위험도를 고려한 결단을 필요로 한다. 개연성이 낮은 (불확실한) 신념을 갖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위험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그 신념을 방어하거나 그 신념의 결과를 보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 방어 기제는 단지 실제 효용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그 신념을 지닌 사람들 자신의 불안감을 처리하려는 보상 행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신적 기복 신앙에서 그 결과를 얻는다는 개연성에 대한 확신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 힘에 의해 달성하려는 종교적 의식(기도나 제례)의 더 강도와 빈도를 높여 하게 된다. 기독교의 ‘아멘’을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백일 철야 기도나 불공 같은 것은 그 개연성에 대한 확신이 낮은 것에 정비례해서 더 열심히 해야 정신 에너지에 산술적으로 균형을 갖게 된다.

2) 신념의 측정 기준의 모호성

신념을 측정하는 기준은 그 측정한 상황과 방법에 따라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전 대통령들의 자금 비리 등에 관해 그 것이 주장된 내용대로 실재한 사건이나 허구적 사건이냐는 사실 여부, 그 사건은 단지 한 도덕상 혹은 법률상으로 저촉되며 사회에 영향이 없는 원칙만의 문제이냐 아니면 사회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냐는 질문, 그것이 한갓 지나간 사건이냐 미래에도 진행될 사건이냐는 시간성의 질문, 그것은 사건을 음미하

는 한 국민 개인 (일반 시민이든, 언론의 기자이든 혹은 정당 정치인이든, 윤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든) 자신에게 관계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생각하는 사람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계되는 것이냐는 등 신념의 연계 구조와 관련 지어 평가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의 관계에 관한 MBC-TV 보도에 관해 그 정보 내용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냐 허구적 조작이냐 여부를 먼저 판별하고, 그 사건이 사실일 경우, 단지 한 도살장에서 발생한 것이며 전체 육류 소비자에게 영향이 없는 독립된 사고이냐 아니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한국에 있는 소비자 다수에게까지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냐는 질문을 구별해서 답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한갓 지나간 실수이냐 미래에도 반복해서 진행될 사건이냐는 시간성의 질문, 그것은 표본으로 제시된 사건의 도살장에서만 발생한 사건이냐 미국의 여러 도살장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일상 패턴이냐, 또는 그 제품을 소비한 미국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한국인에게만 관계되는 것이냐는 등 신념의 연계 구조와 관련지어 평가돼야 하는 것이다.

종교적으로는 불가사의한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신념이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형성되었고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심성에서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의문도 이런 기준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즉 예수의 추종자들이 당시 현실적으로 경험한 정보에 어떤 정보를 가감했는가, 그리고 그 발생했다고 하는 사건에 대한 신념을 진술하고 문서로 기록하기에 앞서 그 자신들의 신념을 평가하는 능력이 있었느냐는 등, 그 당시 사람들의 신념의 내재적 구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대교회의 여러 계파의 추종자들이 기록한 신념의 문헌들을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가려서 없애거나 여러 단계 추가해서 변질시켰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고 성경은 한 마디도 틀린 것이 없다고 성경 자체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 내용 모두가 진실이다”라는 신념은 여러 차례 필터 하여 채색한 서술에 의해 유도된 신념이다. 그와 유사하게 ”통치행위는 국가의 이익을 고려한 최종적 결정권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5.18 광주항쟁을 탄압한 군사정부의 행위에 대한 판결의 경우처럼 공인된 합리적 기준을 이탈하는 모순에 빠진다. 전직 대통령이 은퇴하면서 청와대 컴퓨터의 정보내용 대부분을 미리 사지로 인출했다는 사건에 관련된 범죄성 혐의 논란은 전직 대통령의 자기의 행위에서 개인 행위와 공인 행위에 대한 신념이 구분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이다. 그러한 신념의 착오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한국에서 권력자(또는 종교 성직자)가 법을 초월한 특전을 소유한다는 권위주의가 아직도 보편적 통화로 되어 있다는 문화의 배경이 있다. 권위주의는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오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질서를 규정하는 기본 의식 형태이다. 공동생활을 하는데 권위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불식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의 켓바퀴 안에서 공전하는 ‘루핑’(looping)에서 이탈하려 할 때 창의적 신념이 가능하다.

2. 신념의 다이내믹

1) 신념의 타당성 증거와 지표

종교 전도를 할 때 “신을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믿겠다”고 응답하기 일쑤이다. 사람들은 신념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확한가를 가름하는데 그 신념의 대상이나 현상이 실재하느냐 실재하지 않느냐는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 즉, 신념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단서로서 그 신념의 대상으로부터 나타나는 외면적 작용이 있느냐 또는 어떤 포착 가능한 결과가 있느냐고 따질 수 있다.⁷ 여러 종교의 경전에서 신적 존재가 계시를 했다가 기적을 이뤘다는 것으로 그 신념의 기반을 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의 행위를 그 사람이 지닌 모종의 신념에서 나온 지표로 볼 수 있다. 열심히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의 경우 자기가 시험을 치러서 어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념의 행위를 한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차

7. Scheib, p. 38.

량 운전을 하는 행위는 그 자신이 술을 마셨지만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과 신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의 지표이다. 뇌물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기업가의 행위는 그들이 뇌물 행위에서 얻는 결과가 사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첫째 신념의 지표이며 또한 불법 행위를 해도 적발되어 처벌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둘째 신념의 지표이기도 하다.

2) 신념의 충돌과 변화

사람은 자기가 지닌 의견, 태도, 신념과 타인의 것들 사이에 불일치를 인지하며 또한 자신의 의견, 태도, 신념들 사이의 불치도 인지한다. 그 반응으로 상반된 의견, 태도, 신념에 대한 당황 감을 피하기를 원한다. 불일치가 계속되어 압력이 증가될 경우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 불일치 감을 줄이려고 의견, 태도, 신념의 일관성을 증진하는 방법을 찾는다. 의견, 태도, 신념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변화가 더 쉽게 올 수 있다. 즉, 의견, 태도, 신념이 갈등을 일으킬 경우 무엇인가 바뀌어야 한다는 준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의적으로 유도된 어떤 인지의 일치감 또는 창발적인 해석의 일치감을 받아들여 그 상황에 대한 인지가 일관성을 지닌다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해소책을 찾게 된다.

첫째 방편은 인지의 불일치를 회피하는 유형이다. 자기가 덜 좋아하는 (또는 남의 압력에 의해 부과된) 특정한 의견, 태도, 신념 (또는 현실이나 대상)을 피하려 한다. 또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 중요성을 평가 절하한다. <신 포도의 우화>에서처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학교 성적만으로 사회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든가 “학교의 우등생은 사회의 낙제생”이라는 의견을 주장하고 학업을 소홀히 하는 자신의 태도를 방어하는 기제로 삼는다.

둘째 방편은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관심사에 더 흥미를 갖고 더 개입함으로써 인지의 일치감을 증진시킨다. 의견, 태도, 신념이란 서로 얹히고 뒹받침하는 것이므로 한 부면의 변화는 결국 다른 부면의 변화를 부르게 된다. 일요일에 등산을 갈 것이냐 교회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데서 교회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신과 공동체 앞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데 의견, 태도, 신념의 일치를 본다. 일요일에 교회보다도 등산이나 골프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 선택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좋다는데서 교회에 안 가는 것에 대한 불일치 감을 넘어 의견, 태도, 신념의 일치를 본다.

셋째는 방편으로는 애매모호한 이슈에 대해서는 인식상으로 좀 더 조작할 수 있는 여유를 남긴다. 고립된 판단 즉 전체적인 것에 연관이 적은 의견, 태도, 신념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다. 특히 강한 파벌 대립이 걸린 이슈에 대해 여유를 두면 객관적으로 이로운 입장에 있는 편은 그 이슈를 부각시키며, 불리한 쪽은 그 이슈를 내세우지 않는다. 한국의 정당 간의 파쟁에는 의견, 태도, 신념의 불일치가 계속 작용하며 좀처럼 불일치감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신당 창립을 주기적으로 하며 정치인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저변에는 불일치감을 정리하는 인내와 기술의 부족이 있다.

신념의 불일치와 제로섬 게임

신념의 불일치감에 대해 인식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여유를 두지 않는 선택도 흔히 발생한다. ‘힘의 용량’(vector)이라는 변수에 인지의 초점을 두고 불일치감과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힘이 기울어 승패를 본다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을 벌이게 된다. 그 목표는 자기편이 승자라야 되며 승리의 몫을 모두 자기 편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 책략에는 도박의 칩인 ‘힘의 용량’을 상승시키는 것 외에 후퇴의 전략이 없다. 그런 ‘제로섬 게임’은 새로운 명제(의견, 태도, 신념)로 탈출구를 찾기보다 타결되지 않은 옛 명제를 재방문하여 굳이 타결하고 말겠다는 ‘태도의 귀소본능’ 같은 것을 동력으로 삼는다. ‘태도의 귀소본능’은 추석명절에 ‘3천만 민족 대이동’이라는 현상으로 진기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 동물의 귀소본능은 지리적 장소 지향의식을 갖지만 사람은 고향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향인 어떤 의견, 태도, 신념에 대해 귀소본능을 지닌다. 그리고 한국인은 그런 것이 강한 민족의 하나이다. 이런 성향의 어느 만큼이 유전자에 엔코딩(encoding)된 것이며 어느 만큼이 문화에서 습득한 인성인가는 더 연구해야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파쟁과 이합집산의 연속으로 인한 정치 발전의 담보를 이런 ‘태도의 귀소본능’ 가설로 풀어 볼 만하다.

넷째는 정서의 질과 부하량(負荷量, 부담의 크기)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어떤 대상이나 이슈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수반하는 정서의 질적 요소가 변화할 때, 정서적 부하량이 변할 경우 그 감정의 대상에 대해 지녔던 개인의 신념도 상응하여 재편성된다. 북한에 대한 남한 국민의 태도에서 적대 정서가 우호 정서로 변화고 그 적대 정서의 부하량이 감소됨으로써 북한에 대해 남한 국민들의 신념도 변하여 북한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족 사회라는 신념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변환은 주로 6.25 전쟁을 체험하지 않아 대 북한 적대감정 대신 대 북한 우호감정을 학습 받은 젊은 층에서 일어났다. 반면에 6.25를 체험한 세대는 1차적 경험에 의한 적대 감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정서적 요소를 동반하는 대 북한 의견, 태도, 신념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정서와 태도의 배열은 대미 정서와 의견, 태도, 신념에서도 역으로 나타난다.

다섯째는 다양성의 교차 압력에 의한 변환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사람은 사회 관계에서 의견의 상충을 많이 느낄수록 의견, 태도, 신념을 바꿀 가능성이 더 높다. 관계된 그룹들 간의 집착하는 대상들이 다양하고 서로 상충할수록 의견, 태도, 신념의 변환 가능성이 크다. 소속 멤버십 구성과 역할이 다양하고, 동일시하거나 추종할 대상이 다양한 등, 다변적 ‘교차 압력’(cross pressure)이 있으면 의견, 태도, 신념의 변화가 쉬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다원화하며 상호간 갈등의 요소가 많다는 현실은 ‘의식 변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 가정, 그룹 등의 동질성이 적을 때 개인의 의견, 태도, 신념이 변하기 쉬운 것이다. 주의할 점은 교차 압력 상태에서 우세한 의견, 태도, 신념을 따르기가 쉽지만 지나치게 압력을 받으면 긴장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그 이슈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방임 상태에서 우발적 변환을 기대하는 방법이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태가 자신이 통제하지 못 한 채 발생한 경우, 그 결과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선택을 하면서 그 결과를 합리화하는 몇 가지 전략을 활용한다. 우선 그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자기가 피할 수 있었고 다른 선택

의 여지가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도록 그냥 두었다고 생각하면 그 사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즉, 어떤 중요한 승진 기회를 놓쳤을 경우 자기의 실력이 도저히 못 미쳤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자기실력을 탓하기 보다는 자기도 할 수 있었는데 직종이 적성에 맞지 않아 응모하지 않았다고 자술하면 그 승진에 대한 아쉬운 태도가 바뀐다. 또는 실연을 한 경우 그 상대에 대해 자기 조건이나 통제할 능력이 전혀 못 미쳤다고 자기를 탓하는 것 보다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낳는다는 것이다.

3) 신념 표현의 유동성

사람들에게 도덕적 신념 교육을 주입식으로 잘 하면, 혹은 종교적, 정치적 신념 교육을 철저히 하면 그들이 지조를 지키며 도덕적 사회를 이룰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강조한다. 그런 통념의 전제에는 허점이 있다. 어려서 유교식 가정교육이나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받은 젊은이들이 이성관계에서 정절을 지키거나 사회의 부패에 더 저항할 것이라는 가설이 항상 사실로 입증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산당 교육을 철저히 받은 북한의 어린이들이 통일 이후 자유화된 사회에서도 옛 신념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은 정확치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념의 표현이란 항상 상황에 따라 굴절되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이 진정 무엇을 일관된 신념으로 갖는지 포착해 내기도 어렵다. 준봉에 관한 여러 심리학 실험에서 입증된 바로는 사람들이 남의 압력을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판단이나 신념을 거침없이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생각하는 바와 믿는 내용을 그 집단의 압력에 맞게 조정하여 말한다는 것이 실험에서 드러났다.

또한 시간이 흐르는 과정 중에서 긴박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떤 사람이 지닌 여러 신념들이 순차적으로 발동된다. 따라서 특정인이 지닌 몇 가지 신념 중에서 어떤 신념이 표현되느냐는 것은 매우 상황 의존적이다. 그러므로 특정 상황에서 표현되는 신념이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신념에

내재된 특성이기보다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외부적으로 부과되고 집행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런 규범의 집행 자체도 종종 일관성 없으며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4) 신념의 근접성과 예고의 연쇄적 효과

어떤 결과가 완전히 무작위적인 우연에서 발생하는 경우, 한 가지 유형의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으면 그와 반대되는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50% 대 50%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계속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확률도 50%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이 복권을 산후에 자기의 번호가 다음에 당첨될 확률이 절반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러 개의 카드 덱에서 특정한 카드가 나올 확률을 예측할 수 없지만 자기가 즉 마크해둔 카드가 다음에 나올 차례라고 생각하게 된다.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을 50대 50으로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발생할 사태는 자기가 바라고 있는 사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신념의 적극적인 근접성 (positive recency)이라고 한다.⁸ 이러한 신념의 적극적 근접성은 신념의 동화 과정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의 마음에서 혹은 어떤 다른 시나리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편견에 기울어, 직전에 발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다시 발생한다고 예상하게 되는 사고 유형이다. 즉 지난 며칠 동안 아침마다 출근 길에서 본 그 아름다운 사람을 오늘도 보게 될 것이라는 신념이 그것이다.

적극적 근접성에 의한 기대가 절실해지면 신념이 강화되어 고전적으로 오래 전에 발생했다고 전수되는 비현실적 사태가 자기 주변에서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신념의 동화가 발생한다. 구약의 모세가 수십만 민중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는 기적이나 에스겔이 해골들을 병사들로 불러 일으켜 전투에 승리했다는 신화를 자기의 현실적 요구 실현의 가능성과 같은 유형이라고 연결 짓는 종교적 신념이 발생한다.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동북아의 허브’가 될 것이며 강대국 정치에서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이

8. 웨이브, p. 93.

라고 한국의 지도자들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그런 유형의 신념이다.

반면에 신념의 부정적 근접성(negative recency)이란 동일한 결과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는 편견에서 바로 직전에 발생한 사태에 대조하여, 기대하는 사건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제하는 사고 유형이다. 즉 지난 며칠 아침마다 출근길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지만 그 행운이 오늘부터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념이 그런 것이다. 신념의 부정적 근접성은 개인 자신에 관해서 또는 주변 상황에 관해서 기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을 악순환 시킨다. “나 같이 학벌도 신통치 않고 돈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아무리 허우적거리려도 소용없다”라든가 “협잡배들이 감투옥으로 다투는 이 집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라는 비관적 신념은 부정적 근접성의 순환 고리에서 발생한다. 그런 신념의 부정적 근접성이 정치 영역과 언론에 감염되어 고질화한 것이 한국의 언론과 정치 후진성의 원인 중 하나이다. 어떤 새로운 정치적 시나리오나 설화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음모’ ‘스캔들’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신념의 부정적 근접성의 박제화된 표본이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BBK관련 혐의를 조사한 검찰이 면죄부를 선언한데 대해 수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경우는 신념의 부정적 근접성이 작용한 것이다. 반면에 그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경제공약을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로 투표한 사람들에게서는 신념의 적극적 근접성이 작용한 것이다.

5) 신념의 상처

어느 사회에서든지 기존하는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대립할 수 있다.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대립, 남남 갈등 현상은 같은 사실에 관해 자기들이 파악하고 이해한 것만이 사실의 전부이라는 신념들이 맞부딪치는 갈등이다. 과거의 새만금 간척, 정부의 4대강 개발 같이 큰 사업을 두고 환경보호 관점과 경제적 이득 관점 두 가지에서 연원하는 주장(신념들의 표출)들이 팽팽하게 맞선다. 세

종시 건설안을 둘러싼 정파 간의 논쟁이나, 교육 정보 전산화 시스템을 둘러싼 교육계와 관료들 간의 갈등이나 노동자들의 권익을 둘러싼 노. 사. 정 간의 삼각 갈등도 신념들의 차이에 뿌리를 둔다.

두 가지 신념을 둘러싼 주장들이 대립할 때 논리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반되는 것들에 동등하게 무게를 두고 저울질한다. 그러나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을 양측 손바닥이 똑같이 50 대 50의 힘으로 부딪쳤기 때문에 100의 충격이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속단이다. 좌측 손바닥이 0의 상태에 정체해 있을 때 우측 손바닥이 100의 힘으로 와서 쳐도 100의 충격이 발생한다. 그런 사고방식의 착오 때문에 사실상 무엇이 더 가치 있고 긴급한가를 판별하지 못하므로 갈등은 불필요하게 가열되고 지속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신념들에 대해 심리적 에너지를 투입하여 그 신념을 자아 정체성의 핵심 내용으로 삼게 되는 경우, 그 신념은 곧 자기의 정체성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한 핵심적 신념에 대한 위협은 개인 정체성에 대한 위협처럼 인지되며 그 순간부터 신념을 방어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신앙관 때문에 부부나 친구가 갈라서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밀착된 신념 때문에 친구가 적으로 변하는 것은 이런 기제 때문이다.

6) 신념의 불확실성과 모험성

어떤 신념을 갖고 개연적(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인 결과에 근거하여 행위를 하는 데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따른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행위를 하는 것이 모험이다. 모험에는 성패의 개연성을 알고 하는 계산된 모험이 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모험 있다. 복권을 사서 목돈을 얻는다는 모험은 이미 개연성의 실적이 있고 계산된 확률도 있는 신념에 의한 모험이다. “죽어서 천당에 간다”는 종교적 신념을 따라 헌신하는 행위는 실험의 입증 없이 개연성만을 예측할 수 있는 신념의 모험이다. 그러므로 어떤 신념을 지니거나 그 신념의 행위를 하며 그 개연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데는 위험도를 고려한 결단을 필요로 한다. 개연성이 낮은 신념을 갖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위험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그 신념을 방어하거나 그 신념의 결과를 보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된다.⁹ 그런 방어 기제는 굳이 신념의 실제 효용성 발현보다는 그 신념을 지닌 사람들 자신의 불안감을 처리하려는 보상 행위이기도 하다.

미신적 기복 신앙에서 그 결과를 얻는다는 개연성에 대한 확신이 낮기 때문에 그 것을 외부 힘에 의해 달성하려는 종교적 의식(기도나 제례)의 더 강도와 빈도를 높여 하게 된다. 기독교의 “아멘”을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백일 철야 기도와 대부흥회나 불공 같은 것은 그 개연성에 대한 확신이 낮은 것에 정비례해서 더 열심히 해야 신념의 강도를 유지하여 정신 에너지의 산술적 균형을 갖게 된다. 신념의 강도, 의례행위의 빈도, 신념의 현실화 개연성 세 가지 사이에는 삼각형의 상호관계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가제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연장해 본다.

첫째, 신념의 강도가 그 신념의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이는 기본 독립변수는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복권에 당첨될 것이라는 신념을 아무리 강하게 갖더라도 그가 당첨될 개연성에는 영향이 없다. 또는 자기가 반드시 천당에 갈 것이라고 아무리 강한 신념을 갖더라도 그 개연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행동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의 교리의 실상과 허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떤 신념이 현실화되는 빈도와 그 신념을 개인이 지니는 강도는 정비례한다. 자기의 배우자나 어떤 친구가 약속을 지키는 일이 항상 발생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념의 강도는 높게 유지된다. 반대로 대통령 같은 공직자가 말을 함부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신념은 매우 약하게 된다.

셋째, 어떤 신념의 결과를 현실화하려는 의례적 행위는 신념의 현실화 개연성과 관계가 없다. 올림픽 수영에서 신기록을 세우겠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신체기능을 연구하며 훈련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행위이며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과 관계있다. 그러나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방법론이 부적절

9. 샤이브, p. 25-29.

하여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없는 의례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신념의 현실화 개연성과는 관계없다. 의례적 행위는 단지 그 신념의 강도를 높게 유지하는데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다.

넷째, 신념의 현실화 개연성이 없어도 신념의 강도를 유지하는 의례적 행위가 지나는 의미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지니는 동안 그 신념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개신교회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존속하는 이유는 의례적 행위에 부여된 의미를 아직 많은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례적 행위의 의미조차 상실될 경우 그 신념은 강도를 유지할 수 없다. 유럽에서 교회들이 문을 닫는 차이가 그런 것이다.

3. 역할 기대와 신념

1) 역할 및 관점의 환치와 행위 변동

사람은 주어진 어떤 새 역할에 관련되어 모종의 기대를 받게 된다. 그 기대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 역할 모델의 일부를 수행할 기회가 되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즉 역할이 바뀌면 그 역할에 맞게 수행도 달라진다. “자리가 말한다”는 예를 나는 미국의 정부 고위 공직자들 세계에서 많이 경험했다. 학력과 경력이 보장것 없는 젊은 사람들이 선거운동 때 길거리에서 앞장섰다가 선거에 승리한 후에 낙하산 보직을 받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상급자 행세를 제법 해내며 수하 사람들도 따라주는 것이 미국 공직자의 기강이다. 그러나 능력이 모자라 못 감당해내거나 실수를 하여 물러나거나 무능하게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4.19 세대의 학생 투쟁가들이 성인이 되어 정치권에 들어가 부패한 정치인의 역할을 답습하는 것은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보다는 역할의 변화 때문이다. 경영진을 노동조합의 간부로 임명하고 반대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회사의 경영 간부로 임명한 실험에서 역할이 달라지면 견해가 달라진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직위를 본래대로 다시 환원하면 그들

의 견해도 다시 환원된다는 것을 리버만의 실험에서 확인했다.¹⁰

광주 학살, 정보기관의 고문, 어린이들의 왕따가 발생하는 것은 그 행위자 개인들의 성품이 포악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행위는 단지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 전달된 기대를 완성한 것이며 신뢰를 행위로 나타낸 것이다. 나치 하수인들이 학살 명령을 수행한 기제에 대해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실험 결과가 있다. 미그램은 전기고문 실험 대상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그들은 전기고문을 받아 마땅하다는 지시에 따라 피험자는 명령받은 대로 가학행위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¹¹ 사람은 지시자에 의해 여건이 형성되면 독사를 맨손으로 집어 들거나 염산 속에 동전이 끓고 있는 실험용기에 손을 넣어 동전을 꺼내라는 지시에 따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그램은 입증했다. 남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는 등 극단적 행위를 지시자가 말하면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에서 입증됐다. 이런 실험 사례(물론 실재는 안전한 조건에서 위험 상황을 위장하여 실시한 실험이지만)는 어떤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가치를 수행하는 것이 그 역할의 일부라고 교시하면 그런 가치들이 그 적용될 상황이 닥칠 때 실제행위로 옮겨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런 극단 행위들은 결코 보편적은 아니지만 부여된 역할에 따라 극한적 가치 행위까지도 형성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흉악범, 도둑, 횡령자들, 정치 하수인, 고문집행자, 정치 봉당, 모리배, 광신 종교인들 그들은 이러한 역할 기대의 하수인들이거나 스스로 부도덕한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건을 구성하여 그에 수반하는 역할 기대를 집행하는 역할 수행자들일 수 있다. 북한에서 정권의 하수인들이 동족을 굶어 죽도록 방치하고 사람들을 ‘반동분자’로 낙인 찍어 잔인한 학대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역할 기대에 의해 형성되는 신념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그램의 연구에서 40%의 피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치

10. Liberman, "The effect of changes in roles on the attitude of role expectants," *Human Relations*, 1956, 9, 385-402.

11. Migram, S. "Group pressure and action against a pers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4, 69, pp.137-143.

관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성은 신뢰할 만하다.

정신과 의사들이나 카운셀러들이 그룹치료 방식에서 역할 전위방식을 사용한다. 즉 고부간의 갈등을 다룰 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역할을 맡기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며느리 역할을 맡기어 즉흥 대화극을 연출시키면,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 좀 더 이해와 아량을 가진 인간관계가 발전한다는 치료방식이다. 실생활에서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을 다루는데 이 역할 전위방식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자기의 통제감과 신념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의 백분의 1 정도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행기 여행보다도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 여행을 더 안전하다는 신념을 갖는다.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자동차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박장의 슬랏머신에서 돈을 잃고 따는 확률은 완전히 컴퓨터로 조작되지만 슬랏머신에 컨트롤 레버가 더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기계를 자신이 통제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신념을 갖고 몰려든다는 것이다. 정치에서 시민들이 참견할 기회를 많이 주면 그 결과로 여하튼 시민들은 그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정치과정에서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신념이 보강되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에서 ‘국민들 자신들의 건강을 통제할 권리를 빼앗겼다는 인지가 촛불시위 파동으로 변졌다. 시민의 자기 통제의를 차단하거나 줄이는 정치와 마찬가지로 신도들의 의견을 억압하는 ‘제왕식 목회’는 구성원들의 자기 통제 요구와 그 요구가 충족된다는 신념을 저해하는 우매한 선택이다.

한국의 정치에서 유권자 향응이나 선물 공세로 표를 사는 정치로 되어 정치 활동 비용이 높아지고 그 자금 조성 때문에 정당 규모의 비리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방법의 하나는 무엇인가? 정치과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념을 일부 특수층만이 독점하지 말고 국민에게 고루 그런 신념이 진실 되다 감각을 맛보도록 공개 보편화 하는 것이다. 민족의 오랜 정치사

에서 국민이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극히 미소했다. 교회에서 목사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모든 일을 자기 멋대로 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상속하는 행태는 도덕적 정당성 논의는 고사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기본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다. 교인들의 참여의식, 교회의 과정에 교인들 각자 컨트롤을 지니고 있다는 신념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 복종만을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에서, 이런 교회들에서 시민과 신도들의 낙관이 무너지며 불화의 계곡이 깊어진다.

3) 신념의 조작과 악용 가능성

선택의 여지가 무엇인지를 모르며 자신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가치관이 관계된 예측을 하라고 강요하면 사람들은 그 선택할 여건들이 진실을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즉 국민과 국가를 위한 참된 정책이라고 판단할 만한 정강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파벌의 결정에 따르거나 아니면 도태되든가 선택을 하려면 사람들은 올바른 행위를 예단할 수 없다. 교회 목사의 아들에게 교회 당회장 직을 세습하려는 시도가 지닌 도덕적 가치 측면에 대해 선택할 여지를 두지 않고 단지 모두 승복하라고 목사와 지지파들이 일반 신도들에게 강요하는 경우 신도들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느냐에 따라 행위의 폭이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다. “확신한다”는 말을 하라고 요구받을 때 사람은 “확신한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조작될 수 있다.¹² 부흥사가 “아멘 하시오”라고 요구할 때 사람들은 쉽사리 “아멘”이라고 말하고 그 순간 자기도 그런 부흥사의 주장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법정에서 증인이 강령법 변호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변호사가 유도하면 자기의 위증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어떤 군중을 만나느냐에 따라 정치인의 공약이 변하기도 한다.

어떤 의사표시를 하라고 압력을 받는 경우 사람들은 자기 본래의 신념

12.Scheib, p. 107.

을 왜곡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이 가진 정보량이 적은 때에 어떤 신념을 왜곡하라는 압력에 따르는 효과가 나타나기 더 쉽다.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의사 표시를 하라는 압력에 따라 신념을 왜곡하거나 어떤 편향될 가능성이 적다. 국민에게 국가 행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언론을 차단하는 정치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편으로 국민의 신념을 왜곡하기 쉽다. 교회 정치에서 교인들에게 지식보다 맹신을 강조하고 교회 행정에 관해 공개하지 않는 목사는 교인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왜곡하기 쉽다.

여러 정보 중에 어느 것이 타당성이 더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 생길 때, 자기에게 익숙한 가치관에 가장 강하게 연결된 정보(신념)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잘 아는 이슈에 대해 사실이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는 가치관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가 잘 모르는 이슈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관해 타인이 주장하고 있는 선택 여지에 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6장 립톤의 신념 생리학

1. 신념의 생리학

우주 창조 신화(mythos) 창세기는 사람 남녀가 피차 간에 매력을 인지하고 애인 관계를 거쳐 부부로 평생 공조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기본 신념(belief)으로 서술한다. 뱀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원인을 사람의 운명에 뱀이 제일 먼저 악연으로 걸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대부분 고대 신화들은 생물이 환경과 자극, 대상에 관해 객관적 현실을 인지(aware)하는 것을 의식(consciousness)이라고 것을 서술한다. 생물이 의식한 단서(clue)로부터 그 자극에 대한 자체의 반응을 감지(sensation)하는 것이 정서(emotion)다. 자극이나 대상에 대한 인지에 정서가 추가될 때 온전한 인

식(perception)이 형성된다. 환경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인식(perception)에 의해 통제된다. 정보에 대한 반응이 인식한 수준을 넘어 행동할 태도를 갖게 한다면 신앙(faith)이 된다.

그 인식의 단위 정보가 신념이다. 그 정보는 단순하고 막연한 이미지(image) 단서로부터 복합적 신념의 체계인 이념(ideology)까지 다양하다. 보이지 않은 대상으로부터의 소리나 아무 소리 없는 희미한 영상이 동물에게 위협스런 대상이라는 정보를 준다며 그 소리나 희미한 영상은 원초적 신념을 이루는 정보다. 그 정보가 정서(안도감 또는 공포)를 일으켜 행동할 태도를 갖게 한다면 그 신념 정보는 신앙이 된다.

신념은 생물이나 사회의 세포 개체가 협동하는 공동체로 진화하는데 근거가 되는 정보 단위다. 사람의 경우 신념은 마음을 통제(mind-controlling)하는 인식들(perceptions)이다. 남녀가 피차 간에 매력을 인지하고 애인 관계를 거쳐 부부로 평생 공조관계를 지속하는 기제에도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신념들이 작용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자기 신념에 의한 결정이다. 인간 사이의 갈등과 싸움, 결별도 신념에 근거한 행위이다. (p. 135)

뱀이 독을 지녔다는 인식 외에, 그렇기 때문에 뱀은 두렵다는 정서가 부가되어 뱀을 피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뱀에 대한 신앙이다. 사람이 모든 뱀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신앙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조건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사가 아닌 뱀들도 있듯이 인식은 사실 아닌 것들도 있다. 그 경우 뱀을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신념과 신앙적 태도에는 허구가 있다.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대상에 관한 신념에 차질과 대립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신경 시스템이 덜 분화되어 자율적 행위보다는 자연이 프로그램화한 행위 양태에 더 의존하기 때문이다. 사람보다 진화의 단계가 낮은 나방이가 위험한 불에 나아들고 철새는 매년 같은 때에 같은 장소로 돌아간다. 이들은 유전자에 프로그램화된 기억에 의해 본능적 행위를 한다. 진화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유기체는 정합된 신경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더 큰

두뇌를 통해 미묘한 행동 양태를 경험으로 학습한다. 이것이 하등생물로부터 인간을 구분하게 한다.

둘째, 정상적인 아닌 돌발적 자극이 인지의 차질을 초래하여 정리된 신념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인간의 혈관 내벽(endothelial)의 세포는 영양을 주면 물러들고 독성 물질을 주면 후퇴한다. 환경 자극에 대한 이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은 성장이나 보호냐 라는 유기체의 기본적인 반응양태를 대표한다. 사람들도 위협 앞에서는 보호-방어 행위에 에너지를 집중하며 성장행위를 보류한다. 위협 신호가 해제되지 않는 상태가 생체에게는 스트레스 환경이 된다. 신념의 차이와 대립은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및 정서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유전인자와 신념

사람의 염색체(genome)에는 약 2만5천개의 유전인자들이 있다. 유전인자 DNA의 기능을 열어주거나 차단하는 것은 유전인자 자체가 아니라 환경이다. 즉 DNA 주변의 여러 단백질들이 발생시키는 전자 자기력의 부하(charge)가 DNA의 작동을 통제한다. DNA가 자체를 통제한다는 이론은 가설이었을 뿐이다.¹³

인지의 차이

인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화의 단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타 동물보다 높은 단계로 진화한 원인은 더 높은 차원의 인지(awareness)기능을 갖도록 상승한 때문이다. 그 인지 지능(intelligence)은 세포막의 감수(receptor)를 효율화 하는 단백질 합성체(receptor effector protein complex)들이 증대함으로써 가능하다.¹⁴ 그 감수 단백질(receptor protein)은 환경의 신호를 감지하는 미세한 안테나와 같은 기능을 한다. 감수 단백질 중에서 신체 내면 현상을 감지하는 것은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의

13. Bruce Lipton, *The Biology of Belief: Unleashing the Power of Consciousness, Matter and Miracles*, Sant Rosa, CA: Elite Books, 2005, 52-61p

14. Lipton, Ibid, p. 197.

변화를 감지한다. 신체 외부를 감지하는 감수 단백질은 환경의 신호(빛의 파동이나 음파 등)를 감지한다.

환경의 에너지 파동의 진폭과 감수 단백질이 공진하면 감수 단백질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 반응을 촉발하는 단백질(effector protein)은 환경의 신호에 따라 세포의 활동을 촉발하는 에너지를 산출하며, 새 단백질도 생산하여 낡은 단백질을 교체한다.

이런 단백질들이 세포 지능(cellular intelligence)의 기본 단위이며, 인지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다.¹⁵ 감수-반응 단백질들(receptor-effector proteins)의 양이 증대하는 것이 진화이다. 즉 인지 감수하며 반응하는 단백질이 증대할수록 그 생체는 진화의 사다리에서 더 앞서게 되는 것이다. 두뇌의 대뇌피질의 구조가 복잡하고 표면적이 클수록 인지 감수 단백질이 증가한다.

세포막은 컴퓨터의 메모리 칩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째, 세포들이 컴퓨터의 메모리 칩처럼 신호에 의해 프로그램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런 프로그램이 컴퓨터 칩이나 세포 외부에 별도로 작성되고 저장되었다가 필요한때 기능한다. 생물의 행위나 유전자의 활동도 환경으로부터 세포에 다운로드하는 정보에 역동적으로 연관된다. 유전인자를 통제하는 세포핵의 DNA가 세포의 프로그램을 통제하지 않고 세포막의 감수 단백질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 데이터가 좌우한다. 즉 특정 환경의 정보를 생체 행동의 언어로 바꾸는 것은 세포막의 단백질이다.¹⁶

생체의 기능이 보이지 않는 환경의 영향력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는 이 원리는 화학적 약물 뿐 아니라 환경 에너지가 심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의학의 문을 열어준다. 즉, 신념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유(神癒)의 원리를 설명한다. 또한 환경의 신호란 물리-생화학적 현상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 대인 관계에서 언어를 통한 신호 등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이 점에서 각자의 신념이나 타인들과 공유하는

15. Lipton, Ibid, pp. 83-87.

16. Lipton, Ibid, p. 92.

이념이 개인에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제를 이해할 수 있다.

대뇌연변계(limbic system)의 진화는 동물로 하여금 환경으로부터 입수되는 자극의 화학적 신호를 감각적 신호로 변환시켜 생체 공동체의 모든 세포들로 하여금 그 감각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인간의 의식적 마음은 이 신호들을 정서로서 경험하게 됐다. 인간의 의식적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세포들 간의 신호를 판독할 수 있는 기능 뿐 아니라 자체의 정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능도 갖게 됐다. 사람의 정서는 신경을 통해 신체를 규제하는 신호들을 전달하는 기능도 통제할 수 있게 됐다.¹⁷

2. 잠재의식/의식적 마음과 신념의 차이

인간은 의식적 마음(conscious mind)과 잠재의식(subconscious mind)으로 이중 의식을 지니도록 진화했다. 의식적 마음은 자아 반성의 역할을 통해 자기의 행위를 관찰하며 환경의 자극에 대해 임의롭게 창의적 새 반응 행위를 창조하는 역할을 지닌다. 우리가 단지 (타의에 의해, 잠재의식 속에) 프로그래밍 된 행위 양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을 창조하는 진정한 자유의지의 근간이 의식적 마음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부모에게서 관찰한 기본적인 행위들, 신념들, 태도들이 우리의 두뇌의 신경 회로에 하드-와이어링 된 기억 정보로서 형성된다. 잠재의식은 매초 약 2천만 개의 환경 자극 신호를 처리한다. 이에 비해 의식적 마음은 매초 40개 정도의 신호를 처리할 뿐이다. 일단 잠재의식에 프로그램 된 정보는 우리의 생리를 평생 동안 통제한다.

잠재의식은 항상 현재의 순간에 작용하지만 의식적 마음은 시간을 따라 앞으로, 뒤로 생각한다. 부모가 우리에게 건전한 행위들로 프로그램 했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적인 삶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잠재의식에서는 자아 인지(self-awareness)가 작용하지 않는다. 잠재

17. Lipton, Ibid, pp. 131-132.

의식에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행위의 레퍼토리는 아무리 인출 버튼을 눌러도 나오지 않는다. 자판기에 넣어둔 음료나 물건이라야 나온다. 또한 이미 잠재의식 속에 프로그램화 된 내용은 단순한 의식적 노력으로 바꾸기 어렵다. 두뇌에 하드-와이어링 된 잠재의식 내용은 재프로그래밍을 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¹⁸

에너지와 영혼에 관하여

원시인에게서 자연과 사람 모두가 영으로 연결되어 통한다. 영계와 과학을 분리한 것은 코페르니쿠스 1세기 후에 데카르트의 과학적 분석 방법으로 포착되는 것만이 진리라는 데서 시작된다. 1959년 다윈의 진화론은 모든 생명 현상은 유전자의 기능이라고 한정하면서 신의 작용을 배제했다. 다윈의 적자생존론은 또한 삶의 목적을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제한했다. 신다윈주의(N대-Darwinism) 역시 “가진 자는 더 가질 자격이 있다는 식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대~한민국, 삶의 목적은 생존을 위한 투쟁인가?]

동물인 사람은 단백질로 구성된 기계와 같으며 우리 몸의 기능적인 단백질 모든 분자는 각 환경의 신호를 보완하는 이미지로 구성됐다. 그 환경이란 우주이며 유신론자들이 말하는 신이다. 환경의 신호가 있어야 우리 신체의 단백질은 기능을 한다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¹⁹

3. 뇌파의 조율과 공진

호주의 원주민들은 사막의 모래 밑에 있는 물을 감지하고 아마존의 샤먼들은 약초의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밤 길에서 갑자기 에너지가 빠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파괴적인 생각의 뇌파로 인해 신체 기능의 조율이 벗어나기 때문이다. 마치 물결이 반대 파동에 부딪치면 그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건설적인 영향력이 작용할 때 (공진) 에너지

18. Lipton, Ibid, p. 170.

19. Lipton, Ibid, p..188.

가 증가된다.²⁰

신념 갈등의 바탕 중 한 가지는 의식의 노력이 잠재의식의 방해에 압도되는 때문이다. 특히 잠재의식에서 자동적으로 출현하는 불신, 혐오, 의심의 정서가 합리적 의식이 처리하는 사실들을 왜곡하며 계산의 오차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천안함 사고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해 국민의 5분의 1 정도가 불신하고 오히려 남한 정부의 조작이라든가 실책 때문이라고 반박하는 데서 잠재의식이 사실을 왜곡하는 거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하층의식(잠재의식, subconscious mind)은 부모가 임신 전의 심리적 준비 과정부터, 태교, 출생 후의 유아교육, 성장과정의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엄청난 변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아기 때에 부모와 신체적 접촉이 지능 발달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아기 때 신체적 접촉이 부족하면 그 아이는 신체적 애정 감각기능 부전증(somatosensory affective disorder)으로 고통받으며 스트레스 홀몬의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다. 어릴 때 안아주며 성 의식 발달을 억압하지 않는 문화는 평화롭다. 아기 때에 안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비정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난폭하게 된다.²¹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의지의 힘(will power)을 중시하여 하층의식에 프로그램된 정보를 압도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항에 부딪칠 뿐이다.

잠재의식이 비효율적이라는 현실을 바로 보면 강도 높은 투쟁을 중단하고 그 대신에 잠재의식을 재 프로그래밍하는 치료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하층의식에 프로그램된 내용에 대응해서 합리적으로 담론을 한다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프로그램된 내용을 바꾸려면 양자 물리학의 방법(에너지와 생각을 연결 짓는 방법)에 의존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생물학적 에너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심리학적 접근이다.

우리 두뇌에서 전뇌 피질(prefrontal cortex)은 자아의식을 처리하는

20. Lipton, Ibid, p. 120.

21. Lipton, Ibid, p. 170.

자리이다. 자아의식이란 자기반성(self-reflective) 기능, 즉 자기의 행동과 정서를 관찰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두뇌에 수록된 장기성 기억(long term memory) 데이터 뱅크에 접근, 기억을 인출하여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능으로서 진화과정에 가장 최근에 출현한 것이다.

이 기능을 이해하면 공연 예술이나 예배에서 메탈릭 음악은 의식적 마음의 자기반성을 환경의 소음 자극으로 얼마나 방해하는가를 이해하게 한다. 우리의 두뇌 의식은 환경의 자극에 반응할 것인가, 기억에 의해 처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항상 놓이게 된다. 기억의 정보는 잠재의식에서 자동적으로 돌출되는 것과 장기성 기억에서 의식적 노력에 의해 인출되는 두 가지가 있다. 잠재의식의 마음에 프로그램 된 신념과 행위 양태를 의식적 마음으로써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은 인간 자유의지의 기반이다.²²

신념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통제한다. 인식(perceptions)에 따라 세포막의 스위치가 열리거나 닫힌다. 혈관의 내벽 세포들은 영양분이 들어올 때 세포막의 문을 열고 환영하지만 독성 물질이 들어올 때는 세포막의 문을 닫아 방어태세에 들어간다. 신념은 카메라 렌즈의 필터처럼 자극의 특성이 과도한 것을 걸러서 막는다. 신념의 구성요소인 인식의 필터는 자체와 유사하거나 아름답다고 판단되는 자극들에 대해 친화적 반응(attractive reaction)을 하지만 해롭거나 독성을 지닌 자극에 대해 배척 반응(repulsive reaction)을 한다. 한국인들이 정서적으로 반응한다는 말은 대뇌변연계 (limbic system)에 잠재의식으로 기억된 프로그램들이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념에 따라 색깔을 선별하고 혐오, 배척, 공포, 협동 등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다.

22. Lipton, Ibid, p. 134.

7장 신념의 가치

신념이란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가를 인지의 수준에서 체계화하여 지니는 지식 정보들이다. 가치란 자기의 요구와 관련하여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선호할 만한가를 평가하여 형성되는 지식 정보들이다. 가치 정보는 자신의 요구(동기)와 관련하여 선택하거나 배척하는 기준을 준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그 사람의 요구(동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치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요구-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신념과 요구-가치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지식 정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신념과 요구-가치 사이의 기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 사람 또는 한 사회가 어떤 신념을 가지는 지는 그 사람(또는 사회)의 가치 설정에 영향을 주며, 한 사람 또는 한 사회의 가치관이 신념의 기저를 형성하기도 한다.

1. 요구-가치와 신념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 지니는 신념에는 자기의 요구와 관계된 내용이 들어 있다. 즉 자기의 요구 충족에 관련된 것은 가치를 두지만 자기 요구와 관련이 없는 것에는 가치를 안 둔다. 그러므로 신념의 형성과 변화에는 가치 측면이 고려되며 신념의 내용 중에 어떤 가치성이 과잉 표상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신념의 특정 가치성은 개인의 이익과 손해에 관련된 일차적 가치성과 집단의 이해에 관계되는 이차적 가치성 두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두 수준의 가치성은 개인과 집단 사이의 신념과 요구-가치 사이에 있어서 일치, 상반, 무관 등 최소한 세 가지의 역동적 관계를 갖는다.

- 일치: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신념의 일차적 가치가 집단에게도 이로운 이차적 가치성을 지닌다면 공조 행위를 위한 태도가 형성되기 쉽다.
- 상반: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신념의 일차적 가치가 집단에게는 해가 되는 이

차적 가치성을 지니는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행위가 발생할 태도가 형성될 여지가 있다.

- 무관: 개인에게 손실이 되는 신념의 일차적 가치가 집단에게는 이익이 되는 이차적 가치성을 지니면 개인의 일차적 가치를 양보하는 이타적 행위를 선택하도록 요구된다. 그 경우 개인에게는 협동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협동을 거부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

이렇게 신념의 가치성은 개인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의 공조와 협동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러한 상호 영향이 반드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value-neutral) 신념들도 있다. 사실 가치와 신념이 항상 존재하는 모든 인식과 정보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념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가치들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가치-중립적인 신념들이 형성되었을 때, 그 중립적인 신념들이 공조와 협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에 관련되는 외연적 변수는 무엇인가를 연구할 만하다.

1) 가치의 복합성

특정 신념에는 단 하나의 가치보다는 일정한 폭의 몇 가지 가치들이 함께 내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가치의 대상을 어떤 상황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그 가치들의 변환 폭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살기 위한 투쟁을 할 때 그에게서 신의 존재는 자기에게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가장 중요성을 갖는다. 그가 중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그는 무신론자였든가, 신을 자연의 초월적 섭리자, 또는 역사를 주관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존재라고 폭 넓은 사회적 가치에 연결 지어 막연한 신념을 지녔었을 수 있다. 신을 치병의 최종적 수단의 원천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면 그는 신의 치유에만 집중하여 남에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희생하지 못하고 죽는 순간에 그는 영혼의 내세를 주관하는 신, 그리고 유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신으로 그 가치가 전

환될 수도 있다. 2천 년 전에 로마의 폭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자기들의 생전에 왕국을 재건할 기대됐던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한 신념은 그의 처형 후에 메시아 재림에 대한 신념으로 변환했다. 그 재림 왕국이 1세대 추종자들의 생존기간 안에 도래하지 않고 지연되자 그 신념은 다시 변환되어 영혼의 구원과 죽음 후의 내세의 영원한 삶에 관한 신념으로 변환됐다.

어떤 문화사회에 대한 신념, 혹은 정치적 관계에 대한 신념에도 넓은 폭의 가치들이 내재한다. “미국에 안 가본 것이 자랑스럽다”고 자랑하던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와 본 후에는 “미국은 배울 것이 많은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미국에 왔을 때는 미국 대통령의 대 북한 강경 단계적 정책에 동조한다고 공언하고 한국에 돌아가서는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사람들 듣기 좋게 얘기해야 됐기 때문”이라면서 다시 “햇빛 정책을 계승한다”고 신념의 환원을 공언했다. 그런 현상은 대통령 개인 혹은 그 보좌관들의 신념을 이루는 가치들의 폭이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핵심 신념에서 상당히 먼 거리로 오락가락 한다는 구체적 예이다. 사람이 좁은 폭의 확고한 신념만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가변적 융통성 때문에 인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번영한다. 신념을 구성하는 가치의 폭이 다양하며 가변성을 지닌 때문에 과학적 창의나 경제-문화 발전, 종교와 정치 혁신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민족, 특히 북한인들의 의식구조와 의식 내용이 고질화 되어 굳어 있다고 낙망할 이유는 없다.

2) 신념과 가치의 상호 관계

흔히 신념과 가치를 구분하지 않지만, 사실 이 둘은 별개이다. 지렁이를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만으로는 사람이 지렁이를 먹지 않는다. 징그러운 것을 먹고서라도 병이 낫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가치를 둘 때, 그것을 먹는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념과 가치는 별개이지만, 또한 상호 작용을 통해 어떤 행동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즉, 우리가 결단할 때 신념과 가치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는 행위를 유발하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말

이다. 신념만으로는 행위가 유발되지 않으며, 가치 판단에 근거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것과 연관될 때, 비로소 행위가 일어난다. 한편, 가치 또한 그 자체로 행위를 유발하지 않는다. 신념에 의해 성취하려는(요구 충족을 현실화하려는) 행위에 대해 가치는 타당성을 부여한다.

신념과 가치에 대한 쉐이브(Karl E. Scheibe)의 정의를 보면 좀 더 명확히 구분된다.²³ 신념은 사실성(인지의 수준에서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진실 또는 진실에 가까운가)에 일차적으로 근거하여 형성된다. 가치란 동기와 관련하여 선호성(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선호할 만 한가)을 평가하여 형성된다. 신념을 주장하는 명제는 무엇이 가능한가, 존재하는가, 발생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의 기대 정서, 주관적인 개연성, 가정적인 언어, 인지 구도(mapping) 등의 형태로 된다. 가치란 어떤 상황, 조건, 개체의 존재 상태 등에 관해 사실성(진실성 혹은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가치는 무엇이 선호할 만 한가(바람직 한가, 무엇이 되어져야 하나)를 판단한 결과이다. 가치는 희망, 요구, 목표, 열정, 행동 역량, 도덕 등의 행위 다이나믹을 내포한다.

신념과 가치의 구분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위한 결단에서 도덕성의 측면을 배려할 정신 공간이 있다는 것을 다시 조명한다. 북한에 거액 자금을 주고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만으로는 그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밀리에 거액을 주고서라도 회담을 성사시키면 이득이 있다는 가치 판단에 이어 자금을 주고 회담을 갖기로 선호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이혼이나 조직 폭력 행위 그 저변에도 그런 행위 결단이 가져다줄 결과에 대한 신념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가치 선호를 판단하고서 행위가 발생한다. 그런데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그 가치 판단에서 어느 쪽으로 선호하느냐를 잘못 유도할 수 있다. 가정파괴 또는 범행을 하고서도 자신에게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또는 전혀 없다는 신념이 있을 때는 그런 파괴적 행위를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

23. 쉐이브, pp. 41-42

이렇게 신념과 가치의 상호 작용 및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신념과 결부되어 가치가 어떻게 행동을 유발하는지, 가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가치와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사이의 다이내믹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가치는 무엇이 선호할만한가(바람직한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를 판단한 결과이다. 가치에는 희망, 요구, 목표, 열정, 행동 역량, 도덕 등의 행위의 다이내믹이 잠재하여 내포된다. 북한에 거액 자금을 주고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만으로는 그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밀리에 거액을 주고서라도 회담을 성사시키면 이득이 있다는 가치 판단에 이어 자금을 주고 회담을 갖기로 선호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신념과 가치 두 개의 기본 축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위한 결단에서 도덕성의 측면을 배려할 정신 공간을 설정한다. 그래서 어떤 특정 행위가 신념과 가치의 축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도덕성(공조성) 눈금에 위치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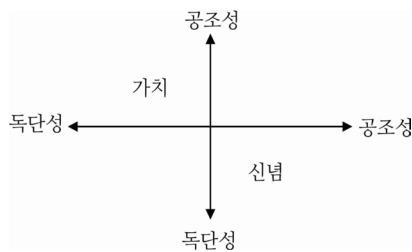


그림 1. 가치 - 신념 사이의 가능한 상호작용성 (가로축: 신념, 세로축: 가치, 정방향: 공조성, 역방향: 독단성)

위의 축들에서 독단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공조성이 결핍된다. 종교적 신념

이 독단적이어서 공조성이 결여되고 공조에 가치를 두지 않을 경우 교회에서 교조주의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독단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분란이 생긴다. 사회에서 집단 간에 자기 그룹의 신념만이 옳고 그 신념을 고수하는 것만이 가치를 지닌다고 고집하여 갈등이 악화된다. 가정을 파괴하는 이혼이나 조직 폭력 행위 그 저변에도 그런 행위 결단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한 신념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가치 선호를 판단하고서 행위가 발생한다. 그런데 ‘가능성’에 관한 신념이 그 가치 판단에서 어느 쪽으로 선호하느냐를 잘못 유도할 수 있다. 사기횡령이나 살인강도 또는 가정파괴 또는 범행을 하고서도 자신에게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또는 전혀 없다는 신념이 있을 때는 그런 파괴적 행위를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와 행동 동기, 또는 신념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가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일차적 가치와 부가적 가치들

사람들은 일차적 가치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된 부수적 가치들에 의해 유발되는 동기를 통해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부가적 가치란 본래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던 것이 이미 가치 있는 것과 연관됨으로써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가적 가치에는 상징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포함된다.

상징적 가치란 어떤 국가나 단체를 대리 표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는 국기를 가지는데, 사실 국기란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한낱 섬유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깃발이 한번 만들어지고, 거기에 국가와 단체의 정체성이 부여되면 그 상징적 가치를 위해 다양한 행동이 유발된다. 예를 들어, 전쟁 중에 국가의 깃발이라는 그 상징적 가치를 위해 병사가 생명을 걸고 선수들이 혼신을 다해 지키려는 동기를 행동화 한다. 기념품이나 트로피는 그 자체로는 별로 값없는 사소한 것이지만 어떤 중요한 사람, 장소 또는 사건과 관련지어질 때(조건화될 때) 대단한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 미술품이나 골동품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써 정서를 일

으키는 효과를 갖지만 그 외에도 개인의 취미 또는 경제력 같은 사회적 위상을 표상하는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

두 번째로, 수단적 가치가 있다. 수단적 가치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돈(화폐)이다. 사실 사람들이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여 값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교환수단이라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징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결혼반지는 부부의 평생을 사랑과 헌신으로 연결하는 세상에서 상징적 가치가 가장 큰 물체이지만 그 자료인 귀금속의 교환 가치에 따라 본래의 상징적 가치에 수단적 가치가 가감되기도 한다. 우표와 동전은 통화처럼 수단적 가치와 함께 또 다른 대상(우표나 동전의 인물이나 기념비적 사건)을 표상하기 때문에 수집가의 위상을 과시하는 상징적 가치도 지닌다.

따라서 부가적 가치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해야 할 이유는 삶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가 적용되고, 그 가치에 따른 다양한 행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치 설정과 적용의 다양성은 좋은 의미로는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혁명적 원동력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가 변질될 요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2) 가치를 변질시키는 조건화: 수단적-의례적 조건화

왜 독재에 순수하게 항거하며 학생혁명을 외쳤던 4.19세대나 6.28세대, 그리고 근년에는 386세대라고 긍지를 가졌던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든 후에 왜 구세대와 다를 바 없이 부도덕하고 지각없는 행태를 벌이는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웨이브의 가치 조건화(value conditioning)를 들어볼 수 있다.²⁴ 가치의 조건화란 본래 그 자체로는 의미 없는 대상(자극 또는 상징)이 어떠한 직접적 만족감과 짝을 짓게 될 때 그 본래 직접적 만족을 주었던 대상에 대해 일으켰던 반응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전형적 조건화의 예로는 파블로프가 개에게 종소리와 고기 가루를 짝지어 훈련

24. 웨이브, p. 52

시켜 조건 반응을 형성함으로써 종소리만 들어도 개는 침을 흘리게 된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조건화는 기념품에서도 잘 나타난다. 기념품이란 어떤 소중한 사람의 유물이나 여행지에 관련되어 생산되고 판매되는 것인데, 기념품을 사는 행위는 그 기념품 자체가 아니라, 기념품에 연관된 다른 기억들이나 가치들을 사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으로 조건화 된 가치라 할 수 있다. 파블로프의 실험이나 기념품 구입과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결과가 없는 의례적(儀禮的ritualistic) 비수단성 조건화이다. 반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조건화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침팬지에게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고 땅콩을 꺼내 먹는 훈련을 시킨다고 하자. 침팬지에게 동전은 땅콩을 꺼내 먹기 위한 수단적(instrumental) 가치가 조건화 된 학습 매개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조건화는 주로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편인데,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가치 학습을 통해, 의례적 및 수단적 조건화 과정을 통해 조건화 된 가치를 체득하게 된다.

다시 위에서 언급했던 4.19세대, 6.28세대 그리고 386세대의 순수했던 저항의지가 왜 정치인이 되었을 때에는 변질되는 것일까? 그것은 정치라는 공적 영역에 들어서면서, 젊은 시절, 스스로를 움직이게 했던 가치와 신념의 상호작용이 의례적이고 수단적인 가치로 변질되고, 그러한 변질된 가치가 학습된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3) 부가적 가치의 동기화

어떤 가치가 다른 사물에 연관되어서 부차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형상은 인간의 기본 동기를 선택적으로 지배한다. 레미제라블에서 성당의 은촛대는 장발장의 도둑질 동기를 유발했으나 신부에게는 용서와 자선의 동기를 유발했다. 부차적 가치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가치가 전염되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독재와 부패에 대해 부정적인 일차적 가치를 지녔던 민주 개혁가들이 정치인이 된 후에 부패하게 되는 이유는 권력과 부패라는 이차적으로 조건화 된 가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회정의’는 상징적 가치에 머물고 권력과 화폐는 수단적 가치로서 현실적 요구 충족

을 준다. 그러나 상징적 가치에 대한 조건화가 수단적 가치에 의한 조건화보다 열세하지만은 않다. 신념의 축에서 어느 좌표점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상징적 가치에 생명을 걸 수도 있다.

한국에서 이차적 가치인 돈이 가치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준거점으로 되어가고 있다. 정치계의 뇌물과 기업계의 로비 같이 불법이 드러난 현상만을 탓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 문화의 근간이 자본주의에 잘못 염색되어 상징적 가치보다 교환 수단적 가치에 집중된 것이 문제이다. 초급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는 데서부터 대학교수 취직에 역대 의 현찰 뇌물이 개입된다는 현실, 종교 교단 회장을 선출하는데도 금품과 접대로 투표를 매수하는 작태는 사회가 교환 가치에만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얻는데 그 교환수단인 화폐를 많이 가져야 하는 사회,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 남을 강압적으로 위협해야만 하는, 금력과 권력이라는 두 가지 수단에 주로 의존하는 사회는 ‘빈곤의 문화’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에서 탈출의 도구였던 자본주의의 암에 걸린 사회라 할 것이다.

상징적 가치를 수용하거나 소화하기를 거부하고 ‘경화’(硬貨, hard currency)를 필요로 하는 것은 생존 수단이 절실히 필요한 ‘빈곤의 문화’(culture of poverty)에 조건화 된 현상이다. 미국을 포함한 북남미 국가들에서도 빈곤의 문화에 사는 계층에서 마약 밀거래와 갱 범죄가 횡행하는 것은 그들이 선택한 존재 양식에 필요한 자원을 구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드 커런시’를 탈취해야 된다고 인지하여 그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재능 있는 어린이의 창의력을 빈 마음으로 장려해 주지 못하는 초급학교 교사나 유능한 후진 학자에게 교수직을 양팔 벌려 열어 주지 못하는 대학 행정가들이 ‘빈곤의 문화’에서 허덕이는 마약 갱들보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더 우월한가? 교인을 우롱하여 고가의 선물을 받아내는 목사도 ‘빈곤의 문화’에 내재하는 부수적 가치에 조건화 된 상태에 있어서 그런 것이다.

미국이 한국보다 나은 이유는 국토와 경제 규모의 크기보다도 인간관

계라는 바탕에 1차적 가치관들이 건재하여 그 가치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치의 액면대로’라는 말은 어떤 가치의 상징이 그 본래 표방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에티켓’과 ‘친절’은 배경이 없어도 순서와 절차에 따라 돈 안들이고 기본적 공공 서비스를 미소로써 친절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차적 가치인 화폐가 한국에서 1차적 가치로 떠올라 고착한 현상은 상호 존중과 서비스라는 1차적 가치에 대한 접근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화폐 가치나 권력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는 가치로 상품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절함 미소와 정직한 언어가 유효한 가치로 통용되는 질서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친절함 안내에 인색할 이유가 없어지고 권력과 돈을 탐하는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존경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사회 질서의 기본이다. 불교나 유교, 그리고 기독교 모두, 근본 기조는 사람들 사이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존경과 서비스를 대가 없이 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들조차 인간관계를 화폐 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적인 교환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뇌물 비리 추방을 엄정한 법적 규제에 의해 타의적으로만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행위의 필요성을 자발적 행위에서 감소시키는 문화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데 직접 권력을 가지거나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는 수단을 대신해서 결과 달성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단들이 있으면 된다. 그런 수단으로는 진의를 담은 말, 친절함 얼굴 표정, 긍정적인 성적평가, 평등한 기회 제공 등은 상호 존중과 서비스를 비용 없이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산시설에서, 매장에서, 직장和社会 교류에서 상호 존중과 서비스 정신에서 행동할 때 수많은 공공 규제의 완화와 철폐 등이 일상화될 수 있다. 그것이 정신적 풍요의 기본이다. 그것이 전체 사회가 “웰 비잉”(well-being)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여 잘못 발음되는 “웰빙”(wellbeing)은 남을 상관치 않고 자기 몸 하나 잘되는 것이다. 남과의 상호 존중이나 서비스 개념이 없는 이기주의적 복지관은 ‘웰빙’이지 ‘웰 비잉’이 아니다.

4) 가치척도의 주관성과 다양성

무엇이 자신에게 유용한가에 대한 기준은 대개 주관적이다. 자기에는 중요한 문서가 남에게는 휴지에 불과하고 자기에게는 대단한 보석이 남에게는 한낱 돌조각으로 아무 가치가 없을 수 있다. 금전의 경우는 1천원, 1만원 나누어 객관적으로 통용하는 척도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의 10만원이 부자의 10만원과 맞먹는 가치를 갖지 않는다. 화폐가 만능적 가치 기준인 것 같지만 그 외에도 일정한 척도로 쟁 수가 없는 추상적 가치의 부류가 더 많다. “돈은 얼마라도 줄 터이니 생명을 살려 달라”는 경우, 생명이라는 하나의 가치 앞에 화폐는 거의 무가치해진다.²⁵ 유용성이란 주관적이다.

대학에서 ‘생물학 코스 101’보다 ‘생물학 코스 303’이 세 배 더 수준 높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가치를 정하는 듯 보이는 사물이나 현상을 일정한 척도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정확하게 비례적인 척도를 가지고 측정하더라도 사람들이 실제로 인지하는 효용가치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다. 1960년대 미국의 한 심리학 실험에서 “10달러 가진 것 보다 두 배 행복을 느끼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한 일이 있다. 그 응답은 평균 액수는 53달러였다. 1천 달러를 가진 것보다 두 배 행복을 느끼려면 평균 1만 220달러가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²⁶ 학생들은 A학점을 받으려고 특별한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는 B학점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통치 않은 학점을 늘상 받는 학생에게는 B 학점을 받는 것이나 C학점을 받는 것의 차이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양한 가치들과 조건들을 하나의 유용성 지표로 판단하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것을 돈으로 측정하는 행태가 일부 사람들만의 경향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모든 것을 돈으로 측정하는 자본주의 문화는 사회적 규모의 문제성을 안고 있다. 기업가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 돈으로 모든 것을

25.Scheib. p. 51.

26.(Galanter, E., The direct measurement of utility and subjective responsibi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962, 75. pp. 208-220)

측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육자, 지식인, 종교인, 정치인, 언론인들의 일차적 가치는 돈이 아니어야 한다. 즉 교육가의 일차적 가치는 피교육자의 인성과 학습 성과에, 종교인의 일차적 가치는 타인들의 정신적 복지를 위한 봉사에, 정치인들의 일차적 가치는 국가 안위와 국민들의 경제적 번영에, 언론인들의 일차적 가치는 공정한 보도와 사회 선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전문인들의 일차적 가치들도 모두 돈으로 환원되는데 집중되고 있다. 전문인들이 추구해야 할 다양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역할 수행(role performance)의 가치들이 교환가치체계 속으로 수렴되고 있다. 물론 상인의 경우는 교환행위도 역할수행이다. 그러나 예술가, 교사, 종교인의 경우 교환가치 행위는 역할수행이 아니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 부면들이 소개(疏開)되어 돈에 밀려 정체성을 감추고 부문별 전문성이 진공 상태로 가면 전문성은 교환의 노예로 쇠락한다. 돈을 모든 것의 척도로 하는 교환욕구 달성을 위해 전문성의 역할 가치를 버리는 위험이 깊게 진행됐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돈에 굴복하여 사랑을 포기하고 계산된 결혼을 했을 때는 그 사랑에는 진정성의 밀도가 낮았거나 그 사랑의 가치를 주장하고 수호할 용기가 없었던 때문일 것이다. 전문인들이 그 전문 기능의 가치를 주장하여 수호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인 의식의 밀도가 낮았거나 그 자의식을 지킬 용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인들이 순수 미학적 가치(aesthetic value)를 지킬 이유가 부족한 이유는 자기의 가치를 받쳐주는 신념의 강도가 낮은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의 봉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단을 주는 권력(power to service), 어린이의 미래를 키우는 교사의 긍지로 측정되는 가치, 목숨을 바치기까지 열애하는 연인들의 순정의 가치, 사회를 바로잡고 이끈다고 표방하는 언론인들의 긍지와 자기 소신에 대한 의무 등을 금전의 지표로 대체해 버린 것은 신념의 뒷받침이 약한 결과이다. 그들이 자기의 미학적 가치, 자기 긍지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자신들이 창조하며 남에게 제공하는 가치의 독특성에 대한 신념을 뒷받침하는 용기의 정서가 부족한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가치의 크기가 금전이라는 지표 하나에 대응하지 못할 만큼 중요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금전 하나의 가치에 굴복하라는 압력에 준봉한 것이다. 자기 특유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자기 능력감과 자신에 대한 존중심이 충분히 강했다면 금전 하나의 척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가치의 고수는 타인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금권의 압력으로 미술가가 자신의 그림을 바꿨다면 그는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라 환쟁이이다. 금품의 유혹으로 교사가 학생들의 성적 평가를 바꿨다면 그는 스승이 아니라 점포의 사환이다.

사람들이 이런 자기 특유의 가치들을 존중하고 하나의 가치(금전 또는 교조주의적 종교 신앙)에 준봉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 사회의 기초이다. 그런 다양한 가치들의 수호는 그 다양한 가치들을 지켜야 할 사람들의 자긍심과 사회의 압력 사이의 균형 문제이다. 자기의 전문성에서 A학점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적고, 금전의 척도에서 A학점을 받겠다고 전문성의 C학점을 받기로 교환하는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만연한 것이다. 이것은 전문인의 독특한 정체성에 관한 신념의 내용이 되는 신화적 서술(narratives)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때문이다. 어떤 유혹이 닥칠 때 그 유혹의 신화를 대신해서 전문인의 정체성을 보호해 줄 핵심적 신념을 서술하는 스키마(schema)와 시나리오(scenario)의 요새(要塞)에 성벽과 포대(砲臺)가 제대로 구조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학과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바로 이런 신화적 서술들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종교가 전파해야 할 구원의 소식이란 그런 신화적 서술이다. 상상이 부족한 사회, 상상을 허용하기보다 기존 스키마에 대한 준봉을 압력 주는 사회에서 그런 신화적 스키마들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과 국가체제를 뒷받침하는 획일적 가치에 대한 준봉을 강요하는 사회이다. 그런 사회가 실용주의라는 새로운 가치로 이전하는데 한국은 또 다시 획일적 준봉의 패턴을 채택했다. 유용성 가치 기준을 여러 개의 단면으로 정하지 않고 금전 하나의 단면에서 규정한 문화에 준봉(준복)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런 선택은 상상력 부족과 용기 결핍에서 온 비겁성의 결과이다. 상상력 부족과 용기 결핍은 바로 기존의 가치와 체계에 준봉하라는 강요 문화의 결과이

다. 그런 준봉은 비겁성을 악순환 시키므로 그 준봉의 고리를 풀어야 한다.

3. 가치의 형성과 발전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한 사람의 사회화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가치와 유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 사람의 가치관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며, 그 사람이 속한 사회나 공동체의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기도 한다. 이러한 거대 담론으로서 가치에 대한 이해 이전에 먼저 미시 담론으로서 개인의 가치 형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그것이 어떻게 신념과 연결되어 행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1) 본능적 욕구의 사회적 가치

섹스의 본래 가치는 개인의 쾌감보다는 종족 번성에 있듯이 사람이 느끼는 자기 능력감, 탐구욕, 그리고 정의감이나 윤리의식도 종족의 존속을 위한 본능의 발현일 것이다. 한국의 섹스 산업, 향락산업, 보약과 음식 산업이 번창하는 이유는 집단으로서 느끼는 생존 위기의식과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전쟁 때 젊은이들이 쉽게 사랑에 빠지고 서둘러 임신하는 현상은 생존 위기의식에 절박하게 몰릴 때 후손을 남기려는 본능이 더 강하게 발동하는 현상이다. 식물을 보면 악조건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개체들이 더 빨리 꽃을 피우며 성장 조건이 좋은 개체들은 늦게 꽃을 피운다. 농작물이 질소 영양분이 많으면 과도 성장하며 오히려 성장 영양 상태가 악화될 때 번식 단계로 이전하는 기제는 식물 내의 탄수화물과 질소 성분의 비율(소위 C-N Ratio)이 조정한다. 탄수화물에 비해 질소질의 비율이 우세해지는 특정 수준에 이를 때 번식 상태로 전환한다는 식물의 기제는 동물계에서 위기의식이 안정감을 압도할 때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과 유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치에 대한 논의는 먼저 한 유기체의 본능적 속성 및 생

리적, 심리적, 신체적 기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2) 가치의 동화와 대조

가치 형성 및 발달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인간의 두뇌 신경체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실 사람의 두뇌에서의 정보처리 과정에는 기존 신념을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유입되는 정보를 기존 신념체계에 공조하도록 왜곡시키는 경향도 있다.²⁷ 즉 기존 신념체계에 상반되는 새 신념을 배척하거나 기존 신념에 동화시키기 때문에 권위자의 틀린 주장이 무명인의 바른 주장보다도 잘 수용된다. 권위 있다고 평판 난 종교인 또는 과학자의 주장은 그 자체의 권위 때문에 지속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소비자의 브랜드 선택 심리, 정치와 경제의 결탁, 지방색 분열 등에 관계 있다. 첫 인상이 중요하고 인종편견이 지속되는 기본적인 유지 메커니즘도 이런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사람은 기존의 가치와 사고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3)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특정한 가치를 습득하느냐를 설명하는데 우선은 어린 시절의 사회화 과정으로 가치가 시작하여 발전된다고 보는 것이 정론이다. 가장 초보적인 가치 형성은 부모와의 동일시에 의해 발단된다. 즉 부모의 가치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녀들의 경우, 어린이는 자기가 선호하는 측면을 부모에게서 선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그 선택이 부모와의 동일시나 부모 행위의 모방이나 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동일시가 모방보다는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또한 동일시는 부모를 온전한 양육자로 보고 긍정적으로 동일시하느냐 또는 공격자(위해자)로 보고 방어적인 역동일시(counter-identification)의 기제를 발전시키느냐는 방향의 차이가 있다.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배운 규칙을 신성시하여 의문의 대상이 되

27. Scheib, p. 91.

거나 고쳐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은 규칙이란 사회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므로 상호 동의 아래 경우에 맞게 변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각자 특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은 사춘기로부터 형성된다.

자녀의 인지능력 및 추상적 사회 가치관이 발전하는데 사회계층별 차이가 일반적으로 있는 이유는 자녀 교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하는 사람들 자기들도 구체적 원리와 방법을 모르면서 학습하라고 명령만 하면 효과가 적다. 게다가 자기 아들에게 똑 바로 걸으라고 훈계를 하지만 막상 시범을 보이라면 아버지 게도 옆으로 걷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교양이 적은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자기들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강요하니까 학습이 지연되며 어린이들에게 채찍을 듣게 된다.

4) 도덕적 가치

도덕개발은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자기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이 무엇인가를 알며, 역할이란 절대적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약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호작용에서 도덕적 의무란 무엇인가라는 관념과 자율적인 도덕 자아가 발전된다. 도덕적 의무가 단순히 자기 통제나 가족에 대한 섬김에 고착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사회에서 협동적 기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형태이건 약간의 협조하는 상호관계가 없이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해된다. 머센은 실험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스케치하는 과정을 어머니가 코칭하는 패턴을 관찰했다.²⁸ 저소득층 어머니들은 말로만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명령식의 지시를 했다. 중산층 어머니들은 전체 작품의 구상에서 그림 형태에 관해 일반적인 특성을 가르쳐 주는 정도로 그쳤다. 저소득층 부모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행실을 잘 하고 교사의 말을 잘 순종하

28. Mussen P. Early Socialization: Learning and identification. in Newcomb, T. (Ed.), *New Direction in Psychology III*,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1967, 51-110.

며 말대답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중산층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요구하거나 지시를 할 때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했다. 저소득층 어머니는 아이들의 단순한 복종을 강조하지만 중산층 어머니는 복종보다도 아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려고 시도하며 맹종보다는 아이의 성취를 강조한다는 것을 머센은 관찰했다. 이런 데서 아이들이 인지능력과 추상적인 사회의 가치들을 발전시키고 소유케 하는 정도에 차이가 생긴다.

중산층 어머니들의 아이와의 협동적인 행위 양식은 바로 피아제가 말하는 바, 더 차원 높고 적절한 사고능력이 발전되는데 필요한 사회적 필수 전제 요건이다. 우리 한국식 교육(가정이나 학교의) 방식이 지시에 직선적으로 따르고 윗사람이 내려준 규칙 상자에 맞기를 강요하는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매를 들어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권주의 논쟁이나 주입식 교육이 그런 것이다. ‘탈선’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직선적 사고방식의 표준 외에는 허용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의 용어이다. 상자 속의 생각 보다는 상자나 밖으로 나가는 열린 생각, 직선적이기 보다는 방사적인 좀 더 나아가서는 켄텀(Quantum, 양자 역동적인)적 생각을 허용해야 한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잡범들로부터 시작하여 대기업체의 백색 범죄에 이르는 그 바탕에는 이런 어린 시절의 가치 형성과정에 차이가 있다.

한국의 전통적 가정교육 방식과 미국의 블루칼라 가정의 교육방식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나는 본다. 즉 블루칼라 부모는 주로 명령 순종이나 아나니의 태일을 부과하는 규제에 의존한다. 동기를 형성해 주기 보다는 결과 된 행위를 따지고 통제하는 경향이 그런 것이다. 그 이유는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무엇을 대비할지를 모르거나 너무 다른 일에 바빠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프로액티브(proactive)하게 동기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행위가 발생한 다음에 포스트액티브(postactive)하게 결과를 판단하는 책략을 택하고 있다. 교육을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줄 시간이 없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별개이다.

학교에서 매를 때려 학생을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의 ‘교권론’에 대해

매를 때리는 요령을 지침으로 정하는 정부 교육 정책가들의 구상은 참으로 구태의연한 것이다. 매를 배제하고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 또는 보충하여 초기에 인성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여 그것을 수행하게 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생들의 동기를 억지하고 나타난 행위 결과에 대해 벌을 줌으로써 자발적인 동기 보다는 주어진 틀에 준봉하게 하는 학생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얼마나 많은 국가의 미래 인적 자원을 틀에 박힌 사람들, 창의력 보다는 규칙에 순복하는 사람들로 만들려는 것인가?

4. 가치와 신념의 연합

사회심리학자 칼 쉐이브(Karl E. Scheibe)는 가치와 신념이 어떻게 융합되는지, 종교적 신념을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 “대개 종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 신조에 신념과 가치가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⁹

종교적 신조에는 신념과 가치가 융합돼 있다. 그 때문에 종교 신자들은 흔히 믿는다는 것에서 신념과 가치를 구분하지 않는다. 십일조 헌금을 바치는 신앙에는 물질적 변영이라는 가치 측면이 있고 신에게서 몇 십 배로 계산되는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는 계산적인 신념의 측면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혹은 불교 신앙관을 갖기로 결단하기 전에 축복을 받는다거나 질병과 재액을 피한다는 실용주의적 시나리오를 여러모로 참작하여 그 종교적 처방을 받아들인다. 신앙관을 채택하더라도 수단으로서 종교의 실용적 측면만을 채택하며 그에 수반되는 의무 행위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종교 신앙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교리는 공짜 사상을 배양하며 도덕적 가치성을 소홀하게 한다.

29.Scheib, pp. 102-103.

1) 가치가 신념에 앞서는 경우: 가치에 의한 신념의 왜곡

도덕적 가치로서 특성을 지닌 신념은 여러 면으로 “좋다”는 점을 고려한 후에 채택되는 것이다. 좋다는 가치 평가적 개념은 “아름답다”(진실을 알 것 같다)든가 실용성이 있다는 의미를 주로 내포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에 결부된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을 도외시하고 그 신념만을 고집하는 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나 신앙관의 차이로 논쟁을 하는 일이 허다하다. 사랑한다며 맺은 백년가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랑은 미몽이었다”고 헤어지는 부부들은 각자의 가치관에 집착하여 더 큰 가치관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때문에 그렇게 간다. 그러나 다른 가치로 축소 환원될 수 없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 궁극적 도덕 가치관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신념들과 의무를 수반한다. 그 밖으로 수많은 외연적, 피상적 가치관들이 둘러싸여 있다. 궁극적 가치관에 대조하여 자기의 편중된 가치관들을 평가할 능력을 지녀야 하고 잘못됐으면 수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가치 개념은 신념을 구성하는 내용(정보)의 부분이다.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신념은 그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를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 가치와 신념은 피차 간에 부분이며 전체가 되는 상호 순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어떤 가치는 신념의 부분으로서 그 신념 전체를 채색하여 미화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어떤 신념은 특정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지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편견적으로 가치 판단을 초래하도록 왜곡할 수도 있다. 가치 또한 신념을 긍정적으로 채색하거나 부정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 형제 간에 어렸을 때는 누룽지 한 주먹이라도 나누어 먹으며 의리가 좋았던 집안에서 성가하여 부모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유산문제로 소송까지 번진다. 형제 간에 서로 공평하다고 지녔던 신념이 유산이라는 가치 앞에서 왜곡되는 것이다. 교회에서의 분규, 사회봉사 단체의 분규, 정치권의 분규들도 가치관에 의해 신념의 균열이 생기거나 신념의 변질 때문에 공통 가치관이 잠식당하는 데서 발생한다.

신념의 기대 측면과 가치 사이에는 순환의 고리가 있다. 가치관이 형

성된 다음에는 가치에 의해 신념(정보와 기대)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한국이 세계 축구에서 40위선에 머물렀던 때에는 한국 축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대단치 않았다. 그러다가 8강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8강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단한 가치로 되었고 그 실현 가능성이 신념화됐다. 처음에는 바람직스러웠던 것, 즉 가치가 열정적 소망의 대상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 범법자의 부모가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런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는 신념을 갖는 기제는 자기의 자식이 항상 선하고 잘나게 보여야 된다는 가치에 근거한다.

저임금 노동자가 땀 흘려 벌은 적은 돈은 피 값처럼 중요하다는 가치 때문에 하루 저녁 술값으로 날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놀음판에서, 혹은 부동산 투기나 뇌물로 받은 돈은 대단한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낭비된다. 일반적으로 ‘성공’을 가치로 하고 실패는 가치로 치지 않는다. 또한 취득할 개연성이 희소한 것들이 더 가치를 갖는다. 어떤 목적이나 목표한 대상을 성취하기 위해 개입되는 어려움, 대가(비용), 그리고 성취할 확률 등을 감안하여 그런 요소들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그 성공의 가치가 높게 또는 가치 없게 평가된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웃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고 한다. 어떤 대상에 접근하기 어렵다든지 가질 수 없다는 이유(신념) 때문에 그 대상의 가치가 심리적으로 더 크게 보인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한 모세의 십계명은 그런 이유에서 희소성의 신념이 비도덕적 가치를 행위로 유발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희소가치에 대한 신념(갖지 못한 것에 대한 기대)이 그 대상의 액면 가치를 왜곡하도록 영향을 주어 그 가치의 대상을 향한 신념을 강화하여 본래의 신념을 초과하는 행위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남녀 간에 호감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저 사람이 나의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에서,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열정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그는 나의 사랑이다”를 거쳐 “우리는 죽기를 무릅쓰고 사랑한다”로 발전한다. 그래서 결실을 보든가 죽기까지 한다.

반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기제도 있다. 이솝의 우화 중 여우가 따 먹지 못할 포도를 ‘신 포도’일 것이라며 단념하는 기제이다.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 어떤 대상에 대한 기대(성취의 신념)가 없는 경우 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된다. 연애나 결혼에서 많은 경우 ‘가용의 원리’(availability principle)가 작용한다. 우연히 만난 이성과 교제를 하다 보니 괜찮아져서 사랑의 감정이 발전하고 ‘천생 연분’이라며 배우자로 결정하여 죽는 날까지 한 쌍으로 사는 기제이다. 매취 메이킹(match making)이 작용하는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매취 가용의 원리는 결혼 중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계의 삶에서 다양하게 작용한다. 흰곰이 굳이 알라스카의 빙산에 정착한 이유로부터 아프리카 사막의 토인들이 대대로 사는 사연도 ‘가용의 원리’ 때문이다. 국적을 막론하고 화폐가 잘 돌아가는 나라에서 돈이 헐뜯게 쓰이고 돈이 헐뜯게 쓰이기 때문에 교사-학부모 사이에서부터 뇌물이 오가기 시작하여 권력자의 가족과 측근들에게까지 뇌물이 오가는 데도 ‘가용의 원리’가 작용한다. 화폐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경제라면 뇌물이 횡행하기 어렵다.

2) 신념이 가치를 앞서가는 경우: 신념의 가치화

어떤 경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낙관하거나 비관하는 그 신념이 앞선 후에 신념이 가치로 된다. 한국이 축구 8강에 들어갈 것이라는 신념이 생긴 후에 한국이 8강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적 과제가 됐다. 그래서 기독교계와 불교계의 대표적 지도자들까지도 종교 집회에서 축구를 가치로 하여 승리를 위한 기원을 했다. 세계 축구 경쟁에서 자기 국가가 이긴다는 것이 예수교나 불교의 기본 신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도 국민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키는데 그런 기도가 좋은 어젠다이다. 그래서 본래의 신념은 어떤 가치에 부합하도록 변질하기도 한다.

특히 낙관적 기대가 신념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를 가치화하는 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이론이 있다.

A. 결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신념은 자기들이 지닌 기술과 주어진 기회를 결합하여 지니게 되는 낙관적 신념이다. 한국 축구팀의 기술-실력이 높기 때문에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신념이 그런 것이다. 한국 축구팀이 포르투갈과 대전에서도 이길 자신이 있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의 대전에서도 일길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축구 4강에 든다는 것을 가치화했다.

B. 선택할 요구에 여유가 많은 경우 낙관적 신념을 갖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자기의 실력이면 어느 일류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다는 여유에서 나오는 신념이 그런 것으로 일류대학 입학을 가치화한다. 반면에 학력이 모자라서 그런 선택할 여유가 없으면 어느 대학에든지 합격하면 된다는 것으로 가치를 낮추어 정한다.

C. 어떤 일이 발생할 개연성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에 접해 있을 경우에도 낙관적 신념이 가능하다. 실력이 모자라지만 어떤 회사 입사시험에서 심사위원들이 물을 질문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든지, 축구 실력이 모자라지만 대전할 상대 팀의 허점이나 전략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신념이 생긴다. 그래서 입사시험 합격이나 게임 승리를 가치화한다. 합격이나 승리를 가치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시하거나 게임에 출전하는 행위를 아예 포기할 수 있다.

3) 가치와 신념의 수정

낙관적 신념을 발생시킬 긍정적 예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황의 변질에 따라 대처할 행위를 뒷받침하도록 가치와 신념이 수정된다. 암 수술을 세 번이나 하고 의사가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한때 신앙이나 미신에 의존하는 최종의 선택을 한다. 그 경우 사람의 능력 밖에서 사건 발생 여부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치화하여 그 통제력이 작용할 것이라는 신념을 행동화하는 것이 금식기도 같은 주술적 의례이다. 사람은 자연재해나 질병에 대응해 자기가 (혹은 남을 통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 사건 발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행위 자체로부터 가치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행위가 가치성을 지녔다는 인지는 그 추구하는 결과에 접근하고 있다는 낙관적 신념을 갖게 한다. 그 낙관적 신념은 본래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신념을 변환시킨 것이다. 주술적, 미신적 의례 행위는 과거나 먼 장래의 결과를 반드시 초래한다는 합목적성 보다는 사건을 통제하고 있다는 행위 감정을 현재에 느끼

려고 신념의 변환을 모색 행위이기도 하다. 그 낙관적으로 변환된 신념은 현재의 긴장된 정서를 해소하고 신념이 지닌 미적 감각(쾌감)을 현재에서 향유하는데 초점이 있다.

주술적 의례를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놀이’(play)에서 강도가 높은 카타르시스와 쾌감의 향유를 추구한다. 주술적 의례를 통해 정서를 처리하고 쾌감을 향유하려는 동기가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 ‘놀이’에 나타난다. 그것이 종교적으로는 새벽기도 열성으로, 사회적으로는 3차까지 가는 폭탄주 술타령으로 나타난다. 해결이 막힌 느낌을 갖게 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주술적 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면초가 현실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념을 느끼게 된다. 한국의 촛불시위도 일종의 주술적 의례이며 현실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념을 지탱하는 수단이다. 그룹 상황에서 폭탄주 마시기는 술에 대항하여 자기 신체를 테스트함으로써 최소한 자기는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감을 재확인하고 타인들에게 전시도 한다. 반면에 자기 혼자 술을 많이 마시고 쏟아떨어지는 의례는 적극적 신념이 결여된 고독한 망각의 행위이다. 고독한 망각의 음주 의례에 자기 통제의 신념이 결여된 점과 타인의 재가를 능동적으로 구하지 않는 면에서 그룹 음주 의례와 다르다. 고독한 망각의 의례를 하는 사람도 타인의 정서적 후원을 필요로 하지만 외향적으로 나서서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동정적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면에서 고독한 망각의 음주 의례는 피동적인 신념의 행위이다. 그러한 피동적 의례에 깔린 신념에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 결여되어 타인이 자기를 통제한다는 신념의 부분이 더 우세하다. 그 경우 타인의 통제에 이끌리거나 집단 규범에 대해 준봉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고독한 의례에서 스스로를 낙관적 신념이 발생하여 자기를 구원할 가능성은 희소하다. 그래서 타인들을 필요로 하며 구원에 ‘교회’(타인들과의 사귄)가 필요하다.

5. 올바른 사회를 향해:

가치-신념의 공조를 통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기대

친절한 표정, 진의를 담은 언어, 공정한 평가, 평등한 기회, 규제의 완화 등은 평등한 사회에서 인간관계나 공적 관계에서 통화로 활용되는 수단적 가치들이다. 이런 본래적 가치의 효과가 약한 현상은 전통사회의 수직적 인간관계 유형에서 덜 벗어난 실태이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 민주주의가 완전히 개화하지 못하거나 일부에서 전통사회로 후퇴하여 그런 가치들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 비리 발생을 방지하려면 어째서 그 행위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뇌물을 주거나 권력으로 틀어 미는 수단 밖에 없다고 결론 지었는가 동기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 생존 비용마련을 위해서 즉, 발달심리학자인 매슬로우(Abraham Maslow)가 말하는 인간 욕구의 최저 기본 단계인 생존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뇌물을 준다는 것은 산술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생계비가 없는 사람이 뇌물을 주려 해도 돈이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매슬로우의 욕구 계단 2단계 (안전감을 얻기 위해)든가 3단계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4단계), 또는 그 이상의 욕구 충족을 위해 뇌물을 쓴다는 데서부터는 산술 공식이 성립된다.³⁰ 학교에서 자녀가 우등생 클럽에 속한다든가,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교수직을 구하든가 사업가가 재벌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은 소속감이나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존경 욕구와 소속감을 충족시키려고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앓고서도 입증될 수 있다면 굳이 힘들게 무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뇌물을 못 받는 사람이 무능하다는 통념은 그렇게 무리한 모험을 일상적 규범으로 허용한다는 풍토에서 존재하며 법에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외의 어떤 도덕적 규범이 작용하지 않는 그늘에서 발생하고 있다.

30. 편집자 주-매슬로우의 욕구단계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수정함(매슬로우의 욕구단계에 대한 출처 필요)

누구나 평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소속감이나 그것과 연관된 존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 수단으로 평범화해야 한다. 그런데 초급학생 때부터 “왕따”라 하여 남을 배제하고 능멸하여 소속감과 존중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인간관계 유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위대한 현상이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개인 수준의 심리를 본다면 부모를 비롯한 동료, 교사 등으로부터의 소외감에 때문에 동료에 대한 보복 행위로 왕따가 발생한다. 또는 욕심이 지나친 특정 개인이 자기의 과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남을 약탈하려는 습성에서 발생하며, 그 피 약탈자는 약탈자의 압력에 대응하는 수단(힘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왕따가 발생한다. 좀 더 심각한 원인은 사회적인데 있다. 지리적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기회의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자기 생존에 대한 위협감이 크다. 생존경쟁의 전초전이 초급학교 때부터 학력경쟁으로 발생한다. 생존 경쟁은 모든 생물세계에서 누가 생존에 더 적합한가를 가름하여 도태하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동료와 놀면서 유대와 공조 정서를 비롯한 인성 발전과 우주와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 지혜를 학습해야 할 단계에 경쟁의 정서와 타인을 추월하는 지식을 습득하게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더 위험하다. 한국에서 채택한 “무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산다”는 패러다임은 무서운 독소를 지니고 개성과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신념 체계이다.

그 무한 경쟁의 악순환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는 요구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제한된 유형의 자원 (돈)을 필요로 하는 삶에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과도한 경쟁을 목표로 추구하지 않아도 되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는 사람들 간에 상호 요구를 비용 없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징적 자원을 여유 있게 갖추고 그 자원들을 활용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상징자원이란 언어 같은 자본이 들지 않는 무형자원과 감사패나 포상 같은 유형자원이 있고 두 가지의 절충 정도 있다. 타인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를 함축한 인정감의 표현과 감사의 표현

은 아무리 해도 그 어느 누구의 경제적 손실은 없으며 오직 사회의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풍요하게 하는 자원을 증식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쾌감의 관리 기술을 개발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반응하는 정서는 그 자극의 성격에 따라 원초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정서를 해석하여 감정으로 유지하거나 표현하는 수준에서는 인지 내용의 선택이 가능하다. 차량 충돌 사고를 당했을 때 한 사람은 온갖 욕설로 비난하고 폭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초점을 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상이 없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상대방과 자신을 위로하는 관용을 동원할 수 있다. 전자는 어떤 사건에 공포 정서로 반응하는 아직 공격과 방어 감정의 동물적 관리 기술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동일한 여건에서 쾌감과 불쾌감을 선별하여 관리하는 기술을 갖춘 ‘문명화된’ 수준의 사람이다. 남을 압도하여 경쟁에 승리한다는 패러다임이 아직 우세한 한국이 ‘선진’ 대열에 들어가려면 동물적 감정관리가 우세한 현실로부터 ‘문명화’된 사회까지 갈 길이 멀다.

20세기 상반기의 지배적 심리학 이론은 인체가 평형을 유지하려는 기제를 가졌으며 긴장을 조절하기 위해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즉 프로이드의 경우 사람은 쾌락 추구 원칙에서 움직인다고 보았고 심리학자들이 생체실험에서 두뇌에 쾌감을 관리하는 영역이 있다고 입증했다. 두뇌의 쾌감대에 주는 전기 자극은 ‘쾌감을 일으키는 가치’로 구실한다. 그러나 생활조건이 적절하게 안정된 조건에서는 그 쾌감은 행동을 조절하거나 규제하는데 아무런 기능을 갖지 못한다. 쾌감은 그것을 느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쥐 실험에서 보듯이 동물과 사람들은 음식을 섭취하기 보다는 두뇌의 쾌감을 선택하는 행위를 하게 되며 그 결과 건강을 해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쾌감의 가치는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즉 청소년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을 흡입하여 일시적 쾌감을 맛보지만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며 사회에서 도태되는 일들에서 그런 이론은 정당하다. 그러나 성욕 충족이 생물의 진화과정에서 본래

는 종족번식을 가능케 하는 가치 있는 행위로 시작했다. 대부분 동물들의 암컷들은 발정 주기에만 성적 쾌감이 가치 기능을 갖고 발동된다. 그러나 사람은 번식 가치 기능에서 쾌감을 따로 추출해 남용하는 기제를 발전시키며 진화했다. 사람의 그 언어는 본래 음식물의 소재, 외적 침입에 대한 경고 등 생존요구를 충족시키는 간단한 의사전달의 수단에서부터 발전했다. 그러나 현대 문명사회에서 언어는 두뇌 쾌감대에 전류반응을 일으키는 수단이 됐다. 사람들 사이에 긴밀한 언어가 사랑이나 증오를 조장하고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살인이 벌어지기도 한다. 말이 사람의 질병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 질환을 정신과 의사와의 말로서 고치기도 한다. 종교 부흥사는 두뇌를 언어로 마사지(massage) 하여 수만 명 청중에게 쾌감을 주어 사로잡기도 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대통령의 한 시간 연설은 한 나라의 몇 년간 나갈 방향을 정하기도 한다.

8장 신념과 태도의 정서적 기반

BEM, Emotinal Foundaton of belief and attitude

1. 조건반사의 보편화

사람의 정서적 반응을 피부의 전류변화로 측정할 수 있다. 인종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때나 유색인종이 피부에 손으로 건드렸을 때 피부의 전류반응 (Galvanic Skin Response, GRS)이 다르게 나타난다.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가? 거기에는 통상 알려진 조건 반사와 언어를 통한 보편화 두 과정이 있다. 즉 파블로의 실험에서 개가 침을 흘리도록 조건화 반응을 형성할 수 있듯이 사람에게서도 그런 반응을 형성토록 유도할 수 있다. 찬 물에 피부가 닿으면 혈관이 수축되는데 찬물과 함께 종 소리를 들려주고 조건화하면, 나중에는 찬물이 없이 종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은 혈관 수축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단어)이나 상념(단편적 생각)이 사람의 조건 반사를 형성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더러운 말을 할 때 스스로 얼굴을 붉힌다든가 강한 말을 들으면 화를 내게 된다. 그런 것이 조건화이다.

“자라 보고 놀랜 가슴 솥 뚜껑 보고서도 놀란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 조건반사를 형성케 한 자극의 원인을 다시 당면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보편화도 발생한다. 중학생때 미국 유학을 온 피아니스트 한동일의 연주를 듣고 “한국인은 음악에 재질이 뛰어나다”라고 감탄한 미국사람들은 한 개인을 근거로 한국인 3천만을 보편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 경우 사람들이 신념이나 태도를 언어 또는 인지적 내용으로 포착하면서 그에 수반하는 정서적 반응도 함께 흡수하게 된다.

단어나 문구가 의미와 함께 수반된 정서를 전달한다. 이 경우 언어가 매체 구실을 하며 이 바탕의 과정을 어의적 보편화(semantic generalization)라고 한다.(p.43) 한국에서는 어떤 지방명을 말하면 그쪽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작동된다. PK, TK, 영남, 호남 충청권 등 운운하는 단어는 각각

독특한 정서를 유발하고 그것이 정치에서 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수 인종 (흑인이나 동양인)을 묘사하고 특성을 단정하는 단어나 문구가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신념이나 태도를 조건화하는 자극이 된다. 그래서 공인들이 피하는 단어들이 있고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공인들은 언론의 질타를 당한다. 그런 조건반사를 일으키는 단어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색 분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미에 대한 조건 반사

그런데 사람은 그 조건반사를 형성케 한 대상은 물질 뿐만 아니라 의미에 대해서도 조건반사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종소리에 조건 반사를 형성한 사람의 경우 종을 볼 때 뿐만 아니라 “종”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그 반사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피부의 전류 반응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조건반사 원리에 의해 신념이나 태도에 정서적 요소를 부착하여 조건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한국의 지방 감정은 오랜 역사를 두고 반목하며 경쟁해온 작은 제국들의 갈등에서 시작해서 통일된 고려와 이조 시대의 제도적 차별, 그리고 현대 공화국 정부 아래 기회의 불균등 분배 등으로 인해 첩첩이 쌓인 조건반사들이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가 소위 국민 정서를 절대적 가치 미화하여 합리적 결정에 우선하는 최종 판단을 하는 것도 그런 것이다. 교회에서 찬송가, 기도, 불경 외우는 소리, 절간의 종소리 등이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조건화의 결과이다. 반면에 종교를 빙자한 위선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조건반사가 형성된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부흥회라는 말만 들어도 무슨 헛소리로 또 사람들을 현혹하려는가 하는 거부감을 갖게 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말씀이 모든 것의 시초이다”라는 요한복음서는 현대 인지 심리학을 꿰뚫고 있다. 교인들이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은 조건반사를 형성한후 반사적 쾌감을 일으키는 조건화 자극을 재 강화하러 가는 것이다. 특히 ‘심령 부흥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약한 자아의 안정, 자신감 충전, 희망적 암시의 재 환기, 또는 행운

의 기대감 등을 재강화하려는 것이다. 따뜻한 말에 굶주렸고 정으로 받는데 조건화 된 사람들은 울며 통성기도를 함으로써 정서의 해소와 재충족을 느낀다.

3. 정서 조건 반응의 배제: 소멸

개에게 고기 가루를 주면서 초인종을 울림으로써 초인종 소리에 대해 조건반사가 형성된다. 그 조건 반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기 가루를 내놓지 않고 초인종 소리만 반복하면 된다. 개는 초인종 소리가 아무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조건화된 정서를 소멸시키는 이 과정은 한국민에게 형성된 여러 가지 조건 반사적 행태를 제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영남, 호남 지방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현재의 어떤 사건보다는 삼국시대 역사의 경험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으며, 또한 군사 정권에서부터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어온 차별 정책에 의해 길러진 조건반사이다. 이런 조건 반사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비교적 쉽다. 우선 정부의 인사정책이나 투자개발에서 지방이라는 기준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투표자들은 후보 선정에서 자기 지방 출신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맹목적 선택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을 자기 출신지가 아닌 다른 지방에 가서 사회 봉사를 하면서 현지 지방민과 교류하면 피차 간에 편견이 근거 없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나 현주민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방언 등이 남용되고 있다. 그런 언어 행위가 과거 교회역사 어느 시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어떤 마술적 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말이지만, 그 것이 단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정서적 조건반응이 소멸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스러운 욕이나 저급한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언어들이 갖는 정서적 충격이 쇠잔해 버린다. 학생시절 어떤 교수님이 “개 새끼”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내게는 충격이었다. 언

어들이 정서적으로 평범하게 되어 압력을 상실하면 막상 어떤 반응을 일으키려고 그 언어를 사용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지금은 나의 친한 어느 교수가 “개 새끼”라는 말을 쓰면 나는 오히려 “저 사람이 그런 말을 쓸 사람이 아닌데 재미있구나”하는 정도로 느낀다.

이 원리는 우리들의 자녀 교육이나 사회통제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아이들이 통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는 실토는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의 정서적 전압이 떨어졌다는 실토이다. 말을 안 듣는 것이 마치 아이들의 잘못인양 탓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조건화시킬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에 정서적 혹은 실리적 의미가 별로 없다고 아이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에 갈 때마다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출서기 강조 주간” “차선 지키기 강조주간” 등 강조주간이라고 해서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흔히 경찰이나 일부 그룹의 사람들이 어깨로부터 띠를 내두르고 시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주간을 반복해도 문제되는 국민의 행위는 별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강조주간도 연례성 행사라는 범주에 들고 있다. 사람들은 각 강조주간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강조주간에 대비하곤 한다. 그러다가 보니 언어가 무기력증에 빠진다. 당국자들은 “강력한 규제” “성역 없는 사정” 등을 내 걸지만 국민들은 너무나 반복해서 들어봤고, 실효가 없었던 경험 때문에 그런 언어가 철저히 이행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항상 예외가 있고 끝은 흐지부지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아예 “강력한 규제”나 “철저한 단속” 강조주간을 내걸지 않고, 즉 언어를 연상시키지 않고 꾸준히 규정에 따른 집행을 하면 그 일관된 집행의 사례가 조건화 반응을 형성할 것이다.(p.45)

어떤 객체나 개념에 대해 사람들이 지닌 신념이나 태도가 시간이 가면서 변화하며 이와 관련된 정서적 반응도 변화하거나 일시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다. 가령 한국 사람들이 1950년대에는 “중공 오랑캐”와 “러스키”라고 배척하고 멸시했던 두 나라와 지금은 경제 파트너로서 동족인 북한 사람들보다 더 신뢰하며 교류한다는 것이다. 중국 관계 보다 더 흥미 있는 것

은 88년 올림픽때 한국인들이 반미 감정에 휘몰리며 구 소련 선수단을 응원한 현상이다.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들의 정서적 반응은 조건화되고, 조건화된 것이 소멸되고, 다시 조건화가 회복되고 할 수 있다.

조건화는 태도를 형성한다. 태도란 행위를 위한 심리적 준비상태이지만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를 하려는 태도가 보강되거나 감소되기도 한다. “나는 늘 현미밥을 먹는다”는 행위에는 “나는 현미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해서 먹는다”는 태도가 준비돼 있었다. 그리고 현미를 먹기 시작했는데 좋아하게 됐다”고 하면 행위가 태도를 보강한 것이다. 그러나 왜 서양 사람들은 우수한 단백질 원인 개고기를 멀리하는가? 소고기 보다 개고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개는 애완동물이라는 태도 때문이다. 그들이 만약 개고기를 진기한 사슴 고기라고 듣고 시식한 다음에는 맛이 좋으면서 개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버릴 수도 있다. 반대로 그 고기는 맛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개고기였다 라는 말까지 들으면 “정말 못 먹을 음식이다”라고 부정적 태도를 굳힐 수도 있다. 그런데 맛이 좋다고 느낀 후에 그것이 개고기라는 사실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4. 인지의 불일치성

사람이 자기의 신념이나 태도와 맞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 당했을 경우 그 사람은 인지의 불일치성(cognitive dissonance)이라는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 사람은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동기를 갖게 된다고 인지의 불일치성 이론은 설명한다.³¹

학생들의 시위를 폭력으로 탄압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듣는 실험을 했다. 학생 그룹별로 10달러, 5달러, 1달러, 50센트씩 지불하고 작문을 시킨 다음에 경찰 행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다. 10달러나 5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작문에서 경찰의 행위를 옹호하는 식으로 썼고 설문조사에도 같은 견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돈을

31. Leon Festinger,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Peterson, 1957, p. 9-10.

적게 받고 작문한 학생들과 돈을 안 받고 작문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설문에서 자기들의 태도를 적당히 합리화하는 경향이 없었다. 즉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공직자는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인지의 불일치감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뇌물을 받지 못하거나 청탁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인지의 불일치를 고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칙에 어긋난 일을 해 주어야 할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은 가책(인지의 불일치감)을 덜 느낀다. 그러나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가책을 더 느끼기 때문에 원칙을 벗어난 호의를 베풀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개성 혹은 취미에 맞지 않는 일자리에서 생업을 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젊은이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의 압력으로 의과대학에 갔다면 그 인지의 불일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의과 대학을 중도 퇴학할 수도 있고 의사가 되어도 실통치 않거나, 최악의 경우 악덕 의사가 되어 돈만 챙기고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보복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지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을 받아들이는 길도 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선택한 것은 잘 선택한 것이며 그것이 자기의 소신(신념과 태도)에 부합한다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모나 직장의 상사가 강압하여 본인이 원치 않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되는 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그렇게 타인의 신념과 태도를 자기의 신념과 태도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부모의 강압에 의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여 살면서 그 배우자를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지속한다고 믿음으로써 인지의 불일치를 인지의 일치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인지의 불일치가 끝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혼으로 간다. 본인이 처음 선택을 자의로 했든 안 했든 결혼이 쉽게 이혼으로 끝나는 것은 인지의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사회적으로 그런 인지의 불일치감들이 언젠가 폭발할 수도 있다. 한국의 대학생 시위대가 학장실을 때려부순다든가, 노조 데모가 폭력화 하는 사례들은 인지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타협하여 억압했던 분노가 폭발하는

다이나믹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일반 신도들은 성경 내용 (특히 예수의 동정녀 탄생설이나 예수의 부활 주장)에 대한 회의심을 갖는다. 그러나 목사들은 이런 인지의 불일치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세뇌 프로그램으로 막는다. 다수의 사람들이 맹신하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자 개인은 비정상적이라는 압력 아래 소수인의 인지 불일치감을 내면에 접어 두도록 유도한다.

사람에 따라 인지의 불일치를 감내하는 정도가 다른데 그것은 자기 인식 정도에 따른다고 볼수 있다. 심리학 실험실에서 전기 충격을 주면서 그 충격 전압을 서서히 높여가다가 피험자가 못 견딜 정도에서 스스로 버튼을 눌러서 전류를 중단시키도록 하면 그 감내하는 최고 전압이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난다. 사람이 내면의 어떤 긴장상태를 견디기 어려운 때 어떤 액션을 한다. 종교적 의식에 쉽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긴장을 감내하는데 한계점에 이를 때에 그렇게 한다. 사람의 종교성 표현 차이는 그 내면의 긴장 정도의 차이와 비례 관계에 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쉽게 “아이고 하나님 뭇소서” 하지만 어떤 사람은 꼭 같은 정황에서도 침묵으로 견딘다. 그러나 부흥사들이나 무당이 연기인들처럼 연출행위를 하는 것은 연출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므로 개인의 감내성의 척도가 아니다. 그러한 직업적 종교 연출은 “아멘”과 “할렐루야”를 아무리 외쳐도 실생활과는 연관이 없다. 그리고 일단 연출 무대를 벗어나면 신념, 태도와 실생활은 단절되므로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받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돈을 받는 사람의 태도와 진실성 사이에는 반대 관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연출성이 심한 목사를 가려내야 하는 이유이다. 그들의 연출행위를 수수료 받지 않는 사람들의 순수 종교적 감정 발로와 동일한 측정선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보상을 전혀 받지 않고 혹은 적게 받거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런 멧시지를 전하고 행위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신념이 참으로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5. 자기 인식에 의한 피암시적 최면

종교 부흥회에 가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고성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울고 불며 통곡 기도를 한다. 그 상황에서 소속감을 가지려면 그런 행위들을 자기도 해야 된다. 사람이 이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행위를 하기로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 행위와 부합되는 자신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미국의 모 주립대학에 가면 한국계 학생들이 그런 신비주의 경험을 추구하는 기독교 활동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급팽창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다. 즉 행동이 태도에 앞서서 태도를 결정 지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자기 태도의 변환을 의식하며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태도가 변화되고 인지의 불일치감이 해소될 수도 있다. 사랑 없이 계약 결혼을 한 여성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동안에는 인지의 불일치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일치감을 해소하려고 그 남자에게 대해서 더 이상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태도를 바꿀 때는 그것은 인지의 일치일수도 있다.

6. 허위 자백 속에 신념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

사람이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고 스스로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자기의 말이 자기의 신념이 될 수 있다. 사실진술과 허위진술에 관한 예일대학의 실험에서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는 이런 과정은 반드시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서, 어떤 조작된 주장을 하라고 요구받으면 어떤 일을 상기해 내는데 그 기억 내용을 변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한국 경찰이 학생 데모 용의자를 문초하는데 모든 것을 사실 대로 말하면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고 “네가 그 괴문서를 만들었지?”라고 강박하면 사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 “네 제가 그 문서를 썼습니다”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거짓말을 하면 본인이 나중에 그 진위를

기억하기 어렵고, 허위라는 전제 조건 하에 진실을 말해도 그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기억하기 어렵다. 목사나 신부는 항상 정직하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해도 사실대로 받아 주고 평신도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평신도가 사실을 말해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규정하여 넘어간다. 교회들의 분류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으며 미국의 캐톨릭 신부들의 성추행 문제가 수 년 혹은 수십 년 지나서 지금 홍수처럼 터지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그런데 강압된 자백은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설득하여 허위를 사실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약하다. 그러나 강압 없이 스스로 주장한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기 설득이 강하다. [한국의 강압적 주입식 교육이 비효율적인 이유, 즉 그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거의 별 실용성이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또한 종교 교리 습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목사나 다른 신도들이 보인 은근한 압력에 굴복 혹은 추종하여 세례를 받고 장로까지 되어도 내면에 자기 설득이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의 실행은 적고 장로들의 비리가 사회 부패의 바탕에 깔린다. 부정을 저지르고 해외 도주 직전에 체포된 한국 굴지의 기업인의 신문 기사 끝에 “그는 독실한 기독교 장로였다”는 군더더기가 붙는 것도 그런 연유이다.

사회가 문초에서 강압을 적게 사용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자기 스스로의 설득에 의한 생각의 관리를 할 수 있다. (p. 65)

사람의 신념과 태도는 매스 미디어의 설득, 대인 관계, 사회의 규범, 참조 그룹 등에 의해 그 변화를 예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의 신념과 태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논리적 선명성 그리고 그 내면 신념 체계의 일관성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p. 61-62)

9장 신념과 의례적 행위

1. 신념과 의례적 행위

비둘기에게 음식과 관련된 어떤 조건을 형성시키면 실험실 바닥을 머리로 문지르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 마치 그 동작을 하면 음식이 나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스킨너는 실험에서 관찰했다.³² 프랑츠 카프카의 단편소설 중 어느 날 개가 어떤 집의 담 옆에서 한쪽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는데 그 집 안에서 누군가 고기 뼈따귀 한 개를 던져 그것이 담 밖으로 떨어졌다. 그 개는 오줌 누는 동작이 뼈따귀를 날아오게 했다고 믿고 배가 고프면 그 담벽에 가서 오줌 싸는 동작을 취한다. 사막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동물들이 물을 찾으려고 각 부류에 마다 특유한 행위를 하며 식물들도 수분을 절약하려고 잎을 오므리거나 뿌리를 멀리까지 뻗친다. 생물들의 이런 행위는 본래 어떤 성과를 얻으려는 행위이지만 그 성과가 없을 때에도 행위를 하면 의례적 행위(ritualistic behavior)로 분류된다. 의식 있는 생물들은 상황이 불확정성이 심하고 그에 관해 대응할 방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대상(물체나 상징)에 지향(또는 역 지향)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사람들은 불확정적인 것이 너무 많은 현실에서 희망에 관계된 어떤 신념을 갖거나 물체(시자가, 염주, 부적 같은 것)를 갖게 된다. 그런 신념을 갖거나 물질적 자료를 지니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어찌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좀 더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갖게 된 신념이나 자료들이 미신적 의례(ritual) 행위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 수준에서 의례 행위는 테크널러지이지만 성과가 없는 것이다. 성과가 있는 테크널러지가 창안되어 그 설명이 가능해지고 그 시술에 의해 반복적으로 성과를 발생시킬수 있는 수준을 과학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학적 설명이 확립되어 미신적 수단이 필요 없게 된 삶의 상황에서도 미신적 행위가 만연

32. Morse, W.H. & Skinner, B. F. "A second type of superstitious behavior in the pigeo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957, 70, 308-311.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공위성으로 일기예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기우제를 지내는 이유나 축구 8강에 들어가도록 목사와 승려들이 기도 집회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주 만물의 형성에 관한 과정 설명과 진화론이 입증되는데도 굳이 창세기의 설화가 모든 것의 설명이라는 신념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통 문화나 종교에 의한 행동 제약이 많고 법규가 많은 사회에서는 너무 인위적인 통제가 많아 개인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신념의 폭이 좁다. 그래서 외부적 통제에 순응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운명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수단들이 더욱 필요하다. 그것이 미신적인 의례 행위를 낳는다. 월드컵 경기를 치르면서 한국에서 일반화됐던 ‘세레모니’(ceremony)라는 단어가 정확히 말하면 의례 행위이다. 즉 어떤 행위 자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그것이 상황을 통제하여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심리적 감각을 초래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우제를 드린다고 비가 반드시 오지는 않지만 가뭄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비가 올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연장시켜 준다.

사람들의 이러한 의례적 행위들은 일상적으로 광범한 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매일 새벽기도를 하면 어떤 소원이 이뤄진다는 기대 행위, 행사나 조직 결성을 신문에 공고할 때 수백명의 명단을 첨부하여 위세를 과시하는 행위도 의례적 행위다. 월드컵 축구 응원에서 ‘붉은 악마’라는 단어의 ‘어의(semantics) 자체가 한국 축구의 기적을 가져온 어떤 마력을 도출했다고 풀이하거나 믿을 수도 있다. 그 응원단 유니폼의 붉은 색깔 그것이 한국 선수들과 응원하는 국민들의 심성에 다이내믹을 주는 심리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수백만 응원자들의 집단 동작과 함성(“대...한민국”)이 집단의 동작과 함성 그것이 선수들의 투지와 신체적 에너지를 동원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지닌 의례성 측면을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런 모든 것이 의례 행위와 관련하여 성과가 발현한다는 개연성을 전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는 어떤 사람에게는 잠시 피상적인 인상을 주며, 어떤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정보로 정착되어 신념의 내

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과를 좌우하는 변수는 응원 기술이 아니라 한국 축구단의 기술과 체력 등 여건들이다. 이런 기술적 변수와 응원의 의례적 효과가 한국 팀의 실적에 각각 얼마나 작용했는지 수학적 가능성은 차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붉은 악마’의 응원이 의례적 효과를 지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붉은 악마’의 의례는 한민족의 여러 사회적 행위에서 중요한 의례로 남는 원형이 됐다.

2. 미신적 의례 행위

“모든 시작에 놓인 사실이란 객관적인 불확실성이다. 참된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신념을 적응시켜야 한다. 어떤 진실을 고안해 내야 한다. 그것이 미신이다.”³³ 사람들은 (지각이 있는 동물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태와 실제로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다른 사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셰이브는 ‘병행배열 사고’(parataxic thinking)라고 한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을 필연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미신은 어떤 앞서 있는 사태와 뒤따르는 사태 사이에 관련을 짓는 불완전한 인식 방법에서 기인한다.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행위를 하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추정하는 개연성(확률)과 주어진 객관적인 확률 예측치와 차질을 메우는데 미신이 필요하다. 즉 사람이 치사율 높은 암에 시달릴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은 100% 치유이지만 그 병의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가능한 치유율은 0.01%도 안될 경우 출현하는 것이 미신적 기원이다. 자신이 선거에 승리할 객관적 확률이 90%라면 그 후보는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51% 이상의 득표 확률보다 현실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50% 이하라면 그것을 만회할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 그 선택하는 수단이 미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과학적인 방법

33. 셰이브, pp. 124-125.

일 수도 있다.

1) 미신 행위와 허구적 신념

객관적 (과학적) 예상과 현저히 다르게 개인이나 소집단이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자기(들)의 주관적 예상을 신념화할 때 미신이 된다. 해결이 없는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성과가 없는 의례적 행위를 반복하면 그 의례적 행위가 성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허구적 신념을 갖게 될 수 있다. 그 허구적 신념을 반복해서 행동화 하는 것이 미신 행위이다. 미신적 의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여건들이 적절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초래하는데 관련된다고 믿어지는 행위를 더 하도록 특정한 자극을 강화한다. 더군다나 그런 의례 행위가 과거에 우연히 발생했던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그 의례 행위를 함으로써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인다.

과학적 가설과 미신적 신념과의 차이를 주장할 분명한 선은 없다. 코페르니쿠스 이전 중세까지의 과학에서 지구의 끝에 가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는 신념은 과학적이었으나 지금은 미신이다. 유명한 신학자들의 전제들(칼 바르트의 조직신학 체계 같은 것들)도 미신과 구별할 선을 지니지 못한다.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성만찬 의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소화 흡수되어 살과 피의 성분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이다. 그러나 성찬 예식에서 먹은 빵과 포도주가 바로 살과 피로 변한다는 신비적 물질 환원론은 미신이다.

과학 방법에서 흔히 사용하는 유추적 사유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 별 자리의 변동이 지구상의 인간사 특히 개인의 운명과 관계를 지으려는 점성술이 그렇다. 미신이나 과학은 모두 이 이런 유추의 논리에서 발생한다. 좀 더 과학적이라고 인정하는 동물 실험에서 얻은 결과로 쥐의 심리나 건강 변화를 근거로 사람의 심리를 진단하고 암 치료 같이 치명적인 건강 조건에 관계 짓는 과학적 유추는 미신과 별 차이 없이 위험하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경험하는 현실이 참 우주의 전부라고 믿을 수 있다. 시간과 공간 속의 물리적 세계, 그리고 그 안의 자연 사물과 인간 삶의 양태 등

이 전부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우주의 궁극적인 진실의 전부
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주의는 일종의 미신이기도 하다.

2) 미신과 도덕적 잠재성

미신과 도덕의 잠재성을 연결해 본다. 월드컵 축구를 통해 한국인들은
자기들의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했다. 질서를 존중하고 협동할 줄 알며 경
쟁 상대방을 자기 자신처럼 존경하며 아끼는 미덕 행위를 할 수 있는 한국
인들의 잠재력을 확인했다. 그 한국인의 모습은 오랜 역사 동안 외국의 침
략과 모멸, 그리고 동족상잔과 생존경쟁 속에서 빚어져 있던 한국인의 이
미지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런 한국인의 이미지 발현이 우연이었는가, 어
떤 원인들의 집적에 따른 결과였는가? 그 원인들을 미신적으로 추리하느
냐 과학적으로 추리하느냐는 종이 한 장의 차이, 말 몇 마디의 차이이다.

3. 도박과 미신적 신념

도스토옙스키의 <도박자>에서 어떤 도박사와 여자 도박 파트너 사이
의 이런 대화가 있다.

“아직도 당신은 룰렛이 당신의 유일한 도피처이며 구원이라는 확신을 지녔습
니까?”

“내가 정말로 솔직히 말했지만 나는 내가 게임에서 돈을 딸 것이라고 확신하
기 때문이지요. 물론 황당한 기대라는 것을 나도 인정하지만...나는 아직 이
순간까지 내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이 무분별
하고 망측스런 실패를 오늘도 했지만 그로 인해 조금도 내 자신에 대해서 불
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당신은 나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는군요.
그러나 내 맘대로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곧 바로 내가 이길 것이라고 나는 깊
이 확신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내가 이겨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
게 남은 것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나는 꼭 이기도록 운이 됐다
고 믿는 겁니다.”

도박에서 이긴다는 그것에 그토록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기대가 현실을 왜곡시킨다. 목표 달성(돈을 판다는)행위로서 도박은 미신적 신념과 계산된 현실적 신념 두 수준에서 각기 발생한다. 도박은 또한 신념에 근거하기보다 심리적 긴장감 처리를 위해 정서적 도피행위로도 발생한다.

첫째 신념의 행위로서 도박은 직업적 도박사처럼 도박에 이길 수 있다는 자기 기술에 대한 기대가 큰 때 도박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신념의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도박이 신념의 행위인 또 다른 유형은 도박에서 이길 수 없는데도 돈을 딸 수 있다는 계산 없는 기대를 밑받침하는 미신적 신념을 갖는 경우이다. “지난밤의 꿈이 좋아서” 그 꿈이 현실과 연관될 것이라는 신념은 꿈을 근거로 한 미신적 신념이다. 그러나 꿈 정도의 근거도 없이도 막연히 이길 것이라는 신념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특정 도박 상황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잃을 확률보다 이길 확률에 대한 기대를 더 부풀리면 도박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박 안 할 행위 다 도박 할 행위를 선택할 압력이 큰 때 도박 행위가 발생한다.

둘째, 도박이 목표 달성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쾌감 달성의 수단인 경우 신념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도박 행위가 발생한다. 즉 돈의 득실보다는 스포츠나 연예 관람을 하듯 심리적으로 도피할 길을 찾거나 쾌감을 얻기 위한 도박에서는 그 만족감의 대가로 돈을 치른다. 억압에서 반발하거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도박의 경우, 자기 나름의 자아를 주장하려고 도박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서비스 구매가 된다. 그러나 가치관이 돈의 득실을 제대로 표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패를 가리지 않고 도박하게 된다. 원시적인 사냥 습성으로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몰려서 도박할 수도 있다. 이런 심리적 충족을 위한 도박은 사람을 거의 노예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도박보다도 사람을 더 사로잡을 수 있다.

4. 도박성 행위에 개제되는 미신적 신념 기능들

미신적 신념이 도박에 관련되는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사람일수록

도박에 더 이끌리게 된다. 도박에 더 많은 몫을 걸게 되고 그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행운을 통제한다고 믿어지는 어떤 세력에 더 영향을 주려고 한다. 이런 도박 행위는 종교적 신앙 행위와 유사하다.

둘째, 도박에서 잃고 따는 특정 금액의 실용 가치는 도박에서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 즉 매번 돈을 잃는 것 보다 가끔 한 번씩 돈을 따는 것이 도박자 주관적으로는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 그래서 지나간 여러 판에서 잃은 돈과 딴 돈의 기억을 왜곡하게 된다. 종교적으로는 기도의 효과에 대해 수많은 기도가 응답 없이 끝났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석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만이 불거져서 기억되고 허비된 기도의 시간들은 잊어진다.

셋째, 어떤 순간 즉흥적으로 도박에 금액을 내 거는 행위는 자기가 도박하려는 욕망의 결과이기 보다는 게임에 지느냐 대박이 터지느냐는 것을 어떤 초자연적 운명의 힘에 맡기는 신념의 행위이다. 대박이 터졌다는 소문, 큰 돈을 따도록 초자연적 운이 따른다는 환상은 과거에 자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돈을 잃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상관없이 목돈을 걸게 한다. 종교적 기원에서도 그렇다. 어떤 특유한 이적의 한 사례를 듣고 수많은 결과 없는 기도의 사례들은 무시한 채 재산과 시간을 통째로 내어놓고 매달리게 된다.

넷째, 도박장 경영자나 종업원이 아닌 고객이 도박을 계속해서 돈을 착실히 벌어들일 수 있다면 그 고객의 도박은 합리적인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도박에서 큰돈을 모으는 주체는 도박장 경영자와 세금을 걷는 정부에게만 도박은 합리적인 사업이다. 미국에서 주 정부들이 종교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박장을 늘여 예산을 충당하려는 이유도 그런 것이다.

5. 종교-정치 행위의 도박성

어떤 종교적 관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의 은혜를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예배에서도 도박에서처럼 결과는 최대의 상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초자연적 세력에 의존하여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완

전한 확신'은 그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연관된 모든 원인들을 모조리 스스로 시도해 보는 기회를 몰수한다는 것이다. 즉 여호와와의 증인 신도들이 중병에 걸렸어도 수혈을 거부하고 기도에만 의존하는 행위는 의료기술로 생명을 건질 기회를 스스로 앗아버리는 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이 맹신을 갖고 자기가 '백방으로' 노력은 하지 않고 '일방적'인 기도로만 결과를 얻으려는 '기회몰수 행위'에 빠진다.

한국 정부의 여러 행정 조치에서 (특히 공교육 정책에서) 일관성이 없이 조령모개 식의 정책 변경과 개각을 일삼는 것은 미신적 운의 섭리에 의존하는 심리와도 관계있다. 뇌물 거래행위도 미신적 리추얼 (잡신을 음식물로 회유하던 미신적 관행과 주요 종교의 신에게 헌금으로 결과를 매수하려던 의례)와 상관관계가 있다. 운전자가 자기의 운전술에 익숙해지면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 미신적 의례 시술자는 도박자가 자기의 도박 기술을 신들의 특혜 기술과 경쟁하는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 신과의 경쟁은 필요에 의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오락성, 긴장 완화, 복수, 운명에 대한 도전과 시험 등의 복합일 것이다.

불확실성과 기회를 다루는 여러 가지 인간의 행위(미신, 도박, 제도화된 종교의 의례 등)는 한편 인간이 자기의 본성에 관해 참으로 알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고 웨이브는 말한다.³⁴ 자기는 무엇이며 멸망할 것인

34. 웨이브 p. 130. 또한 다음과 같은 인간의 종교적 성향에 대한 웨이브의 통찰과 정리도 주목할 만하다. “신앙이란 사람의 확정되지 않은 자아와 그 자아 밖의 어떤 참조할 상상적이거나 사실적인 근거와의 관계를 짓는 연결고리이다.” 곧 생존하며 자아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아 내부와 외부 환경구조에 대한 정보의 체계이다.

- 사회적 환경관계 구조: 나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위해로우냐 위해롭지 않느냐, 나 보다 우세하냐 열세하냐는 측면들의 교차와 연속선으로 구조화된다.

- 물리적 환경관계 구조: 외부 세계의 특성들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단면들의 연속선 위에 조직된다.

증명할 수 없는 신념- 외부 세계의 실재와 대응하는 내용이 없는 기대나 예측은 적응착오와 비효율적인 행위로 끝난다. 또한 신념 자체의 표찰을 잘못 붙이는 결과가 된다. [오천 명을 먹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인류학, 초월적 신앙, 신비주의 종교 신조, 그리고 현대의 우주 과학까지 포함해서 신앙들은 마술사의 요술 주머니 같은 것에 유비할 수 있다. 자연이 인간에게 남겨

가, 구원받을 것인가, 신이 선택한 자인가 신에게 거부당한 사람인가, 자유로운 존재인가 종 같은 신세인가, 등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다. 미신적 행위의 끝에 사람은 자기 자성의 역량 (자기 목표를 수정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평가하는)에 직면하게 된다.

준 수단으로 그것밖에 없는 정신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진화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 내는 방편들이 곧 신앙들이다.” p. 131-132.

10장 착오신념의 긍정적 기능

1. 착오신념에 대한 논평

긍정적 착오신념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지만 부정적 착오신념도 친밀한 관계와 그룹 협동에서 적응기능을 갖는다.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에 대해 의심(부정적 착오신념)을 가짐으로써 애정에서의 정절을 지키게 하며, 상대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것을 피하도록 개인적 안전을 증진한다. 또한 경쟁 관계에서 자기가 뒤떨어진다는 착오신념을 가짐으로써 실제 승리하게 되고, 집단관계에서 배신자나 도피자에 대한 착오신념(의심)을 둠으로써 이탈이나 배신을 방지하여 단합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다.³⁵

1) 결혼과 착오신념의 긍정적 기능

청혼하는 남자의 책임감이나 능력에 대해 여자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착오신념을 가짐으로써 남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며 결혼 후에도 책임을 지며 보호하고 자원을 공급하는 강한 관계를 갖게 된다. 배우자 될 사람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한 신념을 가지면 그 결정은 정확하겠지만 추가로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혼외정사와 이혼이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결혼을 성사시키고 유지하는 요건들로는 신념 외에도 사회규범이나 신체적 혹은 의지력의 균형, 정서적 요구, 경제적 이유, 자녀보호와 양육 의무감 등 외적인 제약들이 된다. 신념이나 애정을 불문하고 여하튼 최소한의 생존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정 유지나 파탄을 촉발시키는 데 (오류)신념의 균형이 작용한다. “내 여자보다 저 여자가 더 매력 있다”든가 “내 남자보다 저 남자가 더 잘났고 능력 있다”고 비교하는 신념의 불균형이 어떤 결정에 이르게 된다.

35. Joshua M. Ackerman, Jenessa R. Shapiro, and Jon K. Maner, When is it good to believe bad things?,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자기의 배우자에 대한 (오류)신념보다 제3의 잠재적 파트너에 대해 (오류)신념을 더 긍정적으로 가짐으로써 외도가 발단하며 부부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인류 역사에서 1부1처 가정이 유지된 것은 자기의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제3의 잠재적 배우자에 대한 신념보다 우세했기 때문이다. 제3의 잠재적 배우자는 매력이 적다고 부정적 착오신념을 가짐으로써 이미 선택한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반면에 제3의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부부 관계의 안정성을 침식하고 배신을 초래하기 쉽다.

한국에서 섹스 접객업소가 번성하는 이유의 핵심은 자기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신념이 불확실한 반면에 제3자에 대해 모호한 긍정적 착오신념들을 갖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기해 본다. 당초 배우자 선택에서 최대의 자유의지에 의한 평가가 되지 않았다면 결혼은 더욱 불안정할 것이다. 부모의 압력에 의한 결정이나 정략결혼에는 당사자들의 신념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 상대방의 기만에 의해 과도한 긍정적 착오신념에 이끌렸던 결혼이었다면 전반적인 신념의 정확성 결여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2) 그룹 간의 착오신념의 긍정적 기능

자기가 나약 하다는 착오신념을 갖는 것도 인간 진화의 요소이다. 두려움을 잘 타는 사람이나 임신부처럼 나약한 입지에 있는 사람은 외부 그룹을 더 위협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외부 그룹을 피함으로써 자기보호 기능을 더 갖게 된다.

오랜 진화과정에 걸쳐 그룹 간의 관계는 개인 안전과 집단의 자원에 위협을 주었다. 부족들의 패싸움부터 세계 2차대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는 허다한 갈등과 위협이 평화와 교차했다. 이런 오랜 경험에서 사람들은 외부 집단에 대해 최소한 3가지 신념 유형을 선택하게 된다.

첫째는 외부 그룹이 항상 위협적이지는 않다고 인정하는 정확한 신념이다. 그 정확한 신념은 그룹 간의 교류와 협동을 증진할 것이다. 그러나 당초 평화롭고 협동적인 외부 그룹이 단순한 오해나 우리 측 허약성의 신

호를 탐지하고 적대적으로 돌아설 위협은 항상 있다.

둘째 유형인 부정적 착오신념은 상대 그룹에 대해 경계하는 환상을 내용으로 하며 그룹의 적응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 착오신념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6.25 전쟁을 당한 것이다. 경제적 성취에 도취하여 북한의 의도와 무력 행위 잠재성에 대한 부정적 환상을 갖지 못한 남한은 천안함을 격침당했다. 그리고 나서도 진보주의자들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오류라고 논박하는 사이에 연평도 포격까지 당했다. 외부의 그룹에 대한 정확한 신념만을 고집하면 그들을 상대로 경쟁할 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북한을 평가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신념이 정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북한은 자기들이 남한보다 지위가 열세하고 능력이 적은 그룹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 북한처럼 반대 성향을 지닌 경우 그들에 대해 남한 측이 지닌 정확한 신념은 경쟁할 동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부정적 착오신념은 외부 그룹과의 상대적 지위 및 자원 경쟁욕을 강화시킨다. 보수 진보의 갈등도 외부 그룹에 대한 부정적 착오신념의 소치이다. 스포츠에서 상대방 팀의 투지와 기술에 대해 착오신념을 가짐으로써 경기를 더 잘 하게 된다. 종교에서 외방인의 신이 거짓이고 속되었다고 착오신념을 가지면 개종시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선교 열정은 이런 착오신념에서 발단하며 제3문화권 선교와 전도에 나선다.

외부 그룹의 위협에 대한 착오신념은 내부 그룹의 단합을 증진한다. 그룹 유대의 강화로 인해 희귀 자원을 이기적인 멤버가 약탈하는 것을 방지하며 적에 대응하는 협동을 증진하게 된다. 부정적 착오신념은 현대에도 적응성을 가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민족 간의 편견을 한국에서는 지역편견을 지속시키기도 한다. 정치에서는 자연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두고 국가 간에 갈등을 하는데 그 결과로 자기국민이 우월하다는 극단적인 이념이나 종족주의 신념을 드러낸다.³⁶

36.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The evolution of misbeliev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009) 32, 493–561

2. 신념은 혜택을 위한 상상에서 진화됐다

신념이 적응성을 위해 형성되는데 그 적응성은 신념에 따른 보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좌우된다고 에인슬리는 주장한다.³⁷ 그의 이론을 좀 더 전개해 보면 입증 가능한 것이어야 신념으로 성립된다는 전제가 항상 옳지는 않다. 진화의 추진력은 생존과 번식이진 진실 여부가 아니라는 말은 맞는다. 진화는 개체 행위에서 선택하기에 훨씬 더 광범하고 거리가 먼 생존과 번식의 대리물로 보상과정을 발전시켰다. 신념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주는 혜택(보상 기능) 때문에 선택된다. 신념이 적응성을 위해 진화했다고 해석하는데 그 중개 변수인 보상을 고려해야 된다.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유기체들은 생존을 확보하고 번식을 증대하는 적응에서 보상을 배우고 그 보상 전망을 극대화하도록 기제를 발전시켰다.

모든 생물은 유전된 부호에 따라 보상을 예측하며 행위를 한다. 식물은 여름에 열매 맺을 것을 예측하며 봄에 싹을 틔워 꽃을 피운다. 가을에 번식할 씨를 남길 것을 예측하며 여름에 열매를 맺는다. 새들이 동지를 틀고 알을 낳는 것도 새끼를 부화시켜 기르는 보상을 예측하며 진행된다. 그 예측을 지배하는 요인은 보상이다. 사람이 원숭이 수준의 동물로부터 분리되어 진화할 때 사람은 유전된 부호에 의한 예측을 초과하여 상상하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떤 정보가 사실로 입증되는 가능성과는 별개로 멀리 떨어져 상상하는 내용이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됐다. 그래서 사람은 타고난 유전적 능력에 의한 예측이나 사실적 정보를 초과하여 보상을 극대화하도록 상상하는 능력을 습득했다.

사람은 상상을 통해 진실에서 신념을 분리해 내는 것을 배웠다. 사람은 지능이 발달하면서 상상력이 향상되고 상상력이 향상되고 상상함으로써 본래 적응성 목적으로부터 보상만을 떼어낼 수 있게 됐다. 사람은 상상함으로써 본래 적응 기능에서 주려던 보상 여건을 떼어내는 지름길을 발

37. George Ainslie, *Non-instrumental belief is largely founded on singularity in McKay & Dennett, (2009), Op.,Cit., Open Peer Commentary.*

견했다. 사람은 출산 목적의 섹스 교접으로부터 쾌감만을 축출해내어 출산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이성교접을 관행적 보상으로 즐기게 됐다. 생존경쟁에 필수적이었던 싸움을 적응 필요성에서 떼어내어 ‘스포츠 경기’라는 싸움을 보상으로 고안해냈다.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가정을 이룬다는 장기적 관심사로부터 단시간의 섹스 쾌락을 단기적 관심사로 자녀출산과 양육에 기여되지 않는 비싼 취미거리들에 몰두하며 현재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복리를 착취하는 도박 행위도 배웠다.

마약의 쾌감을 분리해 내기위한 죽음 직전까지 가는 모험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대입하여 현 시각에서 정서적 보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배웠다. 그런 상상적인 보상은 ‘내세의 천당 복락’에 대한 신념의 형태로 되기도 하고, 단순한 우유부단으로 현실 감각에서 자아를 분리하는 ‘초탈’의 신념이 되기도 한다.

에인슬리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좀 더 연장해 보자. 신념에서 예기된 혜택과 그 비용은 상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보상에 따라 좌우된다. 그 보상이 식량, 은신처, 상해 회피 등의 생존 자원으로 절실하게 연결된 경우에 착오신념을 가지면 가난과 고통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어떤 보상을 얻는 수단에 관한 신념은 주로 그 혜택을 어느 정도 예고하느냐는 가능성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은 보상 형태에 따라 어떤 감정을 육성하고 다른 감정의 충동을 억제하거나 기피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도록 배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념이란 즉흥적으로 순간에 탐닉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보상(혜택)을 향상시키도록 상상을 지시 감독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희망적인 생각의 형태로 신념은 즉흥적 만족에 탐닉하도록 동기의 압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상상은 백일몽 같은 덜 익은 보상으로 그 자체를 소진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나 복을 기원하는 종교의 부흥회, 굿이나 도박 같은 것은 미숙한 보상에 관한 신념이 동기화 되어 발생한다. 반면에 위대한 발견이나 난제를 해결하는 경우처럼 드러나게

수단성 있는 상상도 있다. 신념은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의 궁극적 정확성에 상관없이 적응성을 갖는다.

3. 인지와 추론의 오류도 신념의 근원이 된다.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운전자가 자기 차량의 속도와 상대방 차의 속도를 판단하는데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차로 사람을 치거나 사물에 충돌하는 교통사고 경우는 행인들의 동작, 나무나 건물의 형태와 크기, 위치 등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 스포츠 선수가 투사하는 공의 방향, 속도, 거리를 잘못 판단하여 경기에 득점하지 못한다.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깨뜨리는 사고는 사물의 위치와 무게를 판단하고 자기 손의 근육 동작을 통제하는 데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들의 행동에서 오류가 흔히 발생한다는 것을 시인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인지와 추론에서 오류도 종종 발생한다. 인지기능은 평상시의 물리적 실재와 현상에 관한 개념 판단에도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인지와 추론 기능의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자기가 그런 오류에 빠진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과학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도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그 가설을 입증하는 결론에서 항상 오차를 감안한다. 데이터를 통계 처리하여 1% 혹은 5% 이상의 오차가 나면 그 실험결과는 어떤 원리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내어버린다. 사람들의 주관적 진술을 통계 처리하는 사회과학만이 오류에 쉽게 빠지는 것이 아니다. 순수물리, 화학, 사회과학 등은 감각의 관찰, 실험, 측정계기를 사용한 검증 등이 제공하는 증거에 근거한다. 추와 같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나 가속도를 관측하는 순수물리학에서도 예측에 오류를 범한다. 화학에서 물질들 사이에 어떤 작용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오류의 여지투성이다.

종교적, 도덕적 신념들이 근거가 모호하고 착오 신념들이 허다한데 비해 과학의 신념들은 증거가 확실하고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신념 중에도 어떤 것은 틀렸지만 유용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화한 적응성 있는 착오신념이 있다. “신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에서처럼 신념의 어떤 것은 시각이 제공하는 증거에 근거한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말하지만 어떤 실체를 보았다고 해서 정확한 신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원초적 현상(동작)을 보면서 어떻게 추론하느냐가 착오신념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한 인지 또는 추론에서 기원하는 착오신념을 부각시켜 진화의 부산물이라고 설명하는 이론가들이 있다.³⁸

특정 신념이 어떤 적응을 위해 진화했다고 시인한다면 자아에 대한 긍정적 환상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부정적 환상도 적응성을 갖는다. 이들은 모두 자기를 위한 적응의 경제성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무 혜택이 없는 중립적인 상황에도 자아에 관해 유리한 편견은 존재한다. 그 경우 자기중심적 편견성을 지닌 착오신념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4. 기억을 왜곡한 착오신념

사람들이 어떤 난처한 질문을 받으면 “아, 그게 그랬던가?”라면서 얼버무린다. 법정에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는 소송 당사자나 증인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반응한다. 사람들이 기억을 정확히 재인출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는 현상은 의도적이 아닌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가 지닌 어떤 신념들은 기억을 왜곡하여 간직한 착오신념이라는 이론도 있다.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노력과 혜택 사이의 균형을 취하는 기능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억왜곡이 발생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정보의 상당한 부분은 기능적으로 적응성 있는 착오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나는

38. Marco Bertamini and Roberto Casati, “False beliefs and naive beliefs: They can be good for you”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39. Pascal Boyer, “Extending the range of adaptive misbelief: Memory ‘distortions’ as functional features”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5살 때 이웃집의 큰 개에게 다리를 물린 일이 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개를 피하는 이유는 그 기억 때문인 것 같다. 개를 애완동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한편 개는 나에게 위협하다는 착오신념을 갖는 것이 나의 경우에는 기능적 적응에 해당된다.

5. 기억 환상이나 기억 왜곡에 관한 연구들

Brainerd, C. J. & Reyna, V. F. (2005) *The science of false memory*. Oxford University Press; Roediger, H. L. I. (1996) 'Memory illusion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5:76-100; Schacter, D. L. & Coyle, J. T. (1995) *Memory distortion: How minds, brains, and societies reconstruct the past*. Harvard University Press.

1) 왜곡이란

왜곡이란 어떤 표준을 근거로 하는 규범적 개념이다. 그러면 무엇을 표준으로 삼아 기억이 왜곡된다고 하는가? 기억 연구에서 그 표준이 분명하지 않다. 기억은 정보가 두뇌에 전달되어 부호로 저장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고, 저장된 내용이 재인출 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도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아직 일치하지 않는다.

여하튼 기억왜곡은 매우 기능적인 결과를 주는 것 같다. 남들의 암시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억이 왜곡되는데 사람이 남들로부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 조건에서 오류와 기만이 발생된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정보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출처 표지를 따라 파악하기보다는 이미 신념 상자(belief-box)에 포장된 정보를 받아들이면 비용(노력)이 절감된다. 각기 자기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일관성 있게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은 비용이 든다.

기억왜곡은 기억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에서 발생한다. 특히 극적(드라마틱한)인 기억왜곡은 신념 고착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주장을 반복해서 읽어주면 한번만 읽어준 주장보다 더 사실이라고 평가하는 허상적인 사실효과가 발생한다.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반복해서 상상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행위를 수행했다고 믿는 상상의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착오신념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그런 현상중에 외계인의 우주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아직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증거로 결론나지 않았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이 그럴듯한 정보를 주면 자기의 기억을 수정하는 취약성을 드러낸다. 연구 실험실에서 함께 비디오를 본 사람들은 옆의 사람이 보았다고 암시하는 내용을 자기들도 실제로 보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현상 중에 기독교 초기에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는 제자들의 주장을 뒤 따라 믿는 것도 이런 기억왜곡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억 왜곡은 맥락이 바뀌거나 새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이전의 정신 상태를 개정한다. 과거에 강പ്പെ었던 사람이 목사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경력에 관한 기억을 수정하고 정신 상태를 개편한 예이다. 사람들은 자신에 관한 기억을 암암리에 새 상황에 맞추어 개정한다. 체중조절이나 신체 기능 항상 같은 일정한 어떤 과제를 반복해 수행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체력이 나아진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실적을 현재의 실적 보다 못했다고 과거를 비판하고 현재에 더 잘했다고 수정한다. 자아 향상을 인지하는 경향은 자기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욕구의 동기로 발생하는 환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비슷한 예로 고등학교 동창들이 수십년 후에 만나서 학창시절을 뒤 돌아보는 대화에서 자기가 앞서 말한 추억(“졸업식 날 눈이 내렸다“)과 다른 내용(“졸업식날 추웠지만 일기가 맑았다“)을 제3자가 말한 후에는 수정한 내용(“졸업식 날 눈이 내리지 않았다“)이 자기가 본래 기억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2) 태도의 개정에 관해

청년 때에 독재에 대항하며 정치 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40

40. Ross, M. & Wilson, A. E. (2003) Autobiographical memory and conceptions of self: Getting better all the tim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2):66-69.

대, 50대 이후 보수 정치인이 되는 현상도 기억왜곡의 결과로 인해 가능하다. 기억왜곡의 현상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태도의 개정(attitude-revision)이다. 즉, 사람들은 자기가 종전에 지녔던 태도를 통상적으로 잘못 기억하며 새로운 태도를 취한다. 현재에 타당성이 없는 과거의 태도 흔적을 수정하지 않고 보전하려면 그것들이 현재의 동기와 결정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봉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의 태도를 기억하는데 이득은 별로 없다. 그런 기억의 이득이 그 기억 차단을 위한 추가 비용을 상쇄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에 부적합한 과거의 태도에 관해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기능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비효율적 기억체계일 것이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 고학 끝에 전문학위를 받은 직업인이 자기의 경력에 관한 기억을 화려하게 개편하는 예가 허다하다. 즉, 자서전적 기억을 스키마 형태의 편견으로 재 구조하는 것이다. 이런 기억왜곡은 현재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지 않은 과거의 기억을 저장하는 ‘비용절감의 원리’ 작용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억왜곡이 초래하는 여러가지 착오신념들은 기능적인 긍정적 환상과 마찬가지로 적응성 있는 진화의 기제라고 설명이 될 것이다.

3) 자기가 친절하고 유능하다는 환상

“나는 얼마나 친절한가?” “나는 얼마나 능력 있나?” “나의 장래는 얼마나 밝을 것인가?” 등 질문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 실제로 다 긍정적 편견을 갖고 있다. 모든 문명권에서 사람들은 자기에 관련된 모든 속성을 현실을 넘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견을 지닌다. 자기 편견적 환상은 정보처리에서 편견이 작용하여 속성을 선택적으로 배정하는 경향의 산물이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훌륭하다”고 추켜세우는 공모가 긍정적 자기 환상을 초래한다. 그 편향된 긍정적 환상이 보통은 자신에게 이롭다. 그러나 긍정적 자기환상이 항상 유익 하지는 않고 한계도 있다.⁴¹

41. Jonathon D. Brown, “Positive illusions and positive collusions: How social

그런데 주변사람들과 함께 자기 긍정적 편견을 공모하면 소집단 편견으로 확대된다. 긍정적 환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 뿐 아니라 자기 가족, 사랑하는 사람, 친구, 이웃, 동료들까지 포함시킨다. 사람의 자기 긍정적 편견은 출생 후부터 부모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자기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에서 강화된다.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 ‘나의 아무개’ ‘내 것’이라고 제임스가 말하는 ‘체외 물질적 자아’ (extracorporeal material self)를 부여한다.⁴²

그 경향은 내부 그룹에 대한 우대 행위(in-group favoritism)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사람들을 단지 봉투에서 각각 꺼내는 바둑알의 색깔로 그룹을 나누는 게임 경우 사소한 분류에도 사람들의 자기 그룹 사람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갖는다. 간단히 말하자면 무엇이든지 ‘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사람이 일단 누구와 연관(친구 만들기, 클럽 가담, 배우자 선택)을 지으면 그 대상은 관계된 타인의 ‘체외 물질적 자아’의 일부가 되며 그 관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입게 된다. 즉 그 혜택으로는 “당신은 남보다 더 호감을 준다”든가, “당신은 참으로 유능하다”든가, “당신은 매력 있다”는 등의 반응을 얻게 된다. 그래서 상호 흥미가 상호혜택을 가져온다. 이런 자가발전 식의 긍정적 환상이 우리 자신에 관한 착오신념의 상당한 부분을 이룬다. 그런데 만약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매력 없어” 또는 “당신은 무능해”라고 이 착오신념을 정정하려고 든다면 충격적 반응이 발생한다. 종교계에서 “당신의 신앙은 이단이다”라는 단죄나 정치에서 이념적 색깔논쟁은 그 당하는 사람의 자기 편향성 긍정적 착오신념에 도전이 된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 환상을 공방하는 맹렬한 싸움이 된다. 그러한 외부공격에

life abets self-enhancing beliefs“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2009) Op.,Cit., Open Peer Commentary.

42. William James,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1890, CHAPTER X. The Consciousness of Self.

도 사람들의 자기 편향성 긍정적 착오신념은 좀처럼 수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결과가 없을 무모한 투쟁이 지속될 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편향성 긍정적 착오신념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가 라는 기제에 질문을 갖게 될 것이다.

6. 협동 책임을 약속하는 장치로서의 신념

인생사에서 평생 지속하기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상호관계는 결혼이다. 배우자들은 서로 책임 있게 행위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선물이나 혼인반지 같은 증표를 준다. 그리고 값진 식사대접이나 결혼식 같은 비용이 드는 의례행위를 한다. 사람은 상호관계를 하면서 사회적 목표를 위한 협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협동할 책임을 약속하며 보장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협동할 책무를 수임하는 가장 초보적인 장치는 어떤 그룹에 소속하여 멤버가 되는 것이다. 그 가장 확고한 장치는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상호관계에 필요한 이런 표현적 요건들을 책무장치(commitment devices)라고 한다. 책무 장치란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표현한 신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자신이나 타인에게 약속하는 수단이다. 그 수단은 특정하게 제시된 과제 성취에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⁴³

“나의 체중을 10킬로 줄이겠다”든지 “술을 끊겠다”고 금년의 각오’를 일기장에 쓰거나 금주 목표를 벽에 써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 체중 도표를 그린다든가, 술병 숫자로 그리기도 한다. 이런 신념(각오)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표하여 자기의 행위 변화를 타인에게 점검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그 것은 자기의 습성을 고치는 책무 수임 행위를 하겠다는 개인적 신념의 증표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데도 책무수임의 수단이 활용된다. 계약을 하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든지 없든지 책무감을 더 느끼게 된다. 그리고 책무 장치는 협동 이행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이나 벌

43. Joseph Bulbulia and Richard Sosis, “Ideology as cooperative affordance”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을 받도록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 수단은 필요에 따라 극한적일 수도 있고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경우의 처벌과 성취할 경우의 상이 따르는데 처벌은 상보다 비용이 높다. 납치범죄자들은 인질을 죽인다고 말하고 실행함으로써 피납자 가족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다.

협동 행위에 상급을 주고 책무회피를 처벌하는 책무장치는 협동행위 발생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 예측 가능성이 협동의 성공을 증진한다. 이런 책무 장치는 관련된 사람들이 책무 회피 대신에 협동하도록 행위 선택에 영향을 준다.

역사상 가장 두렵고 확실하게 일관성 있는 책무장치는 냉전시대에 미국-소련 간에 핵전쟁을 방지한 ‘상호간의 확실한 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장치다. 각각 1만개가 넘는 핵무기와 수천 개의 대륙간 탄도유도탄을 보유한 두 나라는 어느 한쪽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피차 전멸한다는 것을 신념으로 하고 있었다. 이 장치가 공멸하는 핵 전쟁위기를 모면하게 했다. 이 공동파괴의 책무 원리는 더 의미가 적은 상호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이 책무 수단에는 일관성의 원칙이 수반한다. 미국-소련의 ‘상호간 확실한 파괴’ 장치는 소련 체제가 와해되어 러시아로 바뀌고 미국의 대통령들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수단의 양적 요인(핵무기의 수량)이 아니라 수단의 질적 요인(보복 파괴로 공멸한다는 신념)이다. 그런 점에서 신념(또는 체계화된 신념으로서의 이념)이 책무수임 장치로 기능한다는 주장을 주목하게 된다.

국제 관계보다 낮은 단계인 정치 집단이나 종교 집단의 관계에서 책무수임 장치로서 신념의 작용을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이 유입하여 국민들에게 주는 신념(정책공약)이나 종교의 축복과 구원에 대한 신념은 여러 행위자들의 책무수임 장치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 보장과, 교회 헌금 때에 약속받는 축복조건의 현실화도 불발로 끝날 수 있다. 그러한 집단 관계 수준에서 신념으로서의 책무수임 장치들이 목적성취에 비효율적이거나 성취실패(협동위반)에 대한 재가(상과 벌)가 적합하게 수반되지 않음

으로써 그 책무수임 장치들의 일관성이 훼손된다.

그러나 책무 수단이 항상 유효하지는 않다. 체중조절이나 금연 약품들은 책임보증 한다는 광고 선전과는 달리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체중 10킬로를 줄이겠다는 책무 장치(일기장에 쓴 ‘새해의 각오’나 친구들에게 공표한 선언)와 실제 행위가 합치하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10킬로 체중감소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내게 정상적이며 옳은 일이다”라는 신념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변화된 상황에서 적응하는 새 행위를 하려면 “체중 5킬로만 감량하는 것이 내게 정상적이며 옳은 일이다”라고 신념을 바꾸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나 목사가 책략을 바꾸는 것을 포함하여 더 복잡한 사회관계에서도 책무수임 장치에 관계된 신념들을 바꿀 수 있다.

그 경우 책무장치로서의 신념은 동기와 사회적 행위 간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예고하며 뒷받침한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공동의 사회적 목표들을 유지하며 성과를 예고하려면 공유된 인식이 필요로 한다. 그 인식의 산물은 신념들이 체계화된 이념이다.

7. 책무장치로서의 이념

이념은 책무의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계속 변하는 환경에서 책무 장치인 신념을 창출하며 인간의 신체는 사회적 책무이행을 예고하는 기구로서는 빈약하다. 환경의 위력과 예측하기 어려운 행위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신념만으로는 협동적인 미래를 확보할 개연성이 적다. 뿐만 아니라 이념은 단순한 사실성을 결여할 수도 있다. 이념들이란 긍정적 환상인 (착오) 신념을 체계화한 것으로서 세계의 실상을 반영하기보다도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고한다. 그 예고하는 데 이념은 사회 여건과 문화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을 한다. 사회에 관한 긍정적 환상의 핵심 요소들은 사회적 목표이다. 그래서 신념은 협동을 유발하며 유지하는 적응성을 갖는다면 사실일 필요가 없이 형성되거나 개정되며 진화한다. 그러므로 긍정적 환상은 (착오)신념으로 가장한 것임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신념의 제약성을 감안하더라도 책무의 장치라고 수락한 이념은 목표와 수단을 재검토하며 목표 성취행위를 고무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 목표에 부응하여, 특히 환경 변화에 따라, 흔히 외연적 신념들을 개정한다. 그 결과는 동기가 우리의 의식적인 신념들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동기와 신념의 연계는 쌍방향통로이다.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은 협동적 책무 이행을 할 동기와 신념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⁴⁴

8. 증거 없는 신념도 사실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믿으면서 증거를 포착하지 못한 경우에 단지 환상에 빠졌다고 정신과의사 같은 제3자가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배우자의 불륜행위 자체는 사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배우자의 행위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불륜에 관한 그 사람의 신념이 흔들리지도 않는다. 남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증거 없이도 강하게 지니는 신념이 환상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얼마간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배우자의 간통 사실이 들어난다면 그 사람의 착오신념은 환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입증된다.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신념을 모두 착오신념이라고 단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문제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신념도 착오신념이 될 수 있는가? 착오신념과 허구신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모든 착오신념이 허구신념이 아니라면, 그 둘이 동의어가 아니라면 착오신념이 아닌 허구신념도 별도로 있을 것이다. 어떤 기준이 허구신념을 착오신념으로 또는 착오신념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게 하는가?

신념의 증거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도 사실일 수 있다. 반면에 허구 신념도 충분한 근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성과 근거는 별

44. Edward T. Cokely and Adam Feltz, “Adaptive diversity and misbelief”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2009) Op.,Cit., Open Peer Commentary.

개로 독립성을 갖는다.⁴⁵

1) 첫 인상이 신념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주는 인상⁴⁵에 따라 관계를 가까이하거나 멀리한다. 가족과 친구, 직장의 동료들처럼 가까운 사이에도 상대방이 자기의 정신 상태를 암시하는 (표상에서 느끼는) 인상⁴⁶에 따라 말을 걸거나 피하게 된다. 전혀 모르는 타인 중에서 그의 인상⁴⁷에 따라 로맨틱한 파트너를 선택하고 정치 후보를 지지하며 취업지망자를 선별한다. 인상의 기능에 관해 스미스와 콜린스는 사람이 인식을 창출하는 과정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필터되고 전달되는 과정에 주목한다.⁴⁸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지는 직접 인지하는 당사자, 양자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등 3개 수준에 걸쳐 진행된다. 인지하는 당사자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정보를 취득하여 참조하며 해석한다. 또한 여러 사람의 상호관계 상황에서 타인들의 정신상태 표상에서 받는 인상⁴⁹에 따라 인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타인의 정신상태 표상에서 받는 인상⁵⁰에 근거해서, 그와의 관계가 순간적이든 또는 오랜 관계이든 판단을 한다. 그리고 속이는 자와 배신자를 발견하고 처벌한다 했다.

사람은 통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인지한 것을 근거로 쉽게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 일단 선입견이 형성되면 제한된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스테레오 타입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부정적 인상을 남기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첫 인상을 바꾸도록 추가 정보를 수집하려고 안 하며 다시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 결과 자기와 잘못 인연이 걸린 대상이나 사람과 마주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45. Max Coltheart, “Delusions and misbeliefs”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2009) Op.,Cit., Open Peer Commentary.

46. Smith, E. R. & Collins, E. C. (2009) Contextualizing person perception: Distribu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16:343–64.

대상과 계속 관계를 갖게 된다.⁴⁷ 그러나 외부의 압력으로 더 상호관계를 계속하면 처음의 나쁜 인상을 완화할 기회는 있지만 완전히 번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와 성별, 인종, 교육수준 등에서 비슷한 사람들 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제2의 기회가 지나는 파워에 관한 영역을 사회심리학은 과거 50년간 간과해 왔다. 그 연구는 주로 스테레오 타입 과정에 대해서만 논했지 부정적 인상에 의해 형성된 신념이 추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2) 의심과 냉소성이 신념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은 자기를 타인이 해칠 가능성에 대해 실제 지닌 위험성보다도 더 의심하며 경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성향은 단지 심신의 피해로부터 자기 보호를 위해 진화된 생물학적 기제만은 아니다. 환경의 탓이 더 크다는 증거가 있다. 사람들은 남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지나치게 냉소적인 경향을 보인다.⁴⁸

의심이나 냉소성은 환경요인에서 남을 신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사람이 남을 신뢰해도 그 신뢰가 때로는 위배된다. 그래서 인간성에 대해 더욱 냉소적으로 되는 것이 안전하다는 합리성을 갖는다. 반면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손실이 발생했는지 그 결과를 수정할 만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남들을 경계하며 인류 전반을 불신하게 된다. 남을 신뢰했더라면 신뢰에 부응했을 것이라고 알려주며 사람들에게 온전한 피드백을 주면 냉소적인 불신(착오신념)이 신속히 없어지고 남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증거가 있다.

47. Denrell, J. (2005) Why most people disapprove of me: Experience sampling in impression formation. *Psychological Review* 112:951-78.

48. Fethenhauer, D. & Dunning, D. (in press) Why so cynical? Asymmetric feedback underlies misguided skepticism in the trustworthiness of others. *Psychological Science*.

9. 경제정책 영역에서의 혼란은 긍정적 환상

“나도 중산층에 속한다”고 환상하는 사람들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에서 줄어들었다. 미국에서는 문화, 경제, 심지어 법률 측면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긍정적 자기 과장의 환상을 부추겼었다. 크레딧을 근거로 “빚돈을 안 내고도 외상으로 구입하는” 소비행위가 “개인의 향상과 발전”이라는 착각을 초래했다. 그 대중심리와 광고 선전술은 미국에서 세계로 번졌었다. 미국을 모방하던 세계 도처에서 2007년 거품경제의 붕괴는 과도한 긍정적 자기 환상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이다.

한국의 경제, 연예, 스포츠 미디어 신문 방송이 자기 과장의 환상을 격려한다. 심지어 제도교육이 장려한 자기 과장의 환상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교육을 발정(發情)시켰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과장의 환상을 격려한다. 집사, 장로 타이틀로 환상의 신분의식을 전 교인에게 배급했다. 기복신앙은 단지 주술(기도)로써 수단적 행위 없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환상의 뒤흔다리를 잡게 했다. 적은 윗으로 폭발적 복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안이한 방책이 도처에서 대중심리를 부추긴다. 한국 정치권에서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에도 그런 긍정적 자기 과장 환상에 야합하는 작태가 삼투했다.

긍정적 환상이라는 용어는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진화된 것이기보다는 최근에 출현한 심리학적 용어이다. “나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원한다”며 노골적으로 드러낸 탐욕은 자기선전을 하는 인류 세대의 출현은 적응성 있는 도태와 선발의 진화 결과가 아니다. 이는 최근의 현상이며 한 시대에 드러났다가 지나가야 될 현상이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자기를 기만하는 긍정적 환상이 개인적으로 적응에 혜택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이 보인다. 이 시대의 조류가 그런 자기과장의 ‘영웅’들을 받드는 시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긴 세월이 펼쳐 넓은 사회적 맥락에 놓고 보면 자기 과신 행위를 남에게 할 경우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심하면 사회적으로 따

돌림을 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긍정적 자기 과장 환상은 진정한 적응의 기제이기보다는 개인 및 사회가 신념 형성에서 책무수임 의식 없이 선택한 행동책략의 표본에 불과하다. 그런 환상들은 적응성 있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현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압력과 문화적 유인에 적용되는 한시적 현상일 것이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긍정적 환상이 사회의 규범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런 행위는 왕따의 대상이 될 뿐이다.⁴⁹

10.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착오신념

미국에서 현재 떠오르는 TV 설교가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 패턴은 긍정적 신념의 효용성에 대한 메시지이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적극적 신념이 성과에 연결되는 사례만 들고 허다하게 실패한 예는 들지 않는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정보의 유익성에만 관심을 집중하며 그 사실성에는 개의하지 않는다. 먹이나 적을 찾는 동물들, 계절과 영양수분에 반응하는 식물들은 적응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찾도록 진화됐다. 사람들도 가장 적응에 적합한 사실 정보를 추구하게 진화됐다. 그러나 사실성을 가진 정보라고 해서 항상 적응에 이롭지는 않다.

정보가 사실인지, 자기에겐 이로운지 더 확신하려고 사람들은 남과 대조해서 신념의 정확성을 체크 한다. 그렇지만 사람은 모든 사회적 정보를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사람들은 사실을 오류로 표상하는 것이 이로운 경우에는 남들로 하여금 오류 표상을 타당하다고 뒷받침하게 조작하여 다시 자기도 그 오류 표상이 옳다고 믿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필요에 따라 기억도 조작한다.

화폐를 바닥에 떨어트려 놓고 “이 돈이 당신 주머니에서 흘러나왔다”고 돌려주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 그랬던가요”라면서 받아들인다. 돈을 흘린 기억이 없는데도 순간적으로 자기에겐 유리하도록 기억을 왜곡한다. 사

49. Vladimir J. Kopjeāsi, *A positive illusion about “positive illusions”*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2009) Op.Cit., Open Peer Commentary.

람들은 어떤 예정된 결론에 도달하려는 지향적 목표는 증거를 뒷받침하는 기억만을 탐지하는 편향된 행위를 초래한다.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동기는 처음에 가설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가설을 검증하는 증거를 탐색하는 각 단계마다 편향적 선택을 하게 된다. “가난이 축복이다”라는 종교의 역설적 신념(예; 신약성경의 8복 구절)은 ‘축복’이라는 목표 개념에 도달하려는 예정된 논리를 편다. 그리고 추론을 하는 데 얼마만큼의 증거가 필요한가를 선을 긋고 증거를 평가하는데도 편견이 작용한다.

1) 자기의 신념을 확인하는 사회적 전략

교회에서 종종 신앙 간증을 한다. 간증을 하는 사람은 “내 간증을 목사님도 장로님도 믿어주니까 내 신념은 사실일 것이다”라고 더욱 확신한다. 사람이 자기의 신념체계를 발전시키고 간직한다지만 긍정적 환상이 발생하는 데는 타인들의 작용도 있다. 남의 신념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그것으로 자기의 신념을 평가하는데 남을 이용한다. 한국에서 인기 연예인의 신앙 간증을 듣고 그 내용을 자기의 신념에 추가하게 된다. 흔히 그런 신념은 객관적 기준이 없이 단지 전달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가? 그의 신념 내용이 좋아할만 것인가에 의해 채택되는 제한성을 지닌다.

사람들은 자신과 남들에 대한 착오신념을 타당화하는 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쓴다.⁵⁰

첫째, 자기의 착오신념을 지지해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신념을 제시한다. 그런 경우 흔히 그 착오신념에 어떤 이익이 개입돼 있거나 착오신념 소유자를 단지 즐겁게 해주려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그룹 안의 사람들에게는 우호적이면서 그룹 밖의 사람들을 폄하하는 대화 내용,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 낫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그런 것이다. 파당 싸움이나 남북한의 국가 체제 간의 싸움에도 상대를 ‘괴뢰도

50. Dennis L. Krebs and Kathy Denton, *Benign folie a` deux: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sitive illusions*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Cit., Open Peer Commentary.

당' '역적패'라고 착오신념을 조작함으로써 내부 그룹의 단합을 추구한다.

둘째, 사람들이 자기의 잘 한 것은 과장하고 잘못된 것은 숨김으로써 자기의 착오신념을 지탱해 나간다. 축구경기에서 센터 포워드 선수는 공을 레프트 윙 선수에게 패스했는데 그가 골 슈팅에 실패했다고 말한다. 또한 공직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 사이에 발생한 어떤 실수나 비리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각기 자기의 실수를 커버하려고 착오신념들이 증폭하며 논쟁으로 변질 수 있다.

셋째, 사람은 자기의 착오신념을 남들에게서 지지받으려고 한다. 실수를 하면 친구에게 핑계를 설명하고 친구는 그 핑계를 들어준다. 대개 친구는 “너는 잘못된 것 없어...아니 더 잘했지”라며 그 착오신념보다도 더 극단화된 착오신념으로 지지해 준다. 기독교의 찬송가에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는 가사가 그런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예수에게 알리면 예수가 이해해주고 대신 책임 추궁을 희생적으로 맡아 주기 때문에 본인은 책무에 따르는 부담에서 해방(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친구에게 책임을 모두 넘기고 자기는 자유롭게 빠지는 이 전략은 실수의 책임을 처리하는데 참으로 쉬운 적응성 있는 선택이다. 이 적응의 전략의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책무수임의 비용(commitment cost)을 기독교는 강조한다. 본인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결백 주장을 제압하기 위해 아예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원죄’에 묶였다”는 책임을 안긴다. 그 ‘원죄’를 벗는 비용으로 신앙의 의무를 안기려고 한다. ‘원죄론’은 종교 사제집단이 민중을 통제하려고 고안한 근거 없는 책무비용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음모로 부과된 착오신념인 ‘원죄’를 포함하는 죄로부터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에 있다. 그것이 용서라는 신념체계로 이어지며 용서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인 구원은 성립한다.

2) 긍정적 환상을 만드는 사회적 공모(Social conspiracies).

친구와 친척은 서로 긍정적 환상에 대해 “네가 나의 환상을 지지해주면 나는 네 환상을 지지해준다”는 은근히 ‘등어리 서로 굽어주기’ 상응행

위를 한다. 그 기제는 “자기, 잘났어. 대단해” “너도 훌륭한데”라는 만성적 허구를 초래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환상이 스스로 성취되는 예언이 된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라는 현상이 그런 것이다. 이러한 자기기만은 적응성(예; 사랑해서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더 사랑을 받는)을 지닌다. 그러나 계속 기만하면 남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 임계선을 넘는 자기기만은 오히려 적응성이 없다. 인기절정에 올랐던 연예인들의 긍정적 착오신념에 대한 팬들의 지지가 쇠퇴하면 부정적 착오신념들이 가속되어 우울증, 마약사용, 자살에 이르는 사례들이 그런 것이다. 명품 추구나 사치성과 소비에도 개인에 대해 긍정적 환상을 부추기는 사회의 공모가 작용한다.

사람이 자기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 환상이 발생토록 하고 유지하는데 남들의 공모를 계속 확보하려면 남들을 속게 하는 전략, 즉 자기에 관한 착오신념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인의 지나친 자궁심 표현으로써 타인들을 속이는 데는 두 가지 제약이 있다.

첫째, 사람은 남이 아무리 과장하더라도 그 대로 믿지는 않으려 한다. 정치인, 목사, 연예인 등 공인은 물론 일반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관측하는 사람들은 당사자의 자기 신념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측정한다.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건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다 믿을 것 같은가?”라는 별개 기준은 항상 작용한다. 그 경우 당사자와 관측자 쌍방의 기준 뿐만 아니라 제3자들의 기준에서 공통적인 속성들을 파악하여 판단의 기준을 보충하려고 한다. 직장경영 실태에 대해 회사 대표의 말보다 동료와 선후배 직원들의 말에서 회사실태에 관한 어떤 속성을 어느 정도 자기와 공유하는 기준으로 추출할 수 있는가를 추론한다.

둘째는, 사람의 첫인상으로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환상을 조작하므로 사람에 대한 직관적 판단은 부정확하다. 그 직관적 기능은 사람의 정서와 이성이 진화하기 이전의 원초적 동물상태에서 주로 유용했던 것이다. 남이 주장하는 신념이나 표현하는 가치에 대해 관측자의 첫 반응은 자기가 기만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방어기제의 발동이다. 직관의 정보는 정서 반응의 수준에서 (추론 이전의 원초적 수준) 적과 친구를 판가름하는 데까지는 비

교적 정확할 것이다. 남의 주장이나 표현을 자기가 잘못 이해할 경우 자신이 얻을 이득과 손실에 민감한 계산은 그 다음 추론의 수준에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남의 가치에 대해 부정확한 평가를 함으로써 기만을 경계하도록 사람은 진화했다. 그 때문에 남을 믿었을 때에 발생하는 혜택과 비용 사이의 균형, 남을 믿지 않았을 때에 절약하는 비용과 잃게 되는 혜택의 균형을 계산한다. 대개는 남을 믿지 않는 경우의 ‘남이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 비용의 손실’은 없다. 반면에 남을 믿었다가 배신당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자기 비용의 손실’이다. 따라서 후자를 선택하는 편향성이 적응성에 유리한 것으로 진화했다.

11장. 착오신념의 부정적 결과

1. 긍정적 착오신념의 부정적 결과

긍정적 착오신념이 적응에 유리하도록 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긍정적 착오신념의 엄청난 부정적 결과도 있다는 것을 던닝은 주의시킨다.⁵¹ 과도한 긍정적 신념 때문에 사업체가 망하고 교육 분야나 정책에서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때로는 재난을 초래한다. 개인적으로 건강관리에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착오신념 때문에 의사의 지시를 무시한다. 건강을 무리하고 음주흡연을 하며 성병에 걸리고 미혼모 임신을 한다. 긍정적 환상이 적응에 불리하다는 증거는 허다하다. 구애를 하는데 자기를 과신하여 거절당하는 예는 망신당하는 정도로 비용이 적은 것이다. 그러나 6.25 직전에 남한 국방군이 북한을 하루에 점령한다며 낙관했던 비용은 역사의 비극을 가져왔다. 오늘날 남한 사람들의 군사력에 대한 과신도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 긍정적 환상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비극을 초래한다. 긍정적 환상

51. Smith, E. R. & Collins, E. C. (2009) Contextualizing person perception: Distribu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16:343–64.

과 적응성 있는 결과의 관계에 환경 요인에 의한 정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감안해야 한다.

착오신념이 사람의 생물학적 기제에서 직접 발생한다는 주장이 맞기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편견이 환경에서 초래된다. 사람의 생물학적 기제가 완전하더라도 환경이 부정확한 정보를 오도하면 적응성의 실패가 발생한다. 사람의 생물적 기제는 친족이나 친구를 신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친구를 믿고 재정 담보를 했다가 친구의 사기나 파산으로 인해 본인도 재정 파탄에 빠지는 경우 비용은 경제적으로 크다. 부모-자식 간에, 부부 간에 믿고 따르다가 실패당하는 경우 신뢰가 치명적 손실을 초래하는 예다.⁵²

긍정적 착오신념이 적응에 불리한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에 관한 지나친 긍정적인 환상에서 우리 선조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상대를 과소평가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겨울 식량저축을 과대평가했다면 굶어죽었을 것이다. 긍정적인 환상은 개인주의와 개인의 용맹을 강조하는 서구에서 풍부하다. 동양에서는 남을 배려하며 자기비판, 자기 향상에 더 신중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환상이 약하다는 견해가 있다.⁵³ 그러나 한국사회도 긍정적인 환상이 넘치며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가장 현저한 현상은 자기 자녀의 능력에 환상을 갖고 과대평가하여 과도한 사교육 경쟁의 지옥으로 아이들을 몰아넣는다.

-종교에서는 초월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착오신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학적으로 배제한다. 그렇지만 초월자 인식 자체가 긍정적인 환상이라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1) 신념은 환경에 따라 변한다

공동적으로 나누는 착오신념이 생태적으로 이미 고안된 유전적 기제

52. David Dunning, "Misbelief and the neglect of environmental context"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53. Carol S. Dweck, *Why we don't need built-in misbeliefs*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라는 제안은 정확치 않다. 아기가 출생 후에 주변의 여건이나 사건들이 발생하는 개연성에 대한 민감성이 각기 다르며 환경에 대해 편향적으로 주의를 집중한다. 어머니가 사랑이 넘치는 충분한 접촉을 하며 반응을 주는 아기와 그렇지 않는 어머니를 가진 아기의 정서와 지능 발육이 다르다. 또한 아이마다 각기 다르게 자기 추론능력과 정서적 반응 행태 등에 의해 환경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워간다. 어린이들이 행위에 실패하면 부정적 추론을 하며 차후에 수행 장애를 받는다. 어린이들이 행위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 노력을 통해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고 그 신념에 따라 행위를 한다. 아기들이 착오신념들에 대해 마음 문을 열어 두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므로 아기들이 적응하는데 특정한 착오신념들이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사람은 수시로 새로운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고 유동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새 상황에 수반하는 신념과 착오신념을 추론하고 흡수할 필요를 갖는다.

최근 실험에 의하면 사람들은 우세한 신념을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쉽게 채택하는 경향을 갖는다. 사람의 지능이 고정된 것이라는 내용을 읽은 피험자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에서 영민한 것이 핵심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능이 유동적이라는 내용을 읽은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피험자들은 그 조직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 조직의 신념들과 가치들을 자기들 것으로 내면화한다.⁵⁴ 신념자체가 우리의 생물학적 장치인 두뇌에 구조화되기 보다는 편만한 외부 신념과 착오신념을 채택할 준비태세가 구조화된 것이라고 하겠다.

환상을 신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 더욱이 긍정적 환상을 착오신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론가들도 있다.

54. Murphy, M. C. & Dweck, C. S. (2009, in press) A culture of genius: How an organization's lay theories shape people's cognition, affect, and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 신념의 사실성에서 분리되는 태도

“나는 마라톤을 할 능력이 있다”는 신념과 “나는 마라톤에서 땀 터이다”라는 태도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자기의 마라톤 능력에 대한 신념을 다루는 인식은 ‘사실성’(실제로 마라톤을 할 역량이 있다)의 규범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마라톤을 땀겠다는 태도나 뛰고 싶다는 희망은 실제 능력의 제약과 상관없다. 진화의 부산물이라는 긍정적 환상은 본인에게 혜택을 주는 마음의 상태이다. 긍정적 환상이 곧 허구 신념이라고 접어두기 보다는 긍정적 환상이 태도를 포함한다는 해석이 적당할 것이다. 즉, 긍정적 환상을 신념이라고 하기보다는 긍정적 태도나 희망이라고 해야 더 잘 이해된다고 플래너간은 주장한다.⁵⁵ 신념이란 사실성의 조명 하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규범적 주장에 일반적으로 수긍한다. 그러나 사람의 희망, 욕구 같은 것을 다스리는 인식의 표준은 사실성을 벗어나기도 한다. 허구신념에 의해 사랑, 직업, 수행능력, 행복의 역량 등이 증대된다는 심리학적 현상은 사실성 규범에 상반된다.

권투 매칭에서 양쪽 선수는 각각 자기가 이긴다는 신념을 갖지만 어느 한 편이 진다. 자기가 이긴다고 믿는 것은 사실 신념이다. 게임에서 패배하더라도 그 선수가 지닌 “이긴다”는 신념은 허구적 신념이 아니다.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은 분별성 있는 기대이다. “내가 이긴다”는 낙관이 비현실적일 수는 있으나 환상적으로 낙관하는 “내가 이긴다”는 그 신념이나 기대에는 오류가 없다. 여러 이론가들이 낙관적 환상, 희망, 기대, 긍정적 태도의 상태를 허구신념의 상태로 잘못 분류한다고 플래너간은 지적한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도 자기 긍정적 환상은 만연해 있다. 다만 긍정적 착오신념이 진화된 공통된 유전적 기질이라는 증거를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55. Owen Flanagan, “Can do” attitudes: Some positive illusions are not misbeliefs,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3) 믿는 것과 수용하는 것의 차이

낮과 밤이 바뀌는 지구의 현상에 관한 환상에서 “지구는 스스로 돈다”든가 “지구는 스스로 돌지 않는다”는 명제는 신념의 형태이다. 그 상반되는 연설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실용적 수용(受容; acceptances)이라고 프랭키쉬는 분류한다.⁵⁶ 그는 실용적 수용을 태도의 하층개념이라고 소개한다. 추론하며 결정하는 목적(“왜 밤과 낮이 바뀌는가?”)을 위해 어떤 명제(“지구가 돈다”)를 사실(전제)로서 취급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것이 수용이다. 어떤 현상(“숫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을 이해하려는 동기에서 어떤 명제(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수용보다도 신념(무임수태)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민족의 원시 부족국가의 시조들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언설은 지도자의 초월적 자질에 관해 적응성이 있도록 추정해낸 어떤 긍정적 환상이다. 이런 환상들에서 신념은 이미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형성되기 쉽다. 교회에서 여러 회중과 함께 세계창조에 관한 ‘창세기’의 전통적 교리 해석을 듣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자기의 신념으로 형성할 수 있다. 수용은 각 개인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창세기 설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신념 정보를 기억하는 차원층이 아닌 수용적 태도의 차원층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실 근거가 없는 적응성을 지닌 긍정적 환상을 수용하는 것은 태도의 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의리를 지키려면 친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이 친구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는 자기 고객의 주장을 믿지 않더라도 “나의 고객은 무죄다”라고 수용해야 고객을 변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착오신념이기보다는 주의 깊게 도달한 실용적인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은 이해(理解)를 동기로 하지 않는 실용적인 방책이다.

반면에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동기와는 관계없이 도덕적, 종교적, 직업상 등의 동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건을 수용한다. 2010년 3월 미국에서 기

56. Keith Frankish, *Adaptive misbelief or judicious pragmatic acceptance?*,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독교 성직자들이 자기가 설교하는 내용을 믿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터프츠 대학 연구팀이 발표해 기독교계에 충격을 주었다.⁵⁷ 이 보고서는 통계적 조사가 아닌 5명의 현직 개신교 목사(신학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이다.

이 목사들은 사람마다 하나님 개념이 다르다며 무신론자에 가깝게 된 다윈주의 영향을 보여준다. 또한 예수의 처녀 탄생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주일예배에 설교내용을 자기가 믿는 것처럼 연극하는데 그 방법이 자기가 배운 직업적 수단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수입 좋은 다른 직업이 가능하다면 떠나고 싶다고 이들 목사들은 진술했다. 이런 사례에서 이 목사들의 설교는 긍정적 환상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신념을 연극화(실리적 현실) 하고 있는 것이다.

2. 대인관계에서의 신뢰의 지표

우리는 일상적 대인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 관해 “솔직히 말한다”고 하는 경우 “그 사람이 정직하게 말한다면 믿어 보자”라고 한다. 그 사람의 말에는 진실을 중요시하는 충분한 배려가 있었다고 대개 가정하게 된다.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정직하게 자기 평가를 표현하는지를 감식하는 것은 관계 성립과 관리에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결혼의 배우자 선택과 혼인 유지에서 신뢰는 평생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해야 된다. 그룹이나 정치의 리더를 선출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의리와 충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중요하다.

그런 관계에서 사람은 흔히 자신에 관해 최대한 긍정적 인상을 주기 위해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를 한다. 상대방에게 자기의 인상을 좋게 보이도록 관리하려고 자기에 관한 정보와 상징들을 활용한다. 사람들은 1대1로 대면하는 관계로부터 집회, 재래적 대중 매체(신문, 방송),

57. Daniel C. Dennett and Linda LaScola, *Preachers who are not Believers*, Center for Cognitive Studies, Tufts University, Medford MA 02155, March 15, 2010, <http://ase.tufts.edu/cogstud/>

전자매체 등을 통해 자기에 관해 대리 표상하는 이미지들을 소통한다. 그 중의 한 부류는 자기에게서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자기에 관한 신념을 패키 지한 것이다. 사람이 자신에 관해 스스로 지닌 이미지와 남에게 소통하는 자기 표상에도 착오가 있다. 자기에 관해 남을 일부러 속이려는 경우 의도 적 허위 표상을 하지만 자신에 관해 스스로도 사실대로 알지 못하거나 착 각을 하며 표상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외통수의 고집쟁이다”라는 표상 은 상당히 사실성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체중의 여인이 “나는 팔등신 미인 이다”라는 것은 허구성 긍정적 환상의 표상이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 관 해 사실성 있게 인지하는 양상이 있고 사실성을 벗어나 환상적으로 감지하 여 표상하는 양상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적응성 있는 오류 표상(adaptive misrepresentation)이다.

우수한 성적표를 받는 학생이 대학 입학에 갖는 신념과 낙제 성적표 를 받는 학생이 “대학 입학 자신 있다”는 실용성 수용을 제3자인 지도교 사가 구분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사실 단서가 불충분한 경우 어떤 사람의 자기평가 주장만을 근거로 신념의 표현인지 편의상 주장하는 실용적 수용 의 표현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려면 그 구 분이 매우 중요하다.

1) 수용과 태도의 수준 구분

흔히 수용을 신념으로부터 구분하지 않으면서 태도라고 한다. 그러나 태도를 신념이라고 함께 분류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 구체적으로 혜택 있 는 착오신념과 잘 검토된 실용적 수용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 프랭키 쉬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다음과 같은 설명해 본다.⁵⁸

첫째는 명제를 평가하는 자기의 태도를 고려하면 신념-수용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목사가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천국’이 란 미래의 공간에서 실현되는 패러다이스란 사실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판단에 3자의 영향력 없이 자기가 통제를 갖

58. Keith Frankish, Op., Cit.

는 결정이라고 느낀다면 그 판단은 신념이다. 목사가 자신은 미래의 공간에서 실현되는 패러다이스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교인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자기가 믿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수용이다. 사실성에 대해 자기가 이해한 것과 관계없는 요인의 영향을 허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가? 그렇다면 판단은 신념이기 보다는 실용적 수용이다. 개인의 생각이나 단체의 지침, 정치적 과정에서 이러한 수용이 발생하는 것은 신념과 별개의 행위 선택이다. 정치인이 전 국민 보편적 복지를 공약하면서도 속셈으로는 예산 제약 때문에 공약 실행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한반도 분단해결 정책, 4대강 개발과 환경정책 등 민족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과제를 두고 신념 수준의 명제와 수용 수준의 명제가 만나지 않는 두 개의 평면(sphere)에서 진동하는 소음을 내며 국가가 혼란에 마비된다. 2010년 이후의 복지정책 논쟁 같은 경우는 사소한 신념과 수용의 착오로 발생하는 소요 사건이다.

둘째는 생각 속에서 긍정적 환상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택시 안에 고객이 놓고 내린 돈 지갑을 발견한 운전기사가 분실물 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고해서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생각하면 진실성에 인도되는 신념이 작용한다. 돈을 자기가 챙기고 지갑은 버리겠다고 실용적 수용이 작용하는 것이다. 교회 담임목사 후계자로 자기의 아들에게 세습을 구상한다. 이것은 착오신념의 소치가 아니라 교회의 장래와 자신의 은퇴 문제해결에 관한 답안 중에서 하나를 수용하는 것이다. 신념은 구체적 사실을 지향하며 진실을 향해 열린 생각을 하도록 이끈다. 실용적 수용은 사실 이해를 가치로 삼지 않는 맥락에서 작용한다. 기업이나 정치 조직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진실보다 충성이나 직업윤리 같은 것이 더 우선한다는 맥락에서 생각하면 불법을 묵인하는 수용이 된다. 권력층의 비리를 검찰이 손 못 대는 '성역'을 허용하는 문화는 신념의 문화가 아니라 실제적 수용의 문화다. 목사가 체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교회 공금을 남용해도 교인들이 묵인하는 것은 신념의 공동체가 아니라 실용적 수용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이다.

셋째는 신증정보보다도 오류를 선택할 경우에 실용적 수용이 작동한다. “윗 사람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면 되지 따지면 무얼 해?”라든가 “전에부터 그렇게 했는데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등의 압력에 쉬운 판단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배려하는데 진실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냐에 따라 결단을 선택한다. 그러한 결단에 이르는 배려를 하려면 종합적인지 역량이 요구된다. 고성능 컴퓨터 같이 기억용량이 풍부하고 계산속도가 빠른 두뇌 역량이 필요하다. 그 두뇌는 잡다한 사안들 때문에 단기성 작업기억이 과부하 상태에 걸리지 않고 순수해야 된다. 또한 진리성에 근거한 자신의 결단이 사회적 압력에 위배될 경우 자신의 판단을 행위로 관철할 주체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 의지는 강하게 박동하는 심장을 필요로 한다. 강심장이 진리성에 의존하기를 원할 때 신념은 최선의 가이드가 된다. 신념은 진실을 향해 열린 사려를 하도록 인도하지만 우리가 실용성을 선호할 때 신념은 장애가 된다. 그 실용성이 거짓을 동반하는 것을 필요로 할 때 신념은 악의 가이드가 된다. 악의 가이드인 신념을 관철하는 강한 심장까지 동반할 때 그 신념은 오류신념을 수용하게 된다.

2) 신앙 충성은 진실의 맥락에 있나?

그래서 자신이나 타인의 환상적인 자기 긍정 편향의 평가가 진실의 맥락에 의존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해야 된다. 실험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정확히 대답을 하면 상을 준다고 약속하면서 자기들의 능력과 개성을 평가하라고 요구한다고 가정하자. 포상이 증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보다는 실용성 수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의 교훈에 대한 신념 자체를 선택한 것이기 보다도 ‘신앙에 충성’함으로써 물질의 축복과 성공, 건강, 내세의 천당 등 포상이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 경우의 ‘신앙’은 신념 행위이기 보다는 실용성 수용의 태도이다.

그러나 어떤 명제를 받아들이는데 실용성 이유가 강할수록 진실을 임계기준(critical criteria)으로 삼아 배려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집사 직함을 준다고 제안했을 때의 신앙 실천 내용(건축 현

금 1천만원)과 장로 직함을 준다고 했을 때의 신앙 실천 내용(건축 헌금 1 억원)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실천(건축헌금) 지표로 표상된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실용적 수용이다. 물론 신자는 자기의 신념에 추가해서 자신에 관한 남들 사이에 평판을 배려하는 신호로서 신앙 실천을 과시할 수도 있다. 진실성과 실용성이라는 기준만을 근거로 한다면 협동은 상급의 실리성에만 따라 좌우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실리를 따라 당 소속이나 정강 선택을 뒤바꾸는 이유는 진실성을 기준으로 하는 신념보다 실용성 수용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추가해서 평판과 신호라는 변수도 있다.

3. 혜택과 대가의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착오신념

한국의 경제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은 1960년대 당시만 해도 긍정적 착오신념이었다. 긍정적 착오신념은 인류의 적응성을 높이는 데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행동할 동기의 계기를 제공하며, 그 행위에 수반하는 억제를 극복하며, 그 착오신념으로 혜택을 입을 타인들의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킨다.

사람은 실제 거리가 같은 대상이더라도 접근중의 대상에 대해서는 떠나가는 대상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는 편견을 갖는다. 이 것은 청각의 접근과 소멸의 편향성이라는 사람의 긍정적 환상 중 하나다. 이러한 허구적 편견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소비용으로 혜택을 최대화하여 적응성을 높이도록 진화된 기제이다.

오류관리 이론가들은 사람들이 오류를 관리하는 ‘비용의 비대칭성’(cost assimilatory)에서 긍정적 오류가 선택됐다고 설명한다.⁵⁹

사람이 자기 생명의 안전을 생각하는데 실제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인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부정적 오류)이 살인의도를 가진 사람이 적다고 믿는 것(긍정적 오류)보다는 안전하다. 이 두 가지 착오신념 중에

59. Martie G. Haseltona and David M. Buss, *Error management theory and the evolution of misbeliefs*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2009) Op.,Cit., Open Peer Commentary.

서 살의 가진 사람들이 실제보다 많다는 착오신념을 갖는 것이 목숨을 잃는 선택보다는 비용이 적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착오신념을 채택하여 진화에 전수됐다고 오류관리 이론은 주장한다.

1) 남자가 자기 성 능력을 과신하는 기제

대부분 남성들이 자기의 능력(특히 성 기능)에 대해 과신하는 긍정적 환상을 갖는다. 남성의 자기 과신은 여자에게 구애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배우자를 획득하는데 성공할 기회를 높인다. 이 기제는 자기의 생식확률을 증대하려는 적응성 신념의 표현이다. 남성의 자기 과신이 실제로 틀렸더라도 자기의 성 능력이 보잘 것 없다는 착오신념을 갖고 구애를 안 하는 경우보다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 남성은 자기 과신에 의한 접근을 하여 만약 여자가 성에 관심이 없을 경우 그런 관심을 갖도록 변화시킬 수도 있다. 남성은 자기의 건강한 외모, 학력, 경제력, 확장된 외연적 자아(가문의 여건이나 자기의 인맥과 영향력 있는 배경 등)를 전시하며 여성에게 구애한다. 특히 남성의 자기 성 능력 과신 같은 편향적 환상은 단순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그 편견적 오류에 연관되어 반복 발생한 혜택(혼인 성공)이 대가(퇴자 맞은 망신)보다 컸다는 비대칭 비용절감 방식을 진화과정에서 꾸준히 선택한 결과이다.

사람이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할 상황에 처하면 “사실보다 얼마나 차질 나는가”라는 오류의 규모보다는 “차질이 나더라도 손해 볼 것이 별로 없다”는 오류 비용절감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천암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 조사 발표’에 야당은 자기들의 반대명제가 틀렸더라도 오류비용이 비대칭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부의 조작이다”라고 도전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인지-신념-행위의 고리에서 편견이 형성되는 단계는 어느 것인가? 오류관리 이론은 이를 예측하는 데 중립적이다.

2) 체벌 교육 논쟁과 착오신념

실리적인 거짓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믿지 않는 아이들을 처벌하기도 한다. 한국 교육계에서 ‘체벌 논쟁’은 교육자들 사이에 현실성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한 착오신념의 대립이다. 신체에 제재를 가해서 학습 태도를 바꾼다는 신념이 한국 교육의 오랜 전통이 적법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인가? 교육-행동과학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입증된 방법이기 때문인가? 등에 관한 폭넓은 주장의 근거가 없이 관성적 신념으로 체벌이념 논쟁을 하고 있다.

3) 종교적 착오신념도 적응성을 위해 진화했다는 주장

초월자 개념은 여러 문화에서 진화과정을 통해 조상의 영, 혼령, 유령, 마녀, 자연물 등 여러 형태로 있었다. 서구 기독교 같은 현대 종교의 신은 여러 유형의 초월자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가 전통적 종교의 경전에 의해서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행위는 미신, 민속설화, 속명론, 인과응보 신념, 우발적 사건, 당연한 벌의 관념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무신론자라는 사람이 옷놀이를 하거나 도박장에 갈 때는 “재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데 그것은 초월적 존재의 영향에 대한 신념이다.

신에 관한 신념, 초자연적 신념은 긍정적 환상과 상호작용을 하며 적응성 혜택을 초래한다.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암이 완치된다는 긍정적 환상을 포함한 신념의 혜택은 그렇게 믿지 않았을 경우의 고통이나 죽음의 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 이런 적응 비용의 비대칭성 원리가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포함하여, 착오신념에 속하는 많은 종교적 신념들에도 적용된다고 오류관리 이론은 설명한다.⁶⁰ 종교적 초월자 신념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논리적으로 허술하다고 무신론자들은 공박한다. 그렇다고 신에 관한 신념

60. Dominic D. P. Johnson, *God would be a costly accident: Supernatural beliefs as adaptive*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을 버릴 수 없는데 진화론의 관점에서 그 이유는 초월적 신념이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그 적응성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초월신 신앙은 적응 비용의 비대칭적 경제성 뿐만 아니라 협동위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서도 등장했다고 오류관리 이론은 설명한다. ‘초월적 처벌’의 가설은 이렇다.⁶¹ 인류가 수렵시대에 함께 살면서 함께 사냥하여 음식을 나누고, 적을 만나면 함께 싸우는 협동이 시작됐다. 농경시대를 거쳐 시장경제로 발전하면서 협동으로 공생하는 상호관계는 더욱 중요하게 됐다. 그 협동의 상호관계에서 협동 기피자나 배반자를 처벌하는 것이 협동의 유지 수단으로 등장했다. 인간이 언어와 사고의 이론을 진화시키면서 서로 배반하면 발견되어 처벌받을 개연성이 훨씬 증대했다. 그 때문에 이기주의를 택하는 비용이 증대했다. 그러나 개인들이 배반을 생각하거나 공동으로 음모하는 경우, 그리고 남 몰래 하는 배반행위를 하는 것을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인간보다 초월적 감시 능력을 가진 초월적 존재의 개념이 등장했다. 초월적 존재가 감시하고 상과 처벌을 준다는 신념은 이기주의적 배신행위로 인해 치러야 될 비용을 증대시켰다. 공동체로서는 개인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적발하여 처벌하는 실제 비용을 감소시키게 됐다. 이것이 협동을 위해 신 개념이 출현했다는 오류관리 이론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신’이라는 존재의 개념이 등장했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못 된다. 신 개념 없이 단지 이기적 행위를 피하도록 더 조심하면 되지 않는가? 신의 신념을 도입하는 것이 단지 더 경제적인 때문인가? 비용의 비대칭 관계에서 착오신념이 왜 정확한 신념보다 유리한가? 라는 질문들이 가능하다. 사람들의 이기성을 감소시키는데 단지 조심하는 것은 신 개념보다 덜 효과적일 것이라고 오

61. Johnson, D. D. P. (2009) *The error of God: Error management theory, religion, an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In: *Games, groups, and the global good*, ed. S. A. Levin, pp. 169–180, Johnson, D. D. P. & Bering, J. M. (2006) Hand of God, mind of man: Punishment and cognition in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Evolutionary Psychology* 4:219–33.

류관리 이론가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신이 지켜본다”고 과대 추정하는 비합리적 신념은 실제로 발각될 위험이 있는 이기적 행위를 줄이는 경제성과 합리성을 지닌다. 종교의 파워는 바로 그 비합리성과 허위조작을 못하게 하는 면모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가진 집단의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경험적 증거가 있다. 초월자, 자기기만, 긍정적 환상은 각각 독립 현상이지만 이들 세 가지를 모두 적응성 있도록 하는 상호작용이 발생한다.⁶²

첫째, 초월자에 대한 신앙관을 갖는데 자기의 이해를 기만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초월자의 처벌 신념이 효과를 내려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그리고 반대 증거가 있더라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신념을 강화한다. 어떤 사람이 병들거나 불행당하는 것이 죄의 탓이며 신의 벌이라는 통념은 보편적으로 있다. 어떻게든지 신을 만족시키면 자기의 병이나 불행을 신이 제거하라는 자기 기만적 환상을 흔히 갖게 된다.

둘째, 긍정적 환상의 일종인 초월적 종교 신념에서 자기의 잠재력에 대한 자기기만은 필수적이다. 그 환상을 갖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 적을 저지하는데 효과적이며 자기의 몫을 포기하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초월적 종교 신념은 세 가지의 긍정적 환상을 포함한다. 긍정적 자기평가(“신이 나를 선택했다”), 환상의 통제(“어려울 때 신이 나를 도울 것이다”), 장래에 대한 낙관(“신이 나를 위해 하늘나라를 예비해 두었다”) 등이 그런 것이다. 이런 유사한 신념들이 세계의 허다한 종교에 보편적으로 있다.

신념이 초래하는 큰 혜택으로 인해 종교는 적응성을 지닌다는 것이 입증된다. 종교의 개인적, 집단적 혜택은 그 비용을 능가하므로 종교적 신념 행위로 인한 비용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더 큰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 개념은 단지 값비싼 부담이 된다. 그리고 아무 혜택이 없는 종교라면 문화에 기생하는 기제로 전락한다. 진화론자들이 종교가 단지 진화의 적응성 있는 부산물이라는 주장은 초월자 개념을 지니게 된 근원에 대한 질문에

62. Dominic D. P. Johnson, Et., al., Op., Cit.

답을 주지 못한다고 오류관리 이론은 반박한다.

4) 자기 평가의 부정확성

사람들이 자기에 관해 평가하고 표현하는 신념이 늘 정확하지는 않다. 사람들은 쉬운 과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여러 연구 데이터들이 있다. 미국 고등학생 828,516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들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89%가 자기는 평균 이상이라고 답했으나 리더십 능력에는 70%가 자기는 평균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를 ‘평균이상 효과’(above-average effect)라고 한다.⁶³

즉 이런 데이터들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 긍정적 편향의 환상을 갖는 만큼 부정적 편향의 환상도 갖는다는 증거이다. 경쟁이 쉬운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에서는 자기의 경쟁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기준이 높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상대적 위치를 과소평가하고 기준이 낮을 때는 자기의 상대적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 면모라고 할 수 있다.⁶⁴

비웃은 것 또는 적대시 한 것이라며 시비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 이런 착오신념에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환상의 정보가 주요 요소다. 정신병 환자는 방문 밖에서 열쇠 소리를 낸 것은 자기를 해칠 침입자의 행동이라는 식의 피해망상 허구를 주장한다. 한국 정치인들의 보수-진보 정책 실천과 남북한의 공박이 그러한 착오신념의 예이다.

63. College Board (1976–1977) Student descriptive questionnaire. *Educational Testing Service*, College Board.

64. Justin Kruger, Steven Chan, and Neal Roese, (Not so) positive illusions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4. 착오신념이 허구적 환상은 아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미소를 짓거나 눈을 바로 마주 본 것이 자기를 비웃은 것 또는 적대시 한것이라며 시비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 이런 착오신념에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환상의 정보가 주요요소다.

정신병 환자는 방문 밖에서 열쇠 소리를 낸 것은 자기를 해칠 침입자의 행동이라는 식의 피해 망상 허구를 주장한다. 한국정치인들의 보수-진보 정책설정과 남북한의 공박에서도 허구적 망상을 볼 수 있다. 정상적인 부분간의 불륜을 의심하는 피해망상이나 종교적으로 축복 망상도 분류상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착오신념을 구성하는 환상이 모두 허상 아니라 사실일 경우가 있다. 배우자 간의 불륜을 의심하는 피해망상이나 종교인의 축복망상도 분류상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착오신념을 구성하는 환상이 모두 허상 아니라 사실일 경우가 있다.

그러한 허상도 사실로 입증되는 차이를 필자는 가능성과 개연성의 차이라고 본다. 어떤 사람이 복권 1장을 사든 1백장을 사든지 그 주간에 한번 당첨에서 당첨될 가능성(possibility)은 50%, 안 될 가능성 50%이다. 반면에 당첨될 개연성(확률;probability)은 수천만 분의 1(복권의 숫자조합에서 나오는 확률이 수천만 분의 1이라는 전제에서)에 불과하다. 복권 1백장의 당첨 개연성이 1백배로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분의 1백으로 약 소하게 증대될 뿐이다.

환상의 정신과 진단에서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교정불능성(in-corrigibility)은 합리적(증거가 있는)인 반대 주장 앞에 고집스럽게 자기주장을 세우는 완강한 성향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질투나 자기가 죽었다는 환상 같은 것은 반증할 증거를 수궁하지 않는 이해 안 되는 환상이다. 둘째 주관적 확신(subjective certainty)은 환상에서 채택하는 자명한 사실의 질(확신의 강도)에 관한 것이다.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 때에 십자가를 밟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목숨을 살려 준다는 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교한 신도들은 주관적 확신을 가졌다. 셋째 이해불능성 (incomprehen-

sibility)은 단순한 정보 내용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환상 또는 근거를 알 수 없는 맥락에서 출현한 환상이다. 중세기에 “지구는 돈다”고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의 환상은 당시에는 착오신념이었으나 후에 사실성이 입증됐다.

12장. 사람의 환상은 어떻게 발생하나?

우리 옛 설화에 어떤 사람이 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앞길에 막힌 큰 장애물을 보고 호랑이를 만났다고 판단하여 온갖 힘을 다해 활을 쏘았다. 다음 날 아침 밝은 다음에 가보니 큰 바위에 자기의 화살이 박혀 있었다. 현대 도시화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바위’를 ‘호랑이’라고 판단하는 환상을 흔히 갖게 된다. 이런 이해 불가능한 허구적 환상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왜 발생하는가?

1. 환상발생은 인지의 착오와 왜곡으로

환상발생의 첫 단계에는 사람의 감각기능이 평상 경험을 넘어서 인지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바위를 호랑이로 착각하는 것, 부상당한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 그 다리 위치에 감각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그런 것이다. 정상적 과정에서도 주의집중으로 인해 촉발된 어떤 편향된 기대에 의해서 인지 오류가 발생하는 양상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무덤에 두고 집에 돌아와서 어느 방에선가 그 사람이 살아나올 것 같은 환상을 갖는 이유는 그가 살아나오기를 기대하는 편향된 주의집중의 소치이다. 예수 부활의 사화를 잘 검토해 볼 이유가 이런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는 인지된 자극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동화 ‘백설 공주’의 계모처럼 거울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세상 제일의 미인이라고 왜곡 인지하는 것이 그런 허상이다. 이 두 번째 단계의 환상은 자기의 관찰에 대해 믿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 선택적 편견을 적용하는 때문에 생

긴다. 또한 인지 내용을 신념으로 들어 올리는 자동적 심리적 기제를 제어할 능력이 없어서 발생하기도 한다. 대상 자체에서 확실히 제시되는 자명한 사실을 잘못 인지하는 것을 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실체는 불을 때고 있는데 “화재가 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화재 염려에 대한 선입견의 심리 기제를 억제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을 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안이한 선입견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다.

환자가 병을 얻은 이유는 자기를 신이 벌하는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쁜 의사가 자기 생명의 엿센스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환상을 갖는다. 건강에 지나친 염려를 한다든가 의처증을 갖는 경우는 정상적 과정에서 기대에 의해 촉발된 주의집중의 편향에 의해 발생하는 양상일 수 있다. 자기의 예술 작품에 대한 평론가들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재 예술가라고 믿는 과대망상도 그런 긍정적 환상일 것이다.

2. 환상은 심리적 비용절감을 위해 발생

1) 비용절약이 환상을 발생케 하는 동기

특별한 동기가 없이 일상적인 동기에서 발생하는 환상은 사실을 왜곡하는 비용 때문이라고 진화론의 적응성의 이론은 설명한다. 이것은 비용과 혜택을 계산하는 합리적 결정이론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 구제역 병에 가축들이 집단으로 죽어가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신념은 정상적이다.

나. 자기를 애인이 버렸다고 믿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이는 나를 안 버렸어”라고 사실 신념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다.

다.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신념의 혜택이 큰데 비해 “사실 그는 죽었다”라고 격하시키는 심리적 비용(고통)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래서 “그는 죽었다”고 신념을 수정하지 않고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환상들을 신념으로 삼고 정치는 물론, 종교 신앙관과 교육 이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된다.

2)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는 비용절약의 환상적 신념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제시된 과학적 설명에 대해 한국인 3분의 1과 친북 성향의 사람들이 한국 정부의 조작이라는 신념을 택했다. “천안함 침몰이 한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괴상한 정보(또는 환상의 경험)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왜 정상적이라는 신념을 지니는가?

- “한국정부의 발표대로 사실이다”라는 신념을 받아들이는 경우의 비용은 “북한에게 당했다”는 내부 그룹에 대한 존중심의 손상이다. 반면에 혜택은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조치가 강화되는 것이다.

- “한국정부의 의도는 신뢰하지만 발표 내용에 수궁하기 어렵다”라는 신념을 택하는 경우의 비용은 무엇인가? 한국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하지는 않았고 단지 객관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할 뿐이기 때문에 확신의 강도가 약하다는 전제에서라면 비용과 혜택은 위와 마찬가지로 같다.

- “한국정부의 의도적 조작이다”라는 신념을 택하는 경우의 비용은 무엇인가? 역시 내부(진보) 그룹에 대한 존중심의 손상일 것이다. 국가 단위의 혜택보다도 소단위 이념 그룹이나 정파의 위신과 평판을 더 중요한 가치로 한다면 정부의 정보를 신뢰하는 것은 소그룹의 위신과 평판에 비용이 손실이 된다. 정부의 정보를 불신하는 그 혜택은 무엇인가? 국가 단위의 사회에 미치는 혜택은 마이너스이다. 반면에 이념 그룹이나 정파의 소집단의 위신과 평판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위신이 격추되는 것을 비용으로 염려한다면 그들(진보파)의 내부 그룹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 그 경우의 혜택은 한국 정부의 신뢰를 삭감하여 북한의 위신과 평판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13장. 인지 편향성이 발생하는 원인

1. 확인 편향성의 문제

1)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나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은 성향의 차이로 인해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 여러 부문에서 개인의 신념이나 사회적 신념으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립되는 양측은 서로 다른 편의 주장이 착오신념에 근거했다고 공박한다. 착오신념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적응의 혜택 때문만 아니라 진화의 관성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들도 있다.⁶⁵ 사람이 걷는 행위처럼 태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며 기능 모두가 진화의 결과는 아니다. 특히 후천적으로 진화된 사람의 인지 기능에서는 확인 편향성(confirmation bias)이 편재한다.⁶⁶ 확인 편향성이란 자기의 전제나 가설을 확인해주는 증거에 비중을 더 두고 가설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현상이다. 확인 편향성은 앞서 지녔던 신념을 지지하는 증거를 활발히 찾으면서 새로운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념에 집착하는 경향이다. 이 현상은 증거수집에서 편향적 선택을 함으로써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의 일부는 사람이 두뇌에서 부정적인 개념이나 정서를 처리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기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로 변화하는 기제

반대정보의 효과: 무신론을 주장하며 과학적 증거 수집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어떻게 유신론자로 개종하는가? 신이 보이지 않으니 없다는 선입견을 확인하는 증거들을 수집해온 편향성은 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증

65. Gary F. Marcus, 10,000 *Just so stories can't all be wrong*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2009) Op.,Cit., Open Peer Commentary.

66.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175–220.

거들을 계속 외면해 온 인지 오류의 결과이다. 확인 편향에서 처음의 조건이 계속 나타나지만 편견에 반대되는 정보를 계속 공급하면 편견이 수정된다는 증거도 있다. 그러므로 반대 정보를 계속 주면 사고하는 방식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를 역 긍정화의 규칙(Contrapositive Rule)이라고 한다.

사회적 맥락의 영향: 새로운 외부의 조건이 제시되는 사회관계의 맥락도 확인 편견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도 있다. 어떤 조건에 혜택이 따른다든가 새로운 주장을 주변의 사람들이 반복해서 언급하면 본래의 편견이 수정될 수 있다. 교회에서 주는 어떤 혜택 때문에 (불치병이 치유된다든가 경제적 원호를 받는 경우) 무신론자가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기독교 신자로 개종하게 된다. 지성의 편향적 증거에만 의존하던 이어령 교수가 최근 자녀의 건강문제와 딸의 영향으로 신을 긍정하게 된 사례가 이 유형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신념 선호와 수정은 일반적 지능의 영향이기보다는 경험적 증거 조건과 사회적 관계에 따른 적응성을 높이는 선택을 해온 진화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자가성취 예언과 예정된 역설

그리스의 ‘에디퍼스’ 신화는 사람이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한 신념을 갖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그 믿었던 결과가 실제 사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현상을 서술한다.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그 아이를 버렸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결국 아버지인 줄 모르고 왕과 결투를 하여 그 아버지를 죽이고 왕비인 어머니와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는다. 이 고전의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스스로 성취하는 예언’(Self-fulfilling prophecies)이라고 한다. 이런 자가성취 예언이 발생하는 원인도 확인 편향성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에서 고든 무어가 1965년 컴퓨터 칩의 회로를 압축하는 트랜지스터 숫자가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초기의 경향을 관찰하고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상당한 기

간 동안 이를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라고 하여 18개월을 벤치마크로 삼아 그 목표를 추구하며 실현하게 됐다. 사람들이 자기가 공개적으로 “나는 담배를 끊겠다”든가 “교회에 더 헌신하겠다”고 고백한 내용을 따르기 위해 태도를 바꾸면 그런 예언이 자가성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가성취 예언은 자기의 장차행위를 어떤 지표에 대조하면서 확인하는 편향성 때문에 개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남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생각하여 협동 증진을 초래할 수도 있다.

4) 자가패배의 예언과 반대확인

이와 상반되는 자가패배의 예언(self-defeating prophecy)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신념을 배반(반대확인)하려고 한다. “너는 두뇌가 아둔하다”는 말을 들은 아이가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낙제를 면할 수 없어”라는 자가패배의 예언을 확인하려고 낙제를 하겠는가?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그 것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counter-confirmation; 반대확인)하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떤 명제를 들은 사람들이 그 명제가 허위로 드러나기를 원하면 그들은 그 명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낙제를 면하지 못한다”고) 그 달성에 어긋나도록 반대심리가 작용할 것이다. 어떤 예언이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 실리적이라면 그 예언된 사태 발생을 방지(반대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어떤 예언이 현실화되는 것이 실리적이라면 그 예언된 사태가 발생(확인)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가 패배의 예언과 자가 성취의 예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떤 일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하여 실패하면 그것은 자가성취의 예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그룹이 자기들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그 과제 수행을 중단하면 그들의 자가성취 예언은 현실화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패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지만 긍정적 피드백 때문에 오히려 성공하면 그것은 반대확인 노력에 의한 자가패배의 예언이 된다.

5) 예정된 역설

예정된 역설: 확인 편향성의 한 유형으로 예정된 역설(predestination paradox)은 과거를 아는 경우, 시간을 되돌아가서 그 기억 정보와 합치하는 사건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깡패였던 사람이 회개하여 목사가 됐다고 하자. 한 동안 목사직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옛날의 자기 모습을 회상하는 기억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 예전의 사진을 보든가 또는 전의 깡패 친구가 “너는 깡패이지 목사가 될 수 없다”면서 전의 비행을 들추겠다고 협박을 하면 그 목사는 “별 수 없어, 나는 깡패로 돌아간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즉 이 경우에는 다시 출현한 정보를 확인하는 편향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2. 동기가 사고를 편향시키는 문제

흡연자들은 흡연의 위험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고 위해로운 잠재성을 지닌 정보의 내용과 가치를 축소시키려고 더 애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념에 반대되는 좋아하지 않는 주장들을 자기의 이해관계를 무릅쓰고 격하시키려고 애쓴다. 이렇게 생각하며 믿는 현상을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이라고 한다. 동기에 영향받아 생각하면 자아와 조율(ego-dystonic)이 덜 되는 신념보다는 자아와 더 잘 조율되는 신념에 더 굴복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⁶⁷

예를 들어 “나는 똑똑하다”는 긍정적 자기 환상은 살아남으려는 동기의 방편으로 “똑똑 한 것”이 자아개념과 잘 조율되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다”는 편견을 채택한다. “나는 바보다” 대신에 “나는 똑똑하다”는 긍정적 자기 환상이 등장한 것은 단순히 진화의 부산물이기보다는 동기화된 추론의 결과라는 이론이 더 설득력 있다.

67.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3):480-498.

1) 동기화된 추론의 전제들

종교계에서 정통 보수파가 이단 신념을 가진 그룹을 정죄하는 논쟁이나 정책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내걸고 팽팽히 맞선다. 이러한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편견은 단지 인지과정의 문제보다는 편견 형성에 영향을 주는 동기 때문이라는 이론이 더 일관성 있다.

사람들이 단지 성경해석이 지적인 신념이나 사회복지 개념의 인지적 차이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자기들의 신념이 옳고 상대방의 신념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동기가 있다. 자기 측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신념은 틀렸다고 반대확인하려는 편향된 동기에서 신념을 추론하여 구조화하는 과정이 진행됐을 것이다. 그 경우 상대의 신념을 이단이라고 판단하려는 동기가 그 신념에 접근하며 평가하는 인지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이 추론할 때 정확성을 기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동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동기에서 추론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목적을 지향하는 동기에 의한 추론은 사람의 태도, 신념, 그리고 추론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영역의 연구들이 있다. 신념이 구조화되는 과정에 미치는 동기의 영향에 대해 여러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메타 리서치를 한 쿤다가 추출한 원리들을 다음에 소개하며 설명은 필자가 부연한다.⁶⁸

2) 동기화된 추론을 하는 기제

사람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면 무관심한 제3자들이 보기에 그릴듯한 결론의 정당성을 구성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타당한 신념과 규칙 중에서 단지 자기에게 그릴듯한 편향된 부분적 신념과 하부규칙(sub-rule)을 우선 찾아본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다는 반직관적인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동기에서 신약성경 저자들은 ‘성령에 의한 기적’이라는 하부규칙을 도입했다. 그 신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신

68. Kunda, Z. (1990), Op., Cit.

념을 ‘사도신경’에 교리로 화석처럼 굳혔다. 동기화된 추론의 결론이 편향된 기억 탐색과 신념 건설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을 이런 신조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동기는 신념을 형성하는 추론에서 편향성을 단지 촉발시킬 뿐이다.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려는 설화에서처럼 임신의 초월성을 설명하려는 동기는 일상적인 남녀관계로 그가 출생된 것이 아닌 설명이어야 된다는 편향적 추론을 촉발시켰을 뿐이다. 동정녀의 임신이라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그 다음 단계에서 편향성 추론 진행을 거쳐 “성령에 의해서”라는 결론에 비약하는 과정에서는 역량 있는 인지의 기능이 중요하다.

그런데 동기의 편향을 부여하는 데 기존 지식이 제약 조건이 된다. 동정녀 임신을 설명하는 데는 만물의 양성번식원리에 관한 지식이 제약조건이다. 기존하는 자아개념(“나는 모범생이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항상 남의 표본이 되도록) 자아를 지향토록 영향을 준다. 사람은 “내가 공부를 한들 얼마나 잘 하겠는가”라는 식으로 행위수행이 어떻게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예비지식을 갖고 있다. 이 자기의 능력에 대한 지식(“나는 과학 공부에 소질이 없어”라는)이 인지(“나도 과학자가 될 수 있다”)를 제약하는 동기(“나는 과학 지망을 포기해야지”)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기존하는 태도가 동기를 편향적으로 지향하도록 영향을 준다.

어떤 전문분야에 관련 학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동기에는 예비지식은 물론,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황 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가 범 죄 수준으로 편향된 것은 지식 요건의 제약을 넘어서 사실성 현실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에서 결과를 왜곡하려는 동기가 촉발된 것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로운 신념체계(제안)에 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려고 자기의 지식을 편향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하게 된다. 편견은 타당한 지식들 중에서 일부만 접근하고 나머지 지식에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타당한 지식구조에 접근하면 동기를 목표에 편향된 방향으로 지향케 된다는 3가지 증거들이 있다.⁶⁹

69. Kunda, Z. (1990), Op., Cit.

첫째는 자기의 목적으로 인해 기억과 신념을 즉흥적으로 유리한 것만 열거하는 경우이다. 정치인들은 현재의 지도자라는 자기 개념에 맞는 자신의 경력에 관한 기억(모범 학생이었다)만을 재생해낸다. 목사는 자기의 설교 제목과 메시지 전개에 맞는 성경구절들을 찾아낸다. 전문 분야 학자들조차도 자기의 현재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문헌을 주로 찾아낸다.

두 번째 유형은 기억과 신념들을 인출하고 그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정한 결론을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더 빨리 처리하도록 기억력이 작용한다. 자기의 현재 자아개념이나 입장을 지지하는 자신의 기질에 관한 기억이나 신념이 더 접근하기 쉽고 빨리 인출된다. 기억내용 인출과 반응시간은 현재의 태도나 신념과 관계되는 것이 더 빨리 인출됨으로써 그 대안(종전에 정당화했던 태도와 신념들)의 출현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셋째는 사람들이 별개의 목적이 출현할 때마다 그 달성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다른 통계적 전략을 활용한다. 대개는 기본율(base rate)을 활용하지만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수량이 큰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자기의 목적 지향 결론에 부합하는 지식 구조(기억, 신념, 규칙)에 접근하려는 경우 두뇌의 기억 인출시간이 빨라진다. 그러한 기억 접근능력이 향상되거나 지체된다는 것은 기억체계에서 타당한 지식을 편향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반영한다. 인출된 기억내용은 기억의 접근이 향상된 것을 반영하기보다는 반응의 편향성을 반영할 수 있다. 그 경우에 향상된 기억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자아개념과 일관성 있는 기억을 반영하게 된다. 그 것은 자기가 그런 자아개념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욕구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동기가 정서를 통해 기억에 영향 준다.

“아 그런 것은 생각하기조차 싫다”는 내용은 기억 회수가 어렵다. 또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었지?”라고 질문할 경우에는 쉽게 기억이 회수되지

만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라고 자가 암시하는 경우에는 기억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기억을 인출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기억 내용에 대한 접근이 향상된 때문이기보다는 정서가 부착되어 추론 시간에 영향을 준 것일 수 있다. 좋아했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수십년 후에도 금방 생생하게 기억된다.

기억을 인출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정서가 부착되어 추론 시간에 영향을 준 것일 수 있다. 싫어했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며칠 전의 일도 잊어버린다. 그러나 그 증거는 아직 제한돼 있고 이 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여하튼 방향지향으로 동기화된 추론은 기억을 편향적으로 탐색하는 결과이라고 본다.

4) 확인 편향의 사례들

“나는 외향적인가?” “나는 내 애인을 정말 좋아하나?” 같은 질문을 할 때 동기 또는 목표는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결론이 사실인가를 질문하는 데로 이끌 뿐이다. 그래서 그 질문을 “나는 과연 외향적이다” “나는 그를 진정 사랑한다”고 긍정적 편향의 전략으로 확인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것으로 끝난다. 사람들은 자기가 검증하려는 가설과 불일치하는 사례보다는 일치하는 사례들을 찾으며 가설을 입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향이 여러 각도의 실험에서 드러났다. 가설과 일치하는 증거들이 가설에 일치하지 않는 증거들과 혼합되어 제시될 때 사람들은 전자를 택하므로 가설을 확인하는 편견에 도달하게 된다.

대학입학을 지망생의 고교 학생평가서에 의존할 경우를 예로 보자. 지망생이 많아서 될수록 지망생을 떨어트려야 된다는 방침(목적)으로 심사를 하면 우수하지 않은 지망생들은 불합격한다. 지망생이 적고 학교 재정관계상 후원자 보결생도 선발해야 되는 방침으로 심사를 하면 평균 수준의 지망생들은 대부분 합격될 것이다.

3. 목적 지향 동기 외의 확인 편향 요인

사람이 편향적으로 기억을 탐색하거나 신념을 구조화하도록 제약하는 요건 중에는 인지 불일치를 최소화하려는 동기가 작용할 것이다.

1) 인지의 불협화음을 회피하려는 동기

교회에서 신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라고 물으면 “확신합니다”라고 답한다. “당신은 죄를 모두 회개했습니까?”라는 중립적 질문을 하면 머뭇거린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지녔으니 당신은 죄인이다”라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저항하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겠다”라는 판단을 한다. 이 현상은 사회적 맥락(목사의 권위나 회중)의 분위기가 지향하는 신념에 불협화음(dissonance)을 의식하는 데서 발단한다. 사람은 자기의 내면적 인지 불일치를 감소시키고 새 상황이 제시하는 남들의 신념에 맞도록 타협하려 한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조화의 패러다임에 따라 남의 새로운 태도를 포용하려는 욕구에 저항하면서도 자기의 현재 태도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타협하게 된다. 그 타협과정에서 역시 편향된 기억 탐색을 할 수 있다.

불협화음을 회피하려 해도 어느 정보를 탐색해야 되는지 표준이 없는 상태라면 기존 신념 중에서 단지 편향성 기억을 탐색한다는 증거가 있다. 어떤 신념이나 과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데 단지 공정하고 편견 없는 다른 의견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면 편향성 기억을 선택한다. 그리고 사람은 남의 성취한 결과가 자기의 신념에 반대되는 경우 더 정밀하게 평가하는 편향성이 있다.

남의 연구결과를 심사하는데 더 까다롭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선입견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고 요구해도 그 적대적인 편향성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공평하고 편견 없이 판단하라는 권고로는 사회적 편견을 줄이지 못한다. 그러나 본인들의 연구가 기존 이론에 반대되는 결과를 냈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 지 생각해보라고 요구하면 그 까다로운

평가 경향이 감소된다. 이 현상을 ‘반대 태도의 입장’(counter attitudinal positions)의 효과라고 한다.⁷⁰

본인의 태도와 다른 입장을 선택하라고 준봉을 강요하는 압력을 받을 때 인지의 불일치(cognitive dissonance)가 발생한다. 준봉을 강요당한 상황에서 개인은 자기의 태도를 취할 입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며 그때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적 현실에 준봉함으로써 인지의 불일치를 감소시키게 된다. 그때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적 현실에 준봉 하므로써 인지의 불일치를 감소시키게 된다. 반대 태도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야될 필요는 없다. 그 가설이 확인됐다. 한편 사람이 여러 개의 정보 근원이나 주장들에 계속 노출될 경우 주의 분산으로 인해 그 메시지의 설득력이 감퇴한다.

회고 편견

사람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때, 그 사람”에 대한 미련 같은 것도 버리기 어렵다. 이 현상을 회고 편견(hindsight bias)이라고 한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생각을 버리라고 단지 설득하더라도 이미 결론 내렸던 신념은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거냐?”고 반대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면 그 회고 편견이 줄어든다. 이 기제는 사람이 어떤 가설에 대한 대안을 즉각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⁷¹

반대 입증의 지연

예수가 육신으로 부활했고 자기도 죽은 후에 몸으로 다시 산다는 신

70. Lord, C. G., Lepper, M. E., and Preston, E. (1984). “Considering the opposite: A corrective strategy for soci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231-1243.

71. Baruch Fischhoff, AN EARLY HISTORY OF HINDSIGHT RESEARCH, *Social Cognition*, Vol. 25, No. 1, 2007, pp. 10-13

앙이 확실한 교인은 그 신념을 포기하라는 박해에는 순교할망정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 자기의 지식이 정확하다는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은 편향적인 결론으로 이끄는 추론을 하는 동기 유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 신념을 확인하는 편향성이 작용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은 육신이 부활할 수 없다는 이유--즉, 자기들의 신념에 반대되는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그 확신감이 떨어진다. 이 경우처럼 편향되지 않은 대칭적인 기억(symmetrical memory) 탐색을 하도록 권장하면 확인 기존 신념 확인 편향성이 감소된다는 실험증거가 있다. 가설을 확인하는 긍정적 추론은 두뇌 신경망에서 즉각적으로 진행되지만 가설을 반대입증(disconfirming)하는 추론은 즉흥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증거는 암시한다. 그래서 신념의 반대되는 입증은 지연되는 한편 확인편향 현상이 먼저 발생한다.⁷²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에 합치하는 증거를 합치하지 않는 증거보다 즉각적으로 더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확인 편향성의 기제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가설에 일치하지 않는 증거를 고려하라고 요구받으면 가설 확인 편향성이 없어진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설확인 편향성을 지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단지 객관적으로 정확해야 된다는 명제만으로는 이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 하며 확인편향 전략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2) 확인 편향성의 한계 규칙

외계인이 비행접시를 타고 온다는 신념을 입증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결론에 도달하는 과학적 논리 규칙이 필요하다. 자기가 외계인을 보았다는 주장을 남들도 받아들이게 하려는 목적 지향성 동기에 따라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확인하는 경우 가용한 신념과 인지 규칙 같은 요인들이 그 편향의 크기를 좌우할 것이다.

‘냉정한’ 기대라는 것도 목적을 지향하는 동기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가

72. Koriat, A., Lichtenstein, S., Fischhoff, B. (1980). Reasons for Confid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Learning and Memory* 6(2), 107-118.

설을 확인하려는 편향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결론이 사실일까?” “내가 기대한 결론이 사실일까?”는 기능상 대등한 것이다. “카페인에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에 관한 연구는 카페인이 이롭다고 확인하는 가설과 해롭다는 가설을 둘 다 심도 깊게 연구하게 됐다.

3) 남의 신념을 반사하는 오류

또한 불협화음 연구에서 남의 행동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에 관측 대상의 신념을 신념의 거울처럼 반영한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깊게 연구하게 됐다. 사람이 자기의 태도를 유발하는 내면 상태에 대해 마치 제3자가 관망하듯이 자기를 볼 수 있는가? 인지의 불일치를 연구하는 관측자-참여자 (“observer-participant”) 실험에서 행위자의 내면인지와 기분상태에 접근 없는 관측자가 그 행위자의 진정한 태도를 추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행위자 자신도 자기의 행위를 제3자의 입장에서 관측함으로써 자기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⁷³

4) 인지의 불협화음

인지의 불협화음이란 상반되는 아이디어들을 동시에 지니는 상태이며 초래된 불편한 감정이다. 사람은 인지의 불협화음을 감소시키려는 동기에서 인지론을 설명한다. 인지의 불협화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람은 태도, 신념, 행위를 바꾸기도 한다.

상품을 잘못 샀을 경우 경험은 기대와 충돌할 수 있으며 불협화음이 발생할 때 사람은 놀라움, 두려움, 죄책, 분노, 당혹 등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이 옳다고 편향적인 생각을 하도록 돼 있다. 이 편견의 개념을 활용하여 불협화음 이론은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이 파괴적인 행위를 예측하며 설명한다. 그 전형적인 예가 이슬 우화에서 여우가 따 먹지 못할 포도를 ‘신 포도’라고 결론지어 단념함으

73. Bem, D J, (1972). Self-perception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Psychology*, 6, pp. 1- 62.

로써 인지의 불협화음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 예화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데,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 대상을 비판함으로써 자기의 불협화음을 감소시킨다는 적응성 선호 형성하는 패턴의 예이다.

그러므로 ‘냉정한’ 기대로 본다고 할 때에도 완전한 중립이 아니다. 실제로는 특정한 동기가 배어 있을 수 있다. 동기가 추론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동기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향케 하는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 즉, 단지 가설을 확인하려는 방향 뿐 아니라 가설에 위배되는 증거들을 억압하는 반대 방향으로도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5) 실험동물과 운동선수의 공통점

자기 신념에 조율되는 것을 확인하는 편향성은 인간 기억이 그렇게 조직됐기 때문이라는 이론가들이 있다.⁷⁴ ‘아이스 링크의 천사’라고 선망의 대상이 된 김연아 같은 피겨 스케이터의 복합적인 연출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그 우아한 동작은 음악 내용 인지와 동작신경의 기억을 전후 관계로 인출하여 배열하고 링크의 구조적 위치에 조화하면서 매 순식간에 펼쳐지는 것이다. 실험실의 쥐나 경기장의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훈련한 여건과 같은 조건에서 동작을 가장 쉽게 빠르게 기억해서 움직인다. 이 현상은 사람이나 척추동물들의 기억은 장소보다도 맥락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척추 동물은 진화의 잔재 위력으로 맥락의존성(context-dependent) 기억을 활용한다.⁷⁵ 맥락의존성이란 모든 생물의 기억을 맥락이나 단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현상이다. 사람은 물론, 거미로부터 침팬지에 이르는 다른 생물들도 정보를 위치에 의해 찾을 수 있는 기억(location-addressable memory) 장치를 진화시켰고 그에 따라 수백만 년 전에 맥락의존적 기억을 진화시키게 됐다.

맥락의존성은 생물이 기억을 조직하는데 가장 적절한 경제적 방법이

74. Marcus, G. F. (2008) *Kluge: The haphazard construction of the human mind*. Houghton Mifflin.

75. Marcus, G. F. (2009) How does the mind work? Insights from biology. *Topics in Cognitive Science* 1:145–72.

다. 맥락의존성은 사람의 인지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적응성이 높은 현상이다. 맥락을 따라 탐색하는 생물들은 정보의 소스(출현 위치)가 다르더라도 특정한 기준이나 맥락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두뇌는 자주 발생하며 최근에 발생한 정보를, 그리고 맥락에 타당성을 지닌 정보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 정보를 확인하려는 편향성은 구체적 적응의 이점보다는 생태적으로 유전 받은 속성일 것이다. 어느 주장이 옳은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4. 기억의 확인 편향성의 특징

1) 병행적 정보 처리가 가장 빠르다

귀가하는 길에 식품점에 들어서 계란과 우유를 사고 세탁물을 찾아오라는 아내의 부탁을 기억하기보다는 곧바로 운전하여 집으로 오는 길을 기억하기가 쉽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처럼 사람의 기억도 정보에 따라 분류되어 일정한 위치에 저장된다. 각 정보가 기억 시스템의 일정한 위치에 저장됨으로써 다른 위치에 저장되거나 수정되거나 다른 정보와 섞이는 혼란을 피하게 된다.

신경의 정보처리 속도는 정보를 병행적으로 처리할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맥락의존성은 새 정보를 기존 정보에 병행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맥락의존성 기억의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고성능 컴퓨터에 비교하면 신경망의 속도는 느린 편이며 몇 가지 제약을 지닌다. 맥락의존성 기억이라도 자주 활용하지 않는 정보는 인출하기가 어렵다. “열쇠나 핸드폰을 어제 밤에 어디에 두었나” 같은 구체적 정보보다는 어제 무슨 일을 했던가 또는 방 안의 구조 같은 일반적인 기억이 인출하기 쉽다.

2) 비합리적 일수 있는 맥락의존성

그래서 사람의 비합리적 성향의 상당 부분이 이 맥락의존성 기억에서 연유할 것이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

게 나오는가? 데이트하는 대상이 있는가, 어제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가, 새 옷을 사 입었는가 등등 최근에 발생한 사건의 기억에 연관되어 행복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데이트하는 상대에 대한 첫 인상이 중요하지만 만남을 반복하면서 그의 언어와 행동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맥락에서 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종교의 전도자가 어느 사람(들)에게 신념을 전할 때 (설교나 예배에서) 효과적인 맥락은 어떤 것인가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정치인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도 그렇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맥락의존성 기억 때문에 편견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유형으로는 첫째 남과 공동과제를 할 때 자기가 기여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자기 제공의 편견’이 있다. 협동의 상황에서 자기 기여를 과장해야 자기의 위치가 확보되며 혜택을 나눌 때에 확실한 자기의 몫이 보장된다. 자기선전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그 원시적인 기제가 자긍심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둘째는 확인편견이다. 자기의 직관적 가설이나 결론에 합치하는 정보를 합치하지 않는 정보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측정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자기의 전제나 결론에 합치하지 않는 정보를 기억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억들을 두뇌에서 삭제하거나 재인출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려는 경제적 전략이 실용화한 결과일 것이다. 셋째로 틀에 박힌 생각 (프레이밍; framing)의 효과는 어떤 문제에 대한 주장이 있으면 그 문제에 관해 그 틀 안에서 기억을 인출하고 생각하도록 영향을 받는다. 이 것 또한 불필요한 정보를 두뇌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기존 맥락에 합치하는 정보의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경제적 전략이 실용화한 결과일 것이다. 그 외에도 기억을 편향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5. 교육 경쟁은 반사적 편향의 결과인가

이솝 우화에서 토끼가 야자 열매 떨어지는 소리에 “땅이 깨어진다”고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뛰는 토끼를 본 다른 동물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

“땅이 깨진다”고 토끼는 대답했다. 덩달아 달리던 동물들 앞에 여우가 나타나 “땅이 깨진 장소에 가보자”고 했고 떨어진 야자 열매를 확인한 후에 동물들은 평온을 찾았다. 이러한 반사적(reflex) 반응은 추론에서 우리 기억 체계의 편향성을 보상하거나 수정하지 못한다. 비행기 여행이 99% 안전하다면 1%의 위험을 포함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고는 그 1% 때문에 발생한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2백배 이상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1년에 5만 명이 죽는 자동차 사고를 기억하기보다도 몇 년에 한번 2백명이 죽을지 모를 비행기의 사고에 대한 기억에 더 신경을 쓴다.

사람의 마음은 기억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없고 비합리성은 불가피한 것이다. 현대인이 여러 문제를 새로운 별별 기이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최적의 해답을 찾는 것은 드물다. 한국에서는 교육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편견이 개인들의 교육 참여에서 경쟁적으로 과잉 행위를 조장한다. 그것이 교육산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규제에 혼란을 가져왔다. 공공 영역에서는 입학경쟁, 사교육의 비대, 교육환경의 적대성 증대, 체벌에 대한 논란, 학생 급식 논쟁 등으로 번졌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과중, 자녀교육 재원확보를 위한 부모의 과잉노력과 부도덕적 행위, 학생들의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 성장기 세대의 인성 함양의 부정적 발전 등이 심화됐다. 사적 영역의 폐해는 결국 공공 역역의 문제로 흘러넘어들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원시시대부터 유전 받고 진화한 인지 체계를 가지고 생각하며 최적의 것이 아닌 해답을 두고 논쟁하며 통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억들을 두뇌에서 삭제하거나 재인출할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려는 경제적 전략이 실용화한 결과일 것이다. 이런 편향성의 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앞으로의 연구과제다.

14장. 원인과 유형의 다양성

1. 정상적 기능에서도 발생하는 착오신념

착오신념이 진화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 보다는 본래적 기능의 착오로 착오신념이 발생한다는 밀리칸의 다음과 같은 설명도 있다.⁷⁶

첫째, 동물적 기능발휘에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정상적이다. 사냥하는 동물이 한껏 뛰어도 먹이를 놓치는 것이나, 도망치는 동물이 사력을 다해서 도망쳐도 잡히는 것은 정상적이다. 사람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기능도 부정확하게 실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사람이 멀리 떨어진 대상에 대해 정확히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서 파악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것에 대해 상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상상의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행동 면에서 사냥의 경우처럼 시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정보(신념)의 실용성에서는 부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보다 낫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모호한 정보의 단서로 추론을 시도하여 어떤 정보(신념)을 창출한다. 그렇게 얻어낸 착오신념은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도록 디자인된 인지기능의 산물이다. 착오신념은 인지기능이 부정확하게 실수하여 발생하는 정상적인 부산물이다.

둘째, 생체 기관은 정상기능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기능을 중지하거나 압도하는 기제를 갖고 있다. 곰에게 쫓기는 동물이 죽은 척하는 것은 무의식적 행위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살릴 계략이다. 전기의 퓨즈와 같은 이런 기능은 조직 기능의 실패가 아니라 어떤 정황에서 완전히 기능을 중단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인지에서 안전판이 빠지는 이런 현상은 신체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근육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지나친 외부 압력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아주 심하게 고장 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이다. 독재에서처럼 정치적 압제가 심한 경우 압제자를 거역하지 않고 “견딜만하다”는 허구적 신념을 갖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76. Ruth Garrett Millikan, *It is likely misbelief never has a function*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셋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연도태에서 선택되어 남긴 구조기능이 경우에 따라 다른 기능에 업히는 예가 있다. 어떤 신념은 허위나 사실이나를 불문하고 정상적인 인지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에 유용할 것이다. 밀리컨은 이 가설이 가능하나 예를 들지 못하고 있다. 종교의 교리나 신화의 주장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추측해본다.

2. 학습 기제 장애로 발생하는 착오신념

사람이 환경과 계속 접촉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착오신념이 발생한다는 이론도 있다.⁷⁷ 사람은 환경에 대해 계속 접촉을 가지며 인지하고 행동하는 사이클의 반응을 하면서 주의를 집중하여 새로운 정보 학습을 계속한다. 생존하기 위한 수단을 학습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두 가지 행동 처리과정이 있다. 수렵시대에는 먹이를 사냥하는데 그 짐승의 특성과 거리를 잘 계산해야만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잡을 수 있었다.

첫째, 계산하면서 학습된다. 사냥할 짐승이 토끼처럼 도주할 동물이나 곰처럼 공격할 동물이나를 판단하고 그 동물과의 거리를 계산해야만 그 짐승이 공격이나 도주를 하기 전에 창을 던져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 행동 체계는 행위와 결과의 유동적 관계에 대해 전뇌에서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학습된다. 현대에는 한 친구의 아파트를 찾아가려면 어느 구역에 있는 어느 건물 단지의 어떤 건물의 층과 호실 번호를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찾는다. 조금이라도 계산의 착오가 나면 엉뚱한 구역이나 다른 사람의 아파트 문을 노크하게 되는 유동성이 있어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유동성 있는 인과관계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행위를 사람들은 배운다.

둘째, 표상으로서 학습된다. 커피의 종류를 추적할 원료박스나 레이블

77. Aaron L. Misharaab and Phil Corlett, *Are delusions biologically adaptive? Salvaging the doxastic shear pin*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이 없는 경우 커피의 냄새를 근거로 “아, 카프치노 커피다”라는 판단을 하며 마신다. 환경의 자극과 행위의 관계에서 어떤 단서를 인식하면 구체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표상으로서 습관적 행동 체계는 학습된다. 습관적 학습의 경우에는 특정한 행위를 유발하는 개별 표상의 유동성이 적다. 수렵시대에 먹이 사냥에 앞서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 남긴 발자국이나 대변의 모양과 냄새 등에서 곰이나 사슴이나를 알아차리게 하는 대리 표상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한 대리표상의 실체 관계에는 유동성이 허용될 수 없다. 곰의 소리나 발자국을 사슴의 표상이라고 인지했다가는 큰 위험을 당한다. 반대로 사슴의 표상을 곰의 것이라고 인지했을 경우에는 위험은 없으나 공포 때문에 사냥을 피하는 손실을 겪게 된다.

목표지향의 치밀한 계산적 행동체계가 장애를 받는 경우에 표상으로 추리하는 습관체계의 도움으로 환상이 발생한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추종하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예수의 처형에 당혹하여 그는 죽지 않았다는 불멸의 사적존재는 표상에 습관적으로 의존하여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환상이 부활의 신념에 도달했을 것이다.

3. 보상이 없는 착오신념도 있다

“배고플 때도 사랑이 우리 삶을 지탱한다”는 노래 가사는 성의 매력에 절정에 이른 젊은 배우자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효율적인 착오신념이다. 이런 가사처럼 적응성 있는 착오신념의 종류는 흔하지 않지만 실제 예는 허다할 것이다. 그러나 출산기를 지난 삶의 싸이클에서는 그런 로맨틱한 환상은 “사랑만 갖고는 못 살아”라는 현실적 신념으로 대체된다. 여러 유형의 적응성 착오신념들이 삶의 싸이클에 따라 변한다. 아기를 낳으면 “장군감을 낳았다” “미스 코리아를 낳았다”고 말한다. 장례식에서는 “천당에 편히 쉬게 됐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사실을 진실되게 표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신념을 적응성 때문에 붙잡는다.

착오신념의 적응성은 대표적 예다. 건강에서 플라시보 효과는 사랑하는 사람, 장소, 국가, 전통 등의 미덕을 과장하는데도 착오신념의 책무수임

을 하는 전략과 함께 편만하다. 세계를 돌아보면 “왜 우리 조상은 이 좁은 한반도에 정착했던가?”라는 원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며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와 한국의 가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착오신념을 교육받았다. 허다하게 널려있는 착오신념은 반복되는 현실의 부정적 경험을 환상적으로 부인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어느 만큼의 착오 신념들이 어떤 기원에서 발생했는지 사실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능을 지녔는지는 아직 미지수가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착오신념은 개인들의 내면에서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비용이 수반된다.⁷⁸ “사랑한다”는 환상적 착오신념에는 자녀출산을 통한 자신의 유전자 보존이라는 보상이 있다. 그러나 사랑에서 자녀출산과 관계없는 착오신념의 비용과 보상이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생존에 혜택이 없는 적응 방식을 도태하는 자연도태는 과연 효율적인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신념을 가려내는데 무슨 방법이 어떻게,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리 주변에서 개체 교회의 분규, 교단 내부의 분쟁, 종교적 이단 논쟁, 정치적 이념 갈등, 남북한 동족의 갈등에서도 허다한 착오신념들의 대결을 본다. 종교적 착오신념과 정치적 착오신념이 섞인 21세기 종교문명들(기독교-회교)의 충돌은 그 혼란스러운 질문의 대표적 표본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회교도들의 테러는 외부 이단자들에 대한 적대적 착오신념의 표출이다. 튀니지아, 이집트, 리비아등 중동에 번지는 아랍(회교)권의 봉기는 국가 내부의 독재적 권위에 대한 착오신념을 수정하는 행위이다.

78. Jeffrey P. Schlossa and Michael J. Murray,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Evolution and true beliefs*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Cit., Open Peer Commentary.

15장. 신념에 대한 사회학적 결론

1. 신념은 소통을 통해 습득

사람의 대부분 신념은 소통을 통해 습득된다. 신념이 문화를 통해 전달되는 한계성에서 착오신념이 발생한다는데 스피버는 주목한다.⁷⁹ 본래 신념을 형성할 때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형성됐을 것이다. 신념이 처음에 형성되는 기제의 고장으로 착오신념이 발생되기보다는 소통에 의해 전달되는 신념은 그 내용보다도 전달자(사람, 매체)에 대한 신뢰 때문에 형성된다는 것을 스피버는 강조한다.

그런데 신념을 전달하는 연쇄(고리)가 길게 소통된 신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다. 첫째, 전달 고리가 길수록 정보의 신빙성이 약해진다. 둘째, 최종 전달되기까지 정보의 타당한 내용이 연속으로 수정된다. 종교적 신념의 경우, 한 세대의 종교적 신념은 그 세대의 일생 동안에 신념도 변화를 겪어 당초 신념이 형성 이전 세대의 것과는 다르게 된다. 후대의 종교적 신념은 당초 신념이 형성될 때의 것이 아니다. 유대교에서 모세의 율법 신념을 예수가 정면으로 수정한 것, 그리고 예수의 신념도 동시대 후계자들인 제자들이 증언하고 그 증언을 수록한 기자들에 의해 신념이 수정됐다. 더군다나 예수 당대의 증인들의 신념을 예수를 본 일이 없는 바울이 자기의 신념으로 수정한 문서들도 기독교의 경전으로 공존한다. 더 나아가 그런 기록자들보다 3백년 후에 암니아 종교회의에서 기독교 사제 집단이 자기들의 교권 조직 이념으로 재구성한 것이 기독교의 정경이 됐고 그 후 여러 언어로 여러 단계에 걸쳐 당대 문화에서 이해되도록 개정됐다.

이런 경전이 얼마만큼 당초의 신념을 보전하는지, 얼마만큼 왜곡한 착오신념을 포함하는지는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전달된 신념의 타당한 근거가 약해지고 수정되는 것은 종교적 신념의 경우만이 아니다. 종족마다 음식, 건강, 도덕성 등에 대해 근거가 약하거나 근거 없는 착오신념을 많이

79. Dan Sperber, *Culturally transmitted misbeliefs*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갖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전달된 착오신념이 모조리 역기능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착오신념을 가리켜 인간이 아무 것이나 믿으려 한 결과라고만 할 수도 없다. 우리 민족을 비롯해 일부 아시아인들이 뱀과 개를 먹는 보양의 신념이 어느 만큼 사실성 있고 어느 만큼이 허구적인가?

사람의 인지기능은 대인관계에서 소통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신뢰와 경계를 엿갈려 하며 정보를 필터하는 기제를 갖고 있다. 내용이 너무 모호하거나 오랜 전달과정을 거친 경우 필터링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본래 신념이 형성된 경험의 근거를 놓치고 그 내용을 이해하며 평가하는 근거를 상실할 수도 있다. 종교적 경전의 허다한 내용들이 사실-허위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사실 가치가 결여된 언설(言說; narrative)을 주장한다. 그 한 표본으로 신약성경에 예수가 5천명 군중의 점심식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교회는 이 성경 구절의 내용대로 기적에 관한 신념을 믿으라고 한다. 신념을 평가하려면 사실-허위라고 설명하는 명제 내용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5병2어’ 기적 서술처럼 대부분의 신념이 그런 명료한 명제를 지니지 않으며 사실 가치도 결여하고 있다.

신념이 정보를 제공하고 행위의 지침이 되려면 특정한 결과를 제시해야 추론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허다한 종교 신념의 내용이 모호할 뿐 아니라 신비로 싸인채 끝없이 다양한 해석을 하도록 열려 있다. 이를 ‘불충분 명제’(semi-propositional) 또는 ‘절반만 이해된 신념’(half-understood beliefs)이라고 한다.⁸⁰ 그 패러다임의 예가 ‘성 삼위일체’ (Holy Trinity) 신념이다. 물론 신념이란 명제에 대한 태도라고 정의하는 철학자들은 ‘불충분 명제’도 온전한 신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 견해에서는 대부분 종교 신념과 착오신념을 신념에 포함시킨다. 어떤 신념은 생존과 번성에 기여하는 것이고 어떤 신념은 집단의 정체성과 단합, 개인의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도 있다. 신념을 공유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신념을 공유하느

80. Sperber, D. (1997) *Intuitive and reflexive beliefs. Mind and Language* 12(1):67-83.

냐가 중요하다.

2. 환상, 기억, 신념의 순환고리

“그 때 그 사람과 달밤에 해변을 거닐던 일”을 자기의 생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회상하거나 말하는 경우가 있다. 기독교 찬송가에 “오, 같보리...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 같보리...”라는 가사가 있다. 이런 서술은 환상, 기억, 신념이 서로 중첩되며 상호 보강하는 연관성을 보여준다. 기억과 긍정적 환상 사이에 쌍방향적인 연결이 있다는 연구문헌들을 서튼이 요약한 것을 참조해 설명해 본다.⁸¹

1) 긍정적 환상을 필터링한다

사람은 자기 삶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필터링해서 자기를 향상시키는 정보에 우선 주의를 하고 기억을 경신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두뇌에 입력되는 기억 내용은 자기에게 편리하고 유리하도록 필터된 편향적인 정보이다. 사람은 자신에 관해 마치 자서전과도 같은 폭넓은 기억을 지닌다. 그 자서전적 기억이 긍정적으로 편향됨으로써 기분을 향상시키며 자기통제를 증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허구적인 기억 내용도 적응 가치가 높은 것일 수도 있다. 필자는 확률적으로 보면 죽을 개연성이 높은 차량사고를 3번 모면했다. “생명이 다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 때문이다”라고 차가 망가졌지만 원망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 암 환자가 갖는 “나는 암을 이기고 되살아 날 것이다” 같은 긍정적 환상은 단지 일시적인 오류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환상이 신념화되면 반대되는 증거가 출현해도 착오신념으로서 치료가 되든지 임종을 하든지 오래 유지된다.

비사실적 기억을 지니는 원인은 흔히 우리가 기억을 구조화하는 기능의 오차라든가 신념이 고착되는 과정에서 조작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

81. John Sutton, *Adaptive misbeliefs and false memories*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지만 기억을 두뇌에서 재구성하는데 늘 왜곡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비 사실적 기억이 적응에 항상 불리하지는 않다.

“젊은 시절에 나는 민완한 기자로서 날렸어”라는 것 같은 자서전적 기억은 긍정적 환상을 직접 뒷받침한다. “처녀 때는 나도 미인이었어”라는 것 같은 과거에 대한 환상적 기억은 현재의 자아에 대해 좋게 느낄 수 있는 증거를 과거의 기억에서 선별해서 끌어낸다. 그러한 기억의 편향성은 나이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 경험을 긍정적으로 회상하는 데서 흔히 나타난다. 자기를 증진하는 환상적 정보는 편향적인 맥락에서 입력되며 정보를 필터링하는데 선택되어 기억을 경신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현재의 자기 이미지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한 환상적 기억은 현실 적응에 효과 있는 것이다.

2) 기억의 속도와 순위도 달라진다

기억 순위의 교체: 사람들은 긍정적 자아관을 현재에 유지하려는 동기에서 좋은 기억을 앞에 세우고 나쁜 기억은 뒤로 미룬다. 그리고 허위인 과거의 기억을 사실인 것처럼 승격시켜 끌어올린다. 유리한 정보내용을 앞세우려는 동기가 기억을 저장하고 재인출하는 데 작용한다. 그러한 동기에서 기억과 환상을 관계 지으면서 자신에 관한 서술은 마치 공공기관 대변인이 보고하는 것 같이 사실과 실제 사이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특정한 자극들에 관련되면 부정적 허위 기억보다는 긍정적 허위 기억들을 더 잘 회상한다. 긍정적 허위 환상은 행위에 연결되어 현재와 미래의 결단을 내리는데 타당성을 갖고 작용된다.

기억 과제의 절약: 동물들은 정보의 정확한 근원을 파악하는 인지 노력을 절약하여 계산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진화했다. 표상된 다양한 이미지 정보의 근거가 환경에 실재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온전한 근거를 빠트린 채로 기억을 형성하는 경향을 갖게 됐다. 그런 부정확한 기억이 신속하고 인지기능을 절약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편향성 착오신념을 체계적으로 형성하도록 신념형성 기제가 진화했다. 종교가 적응성 있는 착오

신념을 제공하는 이유도 그렇다. 초자연적 신념은 일반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유령, 선녀, 또는 단순한 행운이라는 것을 행위 중에 포착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가제에서 망각은 복잡한 두뇌 시스템에서 잊고 싶은 기억을 되살리는 계산 과제를 절약하려는 적응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하게 정밀한 기억의 근원을 따지지 않는 것은 노력을 절약한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기억의 오류들을 내는 것은 직접 개인적, 사회적 혜택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긍정적 환상과 나르시즘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 허위 기억은 세계를 존재론적으로 정확히 범주화하는 인지 기능의 착오로 발생한다. 나르시즘적인 편향성은 감관기능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나르시즘은 감관에서 입력된 정보를 동작 기능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자기 도취의 이미지로 부호화 하기 때문에 긍정적 허위기억과는 다르다.⁸²

3) 조사하기 어려운 착오 신념이 존속한다

사실성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과제를 단축한 채 신념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념이 주장하는 바를 조사하여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⁸³

첫째, 내용 자체가 하나님 개념처럼 불가시적이며 멀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들이 있다. 둘째는, 사회적 터부가 신념을 조사하지 못하게 막는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념은 단지 수용하는 명제이지 조사를 허용하는 명제가 아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사법상 비리에 관해서 조사하는데 정치권력으로 저지하는 성역이라는 것이 통한다. 광주 사태 “진압명령은 통치권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 대중 정부의 대 북한 현금지원은 ”통치자금이기 때문에“라는 터부가 조작된 착오신념을 조

82. Akins, K. (1996) Of sensory systems and the “aboutness” of mental states. *The Journal of Philosophy* 93(7):337–72.

83. Konrad Talmont-Kaminski, *Effective untestability and bounded rationality help in seeing religion as adaptive misbelief*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사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 셋째는 과학적 수단으로 조사와 확인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적 발전에 대한 저항 때문에 조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세계의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문제에는 다양한 과학기술적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이권관계가 얽혀 과학적 조사를 막고 있다. 그런 검증할 수 없는 신념의 부류 속에는 신념들이 아주 쉽게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조사 불가능한 신념(예: 예수의 재림에 관한 신념)은 그의 사실 가치성(재림하느냐, 않느냐)에 흠집을 입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신념의 기대는 그 신념이 지녔을 기능(예수 재림으로 지상 1천년간 평화 왕국이 온다)에 의해 유지된다. 그런 신념들의 안정성은 인간의 신념형성 기제에 의해 유지된다.

3. 신념에 대한 다른 주장들

1) 신념은 문화적으로 전달된다는 주장

사람의 신념이 생물들의 일반적인 기질처럼 유전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해답은 아직 없다는 점을 윌크스는 제기한다.⁸⁴ 그가 신념 기능이나 추론기능이 유전되는 기제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사람의 유기적 구조에서 신념 같은 속성이 유전되는데 필요한 생식 세포의 유전인자 코딩 되어 있는가를 규명해야 될 것이다. 신념의 유전인자 코딩에 관한 해답이 없으면 자연도태로 기질이 진화된다는 말이 성립되기 어렵다.

그런데 사람의 두뇌 기능을 모방하는 인공지능 연구는 반세기 이상 두뇌가 인지를 어떻게 코딩하는가에 관한 판독 없이 진행돼 왔다. 인공지능 개발은 컴퓨터에서 어느 패턴이 존속하고 재생산될 것이냐는 일반적인 전제 아래에서 진행돼 올 뿐이다.

신념이 유전되는 DNA 코드에 관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신념의 무슨 정보가 어떻게 유전되는가를 논하는 것은 어렵다. 그 대안적 설명은 신념이 문화적으로 전수된다는 이론의 전통에 귀착하는 것이 가장 쉽

84. Yorick Wilks, Lamarck,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elief*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다. 문화적으로 전수되는 광범한 신념들로는 종교들의 신념이 가장 오랜 세월에 걸쳐 전수된 것들이다. 유대교-기독교 신념과 회교 신념들 중에서 특수한 신념들의 차이가 21세기에 이르러 아랍민족권과 서구 국가권의 대결로 진화했다. 기독교 국가 개인들의 유전인자와 아랍권 개인들의 유전인자에 신념에 영향을 주는 별다른 코딩이 전수돼 있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제시된 것이 없다. 공교롭게도 유대교와 회교는 아브라함이라는 부족장을 같은 조상으로 하는 친자와 서자의 후손들의 종교 대결이다. 아브라함에게서 같은 신념의 인자를 유전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토록 양속이 될 만큼 변이를 발생시킨 것은 문화일 것이다. 한국인들 중에 단군을 혈통으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받드는 일부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받은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종교문화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중세기까지 사람들을 금기(taboo) 속에 가두고 준봉을 강압하던 종교의 환상적 신념들이었다. 20세기의 세계를 이끌고 격변시킨 신념들은 탐구와 입증을 허용하는 과학 문화로 전달된 인류학적 이론, 뉴턴의 과학 이론, 아인슈타인의 이론, 순수물리학, 사회학과 심리학(정치, 행정, 관리 학문 포함)의 실증적 신념들이었다. 21세기를 주도하는 신념들은 우주와 생명의 원리로 되돌아가 태부를 넘어 탐구하는 우주과학, 생명공학, 전자공학, 두뇌과학(인지 심리학을 포함), 환경과학 등의 환상적 신념들이다.

문화적으로 전달된 신념들은 개인에게 만족할 만한 것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 어느 과학자도 어떤 이론을 밀받침하는 신념체계가 최종적이며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이론은 단순히 다른 신념들보다 더 그럴듯하고 한 시대 또는 다음 시대에 걸쳐 유용하게 인류의 목적에 활용된다.

이러한 광범한 지식-이론들의 복합체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개인의 신념이 이단적 착오신념이라고 구분해 내는 것은 어렵다. 또한 이 복잡한 이론들의 체계를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어느 만큼이 유전될 만한 것으로 하드-코딩되었는지를 입증할 분명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2) 종교 신념은 실리적 사실성이다

사람의 마음이 사실만을 파악한다고 모든 사람들의 통상적 전제이다. 그러나 사람은 편한 대로 거짓을 꾸미고 속아서 받아들인다. 즉,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실리성있는 현실과 사실적 현실 사이에 교환을 한다.⁸⁵ 계명기를 거쳐 이성을 위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성을 추구하는 과학만능 시대에도 종교적 신념들이 성행하고 종교적 행위가 지속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윌슨은 진화론을 활용한다. 집단의 도태와 선택 이론으로 설명한다면 사람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해서 현실을 설명하는 역량은 적응성 증진과는 관계없다. 윌슨은 우리의 신념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을 비교한다.⁸⁶ 어떤 신념이나 명제를 받아들이고 간직하는데 현실성(reality)을 지녔는가를 확인하려고 경험을 해석하여 증거를 확보하며 행위를 하는데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그런데 “내세의 천당에 간다”같은 정보는 증거 없이도 이해하며 신념으로 지니고 신앙 행위를 하는데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실리적 현실주의(practical realism)라고 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합리적(과학적) 탐문을 거쳐 증거에 입각하여 도달한 결과물이라야 사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적 현실주의(factual realism)가 있다. 감각을 통한 직접적 경험수준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는 실리적 현실주의자이다.

실리적 현실성을 지닌 사실근거가 박약 하더라도 허다한 예들이 종교 신념들에서 들어난다. 집단이 존속하는데 그 집단 소속원 모두가 내세의 천국 신앙 같은 신념을 갖는다면 유익할 것이다. 싸움에서 단지 무모하게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이 개인들을 순교하게 할 것이다. 죽으

85. David Sloan Wilsona and Steven Jay Lynn, *Adaptive misbeliefs are pervasive, but the case for positive illusions is weak*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 Cit., Open Peer Commentary.

86. Wilson, D. Sloan. (2002). *Darwin's cathedral : evolution, religion, and the nature of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면 끝이라고 믿는 무신론자들의 군대와 내세를 믿는 신자들의 군대가 싸움을 하면 누가 죽기까지 싸울 것인지 분명하다. 그래서 유신론자 집단이 존속할 가능성이 증진된다. 이러한 실리적 현실성 신념은 사실적 근거를 찾지 못하면서도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선호되어왔을 것이다. 특히 인류의 집단의 존속에 관련하여 사람들은 두 실리적 사실적 현실 사이에 교환을 수시로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유기체들, 실리적 현실에서 떠난 사람을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월슨이 말하듯이 인류의 조상 중에는 실리적 현실에서 떠난 순수 합리적 사실주의자들은 없었다.

인지의 제약성: 사람은 인식하는 대상의 정보를 인지하는 기능에 제한이 있고 그 기능을 사용하는데도 필터링하여 인지한다. 그러므로 관찰한 대상의 속성이 정확하게 사람의 신념으로 되지 않으며 인지한 내용 자체가 모두 신념이 되지도 않는다. 사람이 실리성이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기기만은 자극을 감지한 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 처리에서 정보의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없는가는 별문제이다. 왜냐하면 모든 유기체는 환경에서 자체의 적응에 타당한 자극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음향의 광범한 폭의 파장 중에서, 광선의 스펙트럼 중에서 좁은 범위의 파장만을 보거나 듣는다. 전기와 중력의 파장 같은 것을 사람은 전혀 못 본다. 보이지 않는다고 전기나 중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가 보는 것도 연속선상에 있는 스펙트럼을 선명한 색깔로 분류해서 왜곡한다. 태양의 색을 7개 색의 무지개로 나누지만 적외선과 자외선을 못 본다. 우리의 인식은 너무나 왜곡되기 쉽다. 신념도 왜곡되기 쉽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3) 종교신념은 문화의 DNA

문화적 진화론은 사람의 인지능력이 유전자의 진화를 근거로 하여 발생했다고 본다. 인지 능력의 바탕에서 고도로 적응성 있는 종교들이 진화했으며 그 외의 목적들을 위해 문화의 여러 요소들도 진화했다고 본다. 그 점에서는 종교가 진화의 부산물로 발전했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타당성

을 갖는다. 종교 발전을 설명하는데 유전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론 주장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착오 신념(종교적 신념 포함)을 개인수준 보다는 문화의 수준에서 ‘문화의 DNA’처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 수준에서 문화적 진화는 그 구성 요원들의 행위를 조율하기 위해 출현했다고 본다. 문화는 사실적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까지도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인간행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한 문화적 설명에 대해 사람의 일차적 선택은 듣는 대로 믿는 것이다. 안 믿으려면 저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허위를 순식간에 휘두르면 안 믿으려는 마음을 쉽게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전이 효과를 본다. 거짓을 믿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압도당하고 준봉하라는 압력이 계속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착오신념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락하도록 싸우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 선에서는 토론과 논쟁이 발생하고 그룹 간에는 신앙관이나 이념의 갈등이 생긴다. 종교 간의 충돌이 상대 그룹을 박멸하려는 거룩한 종교 전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편리한 거짓’이 문화권 안의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극단적 신념은 확인 편향성의 결과: 강하게 지닌 극단적 이념이나 허위적 신념은 확인의 편향성의 결과다. 즉, 일관된 증거를 찾되 반대되는 증거를 묵살하거나, 제외하거나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확인편향성이다.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신념을 지닌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허위 신념은 강하고 열정적인 정서가 삼투해 있을 경우, 상호관계에 의해 보강되는 경우 일관된 신념체계를 형성하여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

행태로 드러나는 형성 기제: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기 신념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고, 남의 신념의 편향성은 쉽게 지적한다. 자기들의 행위를 기존 신념에 의해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식적인 내면적 반성이나 도전을 최소로 하여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석과 신념을 평가하는데 항상 모든 가능한 증거를 다 탐색하지는 않는다. 가용한 데이터가 개관적으로 충분하지 않을뿐

더러 결론에 맞지 않거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증거라든가 자기 해석을 제3의 증거를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

기억의 편향성: 심지어 기억조차도 현상 유지에 공모한다. 사람은 그럴듯한 사건(역사적 사실이나 허위 기억을 확인해주는 사건)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신념과 자기가 아는 세계관에 근거하고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행위성향에 근거해서 사건들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지향 허위성: 사람의 인지기능이 의식적 자아의 통제를 받는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은 사실과 환상(허위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유명한 미술평론가가 자기 자식의 볼품없는 미술작품을 칭찬한다면 거기에는 사실성의 근거가 없거나 자기기만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에서 비확정적인 것을 적당히 받아들이려 한다는 점에서 자기 해석이란 흔히 허위일 수 있다. 그러한 자기 지향적 착오신념이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적응성 있는 것이다.

4) 비용-혜택 분석과 착오신념

착오신념과 인류의 재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신념을 묵살하면 단기적으로 편안하고 유리하다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 비용은 엄청난 재난을 초래한다. 이론상 착오신념은 비용-혜택 분석에 따라 발생하며 유지된다. 신념이더라도 동기가 되는 행위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에 초래되는 이익이다. 신념의 비용이란 진정한 사실을 장기적으로 도외시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이다. 특정한 문화에서 사실적 현실을 호의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 신념을 두고 혜택과 비용을 배려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허구신념의 혜택이 비용보다 크다면 허구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국의 무당 신앙처럼 특정 문화에서 편익을 위해 고안된 과학적인 듯한 설명이 어느 문화에든지 있다. 그런 과학이 그 특정 문화를 벗어나면 무용지물 즉 미신이다.

개인 착오 신념의 사회적 폐해: 히틀러나 스탈린의 경우처럼 개인에 관한 긍정적 착오신념이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과장된 자긍심

은 적응에 유리하기보다 해로운 경우도 있다. 자긍심이 높은 아이들이 남에게 공격적이며 자기의 인기를 과대평가하여 남을 괴롭히는 경향도 있다.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개인은 결국 ‘왕따’를 당하여 자기의 비용도 증가시킨다.

4. 문화에 의한 자기해석:

자기해석은 사회적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문화가 제공하는 범주에 의해 자기의 행위를 해석하며 행동한다. 여러 문화가 종교적 자기 해석을 제공한다. 종교적 신념은 바로 문화가 제공하는 부류의 자아 해석들을 구성한다. 그런 중에서도 사람들은 자기와 상호관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범주를 활용하여 자기 해석을 표현한다.⁸⁷

사람은 타인들이 가능한 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자기를 형성한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공적으로 표현한 자기 해석에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요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비확정적인 자아해석을 선정하더라도 그 선택에 맞도록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선택은 우리와 상호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석하는데 쉽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상호관계가 조정되고 보강한 관계에 의해 협동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왜 회중의 분위기에 맞게 간증을 하는가? 쉽게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 평판이 증대하여 협동이 발생하도록 그러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신앙 간증을 하며 일상적인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이방 선교에 나선다.

상호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들이 종교적 자아개념으로 포화돼 있다.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같은 주장에서 자기해석이 형성되며 자아개념에 추가된다. 그런 자기해석의

87. Tadeusz W. Zawidzki, *Adaptive self-directed misbeliefs: More than just a rarefied phenomenon?* in Ryan T. McKay & Daniel C. Dennett, (2009) Op.,Cit., Open Peer Commentary.

선언에 의해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 즉, 어떤 사람인가라는 속성의 부류(category) 개념이 상호간에 형성되며 그 사람과의 상호관계가 조정된다.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듯이 급진적 진보주의 개념 지지를 선언하는 경우, 그 자신의 자기해석(진보주의자라는)과 속성의 부류(진보파라는)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그 사람의 정치적 행보의 상호관계(국민, 언론, 정계)가 조정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지향하는 해석의 수단으로 종교적, 정치적 착오신념을 발전시킨다. 그런 자아해석이 직관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형성된 사회적 상황(특히 교회)에서, 그런 해석의 틀(frame)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여론과 정치권에서), 그런 자아해석 성향은 적응성을 갖는다. 그렇게 문화를 통해 발생하는 동기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동기를 사람들은 해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들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고 상호조정을 쉽도록 한다. 그래서 신앙의 심도를 불문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협동 기제이며, 정치파당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날치기 투표에 협동한다.

결과적으로 착오신념은 개인의 피해나 손상을 막으면서 개인의 기능을 유지하는 생물학적 적응성을 갖는다. 환상이 발생하는 기제와 착오신념이 발생하는 기제에는 통하는 점이 있으나 환상이 신념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하지 않는다.

제 3 부 믿음, 신념의 본질

1. 정보와 수단으로써의 믿음
2. 핵심적인 신념과 연계된 신념들
3. 신념의 위계적 순위
4. 신념의 구조와 강도
5. 신념의 질적 측면
6. 신념의 상호 일치성
7. 신념의 유사성
8. 신념과 신뢰의 과정
9. 신념의 활성화
10. 신념의 인지구조
11. 신념과 행위 유발
12. 신념의 태도와 변화
13. 신념의 내용형성
14. 새 정보 새로운 관행의 수용



< 70년대- 통역중인 이윤모 박사 >

1. 정보와 수단으로써의 믿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정신적 요소가 믿음이다. 아기는 어머니가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발달한 성장기를 가질 수 있다. 부부간에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랑이 성립되고 가정이 유지된다. 친구라는 것도 자기가 베푼 만큼 상대가 베풀거나 신의를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성립된다. 인간관계에서 그러한 믿음이 무너지면 때는 오히려 원망이 생기고 그 관계는 차라리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보다도 더 악화된다. 소위 불신사회가 되는 이유는 믿음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배반하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특정한 어떤 정보와 그에 동반하는 감정이 믿음이다. 우리말에서 믿음의 내용은 “기대한다”, “신뢰한다”는 감정의 부분이 매우 강하다. 정보 부분을 배제하고도 “무조건 예수만 믿는다”라는 식의 믿음이 우리 많은 한국인에게는 가능하다. “어쨌든 자네만 믿고 맡기네”라는 식의 믿음에는 자기 스스로 지닌 정보와 수단으로는 어떤 바라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경험에서 나온 변형의 믿음이다. 이러한 신뢰를 걸은 정보가 차질 없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감정이 신앙이다. 유대교 전통에서 하느님은 신실하다(faithful)는 말은 신의 약속이 차질 없이 집행된다는 강한 기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이다.

영어에서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신념(belief)은 체계적인 정보에 더 비중이 있는 것 같다. 신념은 여러 현실 관측에서 공통적인 사실들을 추출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견한데 근거를 둔다. 신념은 원인이 과정을 통해 결과에 연결되는 어떤 규칙을 파악한 내용 그것이 실현되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감정이 동반한 것이다. 신념은 자기가 확실히 이해했거나 그 결과에 대해 자기가 확고한 기대를 걸 수 있는 정보 내용에 더 비

중이 있다. 즉 신념은 정보가 지닌 지식 측면 (know how와 process) 자체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 집행자(executor)에는 덜 비중을 둔다. 신념에 비해 신앙이라는 범주의 믿음은 원인이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보다는 결과에 도달하는데만 관심을 둔다. 따라서 규칙과 질서 보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집행자(executor)나 그 힘(power)에 더 관심을 둔다.

불신 사회가 되는 여러 변수들을 감안한 회귀 방정식(regression)으로 풀어 보면 속이는 사람 수천 명 혹은 수만명의 역할보다도 믿어주는 사람 수천만 명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회귀 방정식에서 종속변수의 변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의 지침이 되는 R2의 퍼센티지는 개체 수가 적은 변수(속이는 사람들)보다 더 수많은 변수(믿는 사람들)에 의해 더 좌우되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어떤 사람이 우주의 현실, 사회적 현실에 대해 관측한 것으로부터 유추한 내용(정보)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상태를 기대하게 하는 내용이다.

믿음에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지식과 그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화할 수 있다는 기대 감정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부모가 아들에 대해 느끼는 든든한 감정 그것이 자식에 대한 믿음의 한 요소일수 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 맹목적인 것 같지만 자기 아들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정보의 단서가 있을 경우에만 그런 믿음이 가능하다.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말썽만 부린다면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만은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느끼는 믿음도 그 남자에 관해 자기가 알게 된 정보의 단서들을 내용으로 근거하여 의뢰하고 싶은 감정이 동반하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교리 내용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감정의 강도로 믿음을 측정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교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나 처형후의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같은 기적을 믿지 않고도 기독교인

들 중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독교의 신념의 핵심이 기적에 관한 정보 (예수처럼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대로 사건들이 재 발생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심리적 기제를 소유하는데 있다는 보수적 신앙관이 있다. 반면에 인간 내면의 질서, 인간 관계의 기성 질서를 재정비하는데 아직 파악되지 않은 초자연적 새 질서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며 그 새 질서의 도래를 추구하는 것이 예수가 말한 신의 질서(하느님의 나라)라고 받아들이다면 누구나 쉽게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지금 한국의 정신적 혼미나 중동 국가들의 혈투로부터의 구원은 어떤 기성 신앙교리의 옳고 그름을 사수하려는 데서 오지 않고 새 질서의 도래에 관한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일반 동물도 믿음을 지닌다. 철새들이 먼 거리 하늘을 날아 서식지를 옮기는 행태나 개가 길을 가면서 오줌을 누어 그 냄새를 맡고 돌아올 수 있다는 행태는 동물적인 믿음의 소행이다. 이런 동물적 믿음의 행위를 단지 본능적으로 기억된 유전자의 작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물적 본능의 발현은 믿음의 원초적 형태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갓난 아기가 울음으로써 부모의 보살핌을 요청하는 행위는 경험으로 학습한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능에 기억된 선형적 정보에 의한 것이다. 사람의 믿음(신념)은 본능에 축적된 정보를 인출한 것보다도 후천적으로 학습한 내용들에 더 많게 된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의 행태를 관찰하면 그에 대한 새 정보를 기억(학습)하게 (또는 잊어버리게) 된다. 일단 기억된 정보 그 내용에 대해 그와 관련된 사건이 재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 감정을 부착하는 경우 믿음이 된다. 믿음은 각자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감정 요소로 형성되는 것이다. 믿음이 형성되는데 논리적인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형성된다. 그 한 조각의 믿음은 그 체계화된 신념의 한 부분으로 속하게 된다.

각개 신념이 어떻게 발단하며 학습되는가에 차이가 있다. 각 개별 신념 간에 구조적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들을 불문하고 믿음이 조직된 구조의 속성에 유사성이 있다. 또한 보통 개인의 심리 속에 체계화된 신념의 내

용들은 상호 연결된 관계를 지니고 있다.

2. 핵심적인 신념과 연계된 신념들

개인이 지닌 여러 신념들이 상호 연결되어 그 사람의 신념 체계로 진전한다고 보면 그 중에도 핵심적인 신념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핵심적 신념은 여러 신념들 간에 기능적으로 연결된 내용들이 많고 신념들 간에 내용 소통(커뮤니케이션) 양이 많은 것이다. 종교적 지침에 따라 생명을 바칠 수 있는 행위는 현세의 생존을 위한 신념에 비해 내세의 보상에 대한 신념이 더 핵심적이라는 단서이다. 또한 “돈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신념이 위법 또는 부도덕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신념보다 더 핵심적일 경우 범죄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사취 행위로 남에게 이득을 취해 교회에 바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 사취 행위에 관련된 신념들은 종교적 신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핵심 신념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혹은 권력이나 명예가 삶의 최종 가치라는 핵심 신념은 정당 분열과 가짜 학위 취득 등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기능적 신념들에 연결되어 부도덕 행위들을 낳는다. 그러면 신념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가?

로키치는 4개 조건을 말하는데 필자는 그의 첫 조건을 둘로 나누어 모두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로, 생존 기본 요건에 관한 신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핵심적이며 다양한 신념들을 압도하며 연관 관계를 갖는다. 즉 자기 (또는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의식주와 신변 안위에 관련된 신념들이 여기에 속한다. 종교적으로 신에게 기구하여 결과를 기대하는 신념들은 이 수준에 속한다. 사람들은 음식을 위해 기도하며 직업을 위해 기도하고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기도한다. 그 기도에 관련된 믿음들이 가장 핵심적인 믿음들이다.

둘째는,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이 생존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정체성을 지켜 가는데 관련된 신념들이 많은 기능적 연결을 갖는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구성하는 정체성에 관한 신념을 지닌다. 이것은 아기 때부터

자기가 가족들 가운데 무엇이며 어떤 위치를 갖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구성한 믿음 체계이다. 만약 자기가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자식”라면 그 가족 중에서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 대한 신념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자기 자신 구성하는 기본 믿음이 무너질 때 자기의 인격의 통합성이 무너지며 소속할 위치가 모호해진다. 이런 믿음은 성장하면서 친구 집단에서의 자기 정체성, 신앙 단체에서의 자기 정체성 혹은 그 외의 소속 집단(군대, 직장, 정당, 사회운동체 등)에서의 자기 정체성으로 연결되며 확대된다. 그 정체성의 어느 특정한 것은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 자살한다든가 순교하는 것은 정체성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다. 이상 두 가지, 즉 개인의 존립과 정체성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신념들은 기능적 연결에서 덜 중요하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내용의 신념이 더 많은 기능적 연결을 가지며 결과도 다양하다. 이런 신념의 공유성은 정체성에 관한 신념과 합치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막대한 신념의 질량이 발생한다. “애국심”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믿음의 발현이 이런 것이다. 근래 한국에서 월드컵 대회 때 보여준 “붉은 악마” 응원, 그리고 이슈를 건 촛불 시위 참여 등은 정체성에 관한 신념이 공유성 신념과 연결되어 확대된 때문이다.

넷째로 직접성 신념이 간접성 신념보다 더 강하다. 자기가 직접 어떤 대상과 조우하여 경험한데서 얻은 신념이 영향력 있는 타인에게서 배운 신념보다도 더 많은 신념 체계의 연결을 지니며 더 다양한 결과를 갖는다. 특히 종교적 신앙은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보다 직접 경험한 사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더 강하다.

마지막으로, 개인 취향과 관련이 있는 신념이 취향성이 없는 대상에 관한 신념 보다 더 많은 신념들의 체계적 연결을 갖는다. 즉 자신이 관심을 갖고 탐구한 결과의 신념은 강하지만 우연히 획득한 신념은 별로 결과를 지니지 못한다.

3. 신념의 위계적 순위

신념에는, 합치된 원초적 신념 (primitive), 고립된 원초적 신념, 권위자에 대한 신념 (authority), 유도된 신념 (derived), 그리고 임의적 신념 (inconsequential), 이 상 다섯가지의 위계적 순위가 존재한다. 이런 다섯 계층의 신념들이 각 사람의 신념을 집합한 체계화된 양파의 썬과 같은 구조 속에서 가장 핵심에 자리 잡느냐 중간 혹은 표면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 각 신념이 지니는 계층과 급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로키치는 어떤 특정 신념이 사람의 신념 체계에서 자리 매김 하는데 120개의 다른 위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신념들의 위치가 결정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수순이 있다.

첫째, 무작위적으로 유도된 신념들은 다른 신념들과 연관되는 경우가 적고 그 때문에 핵심적인 신념으로 될 가능성이 적다.

둘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권위자로부터 유도된 신념들은 그 권위자 자체에 대한 신념들보다는 핵심적이 아니다. 즉 목사가 말한 내용이 핵심적이기 보다는 말한 그 목사 인간됨에 대한 신뢰가 더 핵심적이다. 마찬가지로 바이트의 어떤 내용이 말 되기 때문에 믿기 보다는 바이트의 권위(신의 말씀이라는)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을 믿는다.

셋째, 권위자에 대한 신념은 사람 각자의 원초적 신념 보다 핵심적이 아니다. 즉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권위자에 대한 신념보다는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들과 공유하고 인정받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립된 원초적 신념은 권위자에 대한 신념보다는 덜 핵심적이다.

넷째, 다른 신념들과 연계되지 않고 고립된 원초적 신념은 다른 신념들과 합치된 원초적 신념보다 덜 핵심적이다. 즉 합치된 원초적 신념은 자기 자신 만이 지닌 신념이지만 사회의 참조 인물들이나 집단에서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만이” 지니는 고립된 원초적 신념보다도 더 확고하며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온 세상 누구가 뭐라

고 해도 나만은 이것을 믿는다”는 신념은 안정성이 없다. 북한의 주체사상 같은 신념은 그 사람들의 씨클 안에서 공유되므로 그들에게는 안정된 핵심 신념이다. 남한의 어떤 계층이 주체사상에 유사한 채국 적 이념을 공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정된 핵심 신념처럼 보인다. 그러한 신념은 글로벌 시대에 일부 사람들에게만 핵심적일 뿐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안정성을 지닐 수 없는 신념이다.

4. 신념의 구조와 강도

신념이 핵심적이냐 피상적이냐는 신념 구조상의 위치와 신념의 강도 사이에는 상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적인 신념은 피상적 신념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관계가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다. 가령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연애 대상에 대한 신념은 구조상 핵심적이기 보다 피상적인 신념이지만 자살을 초래할 수도 있을 만큼 핵심적 신념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우연한 기회에 돈이나 권력이 없어서 설움과 수모를 당한 경험이 “돈을 가져야겠다”거나 “권력을 가져야겠다”는 피상적 신념이 어떤 사람의 한평생 지냈던 청렴에 대한 핵심적 신념을 무너뜨려 실수를 저지르게 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전직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한 비리 수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원인도 이런 것과 관계 있다. 그런데 그런 청문회나 칼날 수사를 해도 단지 그 사람들이 저지른 비행과 불법 행위의 표면을 열거하여 사실 여부를 판정하는데 그친다. 연관된 공조자들의 고리를 찾아 처벌하거나 정치적으로 타결을 한다. 이런 문제는 특별 검찰의 수준에서 비행의 사실들을 열거하고 그 불법성을 소추할 증거를 확보하는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행위의 결과를 판정하고 제재하기 보다도 행위의 원인들을 규명하여 비행이 반복 또는 모방으로 증식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숭고한 핵심적 신념이 어떤 부차적 신념들에 의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이 더 아쉽다.

5. 신념의 질적 측면

그 신념 내용을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느냐는 확인 가능성과 신념이 어느 만큼 도전에 저항하느냐는 강도의 두 측면이 있다. 즉 사람에게서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정체성 (특히 정체성을 상징하는 “나의 이름 석 자”)에 대한 신념은 가장 기본적으로 강하다. 그 다음으로 권위자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남에게서 들어서 믿는 유도된 신념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약하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어다 키운 아이”라는 식으로 정체성을 위협하며 놀리는 말에 어린아이는 가장 불안한 반응을 보인다. 자기의 이름이 거론될 때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원인은 아마도 먹을 것이 없던 빙하시대에 음식을 나누는 데서 탈락될 것을 두려워하던 집단 무의식의 잔재가 아직도 작용하는 것 같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되풀이해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한국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확고히 표현하지 않고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심어주지 못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내려고 애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6. 신념의 상호 일치성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념 체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에 따라 남의 신념을 평가한다. 그리고 남이 지닌 신념과 자기의 신념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한다. 신념의 일치란 그 신념이 얼마나 유사한가 그리고 중요한가로 가늠할 수 있다.

사람들 간의 신념의 유사성을 스코어로 표현한다면 스코어가 높을수록 사람들 간에 신념의 상호일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스코어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공조냐를 조건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에서 신념(정강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한다. 정강 정책은 신념의 국가 조직 운영과 국민 복지를 위한 신념의 체계이며 그 신념들에는 핵심적인 것이나 피상적인 것 등, 위에 열

거한 신념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적용된다. 정강 정책을 신념의 수준에서 정립하는 것이 선행하고 그 신념을 지지하는 성향과 정도에 따라 정계 개편을 거론해야 될 것이다.

7. 신념의 유사성

공동 행위의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신념의 유사성이 필요충분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부모나 스승에게서 도덕적 신념을 교육받았더라도 형제나 학우 사이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신념은 사람들의 요구 충족(need gratification) 행위에 또한 관계된다. 즉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것이라는 신념, 그리고 그 결과를 달성할 것이라는 신념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에 도달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즉 요구충족의 지연(delayed gratification)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수단-과정 및 결과 달성에 대한 신념의 강도와 정비례한다. 토지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6년 이후부터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나무를 심어도 6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은 당장 심어 3개월 후에 수확할 수 있을 채소를 심을 것이다.

사람들은 요구 충족을 즉시 적 요구(immediate gratification)와 장기적 요구(long term gratification), 그리고 여러 길이의 중간기적 요구(midterm gratification) 구분해서 배려한다. 당장 허기를 채우기 위해 눈 앞의 음식을 먹어야 하던가 빗을 갠기 위해 고리채를 쓰는 것이 즉시적 요구충족이다. 자식을 잘 교육시켜 장차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것은 장기적 요구 충족의 예이다. 자식이 고등학교, 대학교육(요즘 한국에서는 해외 유학)을 착실히 받으면서 좋은 성적을 내며 졸업하는 것이 중간기적 요구 충족의 예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요구 충족은 무한하다. 부모는 평생 동안 기대를 새롭게 가지며 당초 기대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기다린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8. 신념과 신뢰의 과정

어떤 사람의 행위로 혹은 방법 과정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 때문에 그 대상 인물이나 과정에 대해 지니는 신념이 신뢰(trust)이다. 직장의 상 하급 직원간이나 친구 사이에 그런 신뢰가 존재한다. 국가의 헌법이나 금융 투자 기관의 투자 상품이 그런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종교적으로 자기의 문제에 신이 개입할 것이라든가 기도가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신앙은 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기도라는 방법에 대한 신뢰이다.

신뢰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요구충족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함과 정비례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약속은 죽을 때까지 이뤄지지 않더라도 죽을 때까지 서로 포기하지 않는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기대는 약속이 이뤄지지 않는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 있게 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결혼은 모든 유형적 약속 조건이 이뤄졌어도 이혼으로 끝날 수도 있다. 즉 상호 신뢰성이 낮을수록 그 관계에서의 요구충족 지연가능 시한은 짧다. 신뢰와 요구충족은 자연히 반비례한다. 요구충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은 신뢰를 경험한데서 나온다. 지금 한국의 가정문제, 사회폭력, 경제성 범죄, 정치의 지향성 부재와 유사 이념적 갈등이 모두 신뢰의 결여와 관계 있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인간관계의 밀접도와 정비례한다. 연고에 의한 척수가 가까울수록 더 신뢰한다. 일상적인 상호관계의 빈도수가 잦을 때 사람들의 상호 신뢰는 상승한다. 그 경우 개입되는 어떤 신념의 내용 자체는 신뢰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척수가 가까운 관계나 접촉이 잦은 관계에서는 어떤 신념 내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신념의 속성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의 연대와 즉흥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결단이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이 관저에 사람들을 불러 칼국수를 나눠 먹는 이유가 그런데 있다. 그러나 신념의 내용 보다 인간관계의 밀접도에 의해 성립된 신뢰 관계가 정치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정치는 안정되지 않는다. 정책이 수시로 뒤바뀌며 그 실책을 추궁하여 막료

의 경질과 차별성 시행착오가 반복된다. 보편타당성 있는 신념이 인간관계의 밀접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어떤 한계선이 있어야 과정 (법 절차, 정책, 방법론 등)이 합리적으로 수행된다. 객관적인 절차에 관한 신념이 보편화되어야 사회의 모든 관계들이 안정성을 갖고 지속된다. 한국이 지금 이처럼 혼란스런 이유는 인간관계로부터 중립적인 보편성 있는 신념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의 최대 이익에 관한 신념이 없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임기응변으로 편리한 말을 하니깐 일관된 신념이 정치인들에게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신뢰가 정착할 수 없다. 마치 모내기를 오늘은 온상에, 내일은 돌짜밭에, 모래는 물 댄 논에, 다음 날은 마른 논에 하는 농부의 벼가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을 것 같다.

9. 신념의 활성화

사람이 어떤 신념들을 체계화시켜 지녔더라도 그중 어느 것이 어느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언행으로 표출되느냐는 데는 변이가 있다. 1997년 금융 대환란 때 (속칭 IMF위기)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회개 운동이 있었다. 기독교 신도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재벌과 고위 정치인들 중에 교회의 장로가 즐비한데 어떻게 경제와 정치가 유착하여 그렇게 부패할 수 있었는가를 라는 질문이 대두했었다. 다시 말해 인지와 신념이 가지는 관계성 자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 숙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신념들의 인지적 상호작용으로 개인 혹은 집단의 특정한 신념이 어떻게 더 강화되고 또는 약화되거나 산만해지는가? 이것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다. 두 가지 신념에서 발생하는 자극이 지닌 방향이 긍정적이면 (일관성을 지니면) 그 신념들의 힘이 가세되는 인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교의 효도와 기독교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훈은 부모나 조상에 대한 신념의 방향이 같다. 그러나 유교의 조상을 위한 제사와 기독교의 우상숭배 거부 두 개의 신념에서 발생하는 자극은 부정적(일관성 보다는 반대 방향)이어서 그 신념들의 힘이 감퇴되는 인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 치열하게 보수-진

보의 이념의 대결과 공방이 전개되는 것은 신념에서 발생하는 자극들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념들이 중립적인데서 어느정도 보수적 혹은 진취적으로 기우느냐는 각도를 알면 그 신념들의 힘이 가세되거나 감퇴되는 인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소위 이념의 색깔론은 중립적인 이념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각도가 기울었느냐는 시비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두 개의 신념 자체에 대한 논쟁 보다 신념들에 연관된 두 가지 자극들을 하나의 형태로 묶을 때 신념들을 비교하는 인지 과정이 활성화된다.

10. 신념의 인지구조

우리들이 보통 자기는 냉철하게 객관적 사실을 추구한다고 공언하지만 당사자들이나 관망하는 사람들 모두의 인지 구조가 부정확하다. 예를 들어 한국 검찰에서 정치 자금 관련 의혹을 수사나 언론사의 탈세 의혹을 수사를 둘러싼 논쟁의 경우 엄밀히 중립적 관점이나 객관적 주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주장되는 사실들은 모두 어떤 개인 (공직 수행자로서의 검사이건 직책 없는 한 신문 독자이건 간에)의 입장에서 어떤 객관적 측정치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인지 내용과 비교해 내놓는 주장일 뿐이다. 또한 로키치가 말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사실을 추구하기 보다는 믿기를 추구하는 장치이다. 특히 종교성이 강한 한민족의 경우 사실 추구보다 믿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 타당하다. 그러한 믿기를 추구하는 장치에서 형성되는 신념의 내용을 그 진행 형태를 따라 3가지로 분류한다. (p. 135)

첫째는 실존적 혹은 묘사적인 신념들이 있다. “태양이 동쪽에서 돋는 것을 나는 믿는다”처럼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 혹은 그 사실을 표현하려는 것들이다.

둘째는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적 신념이 있다. “동대문 시장의 상품 보다 수입된 브랜드 상품이 더 좋다[고 믿는다]”처럼 (이 경우 믿는다는 말 대신 좋아한다는 정언적 선언을 하지만) 자신의 선호 여부 또는 기호성 정

도를 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처방 또는 강권적 신념이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나는 믿는다”처럼 사실성 혹은 기호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명제를 당연한 절차 또는 행위라고 믿거나 이런 것을 남에게 의무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김 아무개의 재정적 신용을 절대로 믿는다”는 것이 사실 묘사 신념으로서 항상 유지되려면 김 아무개의 속성이 신용 있는 사람이야 한다. 그런 신념의 대상은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 친구들 간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상인과 고객과의 관계, 정치인과 국민과의 관계 등에 인간 관계의 모든 영역에 형성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불신사회가 된다. 지금 한국이 불신사회로 된 것이 부모-자녀 관계로부터 정치인과 국민의 관계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역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교회에 십일조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든가 “예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하여 천당에 살 것이다”는 등의 신념들은 어떤 발생적 형태의 신념들인가? 그런 신념들은 받아들이기에 앞서 타당성을 검토해 볼 대상들인 것이다.

11. 신념과 행위 유발

모든 신념은—위에 말한 사실 묘사적 신념과 평가적 신념들, 그리고 처방되거나 강권적으로 어떤 신념들이 부과될 경우—사람들에게서 어떤 행위를 순간적으로 혹은 지속적 유발할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특정한 방식을 선호해서 반응하는 성향을 지니도록 하는 비교적 지속되는 신념의 체계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마다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를 각기 다르게 지닐 수 있는데 개인 혹은 집단의 어떤 태도를 구성하는 체계화된 신념들은 각기 세 가지 측면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인지 요소 측면이다. 무엇이 사실인가 허위인가, 좋은가 나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인가 원치 않는 것인가 등에 대해 개인이 알고 있는 내용 곧 지식의 요소이다.

둘째는 감정적인 측면이다. 모든 신념은 그 믿는 대상에 대해 여러 수준의 강도로 감정을 일으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 감정은 강도가 다양하며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는 입장을 갖게 한다. 신념의 타당성이 심각하게 의문시될 때는 논쟁점이 된다.

셋째는 행위적 요소이다. 신념은 여러 단계의 반응을 일으키는 잠재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히 활성화될 때는 행위를 유발하고야 만다. 어떤 행위를 유발하느냐는 것은 그 신념의 내용에 의해 좌우된다. 즉 자살을 순교자의 승리로 미화하는 모슬렘의 신념은 테러를 조장하지만 자살자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캐톨릭의 신념은 자살을 방지한다.

한국이 지난 30여년 간에 경제적 기적을 이룬 데는 교육, 정책, 세계 경제의 기회 등 외에도 국민들이 지닌 특정한 몇 가지 신념들이 크게 작용했다. 그 신념들을 어떤 학자들은 유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나온 성취동기의 원초적 신념들이라고 풀이한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을 보수-개혁으로 갈라서 대결케 하는 원초적 신념들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역사에서 찾는 교훈이 미래에 과오를 예방하는 지침을 주거나 더 효율적인 행동 지침을 줄 경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단지 특정인들의 과오를 찾아 그들의 사회 참여를 저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두 가지 다른 효과를 목표로 한다.

첫째, 과거 과오를 범한 사람들이 미래에도 똑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사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전과자가 교도소에서도 교화되지 않았는데 사회에 재적응시켜서는 사회에 위해를 끼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과거에 과오를 범한 사람이 사회에 위해를 끼칠 잠재성을 지니지 않았다면 그의 사회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기본인권 침해이며 그가 지닌 잠재적 공헌을 사회가 손실 보는 시나리오가 된다.

둘째, 넓은 들판을 보고 앞으로 가지 않고 사막으로 뒤돌아 가서 썩은 웅덩이를 파내려는 심리는 퇴행적이고 가학적이며 주요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실파악력 부족의 스키조 프레니아 증상이다.

12. 신념의 태도와 변화

사람들의 태도의 변환이라는 것을 말할 때 첫째, 어떠한 특정 행위(들)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 성향을 원하느냐는 것에 최종 초점을 두고 표적 태도로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선거 참여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을 선거 날에 투표장에 가도록 태도를 바꾸는 것 자체는 선관위 같은 기관의 표적 태도일수 있다. 어느 정당이나 특정 후보 측의 경우에는 선거장에 간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선택해 표를 찍는 행위를 할 준비상태에 들게 하는 것이 표적 태도일수 있다. 그러한 표적 태도는 어떤 판매장에 고객이 가든가 안 가든가의 선택, 그리고 매장에서 특정 상품을 선택하는 행위, 또는 애인의 구혼에 쾌히 응답을 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준비성향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그 다음 과제는 어떤 표적 행위를 할 태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특정한 표적 행위를 할 태도를 준비시키든가 또는 이미 형성된 태도를 변환시키는 것이다. 그 단계에서는 어떻게 태도를 형성시키느냐 또는 기존 태도를 변환시키느냐는 과제로 이어진다.

사람들의 태도가 변환되었더라도 행동화하는 것은 또 그 다음 단계의 또 다른 과제이다. 즉, 여당을 지지하던 사람의 태도가 특정 이슈나 인물 때문에 야당 지지로 태도는 변환되었다 하더라도 선거 날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행위, 그리고 정작 어느 후보를 찍느냐는 것은 태도의 변환, 그 다음으로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지닌 어느 형태의 신념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신념들의 구조적 관계가 어떤 변화를 거치는가, 그런 신념의 구조에 어떤 내용의 신념들이 삼투해 들어가는가 등 일단의 변화를 종합해서 말해야 될 것이다.

13. 신념의 내용형성

어떤 대상에 대한 신념은 자기의 요구와 관계된 내용을 지닌다. 즉 자기가 가치를 두든가 가치를 안 두느냐가 신념의 내용 형성에 영향을 주는

데 특정 신념에는 단 하나의 가치보다는 일정한 폭의 가치들이 함께 내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가치들의 폭은 그 대상을 만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살기 위한 투쟁을 할 때 그에게서 신의 존재는 자기에게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만 중요성을 갖는다. 그가 중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그는 신을 역사를 주관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존재라고 폭 넓은 사회적 가치에 연결 지어 막연한 신념을 지녔었을 수는 있었지만 치유의 최종적 근원으로 믿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면 그는 신의 치유에만 집중하여 남에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회생하지 못하고 죽는 순간에 그는 영혼의 내세를 주관하는 신, 그리고 유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신으로 가치를 전환하게 될 것이다. 어떤 문화사회에 대한 신념 혹은 정치적 관계 정립에 대한 신념에도 넓은 폭의 가치들이 속성을 이룬다.

로키치가 말하듯이 모든 행위는 대상에 대한 태도, 상황에 대한 태도 두 가지에서 발현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의 태도는 어떤 대상과 상황 두 가지 중에 어느 만큼 초점을 두느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B=W(A_o)+(1-W) \times A_s$$

여기에서 B는 행위의 유형과 총량, A_o 는 대상에 초점을 둔 태도, A_s 는 상황에 초점을 둔 태도, 그리고 W는 상황이나 대상에 초점을 둔 행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느냐는 가치의 정도를 말한다. 태도가 행위로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일단 개인이 지닌 신념체계의 전체 (즉 중요성으로 보아 피상적 신념으로부터 핵심적 신념에 이르는) 속에서 발생한다. 태도는 각 사람이 지닌 가치관의 계층적 체계 속에 다양한 가치관들을 활성화한다. 또한 신념 역시 사람이 지닌 가치관의 계층적 체계 속에 다양한 가치관들을 활성화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신념체계 속에서 별로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

사소한 가치라고 해서 무시하면 잠재적 가치가 다른 신념에 의해 활성화되어 행위 결과를 유발하는 경우를 예측하지 못하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14. 새 정보 새로운 관행의 수용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통을 지킨다는 것을 자랑스러운 태도 또는 행위라고 내세운다. 반면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받아들이는 태도와 행위 습성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 동서고금 어느 사회에서든지 있어 온 보수-진보 (가치, 신념, 태도, 행위 등 각 수준)의 대립을 드러낸다. 한국에서 정치나 교육, 언론, 노동활동 등에서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에는 세대 간에 치열한 대립을 드러내며 때로는 사회를 경직에서 마비에 이르게 하는 근원 요인 되어왔다. 폭넓은 가치들의 내용 (인지적) 차이 뿐만 아니라 그런 가치들을 신념의 내용으로 구조화하여 보존하는 양상의 차이에서 그런 값비싼 대립이 발생한다.

사람들이 새로운 관행을 수락하는 정도, 즉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는 데는 문화권과 개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정도 차이를, 교조주의적 태도 스케일 (dogmatic scale)로 측정할 수 있다. 새로운 창안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도그마틱 스케일과 창의를 채택하는 것의 상관관계는 -.40로 상반된다. 그러나 창의를 높이 평가하는 사회에서는 그 관계 지수가 -.09여서 새로운 창의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이 자주 창의를 받아들인다. (로키치, p. 145-146) 어떤 제시된 원리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을 고집하는 교조주의적 (도그마틱한) 사람들은 새로운 창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교의 교조에 빠졌던 조선왕조 말기사회에서는 외세의 영향과 창의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현대에 살면서 18세기 기독교 교조와 원시 샤마니즘 신앙관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의식 변환을 거부한다. 그런데 교조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들도 창의를 잘 수용하는 사회에서는 남이 권고하는 변화를 가장 잘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남 (권위자)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또는 순봉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한국 사회문화는 창의를 수

용하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빠르다. 그래서 미국의 온갖 퇴폐적 향락문화가 인구 비례로 보면 미국 보다 한국에서 더 일반화되었고 인터넷이나 셀룰라 폰의 보급이 인구에 비해 세계 제일로 일반화된 것도 그런 창의 수용성의 지표이다. 그런 한국에서 교조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비례가 많았다는 것은 좋게는 창의성 수용정도 나쁘게는 퇴폐성의 수용정도에 가속 기능을 했다고 나는 본다.

반면에 교조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은 그 사회의 성향이 여하튼 간에 관계없이 창의를 수용하는 성향이 높다고 로키치는 말한다. 이 경우에는 새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교조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또한 위장된 창의나 새 가치 속에 잠복한 바이러스 같은 파괴성 혹은 부정적 성향을 빨리 파악하여 위해로운 창의를 거부하는데도 민첩, 신속하다고 본다. 한국의 20대, 30대가 교조주의적 순복성이 낮아 부모 세대의 가치관들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창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세대가 인터넷을 받아들여 그 활용성을 높인 것도 창의성의 발현이다. 그러나 부모 세대들이 체험을 통해 거부해왔던 북한의 선전용 정보를 수용하고 그 속에 새로운 가치들이 있다고 인정한 과정에는 큰 오류가 발생했다. 선형적 지식을 가진 부모 세대가 거부한 가치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세대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그 부모세대가 거부한 가치들도 덩달아 수용했다는 것은 논리적 사고 능력의 결여에서 온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지만 대강 이런 형식으로 젊은 세대의 논리가 전개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나는 나의 부모 세대를 거부한다.”

“나는 부모 세대의 북한 정치기구에 대한 주장을 거부한다.”

“부모 세대가 거부하는 것을 나도 거부하기를 나는 거부한다...그러므로 나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다.”

어떤 대통령이 취임 첫 100일 사이에 국가 기본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 엇치

락뒤치락 발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로키치의 말을 빌리면 그것도 이해할 만 하다.(Rockeach, 142) 그 대통령의 태도가 변했느냐는 의문에 대해 (어떤 대상에 관해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태도가 변하는) 그 대상 자체(대미국 정책, 핵문제와 대북 정책, 노조 정책 등)에 관해 그의 활성상태에 있는 태도가 바뀐 것이라기 보다는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인지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교육환경에서 청소년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나 경제-정치 사범들에 대한 사법권의 처벌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제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남의 영향을 받아 태도를 어떻게 변하느냐는데 켈만의 흥미있는 실험결과가 있다. 자기에게 보상이나 처벌을 줄 권한을 가진 권위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그 권위자의 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의 의견을 바꾼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그 권위자가 감시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만 나타나며 감시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는 태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그 의견이 표적하는 대상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은 채 쉽사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켈만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한다.¹

1. Kelman, H.C., "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Internalization: Three Processes of Attitude Chang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958. 351-60.

제 4 부 종교칼럼

1. 한인 이민교회의 중간평가와 진로 모색
2. 미신적 신념
3. 잘못된 종교와 집단 지향 윤리
4. 평신도 의식 활성화



1. 한인 이민교회의 중간평가와 진로 모색

1) 제사로부터 삶을 긍정하는 예배로

기독교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 받아 참여자가 사랑을 통해 자긍심을 충전하고 따라서 그 사랑을 남에게 펼 수 있는 정신 에너지를 담아 오는데 있다. 그 예배는 영어로 잘 표현됐듯이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추가하는 행위 (Worth-ship)이다. 한인 교회들의 예배는 죄의 고백과 회개를 강조하는 부정적 정서와 인간관, 세계관이 압도한다. “거룩 거룩 거룩 하신” 하나님과 “낮고 비천하고 죄 많은 자신” 사이에 천문학적으로 먼 거리감을 강조하는 예배는 스트레스를 더 주어 교인들은 날로 축적되는 긴장감에 살게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기도나 설교를 통해 교인들을 도매금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만들 필요가 왜 있는지? “죄악 된 세상”에서 옛세 동안 살다가 “성수주일”로써 죄를 씻고 월요일부터 또 옛세 동안 죄를 지으러 “속된 세상”에 돌아갔다가 옛세 만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비참하게 순환하는 자아의 굴레에 매어 있다는 운명을 매주일 반복해서 일깨움을 당하면 인간에게 참으로 주어진 자기 존중감, 절대자를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 있는 친근감을 저해당하게 된다.

예배가 “애통하는 통성기도”를 대미로 해서 결코 환희로운 클라이맥스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가치 박탈감을 느낀 교인들은 긍정적 에너지 충전(Positive charge)을 못한 배터리처럼 무기력해지며 위축된 자긍심의 풍선을 불리기 위해 다른 회로를 찾아야 한다. 아니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 불상사 안 당하고 축복받으려고 <성수주일>을 또 한 주일 때웠으니 예배의 성과는 결손처분으로 칠 수도 있지만 영혼의 적자에도 한계가 있다.

더더군다나 설교자나 기도자가 자기 분풀이로 특정 교인을 (특히 지식인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빗대어 질타하고 교인들 사이에 “사탄이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카인이 아벨을 도끼로 찌는 짓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지능 지수는 유치원화 되어 목사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남이 알아주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알짜> 교인들

은 그런 교회를 걸돌거나 떠나게 된다. 목사가 매일 새벽기도로부터 밤중까지 “뛰는 것”과 독서-명상 사이에 균형이 깨어지면 결국 성경책에 쓰여 있는 언어들에 요리하지 않고 매번 생짜로 내놓는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의 원더랜드” 약속이나 “삭개오의 몽땅 반납” 이야기를 환갑이 되도록 수백 번 듣는 것은 진부하다.

이런 비극적 예배의식은 만성 디프레션 (우울증)을 가중시켜 “보잘 것 없는 인간들”로 하여금 <목사, 신부를 통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운수에 좋지 못하다”라는 무의식적인 강압감 때문에 교회에 대한 충성과 봉헌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게 된다. 예배 예식 문이나 교독문도 유태 문화의 언어에다 현시대 동질감이 없는 것이어서 따라 읽을수록 칙칙리나 소나무 껍질을 씹는 듯한 괴리감이 생긴다. 이민교회들이 복음성가집을 창안했듯이 합동 찬송가의 부록 교독문을 새로 공동 편찬할 것을 나는 제안한다.

“대표 기도는 써서 읽든지 훈련을 하든지”

한민족의 대부분 교회들이 역시 인간을 비하하는 감성적 용어로 시작하여 유창하게 흘러가야 되는 몇 개의 기도 모델을 갖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일라이트를 상기시키는 텍스트 형, 청와대와 백악관으로부터 보스니아까지 훑는 세계일주형, “주십시오...거듭 간구합니다”를 반복하는 웰페어 형, 요지도 없이 “아버지...이 죄인” 같은 동일 용어만 반복하는 타령형 등이 전형적 모델이다. 개중에는 아예 하나님인지 교인인지를 향해 대성으로 고함지르며 질타하는 훈계형도 있고 “아무개 아무개 성도들이 감사 헌금하였습니다” 하는 국세청 보고형도 있다. 기독교 기도의 모델은 주기도문에 있으니 이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목사나 장로, 권사들이 훈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표기도에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도문을 써서 읽게 하면 기도 담당자가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고쳐서 나올 것이니 함께 기도하는 회중도 매우 “은혜”스러울 것이다. 기도를 써서 읽으면 신앙지수가 낮다는 선입견은 암기력을 자랑하려는 쓸데없는 오

만일 뿐이다.

예수는 남에게 자기 자량을 듣게 하려고 떠드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다. 골방에서 혼자 또는 두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들으신다고 했다. 새벽에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성서적인 의례이기보다는 한국의 민속종교에서 뒤뜰에 냉수 떠놓고 <치성>을 드리거나 성황당과 사찰에서 <공>들이던 전통에 더 가깝다. 새벽 기도는 개인의 자발적 실행일 뿐이지 전 교회가 교인을 동원하고 참가숫자를 집계하여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농경사회에서 동네 논밭에 나가기 전에 가능했던 것이 현대에 거주지-일터-교회의 삼각 거리가 먼 상황에서 신앙 평가의 척도가 되는 것은 무리이다.

기독교의 명에는 가볍고 축복은 “텅 빈 인생”

한인교회들은 교회조직에 대한 봉헌 의무를 유난히 강조하지만 섬김은 은혜(요구 충족을 아무 대가 없이 제공)를 받은 그 다음에 가능하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봉헌이 축복을 준다는 <선불> 시스템은 이방 종교 신앙관이다. “간절히 축원합니다”라는 말이 <원화> 환율처럼 인플레이되고 있지만 예수의 <산상보훈> 축복은 축원으로 받는 것과는 다르다. “축복받은 사람들”(blessed are)이라고 했으니 <십일조>를 내고 목사가 <축원>을 해서 앞으로 달성될 상태가 아니다. 이미 그런 성품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잘 생각해볼 것이며 ”하늘“에도 보너스가 있다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예수를 잘 이해한 사람은 율법과 제도 등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 “그 자유는 봉헌이나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랑을 권장할 뿐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인간 해방선언을 했다. 모세가 “내 백성들을 떠나게 하라”고 이집트 왕에게 요구했듯이 새 땅에 이민 온 한인들이 공동체에 속하면서도 불합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예수가 진 십자가는 무겁고 아픈 것이었지만 그가 우리의 짐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의 “명에는 <최소한으로> 가볍다.” 예수가 1천 파운드의 짐을 덜어주었는데 150

파운드였던 개인의 짐이 교회 때문에 850 파운드로 늘었다면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진리 (참 사실)가 너를 자유케한다”고 하여 자유인이 된 믿는 자들을 교회가 <부자유인>으로 부틀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의 공적을 무효화하는 적그리스도 행위이다.

2) 권위주의 제도교회의 맹점

그리스도는 제도화된 교회를 조직할 것을 의도한 일이 없이 12인 제자만으로 사명 수행을 뒷바라지하게 했다. 집사, 장로라는 칭호는 오순절 체험 이후 예수 추종자들의 모임이 잦아지면서 필요에 따라 생긴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안수받은 목자라는 직분도 사람이 많아지면서 역할을 분담하다가 보니 생긴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모두 형님, 누님, 아우님 이외에는 지위 차이가 없다. 교회에서 적합한 신분 호칭은 <교우>이다. 사제니, 주교니, 심지어 교황이니 하는 직명은 인간 조직 편의상 만든 것이며 설혹 로마 시대의 편제와 권위의식을 모방하여 교역자에게 특권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제도와 계급은 예수가 준 일이 없다. 하늘나라 직위를 당부하는 제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 없다”면서 제자들에게는 남의 “발이나 씻어라”고 했다. 그는 유태교의 교권계급자들의 권위놀음에 순응하지 않아서 처형당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초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되기에 충분하며 굳이 제사장 운운한다면 “개인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라는데 있다. 기독교의 구원에는 보험대리인의 중개 역할도 필요 없고 프리미엄은 완전히 공짜이다. 그 <팔리시>((Policy)를 받아서 잘 읽고 이해한 후 싸인만 하면 된다. 물론 그 <팔리시>를 어디서 얻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또 혼자 이해 못하면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한인 공동체에서도 그런 보살피는 일에 전문으로 “섬기는 역할을 부탁받은 사람”으로서 유급 교역자는 타당하다.

교역자는 독주자가 아닌 잔치 준비자

개체 교회 교인들이 목사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과 대부분 즉흥적인 언동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며 횡포이다. 미 연합감리교단 북 일리노이 연회 감독이 최근 각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교단 정책 설명과 대화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한 교단 간부는 자신이 목사임을 밝히고 “교역자들의 파워는 막강하다. 어떻게 교인들이 목사가 하자는 대로 맹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단히 민주적이고 목사를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는 미국인 교회에서도 교역자의 독재가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이다. 목사의 부모나 배우자까지도 자기 아들이나 남편인 목사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권위주의적 문화는 재고해야 한다.

어떤 목사는 몇 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는 예배순서를 변경하자는 교인들의 건의에 대해 “예배는 목사의 고유 영역이니 신도들은 상관하지 말라”고 말한다. 예수는 시장에 나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는 비유를 말했다. 신 김치와 불어터진 국수를 차려놓고 5년, 10년, 20년씩 똑 같은 잔치를 펴면서 음식 맛을 고치라는 식객에게 “요리사는 나니까 음식을 어떻게 차리든 상관하지 말라”는 격이다.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가 싫은 교인은 교회를 떠나라고”고 아예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목사는 “나는 교단 파송을 받았으니 당신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끄떡없다”고 회의석상에서 공언한다. 음식을 제대로 못하면 요리사가 고치거나 떠나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식객이 떠난다면 그 교회나 교단이 제대로 되는 집안인가? 교회인들의 그룹 모임을 위해 교회 교실 하나 두 시간 사용하자는 요청도, 그 행사 광고를 교회 게시판에 붙이겠다는 요청도 목사에게 일방적으로 거절당한다면 그런 사람이 교회 건축헌금을 계속 낼 마음이 나겠는가?

미국 10대 대형교회로 급성장한 월로 크릭 처취 (배링턴 소재)는 마케팅 리서치로 시작했고 중요한 변경을 할 때는 광범하게 예배참가자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분석을 한 후에 결정한다. 한인교회에서는 목사들이 교인 여론조사를 피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불만 사항이 응집되어 통

게로 입증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다. 교인들이 너무나 성결구절로 프로그램화 되어 자기들 깊은 곳의 참 요구를 의식하지 못하며 목사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구절이나 형식적인 기도주문으로 덮어서 이민공동체는 어디로 갈 수 있는가? 타당성의 시효가 끝난 모세의 홍해바다 돌파작전이나 노아의 홍수 얘기로 흠 파진 레코드판 돌리듯이 계속 돌리며, 쉼 없이 목소리로 “신령한” 인상주려고 해서 이민교회를 어느때까지 어디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박수치시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으니 더 크게 외치시오.” 퇴화한 한국교회 부흥사들의 모델밖에 따를 것이 없는 시야를 갖고 이민교회 지능지수를 유치원 수준으로 후퇴시키면 어떻게 한인 이민들의 후예가 이 땅에서 지도적 위치에 서며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겠는가? “십일조를 안 내면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놈” “집 팔아서 교회 바치지 않고”... “자식 일류대학 보내면서 현금 줄이면 제 새끼만 아는 짐승 보다 나을 것 없다” 이런 저주를 해서라도 교회를 물량적으로 확장하려 한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을 던져서 이룩하려던 <하나님의 나라> (새 질서)는 멀어져만 간다.

평신도 제직들의 권위 콤플렉스

교역자의 독단 행태는 장로 등 평신도 임원들 사이에도 바이러스처럼 감염되기도 한다. 특정 장로를 <보스>로 하여 몇 사람이 톡톡 뭉쳐서 교회 중직을 교대로 하며 10년, 20년간 <파워>를 행사하며 똑 바른 말하는 교인들을 얼씬도 못하게 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축출하는 장기 집권 내각 교회도 존재한다. 이들이 버티고 앉아 목사를 쥐고 흔들거나 야합하여 교회가 분열하거나 쇠퇴하는 사례들도 있다. 제직회에서 의론하다가 사리에 맞지 않아 궁색해지면 “직원회장 직권으로” 발언과 토론을 차단하며, 다음에는 아예 특정 안건을 빼버리기도 한다. 한국 교회의 관례에 평계 났다가, 자체 교회 규정을 들켰다가, 교단 법을 내세웠다가 어느 것에도 이치가 막히면 “하나님의 일인데 무슨 잔소리냐? 당신들은 신앙이 없다”라고 우격다짐으로 말문을 막기도 한다. 이렇게 면박당한 사람은 그 다

음 회중기도에서 “교회를 해치는 사탄의” 무리로 또 질타당하기도 한다. 교인 중에서 회계 기록이나 재단 기록 열람 요청하려 법정소송을 하고 회의 진행을 녹음기로 수록할 정도로 신뢰도가 떨어졌는데도 문제된 <증거>를 요구하면 묘하게도 테이프는 <승천>한다. 그래서 교인 그룹 간에 몸싸움이나 소송이 걸리기도 하는 등, 임직자들의 조직 운영 미숙으로 공동체의 분란을 초래한다.

교회 임직자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은 예수의 수건”으로 권위주의를 닦아치우고 조직운영 기술과 절차, 시행지침을 연구 개발하여 공동체가 화음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민족 문화의 가장 큰 약점은 절차(Procedure) 개념의 결핍이다. 한민족은 권위지향성이 특히 강해서 “높은 분”이 모두 알아서 처리하도록 믿고 순종하면 “위대한 영도력”에 의해 매사가 전부 풀려간다는 마술적 기대감을 크게 갖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 한인회장까지 <대선>으로 뽑는데 그들의 공약 내용 검토나 그것을 실천할 절차나 성과를 평가할 장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소수 집행위원들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교회에서 이런 절차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교인총회의 결의에 따라 힘들여 초안까지 만들어 놓고서도 “목사를 위해 막아 달라”는 목사의 요구 때문에 총회 상정을 표결로써 막아도 “다수결의 원칙”이며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민 교회들을 포함한 범 한인 공동체는 물론 한반도의 정부나 모든 조직들도 잘 되려면 <절차>의 부분에 대해 미국인들의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

3) 과거지향에서 미래 지향으로

대체로 한인교회들을 이끌고 있는 이념과 의식, 프로그램은 아브라함을 시조로 한 유대인들의 <복종>과 이에 반대급부로 <축복>을 개런티하는 보험 체계로 짜여 있다. 특히 3천여 년전부터 유대인의 세금제도였던 <십일조>를 갖고 그 것이 축복받는 보험의 프리미엄인지, 모세 때에 없던 국세청과 어떻게 균형지어야 할지 지금 교인들로 갈등을 갖게 한다. <십

일조>문제를 현대교회는 신학으로 정립해 <걸림돌>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교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인교회 지도자들은 2천년 이상 된 남의 민족의 고대 역사나 사화를 가지고 현시대 역사에 꿰어 맞추려 한다. 그리고 <교회 확장과 선교 건설>을 제외하고는 미래를 향한 상상적(imaginative)인 두뇌 사용도 제한하도록 교인들의 정신활동을 차단하려 한다. 이 증상을 “동시대 감각 미개발 및 비전의 부재 증상”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기록된 문서>의 틀에 안 집어넣어지는 삶의 실제 상황이 있으면 그 틀을 고쳐야 하는 것이지 현 상황을 틀에 맞추어 줄 수 있는가? 사람이 자라서 옷이 적으면 사이즈 큰 옷으로 바꿔 입어야지 살과 뼈를 자르거나 몸을 줄일 수 있겠는가? 옷이 안 맞고 몸은 커지니 <기록된 텍스트>로 머리 떠만 짚고 두르고 몸은 벗고 생각은 정신박약아처럼 고착된 <나체의 신학>으로 <정박아의 신관>을 갖고 민족을 끌고 간다는 말인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으니

한인교회들이 “민족 이끌기”는 처치하고라도 조직으로서 존속하려면 이민자들과 그 후예들의 생활 전반에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예수와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전통에서 나왔으면서도 <구약>과 유태교의 많은 부분을 버렸다.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으니”라는 예수와 바울의 공감대는 무엇이었던가? 지금 재미 한인교회들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자기 조상보다 추키며 삶의 모델로 삼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가 선포하고 바울이 설명한 자유로운 새 삶을 아직 시현 못했거나 더 확장하지 못한 미성숙의 증상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굳이 들판에 나가 돌베개를 베고 새벽에 찾지 말고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기의 직계 선조 중에서 신앙의 표본이 없으면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자기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여 양자로 삼은)와 같은 분, 채영신 양(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예언자 함석헌 옹 같은 분들을 모델로 삼아 한인 기독교자 상을 탐색해 가야 할 것이다.

지금 한인 교회의 갈 길은 기독교자의 “참 자유인” 의식과 현재와 미래

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 이민들 고유의 신앙관과 공동체를 모색하는데 있다. 2세들의 영어 회화를 개척한다지만 그것까지 아브라함 모델로 설계하면 한민족의 역사는 새 땅에 이민 와서조차 아브라함-유태교의 <누룽지>나 굶어 먹다가 말 것이다. 우리 민족의 유산과 유태인들의 전통을 새 시대 새 나라에서 조합하며 민족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인교회의 소명이 있다. 그것은 동남아 선교나 러시아 선교에 우선해야 한다. 그런 신학 이념의 정립이 없는 1천만 한국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총체적 부패에 <빛>도 <소금>도 못되고 그 사회의 불신편배, “축복받은 자와 못 받은 자” 사이의 균열 조장으로 사회 와해를 촉진하는 <누룩>이 됐다. 재미 교회도 이대로는 모국을 구할 수 없다. 북한 선교도 새로운 고유 신학으로 무장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종과 축복> 종교로만 <선교>한다면 반세기 동안 김 씨 부자에게 복종해온 <인민>들은 복종의 대상을 대치하는 데는 불과할 것이다.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유를 가르쳐 주는 것도 재미 한인교회 북한 선교의 쉼터지이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 상태에 있지 않다. 우리는 노예상태에서 탈출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시내산> 주변의 광야가 아닌 <가나안> 복지의 기회를 찾아왔다. 모두가 이민의 후예인 다민족 사회에서 한민족만이 나그네 (Sojourner)로 떠돌아야 할 처지에 있지 않다. 우리는 변두리 인간 (Marginal Man)의 피해의식을 넘어서 우리 이민의 역사를 이 땅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미국사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것을 한인교회가 이념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 꺼진 등대요 맛 잃은 소금이 된다.

2. 미신적 신념

1)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

2003년 8월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의 죽음(자살이라고 단정된)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결과라고 문정인 교수가 신문논설에서 결론지었다. 그의 결론이 논리의 비약인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생략한 채 구체적 풀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나는 사회구조의 고질적인 모순을 논리의 빈약, 그리고 논리의 빈약을 일상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하는 미신적 의식에 있다고 맥락에서 전개하려고 한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미신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기에 아직 거리가 있다는 한 지표이다. ‘미신성’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데 대해 모욕감을 느끼며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 정도를 막론하고 동서양 어느 사회의 어느 개인이든지 몇 가지 미신적 신념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없다. 얕은 정도의 미신성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권 전체가 미신적 신념과 행위 양식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서 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문제 발생들의 원인을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더 크다.

최고로 정예화된 인스티튜션(제도적 기구)이어야 될 한국 정치가 4류의 인스티튜션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헤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치인들 사이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또 그 것에 반응하여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 방식으로 추론하여 도달한 피상적인 관념에 고착하는 현상이다. 이런 미신적 사고방식이 작용하며 당사자들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 광주사건이나 대북한 현금 비밀 지원을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런 사고의 소치이다. “미국이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는 최근 젊은층 급진 과격론자들의 주장도 미신적 사고의 연장에서 나온다. (미신이라는 단어 적용에 독자들이 미리 분개하지 말고 미신의 개념 정의와 이 책의 전체 흐름에서 미신 비판을 이

해해 주기 바란다.)

미신(superstition)이란 비합리적 신념이나 행위를 통칭한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피상적으로 관찰한 내용이 개인이나 집단의 신념으로 되고, 그런 신념에 바탕에서 개인이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관행이 형성되는 것이 미신이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의견으로 나타났다는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라는 명제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논리성의 결여는 그런 현상의 하나이다. 북한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 김정일 일당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내지 신념은 합리적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대한 내용을 믿으려 하는 논리의 쇼트 서킷(회로 단축)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기를 아버지처럼 믿고 복종하는 인민 수백만이 굶어죽도록 두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외화를 축적하는데서 전시된 동족애의 결여가 반세기 동안 적대시했던 남한 국민에게는 친절한 동족애로 나타날 것이라는 계산이 무엇인가?. 서해안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포격을 가해 한국 해군 장병 5명을 죽인 북한의 행위는 동족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아닌 사고라고 문제 삼지 않고 한국을 50년 동안 지켜 주던 미군 장병의 장갑차에 여학생 2명이 치어죽은 사건은 의도적 행위인 것처럼 비약한 논리가 무엇인가? 그 논리에 수백만 국민이 동원되어 반미 시위를 한 행위나 그 후속 행위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마지막에 판가름하고 한국의 외교 정책 방향을 뒤흔드는 것은 합리적인가?

미신이라는 용어는 종교적 신념이나 제례 의식 행위도 포함한다. 통상 미신이라면 시대에 낙후된 원시적인 종교의례, 유사 종교의 의례, 마술 등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위들을 연상하게 된다. 그래서 미신성이라는 용어를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불편하다면 비논리적 또는 피상관념(皮相觀念)적이라는 용어를 대용할만하다. 한 사람의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는 미신일수 있고 모든 종교는 어느 정도의 미신적 신념과 원래 행위를 지니고 있다. 로마시대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는 이방 종교들을 미신이라고 규정했지만 그의 선임 황제들은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박해했다. 기독교의 십자가가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예수정신

의 상징이라는 데는 문제성이 없지만 그것을 자동차에 걸면 운전사고를 막는다는 생각은 미신이다.

생물이 존속하는데 항상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적응해야만 살아 갈수 있다. 사람은 사물이나 상황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원인 또는 결과로 분류한다.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밥을 많이 먹어야 배가 안 고프고 공부 잘하지”라고 말할 때는 원인과 결과를 서술한다. 그 말은 인과관계가 기정 상식화된 추론에 근거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논리에는 하자가 없다. 그런 신념은 미신이 아니다. 그러나 돼지머리로 제사를 지낸다고 아파트 단지 건축 공사 전 과정이 무사하게 진행된다고 기대하는 데는 미신이 개입된다. 돼지머리 의례처럼 이성이나 객관적인 지식에 근거를 두지 않고 특정한 사물의 총괄적의 유의성, 정황, 실제 발생, 진행과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신념이나 생각'이 미신이다.

그 자체가 근거 없고 일반적으로 밝혀진 수준에 맞지 않는 신념이나 시술 행위가 어떤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용된다. 한국의 공공단체나 기업체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돼지 머리를 삶아 놓고 절을 하는 의례는 서구인의 시각에서 보면 미신이다. 그러나 돼지 생명의 희생 외에 사회적 폐해가 없으니 이런 미신은 큰 문제는 아니다. 개고기 보신탕은 서구 문화의 시각에서는 야만적이라고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그 동물을 사육해서 식용한다면 과학적인 건강식품이다. 보신탕에는 미신성 문제가 없다.

나의 의도는 구태어 민속화 된 행위를 문제삼거나 재래적 유사종교들의 폐해를 지적하거나 제도화된 종교들의 허상을 격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개인들의 일상생활, 국가사회의 운영에서 판단을 좌우하는데 비논리적 신념 피상적 의식이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독자들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분석에까지 적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미신을 논란하고자 한다.

2) 보수성과 미신성의 관계

지능과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신념을 지니거나 따르는 경향이 더 있다.¹

또한 미신을 따르는 성향과 보수성이 서로 관계를 지닌다. 그런데 보수적 증상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위협이나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유약성에 근원을 둔다.² 그래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에 불확정성을 모면하려는 데서 미신은 근원한다. 사람의 유약성, 보수성, 미신성은 상호 맞물려 악순환하는 사이클을 이룬다. (Rokeach, 50-51)

사람들이 누구나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만 사후문제에 대한 대해 종교적으로 해답(신념)이 있으면 죽음의 위협이 덜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근거가 있건 없건 신념을 지니고 그것을 붙들려고 한다. 그 신념들이 제도화된 종교의 신념이건 공인받지 못한 허구적 신념이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통제의 초점이 자기에게 없고 밖의 힘이 자기의 운명과 성패를 통제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불안이나 우울증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그런 밖의 힘이 자기를 돕는다고 믿을 때 불안이나 우울증을 덜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신적 존재나 권력자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더 지니게 된다.

타자의 힘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지방색이나 파당 행위와 관계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굳이 지역 연고관계나 학연을 타고남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자기 운명은 자기 스스로가 감당한다는 자기 내면적 통제 능력을 지닌 사람일수록 권위에 대해 굴종을 덜 한다는 것이 준봉이나 복종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능력 있는 행위자이라고 믿을 경우 그들은 의문을 더 제기하며 남의 지시나 권고에 더 저항하게 된다.

1. Stuart A. Vyse, *Believing in Magic: The psychology of superstitions*, Oxford Press, 1997, pp. 46-48

2. Glen Wilson, *The Psychology of Conservatism*, London Academy Press, 1973, p. 259

3) 효능감과 미신성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앞으로도 성공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적 통제감 즉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더 갖게 된다. 이런 자기 효능감이 약하면 더 미신성을 지닌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효능감이 더 약하고 더 미신적이다. 그래서 종교에 여성 신도들이 더 열정을 낸다. 그러나 여성들이나 자기 효능감이 약하다는 것은 반드시 생물학적 차이만이 아니라는 것을 유약한 남성들이 많은 점에서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자기를 주장할 기회를 덜 받아서 후천적으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특히 윗사람들, 권위자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 행동해온 사람들이 그렇듯 미신성이 높을 수 있다. “너는 능력이 없으니 나(주님)만 믿고 따르라”는 주입이 반복되면 일종의 최면에 걸리게 된다. 즉 남의 암시에 대한 유약성--남에게서 듣는 대로 다 믿어버리는 신앙과다 증상이 생긴다. 최면은 그 시술하는 권위자에게로부터 영상이나 상상을 제시받고 그것을 현상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이런 최면 감응 증상이 한국인들의 과식 과음 행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데이터를 내 볼만하다. 최면 감응 현상은 ‘붉은 악마’의 집단 응원에 수백만 한국인들이 감응하는 현상이나 노조 파업이 집단 엔터테인먼트(연예공연)처럼 되는 것과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할 만하다.

로키치(Rokeach)는 소외감이 미신적 신뢰와 관계가 있지만 그 외에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p. 52-53)

4) 소외감과 미신적 신뢰

소외감은 불안감과 인접한 정서이며 권위자 혹은 유력 집단과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감이나 효능감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현상을 수반한다. 고독하더라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미신에 덜 빠질 것이다. 미신적 신념을 채택하며 집단 행위에 따르는 선택은 소외감을 피하려는 예방행위 또는 도피행위이기도 할 것이다. 소외감으로부터의 대피 행위는 집단에 대한 준봉-‘붉은 악마’ 동참, 각종 항의시위나 파업, 유행을 따르는 과소비 행위,

정치인들의 파쟁 등-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연구할 만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는 두 가지 전제에서 시작하여 사고 양식에 드러낸다. 예를 들어 6.25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는 자기들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북한 정권집단에 대한 판단을 한다. 그런 사고는 직관적으로 “북한은 적대적이다”라는 판정을 지니며 배척하고 경계하려는 정서를 수반한다. 반면에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듣거나 간접적으로 배운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추론적으로 사고하며 논리적으로 분석-종합을 하여 경험과는 동떨어진 내용 체계를 그리려고 한 면서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북한이 적대적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이끌어 내어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두 가지 사고에 의한 판단 어느 하나도 절대 옳다거나 절대로 틀린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관건은 남한 측의 두 가지 판단이 아닌 북한의 행위 자체가 어느 것이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준다. 이것을 주로 두뇌로 사고하는 사람들과 심장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상호충돌로 설명하기도 한다. 한국인들이 이런 차이를 바로 본다면 남남갈등이니 세대 간 격돌이니 하는 대결구도 악화로 치닫기보다 상호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여유 있는 관계가 좀 더 가능할 것이다.

엠펙스타인(Epstein, 1994, 709-724)은 높은 신경증, 우울증, 불안 등 부정적 정서들이 높은 미신성과 관계있지만 분노와 흥분 등의 정서가 미신으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관계를 실험으로 관찰했다. 그리고 자아의 지향이 내향성이나 외향성인냐는 것은 미신성과 관계가 없지만 자아가 강하고 자기 존중감이 강하면 미신성은 낮다는 관찰했다. 그 것은 독립심을 기르는 부모보다도 과잉보호하는 부모 아래서 미신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관찰에 나타났다. 이상의 관찰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성만으로 미신성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집단의 가치나 표준에 준봉하라는 압력이 강한 문화나 특정 상황이 미신성을 지니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집단 준봉 압력이 강한 사회라는 점에서 미

신이 성행할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만하다.³

종교와 미신이 동일하지는 않다고 구분하려면 그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굿판 분위기 같은 부흥회에서 미신적인 행태로 준봉이 남발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교회라는 조직체 없이 개인이 지니는 어떤 신념이나 행위는 미신이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할 때 미신성 신념이나 행위는 신앙의 내용, 신앙의 결실로 받아들여진다. 차이는 그런 신념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다. 낸시 레이건이 점술가를 가까이 두고 일진을 보며 레이건 대통령의 스케줄 작성에 간섭했다는 이야기가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조롱거리 루머였다. 레이건 대통령이 힝클리의 총격으로 암살될 뻔한 위기를 경험한 상황 때문에 대통령 부인은 미신가가 됐다. 레이건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 부인이 미신에 깊이 빠질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한편 낸시 레이건 여사가 점성가 대신에 목사나 신부를 가까이 두고 그런 자문을 받았다면 그녀를 미신 숭봉자라고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미신성을 높이는데 권위주의적 가정교육이 기여하지만 사회환경, 즉 문화 속에 배양된 미신도 한국에는 많다. 거기다가 전쟁, 정치의 미숙, 부도덕한 경제인들의, 난맥상 심지어 대학 입학과 취직도 타의에 대부분 통제되는 상황 등은 미신 요소를 더 부추긴다. 왜 대학 입학이나 취업 같은 자유 선택의 영역에 기회를 좁혀 놓고 통제하는가? 공부할 기회나 일할 기회 그런 것들은 들판의 잡초처럼 바닷가의 조약돌들처럼 실제로 널려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을 제도와 조직으로 통제하고 배분하는 기술이 서툴거나 음모에 의해 조작되기 때문이다. 젊은 학생들의 시위와 산업노조나 화물연대의 파업이 절규하는 이유의 바탕에는 이런 미신적 통제가 있다. 남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추구하고 선택하도록 놔두지 못하고 틀에 박아 통제하려는 타성이 반박되며 악화되는 사회 그것이 한국이다. 집단주의적 준봉을 요구하고 그것의 미신성(비합리성)을 수술하지 못하는 사회에

3. Seymour Epstein("Interaction of the cognitive and psychodynamic unconscious, *American Psychologist*, 49, 1994, p. 709-724,

서 통제 왜감증(control freaks)과 매조키즘(가학대성욕) 충족형 인간성들이 번성하게 된 때문일 것이다.

5) 미신과 우연의 일치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을 속일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은 많은 경우 환상에 속임을 당한다. 어떤 화면들의 3분의 1초 이상 빠른 속도로 바꾸어 보여주면 사람의 눈에는 그 영상들이 연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활동사진(영화)이라는 예술이 가능하다. 경찰차의 경고 라이트도 전구가 돌면서 빛을 내는 듯한 환각을 주지만 사실은 두 개 이상 번쩍이는 전구를 연속적으로 명멸시키면 그런 환상을 만들어낸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에서처럼 시공 속에 연속성이란 불완전한 것이다. 이런 불완전한 연속성은 시각 차원 뿐만 아니라 사람의 두뇌 속에서 정보를 포착하고 기억과 조회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밤중에 몸이 불편하면 “저녁 식사가 체했나 보다”라고 앞선 사건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다. 어떤 하나의 사건 뒤에 곧 이어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때 사람들의 앞의 사건이 자극으로 작용하고 뒤의 사건이 결과였다고 생각하는 연속성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당연한 한쌍의 사태추이로 단정하여 학습(기억)하게 된다. 그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전에 학습된 정보를 되살려 내어 새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하려고 한다.

6) 인성과 미신성

사람이 미신에 빠지는 인성적 소질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지만, 인성만이 미신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바이스가 열거했듯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혼합되거나 단독으로 미신적 신념이나 행위를 초래한다.(Vyse p. 201-202.)

- 사람들이 우발적인 사건을 일반적인 조건(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이

라고 보는 실수에서 미신이 발생한다. 어린이 같이 앞뒤가 안 맞는 믿음은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미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미신적인 착오는 어떤 사실의 한부분만을 편향된 관점에서 인지하는데서 출발하기도 하고 인지는 제대로 했지만 추리상의 착오로 발생할 수도 있다. (까마귀가 날아가는 순간 배가 떨어졌다는 인지는 제대로 했지만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리는 원인조건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추리상의 오류이다.

-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미신이 발생한다. 집에 부적을 부치면 아들이 고등고시에 합격한다든가 자동차 백미러에 십자가를 달면 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미신이다.

- 현실 (시간)로부터의 도피 시도로 미신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족이 중요한 수술을 할 때 결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다리면서 아무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미신적인 리추얼이 발생하기 쉽다.

월드컵 경기 응원에서 나타나듯이 “붉은 악마”상징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응원 동작들도 게임의 결과를 통제하려 시도하는 리추얼이다. 그 응원의 일부는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심리적 현실 효과가 있는 과학적 행위 이면서 또 일부는 골에 공이 들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관중의 입장에서 그 결과를 통제하려는 미신적 리추얼이다. 어떤 사회에서 기괴한 사건이나 공개적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그 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예측 불허하거나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리추얼로 나오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사회에서는 일관성 있게 규율이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헌법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주 바꾸고 각종 정책과 규제들도 집권 이익 집단에 맞게 바꾸는 행태는 한국사회에서 미신적 행위나 기괴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규제나 정책을 변경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여론을 준비하고 수렴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야 국민은 예측 가능한 사회에 살게 된다.

사람의 행위 중에 의상을 통한 표현 행위에도 많은 미신적 리추얼이 포함된다.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는 속담이 실제 효과도 있겠지만 한국인의 의상문화(유행을 따르며 시장에 반찬거리를 사러 갈 때도 정장을 하는)와 관계있다.

지능이 낮을수록 미신성이 더 높다지만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큰 사업을 시작할 때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은 개인들의 미신성과 문화의 혼합이다. 돼지머리 제사나 삼페인을 깨는 것은 그 결과로 행운을 기대하는 비합리적 계산에서 나온 신념의 소치인 한편 결과야 어떻든지 이벤트 축하를 하는 행위의 관행일수도 있다.

미신이 모두 소용없는 것은 아니다. 대학 입시를 가는 학생들이 찰떡을 먹거나 벽에 붙이는 행위는 그 행위가 마술적 힘을 지녔다고 믿고 실행하면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시험을 더 잘 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 결과 시험에 합격했다면 이 경우 미신은 합리적이며 이로운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새벽기도나 안수기도가 그들의 치병이나 사업번영의 일차적 원인이 안 되더라도 일상생활에 안정감을 주고 자신있게 목표 달성을 믿고 추구하여 원하던 결과 이룬다면 그것도 합리적이다. 결과와 관계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미신이다.

미신의 대가와 혜택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유사종교적 소규모 공동체는 일반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밀접하고 상호 지지하는 인간관계를 증진하여 정신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 경우에는 미신성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사회적 문제로 삼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신념 집단 행위가 사유재산이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신앙집단촌이 되거나 자살극에까지 간다면 그 미신성은 문제가 된다. 실제로 치료 성분이 없는 플라시보 (위약)가 심리적 효과로 병 증상을 완화한다면 미신이 아니다. 그러나 종교적 이유로 수술이나 수혈을 거부하는 행위, 안수기도만 믿으라는 종교술사의 강요에 따르다가 생명을 잃는 것은 미신이다.

미신이 정신질환은 아니다. 단지 추리에 착오를 초래하며 현실통제를 위한 더 정확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탐색하는 것을 막는다. 정서와 인지 능력을 제약하여 결국 문제해결에 장애가 되고 지적 기능, 사고력 발휘를 감퇴시킨다. 이점에서 우리는 미신을 식별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7) 작동명령의 조건화와 인지과정

작동명령의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 와 인지과정은 자주 상호 관계를 갖지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어떤 때는 평행하게 작용한다.

가. 어떤 문제를 자기 스스로 경험을 통해 해결하는데 (작동)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거나 남이 말해주는 것이 (인지)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방해할 수도 있다. (미국식의 자율적 과외 연구는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한국식의 강압적 과외교육은 활성 기억력에 정보 저장량을 늘릴 수는 있어도 문제해결능력을 조건화시키는데는 방해가 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나. 반대로 조건화 과정은 상황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자신이 옳지 못하다 믿는 행동을 했는데 보상이 따르면(남의 것을 속여서 취득함으로써 자기의 이득이 불어나면) 사람들은 그 보상을 포기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여러 가지 미신 또는 제도화된 종교의 신념 내용은 우연한 사건을 조건화한 결과이다. 또한 잘못 도출된 판단의 결과이기도 하다.⁴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선택하는데 어떤 가치에 근거한 판단에 따른다. 삶의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판단이나 선택 행동은 양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상대적인 여부(yes or no)로 따진다.⁵ 즉 우산을 들고 출근하는데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지 몇 시간 동안 비가 올 것이냐 강우량이 몇 밀리 될 것이냐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경제안정성이 낮은 한국에서 일반 시민들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열기가 높은 이유도 투자를 양적으로 계산하기 보다는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상대적으로 따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인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와 열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의 상당한 부분이 내 자녀의 교육을 어느 수준까지 시키면 적절하다는 양적 측정보다도 남이 하는 만큼 내 자녀도 교육을 시키느냐 못시키느냐로 판단한다는데

4. Vyse, *Belief and choice*, p. 91.

5. Vyse, *Belief and choice*, p. 95.

있을 것이다. 정치 공약이 남발되고 그 신빙성이 거의 없는 이유도 비슷하다. 공약들이 어느 만큼 실현 가능한가를 따지기보다 많은 공약을 제시했으나 실패했느냐로 따지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적 맹신이 성행하는 이유도 그렇다. 종교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어떤 보상들이 약속되고 그 보상들이 어느 만큼 실현성이 있느냐 보다는 종교 신앙을 가지면 안 가진 것 보다는 좋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어떤 희망적인 결과나 상황을 가늠할 때도 양적으로 보다는 질적으로 한다. 한국인들이 사회관계에서 많은 부분을 돈을 매개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어가 사람들 사이의 감정을 정확하 (정직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충분히 지니지 못했다는데 물질적인 보충이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억압했던 권위주의 사회들의 연속에서 한국인의 언어 양과 활용은 제약을 받아왔다. 지금도 한국의 일상 언어에서 금기의 단어들이 많고 지도적 인사들이 말의 실수로 큰 화를 당한다. 그 대신 젊은 세대의 반발로 비공인 지하 언어들이 성행하지만 그런 언어들은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더한다. 억압과 통제와 배척과 혐오 등 부정적 감각을 전하는 언어들은 일상적으로 (특히 언론에서) 사용되지만 감사와 격려와 선망과 칭찬 그리고 포용과 협조의 언어들은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 “강력 규제” “엄단” “일벌백계” “철천지 원수” “파렴치” “숙청” 등에 대응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가동시킬 단어들이 어떤 것인가? 단어의 양 뿐 아니라 언어 구사 기술에서 창의적인 여백을 한국사회는 별로 허용하지 않았고 기존 언어 사용 양태에 연연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격언이 있었지만 한국사회는 그런 훌륭한 언어의 창출을 장려하기 보다는 틀에 박힌 언어로 격식을 유지하는 언어 (prestige maintenance language)에 집착해 왔다. 언어에 대한 불안, 기존 격식의 틀을 따르면 안전하지만 새로운 언어로 자칫하면 악감을 전하는 데는 그 의도가 확대될 수 있었다. 말하는 것이 곤욕 치를 찬스를 늘이는 역사의 경험 때문에 언어 사용에서 창의적 변이를 추구기를 꺼렸다. 그래서 언어로는 감사, 존중, 선망, 격려의 뜻을 전하는데 진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다고 생각되어 선물을 동반해서 그 물질의 양으로 진심을 보충하게 된다. 한편 금품을 기대하는 측에서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대하며 그 물량에 따라 진심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정치인들에게 주는 자금이 그런 것이며 급여가 충분치 않은 공직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그런 것이다.

8) 미신과 통제 욕구

알프레드 애들러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살기 위한 불가결의 내재 조건으로 자기가 통제할 능력을 지녔다는 자신감을 필요로 한다. 암 환자나 양로원의 환자들처럼 자기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병실 배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통제능력감을 줄 때 그 질병에 대처하는 태도도 더 향상된다는 것이다.

예일 대학교 실험에서 던지는 실험을 했는데 동전을 30번 던져서 15번은 앞쪽이, 15번은 뒤 쪽이 나오는 것이 확률이다. 그런데 동전을 30번 던지는데 처음부터 앞쪽이 자주 나와서 많이 이긴 피험자들은 앞으로 더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처음에 자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더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낮아졌다.⁶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과 현실 매사를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니는데 그 요구가 미신 행위의 중요한 동기의 하나이다. 미신적 신념을 지니고 미신 행위를 함으로써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스트레스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있을 때 미신적 행위를 함으로써 환상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카드놀이나 윗놀이를 하다가 게임이 잘 안되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몸의 자세를 바꾸는 등의 행위로 게임의 행운이 따라올 것을 기대하는 일을 보게 된다.(Vyse, p. 132-133)

한국민은 인간관계나 사회적 행위에서 남에게 통제를 많이 당했으므로 자신의 신상이나 운명에 관해서는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미신이 성행한

6. Vyse, *Belief and choice*, p. 131.

다. 스트레스는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위협하며 반대로 조금이라도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환상이라도) 가지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도박이 성행하는 이유도 미신성과 관련이 있다.

1991년 페르샤 걸프 전쟁때 이락의 스커드 미사일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여러 발 떨어지면서 예루살렘에는 한 발도 맞지 않았다. 그때 미사일을 맞은 지역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미신적 신념 수준이 더 높았던 것이 서베이에 나타났다. 그리고 모호한 상황을 견뎌 내는 능력을 덜 지닌 사람들이 미신성이 높았다는 것도 서베이에 나타났다. 위험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미신성이 높으며 어디에 살든지 불확실성에 대한 감내력이 낮은 사람들은 미신성도 높다. 불확실성에 대한 감내가 약하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므로 그런 사람들이 미신성이 높다는 이해가 된다.⁷

한국인들은 권위주의적 압력 속에서 자라나고 불확실성에 대한 감내력이 낮고 스트레스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신성도 높다는 일련의 가설을 검증해 민주 의식 변환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9) 미신성 즉 피상적 사고행위를 감소시키는 방법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보전하는 데는 다음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포착한 어떤 아이디어 (전제나 상념)을 그럴 듯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특정한 사람에게 직관 내용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받아들여지지만 제3자에게는 얼토당토않은 것일 수 있다. 어떤 수사관이 “이 살인 사건은 아무개 집단 범행이 틀림없어, 내 직감이 그래”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건의 진상과 범인을 미리 단정해 버리는 착오로 시작한다.

둘째, 신념은 권위에 따라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남에게 권위자, 전문

7. George Keinan, “Effects of stress and tolerance of ambiguity on magic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4, 67, 48-55.

가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그의 말을 수용하고 따르게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지위 자체(목사)를 갖고 자기 주장이 정당하다고 뒷받침하려 할 때 경계해야 한다. 성경이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마디도 사실 아닌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 자체를 권위 신뢰의 근거라고 생각할 때 오류가 생긴다.

셋째, 과학적이기 때문에 어떤 신념을 흔히 수용한다. 과학적이라는 말 자체가 때로는 단순한 직관이나 미신을 위장한 말일 수 있다. 또한 기존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입증된 것이라도 그 것 만이 단 하나의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수학에서도 어떤 하나의 숫자에 도달하는 데는 가감승제와 지수 대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알콜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학적 설명은 음주량에 따라 이롭 기도하고 해롭기도 하다는 불확정적인 것이다. 또한 과학적 방법의 결론에도 오차나 예외가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람의 신념은 완강한 지속성을 지닌다.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입증을 거치지 않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진화론을 거부하는 많은 아브라함계 종교(유태교, 기독교, 회교)인들은 단지 경전에 기록된 몇 줄의 창조론 문서에 집착하며 허다한 물증과 설명을 거부한다. (Vyse, p. 211-218)

한국인들이 피상적 사고와 미신적 행태에서 헤어나 좀 더 합리적으로 사고하려면 기존 신념들을 비판하는 훈련, 직관 보다 객관적 경험을 신뢰하는 훈련, 과학적이라는 미명 때문에 현혹되지 않는 냉정성, 그리고 어제의 진리는 내일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고의 융통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 최종적 초점은 각자가 내리는 결론(결정적 판단)을 분석하는 훈련이다.

어떻게 인지의 편향이나 학습 착오에 갇히지 않고 좋은,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일상적 훈련이 필요하다. 종교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런 억지를 부리며 사회적 피상성을 골수 신념으로 전파하여 미신의 무리들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치외법권에 안주하려고 저항해온 집단으로서의 성분을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공조 방식으로 드러나 사회정의 구현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질서(신의 나라)를 버리고 교권주의 추종자들의 종교집단들이 신의 나라의 객관적 질서를 거부하고 소집단의 비합리적 질서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자살적 테러를 순교라고 미화하고 목사의 공금유용은 교회 별도의 경리 질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찰의 수사는 정부의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 한국인의 높은 종교성을 자랑하는 사찰이나 교회들, 특히 10만 명대를 넘는 신도들을 자부하는 세계적 규모의 교회들은 비합리적 사고를 훈련시키는 학원들이다. 이런 종교 학원들은 적당히 허술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결정 대신에 비합리적 사고로 현실에 상반되는 결정을 내리는 착오 습성을 강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합리적 사고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하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주 5일제 근무로 시간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부동산 면허, 증권투자 교육 등 자기 향상을 위한 과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그런 사람들은 위한 학원도 생기는데 합리적 사고와 결정을 위한 학원이나 인터넷 프로그램도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려면 대학보다도 초 중급 학교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권위자들에 대한 평가할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권위자의 견해가 개인적 탐구에 의한 것인가, 개인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또 다른 권위자를 근거로 말하는 것인가, 그 호소하는 방법이 자기의 권위나 위세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증거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 그 권위자의 주장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는가? 제기된 증거의 질은 어떠한가 등을 광범위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Vyse, p. 215-6)

3. 잘못된 종교와 집단 지향 윤리

어느 겨울 점심시간에 나는 값싼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씹으며 길 건너편에 주차한 소금 묻은 (미국 북부 도시에서는 겨울에 도로에 쌓이는 눈을 녹이기 위해 염화칼슘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가 소금으로 덮이기 일쑤이다) 트럭을 보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 예수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3인칭 예수가 아니라 나 안의 1인칭 자아이다. 그 본연의 자아는 신이 나에게만 특허한 것이며 그 바탕에서 수많은 것을 배우고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자아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삶의 희열이건 비극의 연속이건 “나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3인칭 예수가 아니라 본연의 나를 통해서 신의 이미지를 충족하게 실현하거나 실패하는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영감은 광야나 철야 기도를 할 골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금에 절인 눈 쌓인 거리에 까만 새틴 승용차의 운전자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며 헤매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떠오른다. 그 영감은 나와 신이 직통하는 교감이다. 거기에는 중개자가 필요 없다. 신과 나와 2자 대화이다. 교회에 가면 어떻게 시도되나? 목사는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인물이나 사건을 문자 매체를 통해 그의 식견의 한계 안에서 이해하여 목사 자신이 중개자가 되어 전한다. 그 영감은 또 다른 중개자들을 거치어 전달된다.

여기에 루터가 말한 “나는 나의 사제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모세가 신을 광야에서 만나고 다윗이 그랬다면 나도 할 수 있어야 그 신이 나의 하나님이다. 핑계 많고 말 더듬는 모세나 사기성 많은 야곱이 신과 직접 대면을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할 이유가 있는가? 기성교회를 고치려 들거나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다. 그들은 본질의 밖에서 걷는데 그들을 상관하기 보다는 나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전력하면 된다.

아브라함은 나의 본질과 상관없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재물을 얻은 비겁성, 그런 것을 사람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이기적 목적주의와 사기성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탈맥락적인 맹목적 충성이 재물

과 영향력을 축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방정식을 신앙의 모범이라고 따를 수는 없다. 그것은 사회적 부도덕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소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적 모델이다. 부도덕조차도 신에 대한 충성에 가리고 미화하는 종교적 행태는 부분적으로는 유대교-기독교 전통 속에서 교권주의자들의 통제에 사람들을 복속시키려는 기만의 연속 시나리오였다. 또한 한국에서 단군 대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도들로 하여금 허구적인 축복을 위해 부도덕을 선택하고 자기 민족의 유래를 도외시하는 천박한 결과주의를 추구하게 했다. 만약 단군 설화에 아브라함 설화에서 보다는 더 충분하고 드라마틱한 재물 축복이 서술되었다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단군을 숭상하는 신학을 형성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신이 나의 첫 딸을 제사지내라고 명령했다면서 칼을 품고 고분고분 나의 딸의 등에 짐을 지워 그 손목을 잡고 산에 올라갈 무정한 아버지가 나는 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축복을 못 받고 영겁의 저주를 받더라도 딸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나의 선택일 것이다. 아브라함이 신의 본성을 이해했다면 신은 그런 유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그런 명령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답지 않은 잔인하고 옹졸한 명령입니다. 차라리 나를 이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게 하시고 이삭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을 신념의 조상이라고 존경할 만 하다. 그러나 그는 기회주의자이며 이기주의적인 종교 신앙인의 표본일 뿐이다. 그의 재물은 아내를 배신하고 자식도 배신한 대가이다. 아브라함은 노인 되어서 씨받이를 한 그 아들의 핏줄이 누구의 것이냐는 의처증과 질투심, 그리고 그 상속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아들을 처치하려는 계산에서 하나님을 핑계 대고 존속 살인을 의도하다가 마음을 돌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유전학 이론으로 말하며 종의 보전을 위한 이기적 본능의 연장에서 나오는 정서이기는 하지만 모든 동물에게서 부모-자녀의 사랑은 미적 가치를 지니며 아름다운 정서를 자아내도록 유전자 매핑에 조건 지워져 있다. 나는 나의 딸의 핏줄에 나의 유전인자가 섞이지 않았다고 DNA실험에서 입증되더라도

내가 포대기에 싸안아 우유를 먹이며 기저귀를 갈아 채우며 키운 딸의 생명을 어떤 이유로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나의 장기를 모두 내어주어 이식 수술을 하더라도 나는 나의 딸에게서 아무 것도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자식이 있다는 것이 가슴 벅차게 환희를 주는 것이다.

각박한 환경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이득을 위해 자식, 아내, 형제를 배신하는 이기주의도 신앙이라고 조장했지만 예수의 기독교는 그 반대이다. 예수라면 아내를 매춘시키기 보다는 자기가 중노동을 했을 것이며 아들 대신 자기 명줄에 칼을 대고 신에게 항변하다가 신이 양보하지 않으면 예수 자신이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전 서열에서 예수가 출생했다고 기록으로 주장하지만 마태복음 저자의 족보 나열은 동정녀 출산 주장과 서로 다르다.

나는 나의 신에 대한 신앙의 어떤 흐름에도 아브라함 같은 인간의 입김이 닿는 것을 경계한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만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의 신호가 포착되며 생명이 있건 없건 모든 사물에서 신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이다. 나는 굳이 산꼭대기나 성전으로 신을 예배하러 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 신은 나의 서재나 통근하는 열차간이나, 식당 앞의 길거리에나 어디에든지 임재 해 있는 신이다. 내가 이 신을 직접 만난다는 특혜감, 나는 신의 작품 중 유일하다는 긍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새 가능성과 윤리적 책임감과 건강의 확신을 준다. 그것의 존재의 윤리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임의 윤리이다. 어떤 사건 경험이나 발생하는 윤리가 아니라, 어떤 객체적 증거나 타인의 속성에서 발생한 것을 모방하는 윤리가 아니라 내가 나임으로써 나의 존재 상태가 지닌 사건을 일으킬 잠재력의 윤리이다. 그렇지 않고 남 (아브라함에게서건 슈바이처에게서건)에게서 발생한 패턴을 따르라고 압력을 주면 그런 윤리 행위를 자기의 것으로 트랜스퍼 (이전-전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엉뚱한 행위들이 나온다.

자기 본질에서 연원하는 윤리 패러다임은 자기의 본연 그대로를 창 의

하며 추구하지만 사건이나 타인을 모델로 하는 윤리 패러다임은 자기 외의 타자적 사건에서 모방하며 추구한다. 신앙관 선택이 창의를 신앙이나 모방의 신앙이냐는 것은 행위(윤리 측면이건 직업 수행 행위기건)의 자발성과도 관계된다.

모방적 신앙관의 사람은 항상 자기의 행위에서 외재적 원인을 의식하며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해 자신이 소유주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결단 행위에 자신감이 없고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성취감 주장이 낮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자기 밖의 탓으로 돌리는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사람의 삶은 성취에서 충실이 없고 책임을 지는데서 항상 도피구가 있다. 모방적 신앙, 모방적 윤리의 결과가 그런 것이다. 한국 문화에서 개성을 허용하지 않고 집단적 가치관과 규범에 준봉하도록 오랜 세월동안 압력을 가해 왔던 것이 “성취”라는 가치 추구에서 많은 윤리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경유착이나 각종 경제 범죄, 그리고 사치성 과시 행위의 저변에는 성취의 동기가 깔려 있다. 과시할 수 있는 측면을 지닌 성취의 결과(정치적 권력 과시이건 젊은 사람들의 브랜드 명품 전시이건)를 추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표출되지 않는 비도덕적 행위를 감행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행위들의 벡터(vector)가 개입된다. 그 하나인 과시 행위에는 평상적 요구(생존에 필수적인 것, 소속감과 적절한 인정감의 필요)들의 충족을 넘어서 군중에서 뛰어나 보이려는 출중 욕구가 한 개의 행위 벡터로 작용한다. 첫째 벡터를 수행하는 수단인 둘째 벡터는 합법-윤리적인 행위에 머물 수도 있지만 그 윤리적-합법적 한계선을 넘는 것을 탈선의 벡터일 수 있다. 자율적 신앙관과 자율적 행위자들은 그 두 개의 벡터들의 길이(다이나믹의 양)를 스스로 조정할 능력이 있지만 타의적 신앙관과 타의적 행위자들은 그 절제선 넘어로 끌어내려는 타자적 영향력에 저항하기 어렵다. 그래서 준봉의 사회에서 더 해괴한 부도덕과 강력 범죄가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흉악한 엽기적 살인이나 경제범죄, 테러 행위 같은 범죄의 시나리오를 보면 자기 밖의 갱 집단 혹은 사이버 종교나 악령에 쫓기는 정신 질환 등이 등장한다. “사람이 제 정신으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기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잘못된 종교도 사람의 자기 정신을 앗아가는 원흉의 하나이다.

4. 평신도 의식 활력화

평신도 의식훈련

16세기의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 세계의 문명화를 주도해왔던 기독교는 지금 그 자체의 쇠락에 당면했으며 극단주의 회교의 폭력 도전으로 인한 “문명의 충돌”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기독교회는 르네상스 이후 4세기 동안에 이뤄놓은 문화와 예술의 유산으로서 관광자원 가치는 지녔으나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방향지식의 제공처로서는 ‘개점 휴업’ 상태에 이르렀다. 백인 문명권에서 유일하게 종교성이 높은 미국의 종교 역시 유신론자들은 많으나 교회 참여와 신앙의 생활화가 쇠퇴하여 유럽의 현상을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기독교를 외래 종교로 전파받은 한민족의 기독교회들이 퇴락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사회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전제로 과거 유교, 불교를 정착시키는데 토양이 되었던 샤마니즘의 한 자락에서 변성해왔다. 그 기복신앙이 개발로써 경제성장을 성취한다는 유사종교적 이념과 접합하여 한국의 기독교회도 개발과 교회성장이라는 패러다임에 무임편승하게 됐다. 개발에는 과잉개발에 의한 자원 및 정신의 피곤증이 따르며 부의 성취는 성공의 철학이라는 궤변을 통해 부패현상을 초래한다. 기독교 성직자들은 축복이라는 개념과 욕심을 구분하지 않고 신도들을 독려하여 대형 교회로의 성장이 곧 신앙의 목표라는 경영학적 실천신학을 확립했다.

그러한 자기 성취를 추구하는 수량적 개념을 개인의 축복이며 교인수의 증대를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대치시켜버렸다. 이러한 구원 본질을 망각한 성직자들은 대형교회를 건설하여 자신을 기업체의 씨.이.오로 착각하는 신분상승을 하게 됐다. 그들은 교인들에게는 복종을 경건의 기준으로 가르치며 부패한 교회에 신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사치를 추가하여 교인들을 환각에 도취하게 만들고 있다. 선교라는 지상과제는 가난한 신도들 특히 ‘과부들이 엽전으로 모은’ 하나님의 기금을 정신 질환적으로 낭비하며 정당화한다. 교회의 업무 처리에는 절차개념이 실종되고

목사의 지시가 곧 규범이 되어 인간관계의 공정성, 그리고 교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은 실종됐다. 목사가 자식에게 교회를 상속하는 일이 정당화되고 사업체를 매도하듯이 교회를 거래하게 됐다. 좌절감에서 탈출하려는 심리적 발작이나 췌민술에 빠지는 맹종을 영성이라고 포장하는 종교적 사기행위자들이 유능한 복음의 사도로 착시되는 환각현상도 발생하게 됐다.

미주 한인교회들이 아브라함 모델을 빌려 이민신학을 논하던 1970년대는 반세기 전이며 지금은 미국 토양에서도 교회 성장의 숫자 타령외에는 신학이라는 말에는 병어리요 귀먹어리다. 미주의 한인 기독교회들이 3천여개에 이른다고 하지만 그 실천신학의 유형은 한국 교회들의 모델을 뒤따르고 있다. 한국의 교회 모델에서 겨우 건져낸 개념으로 문화신학을 빌려 쓰지만 그것은 메탈 뮤직과 신체울동을 예배에 혼합하고 소음으로 예배를 각색하여 ‘열린 예배’라고 한다. 그렇게 해도 기껏해야 ‘케이 팝’의 아류에 불과하다. 한류라는 ‘케이 팝’은 한국 민족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칸 아메리카들의 원초적 울동을 카피하여 한국의 철없는아이들이 흥내내는 재주로 더 꺾충대는 연출형태이다. 그런 ‘예배문화’는 기독교의 신(하나님)을 향해 ‘열린 예배’가 아니며 성령의 임재를 휘방하는 ‘닫힌 예배’이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신학이 실종된 지 이미 여러 해 됐다. 해방신학과 그 아류인 여성신학이 풍미하던 기억도 까마득하며 단지 환경신학이 지구의 오염과 온난화 문제에 끼어 맞돌아가고 있다. 신학이 자연환경 변화에 끼어서 맞돌아가는 현상은 신을 순봉하는 지도자들이 스스로 신을 찾아 질문하려는 현상이 아니라 환경 요건에 밀려 타율적으로 반응하는 조건반사 현상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각성한 기독교 리더들은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개탄한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종교개혁의 대상이던 과거의 성직자들이며 현재 교회에서 부패한 목사들과 어울려 충성을 하는 중직 신도들이다. 그들은 “나는 말고 죄인인 당신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전도와 개종 개념에 익숙해서 오랫동안 자기 성찰을 외면해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종교개혁을 말하지만 그 말은 자신들의 신실성 및 역량을

과대평가하면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의 크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속수무책의 말이다. 나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피하고 싶다. 나는 단지 우리 각자가 먼저 자기 성찰을 하면서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여건을 조금씩이나마 바꾸어가는 노력들을 하자고 “새로이”라는 말을 선택했다. 의사가 환자를 환자 상태로 두어두며 치료비만 받아먹는 여건에서 환자는 자기 병의 원인을 이해하여 자기를 고치고 병원의 풍토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거창한 말 대신에 “평신도의 의식 훈련”이라는 개념을 추구하려고 한다.

2014년 1월 이윤모

“이 블로그는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종교의 맥락에서 이해하며 전문적인 연구 결과와 이론들, 그리고 행동 방안에 관한 나의 아이디어들을 나누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입력을 받아 합성해나가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출발하려고 한다.”

*이 글은 고 이윤모 박사가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게재한 글입니다.

이윤모 박사 학력 및 약력

1939년 강원도 원주 출생

1954년 3월: 원주중학교 졸업

1957년 2월: 배재고등학교 졸업

1961년 3월: 서울대학교 (현 농업생명과학대) 학사 취득

1965년 11월: 대한민국 육군 병장 제대 (보병 66연대 군중하사관 복무)

1966년 12월: 서울 감리교 신학대 졸업(신학사 취득)

1967년 3월-68년 3월: 기독교 감리회 전도사 시무 (파주군 월롱면 감리교회)

1968년 4월-70년 8월: 한국 기독교서회 편집국 근무

1970년~71년: 5월: 미국 애스베리 신학교 (Asbury Theological Seminary, KY) (Th.M. 신학석사과정 수료- 종교 심리학 및 목회상담학 전공/ 논문 초고: 빅터 프랭클의 Logotherapy의 실용성).

1971년 12월-1990년 5월: 한국일보 시카고 지사 근무(창설 편집국장 및 주필 역임)

1972년: 10월 김화식 여사와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결혼

1973년: 로올라대학원 입학

1978년 5월: 시카고 로올라대학교 사회학석사 (M.A.) 취득 (논문- 한인의 지위 불일치감과 종교적 헌신)

1980년: 한인 연장자 주택공사 이사로 시무, 노인주택 필요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 이를 근거로 연방자금을 받는 프로젝트 추진. 연방 주택청 자금으로 무궁 테라스 건립. 이어 코람 아파트 건립

1987년 5월: 시카고 로올라대학원 사회학박사 (Ph.D.) 취득 (논문- 권위주의 인성의 자생조직 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식 변화).

1989년: 시카고 KAES 대학 객원교수 (사회학 입문 강의).

1990년 5월-1992년 5월: 시카고 한국 TV 사장

1990년-91년: 시카고 Roseland 한흑 분규시 한인상우협회 대변인으로 서 시의원과 주류 언론을 상대로 분규타결.

1992년 5월-2006년 12월: 일리노이 주정부 인권국(Illinois Dept. of Human Rights) 근무- 연구. 기획. 개발실장 (Chief of Research, Planning & Development) 직책 외에 Federal Grant Project Director, Webmaster, Strategic Planner, 다수의 Special Task Force Chairman 등 겸무. (공식 은퇴).

1992-96년: North-shore Housing Resources Board 이사.
 1995년: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70년사 집필
 1995-98년: Interfaith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이사.
 1996-98년: 자선 재단 United Way/Crusade of Mercy-Chicago의
 Discrimination Action Grant Review Committee 위원 봉사.
 1996-2007년: 미 연합감리교단 (UMC) 북 일리노이 연회의 Congre-
 gation Development Research Religion and Race Communications
 등 3개 커미션에 봉사).
 1997-2000년: 일리노이 Asian American Institute 이사 및 연구 자
 문위원
 1998-1999 학년도: 로올라 사회사업대학원(School of Social Work,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객원교수로 인종.민족.다문화 (Race,
 Ethnicity, and Culture)과목 및 사회사업 연구방법론(Social Work
 Research Methodology) 강의
 2000년~2002년: 한미 시민연합 창립멤버 부회장
 2001-02년: 미 중서부 한미시민연맹 (Korean American Coalition of
 the Midwest (KACM) 창설 부회장 임직. 남북 이산가족 재회 추진
 10만명 서명서를 2001년 미 국무장관에 전달토록 기획, 실행.
 2004년 11월: 시카고 한인 썬크 탱크로 Korean Americ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창설
 2005년~2018년: 한인사회연구원 이사(2005년~2011년 초대 회장)
 2009년: 다인종,복합문화 훈련업체인 Global Diversity Solutions
 Group, LLC의 리서취 담당 파트너. (<http://www.globaldiversity-solutions.com>)
 2008년~2017년: 한인 일간지와 주간지 칼럼인
 2009년-10년: 서울대학교 재미 동창회 회보(월간지) 주필.
 2012년 9월-12월: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특강: 사례로 본 미국의 인권차
 별과 법적 대응 방안. 8 주 시리즈 세미나; 센서스 데이터로 본 재미
 한인사회 잇슈.
 2018년 6월 6일: 소천

전문 연수 및 훈련

1971년 1월: Kentucky Eastern State Mental Hospital, IPR 그룹 카운
 셀링 인턴십 수료.
 1992년: Gabriel Richard Leadership Institute, Leadership Develop-

ment 10주 수료.

1992년 5월: State of Illinois 인권 차별 조사관 훈련과정 이수.

1993년-99년: State of Illinois 행정간부 각급 경영훈련(Administration/Management training)으로 Staff Supervision, Stress Management, Sexual Harassment, Diversity and Conflict Management, Affirmative Hiring Interview Procedures, Labor Relations Management, Thinking Outside of Boundaries, Middle Managers' Leadership, Internet Workshop 등 컨퍼런스/워크샵 이수.

1993년 1월: 연방 주택·도시 개발부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Grant Project Administration 컨퍼런스 수료.

1994년 3월-5월: Toast Masters of Mt. Prospect, 대중 연설(Public speech drill) 훈련.

1997년: 시카고 존 마셜 법과대학원 (John Marshal Law School): Housing Discrimination Enforcement 과정 이수.

1997년: 연방통계청(U.S. Census Bureau) Census Data User Workshop 이수.

2003년 9월: 공공기관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 워크샵 이수.

저술 및 강연

번역서 단행본 2권 출판 (1969년: Dale Carnegie,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과 1970년 5월: 세계 교회협의회 (WCC) 사회개발 Task Force 보고서 <Line and Plummet>을 오재식과 공동번역, 기독교서회 출간. 동년 한국 교회협의회 (KNCC) 컨퍼런스 교재로 활용.

1995년 9월: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70년사> 저술

2019년 6월: <이윤모 박사 칼럼집> 저술, 출판

2020년 6월: <믿음에 관한 종교-사회학 논고>(Essays on Sociology of Belief) 저술 출판

다수의 학술지 논문과 신문 칼럼, 리서취 리포트 등 출간

미국 주류 언론(Chicago Tribune, Sun Times, New York Times, WGN-TV, ABC-TV, CBS-TV, CNN-TV 및 WVON-AM을 비롯한 전파 매체와)와 한인 언론에 인터뷰와 실적 보도됨.

HANSA INSTITUTE (한인사회연구원)

Who We Are

We are a volunteer organization consisting of social scientists and leaders in the Korean community who came together to produce systematic scientific information on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and Asian immigrant community in the Chicago-land area.

Hansa Institute (formerly Korean American Research & Development: KARDI) is a Section 501 (c)(3) nonprofit organization. It registered with the State of Illinois Office of the Secretary in March 2005, and received federal tax exemption status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on January 27, 2010 Through pro bono service of Mr. Hun S. Sohn (Taxon Corp).

The Purposes of the Hansa Institute are:

1. to conduct research on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to promote educational and training opportunities in the community,
2. to advocate the issues of the community to public and private entities,
3. to protect and promote Korean American's civil rights and welfare, and to develop resources and means that are needed in achieving these goals.

Our Mission

To conduct research on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community's cohabitation with other race/ethnic groups in the United States and to develop knowledge, resources and programs to enhance the well-being and the human rights of the Korean Americans.

Our Priority Research Topics

In March, 2005, the Board of Directors reviewed the community issues brought up by the steering committee, and set priorities of research and project development.

Because the tasks involved in each of the research topic are so complex and demanding huge amount of resources (personnel and money), the research committee have strategized to start with first two key issues that are most urgent and significant to the community.

1. Problems with Korean-owned small businesses: High competition with poor success rate; need of transition from mom-and-pop stores to larger scale operations.
2. Succession of community leadership and resources to the emerging generation.



한인사회연구원
HANSA INSTITUTE
<http://www.hansainstitutue.org>
hansainstitute@gmail.com
Chicago, IL USA